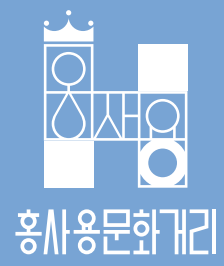


2020 지역문화컨설팅 지원사업



홍사용문화재단

동탄신도시 '홍사용 문화거리'
조성에 따른 문화예술 활성화 전략 컨설팅



제 출 문

본 보고서를

[2020 지역문화컨설팅 지원사업]

동탄신도시 '홍사옹 문화거리' 구성에 따른
문화예술 활성화 전략 컨설팅의 최종성과물로 제출합니다.

2020년 12월

화성시문화재단 대표이사

2020 지역문화컨설팅 지원사업

동탄신도시 '홍사옹 문화거리' 조성에 따른 문화예술 활성화 전략 컨설팅

목차

I.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II. 문화의 거리 개념 및 범위

1. 문화의 거리 개념 및 확산배경	6
2. 문화의 거리 관련 법령 및 정책	13
3. 소결	26

III. 문화의 거리 활성화 사례검토

1. 해외사례	29
2. 국내사례	45
3. 정책적 시사점	63



IV. 동탄신도시 문화예술 활성화 여건 및 현황분석

1. 동탄신도시 지역 여건 분석	67
2. 동탄신도시 문화예술 기반 분석	83
3. 홍사용 생애 및 주요활동	97
4. 홍사용 문화거리 조성사업 추진경과	101
5. 동탄신도시 거리활성화 사례 : 센트럴파크 인근 행사	109

V. 홍사용 문화거리 활성화 방안

1. 기본방향	117
2. 전략별 추진과제	130
3. 연차별 운영계획 및 로드맵	156

홍사용 문화거리 사업지도 및 연간운영계획	160
------------------------	-----

부록	162
----	-----

참고문헌

홍사용 문화거리 조성에 따른 시민설문조사지

현지조사 결과 및 시민 간담회 회의록

자문위원 의견서

홍사용 문화거리 브랜드마크 BI	196
-------------------	-----



표 차례

■ 표 I

표 II-1	참여기관(단체)별 추진내용(안)	5
--------	-------------------	---

■ 표 II

표 II-1	선행연구 출처 및 내용(1)	6
표 II-2	선행연구 출처 및 내용(2)	7
표 II-3	문화의 거리 유형기준에 따른 유형 분류(1)	8
표 II-4	문화의 거리 유형기준에 따른 유형 분류(2)	9
표 II-5	가로의 구성요소	10
표 II-6	문화예술진흥법 주요 내용	14
표 II-7	문화지구 관련 지역문화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	15
표 II-8	지방자치단체별 문화의 거리 조례 주요사항 및 내용	16
표 II-9	화성시 문화예술진흥조례 주요내용	21
표 II-10	화성시 생활문화진흥조례 주요내용	22
표 II-11	「노작홍사용문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3
표 II-12	화성시 주요 발전계획 문화예술정책부문 구분	24
표 II-13	화성시 민선7기 10대 핵심과제 81개 공약사업 거리예술 활성화 사업	25

■ 표 III

표 III-1	해외 사례조사 대상	29
표 III-2	하이라인 파크 사업 추진 경과	31
표 III-3	하이라인 파크 주요 프로그램 소개(1)	32
표 III-4	하이라인 파크 주요 프로그램 소개(2)	33
표 III-5	2K540 Aki-Oka Artisan의 활용사례 분석	35
표 III-6	공간별 매장 현황(1)	36
표 III-7	공간별 매장 현황(2)	37
표 III-8	공간별 매장 현황(3)	38
표 III-9	새로운 주문자에 관한 의정서에 따른 각 주체별 역할	40
표 III-10	새로운 주문자 프로젝트 디종대학 사례 분석	41
표 III-11	새로운 주문자 프로젝트 들라크루아가(街) 사례분석	42
표 III-12	김광석 거리 추진 과정	48
표 III-13	김광석 거리 주요 시설	49
표 III-14	김광석 거리의 시설 및 프로그램 현황	49
표 III-15	김광석 거리 세부요소	50
표 III-16	행궁동 벽화거리 사례분석	52



표 III-17	행궁동 벽화별 위치 및 주요 작품	53
표 III-18	행궁동 벽화골목 인근 주요 문화예술 거점 현황	54
표 III-19	인천광역시 문화예술특화거리 조성사업	57
표 III-20	인천광역시 문화예술 특화거리 조성사업 2019 추진경위	58
표 III-21	점점점 프로젝트 지원내용	61
■ 표 IV		
표 IV-1	동탄신도시 지목현황	68
표 IV-2	동탄신도시 연도별 인구 현황	69
표 IV-3	동탄신도시 동별 인구 현황	70
표 IV-4	동탄신도시 연령별 인구 현황	71
표 IV-5	대상지 버스정류장 버스 정보	79
표 IV-6	홍사용 문화거리 평일과 주말의 유동인구 분석	80
표 IV-7	화성시·동탄신도시 문화기반시설 현황(2019년 기준)	83
표 IV-8	동탄복합문화센터 시설현황	84
표 IV-9	동탄복합문화센터 공연장 시설현황	85
표 IV-10	화성시 미디어센터 전경	85
표 IV-11	화성시 미디어센터 시설현황	86
표 IV-12	노작홍사용문학관 시설현황	86
표 IV-13	노작홍사용 문학관 주요 공간구성	87
표 IV-14	동탄중앙이음터도서관 시설 및 현황	87
표 IV-15	동탄신도시 생활예술단체 현황	88
표 IV-16	화성시문화재단 부서별 주요업무	90
표 IV-17	화성시문화재단 2020년도 사업계획	92
표 IV-18	화성시문화재단 시설 및 행사 연간 이용인원 현황	93
표 IV-19	노작홍사용문학관 주요사업	95
표 IV-20	노작 홍사용 주요 작품 및 활동 연보	99
표 IV-21	홍사용 문화거리 조성계획(안)	104
표 IV-22	홍사용문화거리 구역별 디자인 컨셉(A-F)	106
표 IV-23	동탄예술시장·생활시장 화인 기간 및 장소	110
표 IV-24	동탄예술시장·생활시장 화인 주요 프로그램	111
표 IV-25	삼성나눔워킹페스티벌 연혁(2)	112
표 IV-26	동탄 굿마켓 연혁 및 내용	114
표 IV-27	재활용 나눔장터 연혁	115
표 IV-28	2017~2019 센트럴파크 인근 행사 월별운영현황	116



◆ 표 V

표 V-1	홍사용 문화거리 내·외부 환경 및 역량 분석	118
표 V-2	홍사용 문화거리 전략방안 도출	119
표 V-3	홍사용문화거리 시민의견 조사개요	121
표 V-4	조사내용	121
표 V-5	응답자 특성별 노작 홍사용에 대한 인지도	122
표 V-6	홍사용 문화거리 조성 대상지역 방문 빈도	123
표 V-7	노작홍사용 작품에 연상되는 이미지 또는 키워드	123
표 V-8	홍사용 문화거리 조성 대상지역 방문 목적	123
표 V-9	홍사용 문화의 거리 조성이 시민들 삶의 질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 정도	124
표 V-10	홍사용 문화거리 대상지역 이용시 불편사항	124
표 V-11	홍사용 문화거리 조성시 우선사항	125
표 V-12	홍사용 문화거리 조성시 희망사항	126
표 V-13	홍사용 문화거리와 가장 잘 어울리는 기존 행사	126
표 V-14	홍사용 문화거리에 가장 적합한 문화예술 활동	126
표 V-15	홍사용 문화거리 문화예술 활동 참여 의향	127
표 V-16	홍사용 문화거리 문화예술 활동 참여유형별 선호도	127
표 V-17	홍사용 문화거리 조성에 따른 긍정적 효과에 대한 인식도	128
표 V-18	연계 가능 기존 사업 프로그램	131
표 V-19	생활시장 화인 세부 프로그램	132
표 V-20	찾아가는 공연장 추진 현황	133
표 V-21	찾아가는 공연장 프로그램	133
표 V-22	미디어동아리 페스티벌 프로그램	134
표 V-23	코리요 홍보 사업 추진 현황	135
표 V-24	찾아가는 시네마 식객 연출 현황	136
표 V-25	화(華)화(畵)화(和) 프로젝트 세부 프로그램	137
표 V-26	2019 홍사용 문학제 프로그램	138
표 V-27	노작문화교실 활동예시	145
표 V-28	신규 콘텐츠 사업 프로그램	149
표 V-29	2019 전국 문화재단 지역특성화 매칭펀드 현황	151
표 V-30	메세나를 통한 노작 레지던시 사업 운영구조	153
표 V-31	메세나 참여 제외 기업 기준 및 업종	153
표 V-32	문화의 거리 평가지표	158

그림 차례

■ 그림 I

그림 I-1	연구의 배경	1
그림 I-2	홍사용 문화거리 활성화 전략 컨설팅 연구방향	2
그림 I-3	연구구성도	4
그림 I-4	컨설팅 구성 및 분담내역	5

■ 그림 II

그림 II-1	가로의 구성요소 및 상호작용	10
그림 II-2	문화예술부문 중앙법령 및 정책 요약	13
그림 II-3	광역지자체별 문화거리 및 특화거리 조례 주요 현황	17
그림 II-4	제2차 지역문화진흥계획 핵심가치 및 비전	20
그림 II-5	문화거리로서 가로의 구성요소	26
그림 II-6	법령 및 정책구조와 홍사용 문화거리	27

■ 그림 III

그림 III-1	하이라인 파크 전경	30
그림 III-2	2K540 Aki-Oka Artisan 매장 배치도	36
그림 III-3	2K540 아키오카 아티잔 운영구조	39
그림 III-4	새로운 주문자 프로젝트 클러스터 현황	43
그림 III-5	2020 전국지역특화거리 키워드 분석	45
그림 III-6	김광석 거리 전경	46
그림 III-7	김광석거리 위치	47
그림 III-8	2016년 개발규제로 인한 갈등과 훼손된 행궁동 벽화	55
그림 III-9	2018 행궁동 벽화 복원 프로젝트 공모	56
그림 III-10	인천시 문화예술 특화거리 사업장소 위치	59
그림 III-11	인천시 문화예술특화거리 <점점점> 사업요약	60
그림 III-12	인천시 문화예술특화거리 <점점점> 참여 예술인(팀)별 프로젝트	60
그림 III-13	국내외 사례분석 시사점 도출	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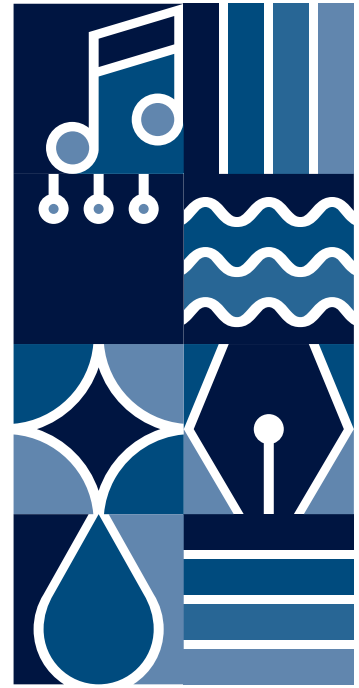
■ 그림 IV

그림 IV-1	화성시 및 동탄신도시 권역 구분	67
그림 IV-2	동탄신도시 교통망	72
그림 IV-3	동탄신도시 생활 변화상	73
그림 IV-4	동탄1, 2신도시 지도(1)	75
그림 IV-5	동탄신도시 지도(2)	76
그림 IV-6	대상지 교통현황 분석도	78
그림 IV-7	평일 유동인구 키워드 분석	81
그림 IV-8	주말 유동인구 키워드 분석	81
그림 IV-9	홍사용문화거리 인접 문화기반시설	83
그림 IV-10	동탄신도시 생활예술단체 장르별 활동인원	88
그림 IV-11	화성시 전문예술법인·단체 현황	89
그림 IV-12	화성시문화재단 조직도	90
그림 IV-13	화성시문화재단 비전 및 목표	91
그림 IV-14	화성문예아카데미 장르별 수강인원 현황	93
그림 IV-15	노작홍사용문학관 비전 및 목표	94
그림 IV-16	동탄신도시 문예기반분석 테마도출	96
그림 IV-17	화성군 동탄면 석우리(돌무리), 현재 동탄신도시 일대	97
그림 IV-18	홍사용 문화거리 전체 디자인	105
그림 IV-19	2015 동탄예술시장 시범운영 대상지	109
그림 IV-20	동탄예술시장·생활시장 화인 연혁	110
그림 IV-21	동탄예술시장 변화	111
그림 IV-22	삼성나눔워킹페스티벌 연혁(1)	112
그림 IV-23	삼성워킹나눔페스티벌 코스	113
그림 IV-24	동탄 굿마켓	114
그림 IV-25	재활용 나눔장터	115

■ 그림 V

그림 V-1	홍사용 문화거리 활성화 컨설팅 핵심가치 및 방향	117
그림 V-2	추진전략	120
그림 V-3	노작홍사용에 대한 인지도	122
그림 V-4	홍사용문화거리 조성지 방문목적	124
그림 V-5	홍사용 문화거리 조성시 우선사항	125
그림 V-6	홍사용 문화거리에 가장 적합한 문화예술활동	127
그림 V-7	홍사용 문화거리-콘텐츠 운영 개념도	130
그림 V-8	어린이가 주체가 되는 주민 참여의 장 프로그램 예시	139
그림 V-9	‘시민의 이야기가 담긴 책’ 책거리 조성 예시	140
그림 V-10	홍사용 관련 창작 공모축제 참조 프로그램	141
그림 V-11	청소년 대상 '몸 프로젝트' 프로그램 예시	142
그림 V-12	주민이 참여하는 커뮤니티 아트(공동체 예술) 프로그램	143
그림 V-13	유휴공간을 활용한 문화예술 교육 지원사업 참조 프로그램	144
그림 V-14	문화자치위원회 구성 예시	146
그림 V-15	홍사용 온라인 창작 마을 구성 예시	147
그림 V-16	지역 네트워킹 파티 구성안	148
그림 V-17	문화지도 제작 예시	149
그림 V-18	지역별 메세나 활동 사례	152
그림 V-19	노작 홍사용 관련 매체 과거와 현재	154
그림 V-20	홍사용 문화거리 연간 사업 운영계획(안)	155
그림 V-21	공간 사람, 문화적 활동과 예술을 연결하는 문화플랫폼	156
그림 V-22	홍사용 문화거리 연차별 운영계획	156
그림 V-23	홍사용 문화거리 활성화 전략 로드맵	159





I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I.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1) 동탄신도시 이주민의 낮은 정주의식

| 그림 I-1 | 연구의 배경



- 현재 화성시 인구의 약 43%가 생활하는 동탄신도시는 자족형도시를 표방하였음에도 공동체적 기반이 약해 지역정체성이 아직 형성되지 못함
- 이에 동탄신도시 생활권 단위 주민에게 지역의 특색 있는 콘텐츠와 이것이 이루어질 공간이 함께 요구됨

(2) ‘홍사용 문화거리’ 명명과 「2020년 홍사용 문화거리 경관 개선사업」 추진에 따른 공간특성강화 전략 수립 부재

- 화성시는 반송동 93-5 일원을 ‘홍사용 문화거리’로 명명하고 「2020년 홍사용 문화거리 경관 개선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문화적 관점의 거리활성화 전략이 부재한 상태임

(3) 문화사업 구조의 변동

- 광의적 의미의 문화는 소비행위이자 대상으로 도시경제를 풍요롭게 만드는 부가가치의 흐름을 만들어 내고, 문화가 정체성을 통해 도시를 살리는 하드웨어인 동시에 다양성을 통해 삶을 풍요롭게 하는 소프트웨어로 기능
- 문화사업의 구조는 과거 하향식 제안에서 시민이 주체가 되는 상향식 구조로 변화하고 있어 문화거리 활성화에도 시민과 지역이 활동의 근간으로 작용하는 체계로의 적용이 기대되고 있음

2) 연구의 목적

- ‘홍사용 문화거리’ 조성 및 「2020년 홍사용 문화거리 경관 개선사업」 추진과 병행한 단계별·부문별 공간특성강화 전략 수립으로 동탄신도시 거주민의 문화적 공동체 의식 형성을 지원하고자 함

| 그림 1-2 | 홍사용 문화거리 활성화 전략 컨설팅 연구방향



- 이에 문화의 거리 개념과 각 지방자치단체별 문화의 거리 지정 및 운영 현황, 화성시의 문화예술정책 검토를 토대로 중앙정부 및 화성시의 정책기조가 ‘홍사용 문화거리’ 활성화 전략 컨설팅과 조율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함
- 국내외 문화의 거리 사례 조사·분석을 통해 각 유형별 분석과 시사점을 도출하고, 동탄신도시의 문화여건과 환경을 고려하여 연구방향 설정에 반영
- 화성시 문화재단 및 유관기관과 지역문화예술단체의 개별적이고 제한적인 사업·참여 형태에서 주체별 참여기회의 확대와 ‘홍사용 문화거리 T자 축’으로의 사업 공간 확장 및 기관별 사업 연계방안을 제시

- 한편, 화성시의 대표적인 문화예술인으로서 ‘홍사용’의 생애 주요 활동과 정신에서 ‘도전’, ‘포용’, ‘공유’라는 핵심가치를 도출하여 콘텐츠 기획함
- 핵심가치 설정에 따라 대상지의 가로환경과 참여주체, 문화활동을 고려한 단계별·부문별 ‘홍사용 문화거리’ 활성화 전략수립과 로드맵 제시를 통해 문화를 기반으로 한 동탄신도시 거주민의 공동체 의식 형성을 도모할 수 있는 계획을 마련하고자 함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범위

(1) 공간적 범위

- 화성시 반송동 93-5 일원
(노작 홍사용문학관-화성시미디어센터-동탄복합문화센터-선큰공원)

(2) 시간적 범위

- 현황분석 및 사례검토 : 기준년도 2019년
- 연구추진 기준 : 2020년 5월부터 11월까지 6개월
- 정책추진 기준 :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개년

(3) 내용적 범위

- 문화의 거리 개념 및 관련 국내외 정책사업 분석
 - 국내 문화의 거리 도입과 현황을 분석하여 문화의 거리 유형을 분류하고 각 지자체의 추진현황 및 국내외 문화의 거리 및 유사사례를 조사하여 시사점을 도출
- 화성시 문화재단 외 유관기관 동탄신도시 거리문화예술 사업 조사 및 화성시 문화예술단체 현황 조사
 - 동탄신도시를 사업공간으로 하는 관내 문화예술 유관기관 및 화성시 문화예술 단체의 현황을 조사하여 ‘홍사용 문화거리’로의 사업지 확장 및 기관별 연계방안을 제시함
 - 또한, 화성시를 활동배경으로 하는 문화예술단체의 현황을 조사하여 부문별 참여방안을 제안함
- 국내외 문화의 거리 사례 조사·분석
 - 국내외 문화의 거리 사례 조사·분석을 통해 각 유형별 분석과 시사점을 도출하고, 동탄신도시의 문화여건과 환경을 고려하여 ‘홍사용 문화거리’ 활성화 전략 수립
- ‘홍사용 문화거리’ 활성화를 위한 단계별·부문별 로드맵 제시
 - 단순한 인물 홍보형 문화의 거리에서 나아가 ‘홍사용’의 생애를 기반으로 한 핵심 가치와 행위가 ‘홍사용 문화거리’ 활성화를 위한 콘텐츠에 조응할 수 있는 단계별·

부문별 로드맵을 제안하고, 이를 통해 문화를 기반으로 한 동탄신도시 거주민의 공동체 의식 형성을 도모할 수 있는 실천적 방안을 제안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2) 연구의 방법 및 구성

- 연구내용과 절차에 따른 연구방법은 아래와 같이 문헌연구, 공동연구진 협의회, 전문가 자문회의 및 설문조사로 구성함
- 전문가 자문회의는 화성시 및 화성시문화재단 및 각 분야별 전문가, 연구진 외 회차별 유관기관 담당자의 참석으로 탄력 운영함

| 그림 1-3 | 연구구성도



(1) 추진방향

- 지역문화컨설팅단 구성·운영
 - 외부 : 외부전문가(6인) 지역문화콘텐츠 개발(안) 자문·개선방안, 분야별 전략수립
 - 내부 : 문화예술 전문기관, 예술단체, 주민협의체 협업구조로 지역문화콘텐츠 개발운영
- 지역 문화예술기관(단체) 참여 및 연계 방안
 - 화성시문화재단(문화도시팀, 미디어팀, 시민문화팀, 생활문화팀, 독서문화진흥팀)
 - 관내 문화예술 단체(홍사용문학관)
- 화성시문화재단 5팀 협업구조 구축, 홍사용문학관, 지역예술단체, 주민협의체 공동참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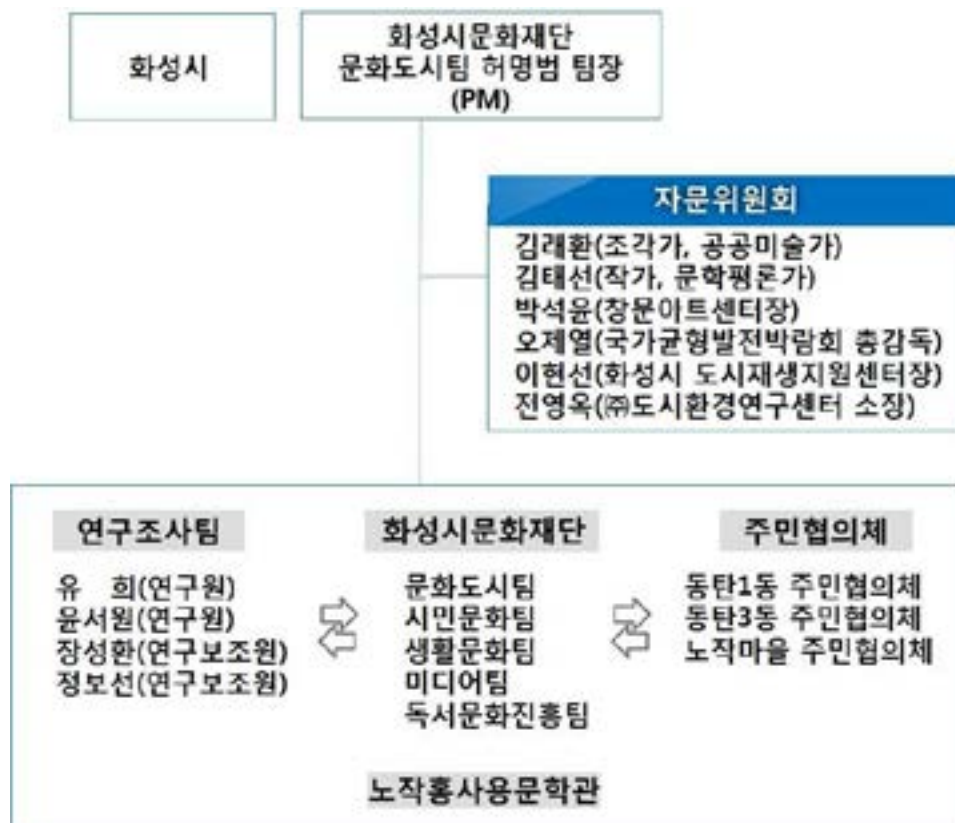
| 표 I-1 | 참여기관(단체)별 추진내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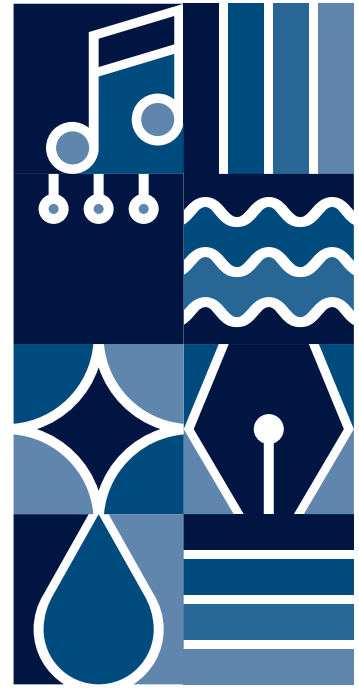
참여기관(단체)		사업내용
화성시문화재단 (5팀)	문화도시팀	홍사용 문화거리 활성화 총괄기획(외부자문단 구성운영)
	시민문화팀	거리공연, 야외전시, 거리버스킹, 코리요 홍보
	생활문화팀	생활시장 '화인' 운영(생활예술)
	미디어팀	마을미디어, 미디어콘텐츠 운영
	독서문화진흥팀	인문학 콘서트, 북마켓, 기부문고 운영
노작 홍사용문학관		노작홍사용 문학제, 작가와 만남, 홍사용 문학 콘텐츠 개발
지역예술단체		거리축제 창작공연 참여, 야외전시
동탄주민협의체		주민-기부문고, 함께 만드는 벤치, 주민참여 프로그램 운영

- 동탄 1동, 동탄 3동, 노작마을 등 시민 참여방안 및 시민조직체 구성방안 모색
 - 동탄 1동, 동탄 3동, 노작마을 시민중심 민관협력 조직체 구성
- 홍사용 문화의 거리 활성화를 위한 문화예술 행사, 콘텐츠 개발
 - (예시) 홍사용 특화프로그램, 거리전시, 인문학 토크쇼, 북마켓, 거리공연, 생활예술시장 등
 - 홍사용 문학관(노작 홍사용 문학제) 거리개최 검토, 신규 예술제 개발

(2) 구성 및 분담

| 그림 I-4 | 컨설팅 구성 및 분담내역





II

문화의 거리 개념 및 범위

1. 문화의 거리 개념 및 확산배경
2. 문화의 거리 관련 법령 및 정책
3. 소결

II. 문화의 거리 개념 및 범위

1. 문화의 거리 개념 및 확산배경

1) 문화의 거리 개념 및 특성

(1) 문화의 거리 개념

- 도시공간에서 가로는 복합적인 장으로 기능하는데 첫째, 사회적 기능으로 친교와 휴식 등 커뮤니티 생활의 보편적인 장소가 되며 둘째, 경제적 기능으로 사람과 사람, 사람과 물물, 물물과 물물이 소통되는 곳으로 경제활동이 일어나는 장소로 활성화를 통해 지역 활성화의 촉매역할을 담당함(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0)
- 사회의 발전과 더불어 가로공간은 위의 사회경제적 기능 뿐 아니라 문화적 기능이 대두되며, 1990년 이후 정부가 문화의 거리에 대한 기준을 설정한 후 지방자치단체를 통해서 사업추진을 권장한 이후부터 전국적으로 문화의 거리가 조성되어왔음. ‘거리’라는 물리적 요소에 ‘문화’라는 비물리적 요소가 결합된 개념인 문화 거리는 문화예술의 거리, 특화거리, 문화관광거리 등으로 다양하게 사용되며 정의되고 있기에 선행연구들을 통해 개념을 정리하고 본 연구가 지향하는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 표 II-1 | 선행연구 출처 및 내용(1)

명칭	출처	내용
문화예술의 거리	문화체육부 (1993)	“그 도시가 이미 갖고 있는 자생적 문화자원을 활용하여 하나의 문화적 정체성이 있는 환경으로 그 가치가 인식되어 공유될 수 있는 곳, 또 그러한 형태의 공간으로 조성되고 발전되는 그 도시의 일정한 가로환경의 범위”
	김병석(1999)	“머뭇거림, 기웃거림이 있을 수 있는 사람을 위한 길로서 독자적 문화 패턴과 주제를 지니고 자유롭고 폭 넓은 예술 활동이 일어날 수 있는 거리”
	문화체육부(1996)	“도시 내 일정한 가로에서 독특한 문화, 예술적 성격이 강하게 나타나고 축제와 행사 등이 정기적으로 일어나는 구역”
	한국문화정책개발원 (2000)	“일정지역의 점적인 문화요소를 선적으로 연결하여 표현한 문화 공간적 의미를 가지고 있으나, 도시공간을 ‘가로’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가로를 포함한 인근지역 전체를 맥락 차원에서 접근한 문화지구보다는 공간적으로 협소하다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음”

| 표 II-2 | 선행연구 출처 및 내용(2)

명칭	출처	내용
문화관광 거리	오경환(1997)	“공유된 의미체계로서의 문화의 개념이 부가된 거리로서 한 문화권의 사람들에게 미적, 경제적, 역사적으로 공유한 의미를 지니는 장소로서의 거리. 문화적 요소가 내재된 가로(街路) 혹은 거리의 개념으로서 사용하고 있음”
	박숙진(2003)	“문화관광 행위가 집중적으로 자생하거나 관광수요를 촉발시킬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거리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여 관광 상품화한 도심 관광코스의 한 구간”
문화의 거리	김주영 외(2007)	“사람들에게 미적, 경제적, 역사적인 의미를 지니는 장소로서의 거리. 도시가 가진 독자적 문화자원을 활용하여 하나의 문화적 정체성이 있는 환경으로 인식 및 공유될 수 있으며, 그러한 형태의 공간으로 조성되고 발전되는 도시의 일정한 가로의 범역”
	김미영 외(2010)	“도시가 지닌 문화를 통해 지역의 문화정체성 및 의미를 지니는 장소로 거듭나게 해주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 지역의 상징적인 장소 및 특색 있는 장소로 기억되도록 해주는 거리공간임”
	정철현 외(2011)	“문화예술 및 관광행위가 자생하거나 수요를 촉발시킬 수 있는 거리로 한 도시의 문화와 정체성을 담고 있는 곳이라고 규정함. 또한 문화시설과 공공공간, 그리고 네트워크를 포함하는 창조 공간이자, 문화유산과 콘텐츠를 가진 창조산업, 그리고 창조계급을 유인할 수 있는 창조도시의 핵심임.”

- 종합하자면 문화의 거리는 물리적 공간의 개념일 뿐만 아니라 도시민의 구체적인 활동과 행위가 벌어지는 삶의 현장이라 할 수 있음. 또한 도시가 가지고 있는 자생적 문화자원을 활용하여 그 도시만의 문화적 정체성이 있는 환경으로 가치가 인식되고 공유될 수 있도록 조성되고 발전하는 도시의 일정한 가로환경의 범역이라고 정의할 수 있음
- 또한 일상적인 생활 문화공간이자 시민의 사회적 교류의 장으로서, 도시의 매력과 경쟁력을 향상시키는데 큰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음
- 문화의 거리의 유사 개념으로 다양하게 사용되는 문화벨트, 문화지구, 문화도시 등은 문화 환경의 위계에 따른 공간개념에서 점진적으로 문화요소를 점(點)적으로 보고, 선(點)적인 특징을 보이는 문화거리와 문화벨트, 면(點)적인 특징을 보이는 문화도시, 문화지구 등으로 정의됨. '점'으로 분산되어 있던 각 지역의 역사·문화적 요소를 지닌 상징적 공간과 시설물이 '선'으로 연결되고, 이곳에서의 활동이 주변으로 확산되면서 문화적 특화공간과 사업의 범주가 점차 '면'으로 확장되는 특성을 이러한 유사개념과 연관 지어 볼 수 있음
- ‘문화의 거리’는 일정지역의 점적인 문화요소를 선적으로 연결하여 표현한 문화

공간적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지역의 최소화 문화거점이라고 봄.

- ‘문화지구’는 문화의 거리보다 공식적·제도적으로 폭넓은 개념으로 가로차원 뿐만 아니라 가로를 포함한 인근지역 전체를 맥락(Context)차원에서 접근함
- ‘문화도시’는 풍부한 문화자원과 문화시설 등 문화적 기반이 구비되어 있으며, 문화 예술에 대한 정책지원이 갖춰진 도시를 의미함. 문화도시 내에는 일반적으로 문화지구, 문화의 거리, 도시문화벨트가 1개 이상 존재하여 전반적인 문화적 주제와 특징을 보여줄 수 있는 도시적 공간으로 볼 수 있음
- ‘문화벨트’는 문화적 특성을 지닌 지역이나 문화시설 등 문화거점지역을 연계함으로써 문화예술의 진흥과 지역주민의 문화향수 기대확대 및 외래 관광객 유치를 목적으로 한다고 볼 수 있음. 조성되는 규모와 기능 측면에 따라 도시·광역·중역 문화벨트로 나누어 구분함¹⁾

(2) 문화거리의 유형

- 문화의 거리를 형태와 성격에 따라 구분하면 거리의 형태(물적 기준)에 따라서 광장형, 단순유선형, 광장연결형으로, 거리의 성격과 활동(비물질적 기준)에 따라 역사형, 활동형, 명소형 거리로 구분할 수 있음. 한편 문화의 거리를 특성화하는 주된 매개체에 따라 ‘가로형 거리’와 ‘센터형 거리’로 나누고 거리의 구성형식에 따라 ‘역사의 거리’, ‘명사의 거리’, ‘문화예술의 거리’, ‘상업의 거리’로 나눌 수 있음
- 또한 ‘상업의 거리’를 ‘특화의 거리’로도 명명할 수 있으며, ‘문화예술의 거리’를 갤러리(gallery)형, 스트리트 퍼니처(street furniture)형, 거리 미관형, 거리 예술형, 마을 만들기형 등 5가지로 세분화 할 수 있음

표 II-3 | 문화의 거리 유형기준에 따른 유형 분류(1)

구분		유형	주요특징	연구자
구성 내용	형태 (물적 기준)	광장형	광장이 활동의 중심 역할을 하는 곳으로 광장을 중심으로 좌우·상하로 발전하며 시각적 포인트는 활동의 중심지로 삼는 형태	현갑출 (2007) 이진우 (2009)
		단순 유선형	거리의 양옆에 있는 건물들이 거리의 활동의 특징이며 일정한 직선, 곡선형으로 좌우, 상하로 발달하며 시각적 포인트는 가로변의 장치물이나 특이한 건물	
		광장 연결형	대부분 축제와 상업의 혼합 형태로 유럽의 유명한 도시나 문화예술의 도시에서 주로 발견되며 문화 거리로서 가장 바람직한 형태	
	성격 (비물질적)	역사형	역사적인 사건, 행사가 이루어져 이미 사람들에게 장소화된 거리	

1) 한국문화정책개발원(2000), 『문화벨트 및 문화도시 조성방안 연구』 pp. 6-12.

	기준)	명소형	관광명소로 세계적인 음악가, 화가, 작가, 과학자, 정치가 등의 생가나 그들의 흔적을 느낄 수 있는 거리	
		활동형	거리에서 발생하는 문화 및 예술 활동 중심의 이벤트형 거리	
	매개체	가로형	문화 활동이나 문화시설이 특정한 가로를 따라 상당한 시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선형적으로 발달되고 있는 경우	
		센터형	하나의 가구나 블록, 하나의 단지 형태로 문화시설이 두루 갖추어지는 경우로 각종 문화시설과 활동이 하나의 단지 내에서 일어나도록 구성	
구성 형식		역사의 거리	전쟁 또는 혁명, 민주운동 등 역사적으로 어떠한 사건이나 종교 또는 문화유적에 명소가 된 경우	김주영 (2003) 한연희 (2007)
		명사의 거리	작가나 음악가, 미술가 등 유명한 작가 및 예술인을 비롯하여 정치인이나 과학자 등의 생가나 작품의 배경이 되는 거리나 공간 등 명사와 관련하여 형성	
		문화예술의 거리	다양한 형태의 거리의 축제가 열리며, 공연장·전시시설 등 문화예술시설이 밀집되어 있어 연극, 음악, 미술, 무용 등 인간이 하는 활동을 예술의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가 펼쳐지는 공간	
		상업의 거리 (특화의거리)	특정 업종이나 연관 업종이 밀집되어 있는 상업적 특화거리로 먹자골목(거리), 웨딩의 거리, 음식의 거리, 가구거리(단지), 인쇄골목(거리) 등과 같이 자연스럽게 상업거리(단지)가 형성되어 명소화된 경우	

표 II-4 | 문화의 거리 유형기준에 따른 유형 분류(2)

분류	특징
갤러리형	예술품을 전시하거나 예술 공간으로 활용하는 유형으로 환경조형물을 장식하는 '환경 예술형'과 빈터 등에 예술작품을 설치하거나 장식하는 '공공 예술형'으로 분류
스트리트 퍼니처형	거리의 모든 시설물을 하나의 '가구'(furniture)로 보고, 각 가구를 예술품으로 장식하는 유형
거리 미관형	거리 자체를 하나의 미학적 영역으로 보고 건축물의 형태나 간판, 업종이나 업소 등을 규제하고, 패턴화 시키는 유형
거리 예술형	거리에서의 다양한 행위예술을 창출, 거리 자체가 예술가의 공간으로 조성되도록 하는 유형
마을 만들기형	마을 전체 주민이 참여하여 예술적 공간으로 조성하는 방식

(3) 문화거리의 구성요소

○ 거리공간의 기본적인 구성요소

- 거리공간의 기본적인 구성요소는 문화활동을 포함한 비물리적 요소와 이를 위한 물적 환경을 포함하는 물리적 요소가 있으며, 이 두 요소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복합적인 요소로 인식되어 거리공간의 전체적인 이미지를 만들게 됨²⁾

| 표 II-5 | 가로의 구성요소

구분	내용		
1차요소	도로의 형태, 폭, 가로변의 건축물(형태, 용도, 파사드, 인접필지)		
2차요소	자연요소	물리적 요소	가로수, 물, 돌 등
		비물리적 요소	주야, 계절의 변화, 냄새 등
	인공요소	가로구조물	교량, 지하도, 환기시설 등
		가로시설물	전기통신시설, 가로등, 신호등 등
		가로장치물	공중전화, 표지판, 조형물, 간판 등
3차요소	인간의 행위와 같은 동적 구성원의 형태 가로에 내포되어 있는 역사적 가치		

출처: 국토개발연구원(1994), 2000년대를 대비한 도시정책방향

| 그림 II-1 | 가로의 구성요소 및 상호작용



○ 문화의 거리 구성요소

- 문화의 거리를 구성하는 요소는 ‘문화 활동과 물적 환경, 사람’이며 어떤 사람들이 살고, 축제에 참여하며, 자주 드나드는지는 그 거리가 다른 거리와 차별화되는 조건이기도 함. 이 세 가지 요소는 거리의 문화화를 위한 계획과 구상에서부터 실제 이를 구체화하는 프로그램의 운영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개입되어야 하는 기본적인 골격 요소라고 볼 수 있음(문화체육부, 1996).

2) 김미영, 문정민(2010), 『도시 재생 관점에서 문화의 거리 공간특성 분석: 국내 문화의 거리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p. 163.을 중심으로 재구성.

- 이 기본 3요소로 문화거리의 구성요소 6가지를 재구성해보면 다음과 같음.³⁾

① 문화자원

해당거리의 정체성이나 독자성, 역사성 등을 반영해줄 수 있는 문화적 가치를 지닌 건물, 장소, 프로그램 등이 문화자원으로써 구성요소가 됨

② 정보서비스

잘 정리된 거리와 관련한 정보가 또 하나의 구성요소임. 이 정보에 의해 이용자들이 접근할 것이기 때문임

③ 행사 및 연출

공간에서 개최되는 지속적인 행사와 연출이 하나의 구성요소가 됨. 축제와 이벤트, 거리예술 등이 필요한 구성요소라 할 수 있음

④ 지속적인 문화 활동

문화 활동이 문화거리 내, 그리고 인근에서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예를 들어 문화예술활동을 통해 전수하고, 전수받아 활동하는 작가가 문화의 거리 속에서 지속적으로 활동하는 것이 하나의 구성요소임

⑤ 공공서비스

공공서비스가 또 하나의 구성요소라 할 수 있음. 이는 문화거리의 수준을 지속시키고, 주차나 치안 등 이용자들이 안전과 편의를 담보하는 요소들임

⑥ 물적환경

자발적으로 정리되어 있는 물적 환경요소들이 중요한 구성요소들임. 특히 역사적으로 잘 보전되어 전해오고 있는 물적 요소들이 여기에 해당됨

(4) 문화거리의 특성

- ‘거리’의 개념이 ‘문화’와 만난 문화의 거리는 도시 내 일정한 가로로 독자적 문화 패턴과 주제를 지니고 자유롭게 폭넓은 예술 활동이 일어날 수 있는 특성을 지님
 - 도시 내 일정한 가로에서 독특한 문화적 성격이 강하게 나타나고 축제나 행사 등이 정기적으로 일어나는 구역을 지칭함.
 - 일정지역의 점적인 문화요소를 선적으로 표현한 문화 공간적 의미를 가지나, 도시 공간을 ‘가로’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가로를 포함한 인근지역 전체를 맥락 차원에서 접근한 문화지구보다는 공간적으로 협소하다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음.⁴⁾
- 문화의 거리는 문화예술 및 관광행위가 자생하거나 수요를 촉발시킬 수 있는 거리로 한 도시의 정체성을 담고 있음
 - 문화시설과 공공 공간, 그리고 네트워크를 포함하는 창조 공간이자, 문화유산과 콘텐츠를 가진 창조산업, 그리고 창조계급을 유인할 수 있는 창조도시의 핵심으로 도시의 문화와 정체성을 내포하고 있음
 - 시민들의 문화 활동의 장이 되며, 문화·예술적 풍토를 제공하여 창조계급의 유입을 견인할 수 있는 수단이 됨

3) 김일순 외(2014), 『산타페시 조사를 통한 제주 문화예술거리 방향 탐색』, p. 121.을 중심으로 재구성.

4) 박숙진(2004), 『한·독 문화관광거리 국제비교연구: 관광자원, 문화행사 및 축제, 운영시스템, 관광정책을 중심으로』, pp.3-4.

- 주변지역의 경제적 향상을 가져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며, 결과적으로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는 역할을 수행하게 됨⁵⁾

2) 문화의 거리 확산 배경

- 1980년대 도시 가로 정비사업의 연장선상으로 1985년 ‘대학로 문화의 거리’가 최초로 조성됨
 - ‘문화 예술 낭만의 거리’로서 혜화동 로터리에서 이화동 로터리에 이르는 약 1km의 대학로 거리를 각종 문화단체와 마로니에공원이 있는 지역특성을 활용하여 올림픽에 대비해 문화·예술의 명소를 만들기 위해 조성함, 이는 시민의 여가활동을 도시 공간 계획에 반영하고자 했던 움직임으로 볼 수 있음
 - 점차 마로니에 공원을 중심으로 민간주도의 문화시설들이 증가하면서 문화·예술의 거리로서의 면모를 갖추어나가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1990년 문화의 거리로 지정되어 많은 문화행사계획들이 구상됨⁶⁾
- 1990년대부터는 일부 도시를 중심으로 문화 공간의 필요성에 따라, ‘문화의 거리’를 지자체에 권장하게 됨
 - 세부사항으로는 문화의 거리 속 문화예술축제를 거리의 상징성으로 보여 줄 수 있는 중요한 시각적 환경요소로 보고 이를 통해 각 도시들이 갖는 독특한 문화의 의미들을 전달하고자 함
 - 이는 초기 사업들이 가로 공간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던 것 보다는 가로 정비나 계획 수립을 지시하였으며, 공원사업으로 이해하여 근린공원 시설이나 소광장과 같은 공원시설 위주로 막연한 계획을 세웠던 점이 한계점으로 파악되어 필요한 대안으로 문화예술축제가 제시되었음
 - 문화예술축제를 통해 거리를 활성화시키고 이와 더불어 세계적으로도 자랑할 만한 질 높은 행사를 추구해야 한다고 여김⁷⁾

5) 한국지방정부학회, 정철현 외(2011), 학술발표논문집 2011권 1호, 『창조도시 구현을 위한 문화거리 활용방안: 부산시 구도심을 중심으로』, p. 384.

6) 이주영(2017), 『디자인서울거리를 통해 바라본 가로환경개선사업에 대한 고찰: 강남대로, 이태원 디자인서울 거리를 중심으로』, p. 31-35를 바탕으로 재구성.

7)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의 전반적인 내용은 유병림(1996), 『문화예술의 거리』의 내용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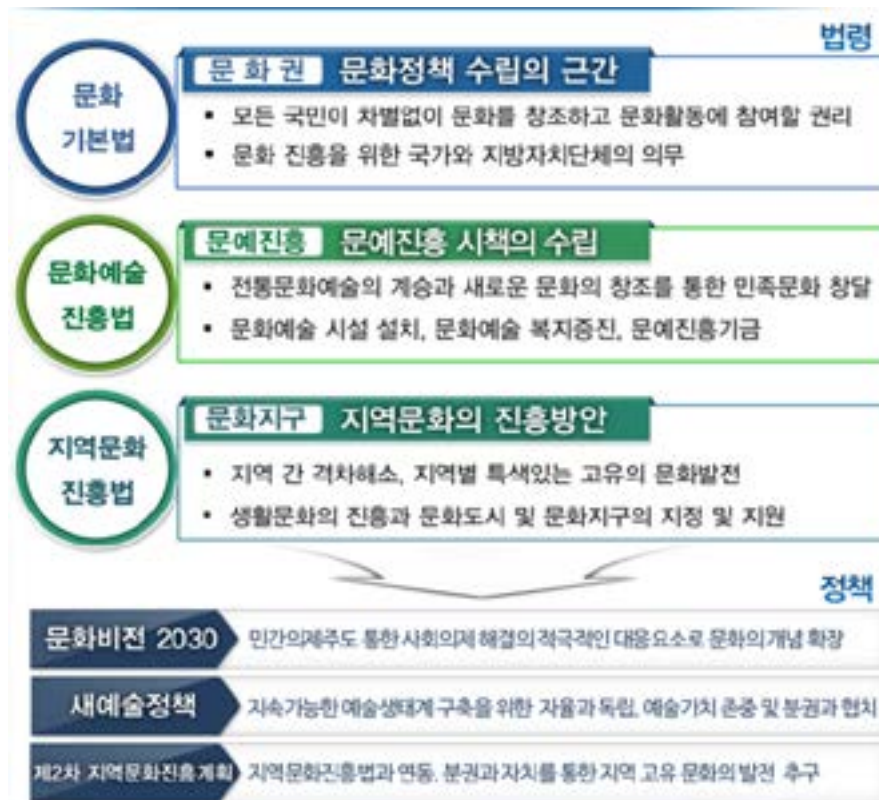
2. 문화의 거리 관련 법령 및 정책

- 중앙정부는 문화기본법을 바탕으로 점차 문화권 및 문화민주주의와 문화자치를 강조하는 법령을 제정하고 이에 따라 공공의 가치 확보와 다원화를 요구하는 정책방향을 수립하고 있음
- 이에 본 절에서는 먼저 문화예술의 진흥과 문화거리의 유사개념인 문화도시 및 문화지구를 규정하고 있는 ‘중앙법령 및 정책’을 검토하고, 다음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별 문화의 거리 조례 지정현황’과 ‘홍사용 문화거리 관련 화성시의 법령 및 정책’을 통해 홍사용 문화거리 활성화를 위한 법적·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1) 문화의 거리 관련 법령 검토

(1) 중앙법령 : 문화기본법 · 문화예술 진흥법 · 지역문화진흥법

| 그림 II-2 | 문화예술부문 중앙법령 및 정책 요약



- 중앙법령은 문화거리의 구성과 활성화에 있어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연결점을 가지지 않으나, 문화정책 수립과 문예 진흥 시책을 수립하는 근거이며 나아가

지역문화의 진흥방안을 통해 문화도시·문화지구 등 지역고유의 색을 담은 문예 사업을 추진하는 근원임

- 「문화예술진흥법」(1972.08.14. 제정)은 문화예술 및 문화시설의 범위를 규정하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별로 필요한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여 전통문화예술의 계승과 새로운 문화의 창조를 목적으로 제정됨
- 동법 시행령은 공연시설 및 전시시설, 도서관, 지역문화 활동시설, 문화보급·전수 시설, 종합시설 등의 ‘문화시설’을 정의하며, 현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상 문화지구에 설치 또는 운영이 권장되는 시설이 이에 해당함

표 II-6 | 문화예술진흥법 주요 내용

구 분	내 용
제1조(목적)	이 법은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전통문화예술을 계승하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여 민족문화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 2. "문화산업"이란 문화예술의 창작물 또는 문화예술 용품을 산업 수단에 의하여 기획·제작·공연·전시·판매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3.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 등 공연시설 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등 전시시설 다. 「도서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서관 등 도서관시설 라. 문화예술회관 등 공연시설과 다른 문화시설이 복합된 종합시설 마. 예술인이 창작활동을 영위하기 위한 창작공간으로서 다중이용에 제공되는 시설 또는 예술인의 창작물을 공연·전시 등을 하기 위하여 조성된 시설
제3조(시책과 권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施策)을 강구하고, 국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 진흥시책은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건전한 생활 문화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지역문화진흥법」(2014.01.28. 제정)은 지역문화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지역 간의 격차를 해소하며, 지역별로 특색 있는 고유의 문화를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며, 지역문화와 생활문화, 문화도시·문화지구의 지정 및 운영 등을 규정함
- 문화지구와 관련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시장·군수·구청장이 주민의견을 들어 문화지구 관리계획을 작성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신청 후 승인하도록 되어있음
- 문화지구 관리계획에는 문화지구 안에 설치 또는 운영이 권장되는 문화시설 및 영업 시설의 종류와 금지 또는 제한되는 영업 또는 시설의 종류·기타 해당 문화지구의

지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음.

- 시장·군수·구청장은 문화지구 지정 일부터 1년 이내에 관리계획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후 주요내용을 지체 없이 공보에 공고하도록 되어있으며,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문화관광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관리계획의 집행상황을 관리계획 승인 일부터 3년마다 평가하고 그 실적이 우수한 문화지구에 대하여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

표 II-7 | 문화지구 관련 지역문화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

구 분		내 용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역문화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 간의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지역별로 특색 있는 고유의 문화를 발전시킴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국가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1. "지역문화"란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또는 공통의 역사적·문화적 정체성을 이루고 있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유산, 문화예술, 생활문화, 문화산업 및 이와 관련된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2. "생활문화"란 지역의 주민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7. "문화지구"란 문화시설과 문화업종의 육성, 특성화된 문화예술 활동의 활성화 또는 문화자원과 문화적 특성의 보존을 위하여 제18조에 따라 지정된 지구를 말한다.
제4장 문화도시·문화지구의 지정 및 지원	제18조 (문화지구의 지정·관리)	① 시·도지사 및 대도시 시장(「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제정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문화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1. 문화시설과 민속공예품점·골동품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시설이 밀집되어 있거나 이를 계획적으로 조성하려는 지역 2. 특성화된 문화예술 행사·축제 등 문화예술 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거나 개최되는 지역 3. 그밖에 유형·무형의 문화자원이나 문화적 특성 보존을 위하여 문화지구로 지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문화지구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지구관리계획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의 승인(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대도시 시장의 경우는 제외한다)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시행령 제18조 (문화지구 제한 업종)		① 법 제18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과 유흥주점영업을 말한다. ② 법 제18조제3항 제3호에 따라 문화지구에서 금지하거나 제한할 영업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그 문화지구의 문화자원, 문화적 특성 및 문화지구 지정 목적을 고려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19조 (설치 또는 운영이 권장되는 문화시설 등)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설치·운영이 권장되는 문화시설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문화시설 2. 생략

(2) 전국 지방자치단체 문화의 거리 관련 조례 제정 현황

- 지방자치단체들은 조례 제정과 함께 문화의 거리를 지정하여 시민의 문화욕구 충족과 지역문화발전, 지역경제 부흥을 꾀하고 있으며 주요 공통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음

| 표 II-8 | 지방자치단체별 문화의 거리 조례 주요사항 및 내용

구 분	내 용		
고려사항	문화의 거리 지정에 있어 주변의 문화적 시설, 지역의 역사성 및 지역적 특성, 시민의 이용도, 문화적 파급효과 등		
지자체장의 의무	문화의 거리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문화의 거리를 지정 공고와 문화의 거리 내의 토지주, 건물주 및 입주자에게 이를 통보할 의무		
기본계획 수립	주변 도시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1. 가로등, 벤치, 거리전시대, 가판대 등의 장치물 2. 간판, 안내표지판(상징탑) 등의 광고물 3. 주변건물의 색상 4. 주차장 조성(정비) 5. 기타 문화의 거리 조성관리에 필요한 사항)	
	문화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1. 공연을 위한 무대 및 부대시설, 조명시설 등 2. 조각, 벽화, 바닥, 보도 등의 문화환경 조형물 3. 소규모 공원, 분수대 등의 시민 휴식 공간 4. 기타 해당지역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문화시설물	
	문화예술 관련 분야의 육성에 관한 사항	1.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문화예술 관련 행사를 개최 2. 문화예술단체의 각종 공연 및 전시 등의 문화예술 관련 행사의 개최 유도·지원	
		문화의 거리 내 권장 및 육성 업종 지정	1. 화랑 등 미술관련업종 2. 필방 등 서예관련업종 3. 음악관련업종 4. 서점 5. 토산품 및 민속기구 6. 도자기 전시 및 판매 7. 문화예술 공연장 및 전시장 8. 기타 문화예술진흥에 필요한 업종
		기타 사항	문화의 거리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위원회 등의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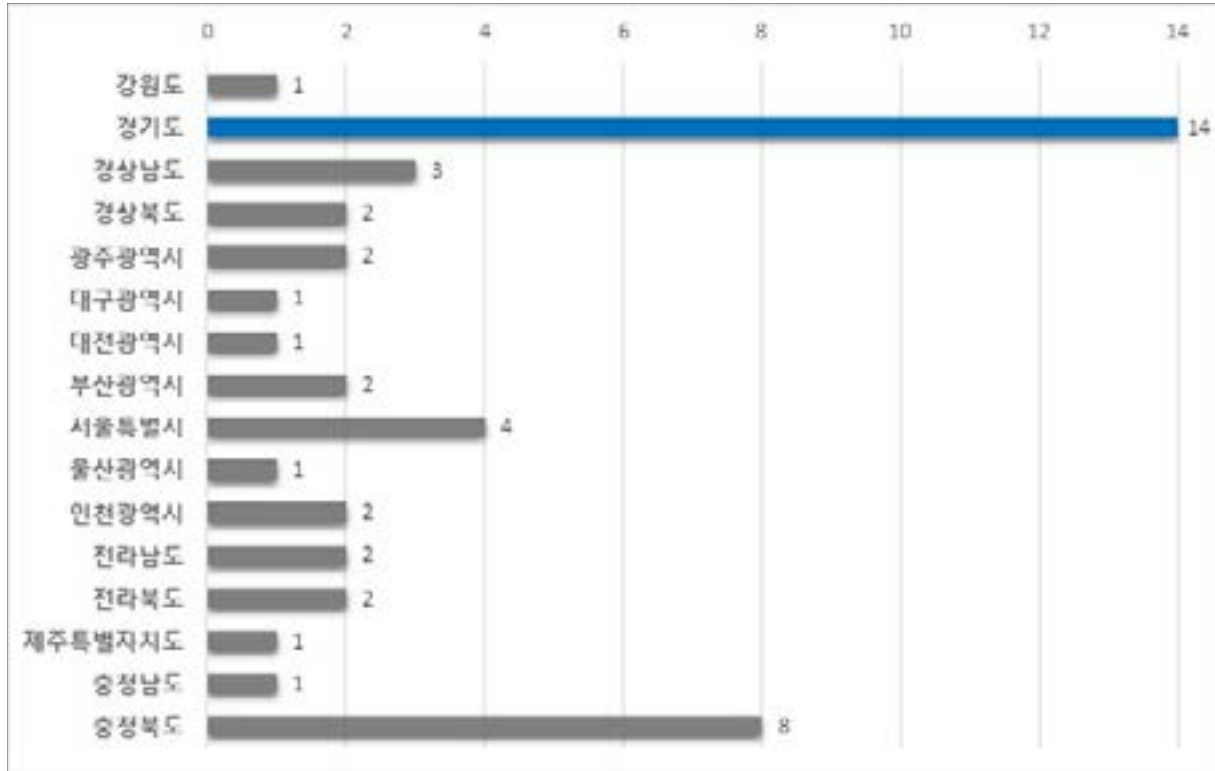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지자체별 조례를 토대로 작성

- 지방자치단체들이 제정한 각 조례는 ‘문화의 거리 지정에 있어서의 고려사항’, ‘지자체장의 의무’,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지역문화진흥법상의 문화지구 지정 및 운영과 유사한 맥락을 지님
- 행정안전부의 공공데이터포털에 따르면 2020년 9월 현재 국내에는 약 250곳의 특화거리가 조성되어 있으며,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되는 곳은 약 47개로 조사됨

- 광역지자체별로 규정하고 있는 문화의 거리 및 특화거리 조례 주요 현황은 다음과 같음

| 그림 II -3 | 광역지자체별 문화거리 및 특화거리 조례 주요 현황

(자료 기준시점: 2020. 9월)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검색일: 2020.9.19.)

-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도가 14개의 문화의 거리 및 특화거리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광역 지자체 중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충청북도 및 서울특별시의 순으로 조사됨

* 화성시의 경우 별도의 조례는 존재하지 않음

2) 문화의 거리 관련 정책

(1) 문화의 거리 관련 정책의 흐름⁸⁾

- 1990년대에 지방자치제도가 본격화되면서 각 지역은 ‘문화’를 중요한 생존 전략으로 채택함. 이는 정책 입안자들이 문화가 도시의 발전의 원동력 또는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여기면서 부터였음
- 지역의 이미지 향상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통합을 도모하려는 일련의 문화전략의 일환으로 ‘문화의 거리’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활성화함
- 또한 거리에 대한 본래적 기능 회복에 대한 시대적 요청과 개개인의 적극적인 문화 창조자로서의 욕구가 증가되면서,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경험할 수 있는 최소의 문화공간으로 조성되기 시작함.
- 문화의 거리 정책은 1~3km 정도의 가로공간에 그 지역의 역사·문화적 특성을 살려, 조명·상징조형물·야외공연장·의자·쓰레기통·디자인된 보도블록 등 시설설치와 거리문화축제 등의 프로그램을 연출함으로써 그 지역의 특징적인 문화 환경의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조성근거 및 주체는 자치구의 방침으로 시행되었음
- 문화의 거리 정책사업의 변화과정⁹⁾
 - 1990년대부터 중앙정부가 문화의 거리 사업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1991년에 조성 기본방향이 설정됨. 그 후 대전 문화의 거리 조성 사업이 추진되었음
 - 1992년에는 한국문화예술진흥원과 서울대학교에 의뢰하여 문화의 거리 조성을 위해 가장 기본이 되는 ‘도시문화 환경 개선방안 연구보고’라는 보고서를 출간함
 - 1995년까지 각 시도의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추진현황을 살펴보면, 서울이 강남구 3곳과 종로구 3곳을 비롯하여 16개소, 경기도와 인천이 각각 1개소, 강원도가 2개소, 대전과 충북이 각각 1개소, 충남이 5개소, 대구와 경북과 부산이 각각 1개소, 경남이 5개소, 광주와 전북과 전남이 각각 1개소였음. 이 중에서 계획추진 중인 곳이 9개소였음
 - 1996년도 서울의 경우, 문화예술계가 서울 예술의 거리 조성에 대한 방침을 세워 문체부에 건의하였으며, 대학로와 인사동과 충무로 등 이미 문화적으로 특성을 확보하고 있는 지역과 박물관 및 고궁 등 지역 전통의 특성을 살리면서 유사특성들을 묶어 거리를 특화시키는 방안을 마련함.
 - 1996년도에도 각 시도에서 문화의 거리 조성에 대해 지구지정, 조성계획, 예산지원계획 측면에서 발표되었는데, 서울의 경우 1995년까지 16개소 였으나 종로구 사간동 북촌 문화의 거리를 비롯하여 경북궁 일대 역사의 거리, 강남구 학동로 가구의 거리 등 9곳을 추가적으로 추진함. 경기도는 1995년까지 1개소 였으나 일산신도시 호수공원을 비롯하여 수원 역사의 거리, 남양주시 다산의 거리 등 10곳을 추가적으로 추진함
 - 인천은 1곳, 강원도는 3곳이 추가되는 등 문화의 거리 조성에 대한 각 시도 의 노력들이 계속되었음
 - 본격적으로 사업이 착수된 것은 1999년에 중앙정부의 지원 하에 서울 인사동 전통문화의

8) 김연경(2014), 『생활주체의 경험을 통해 본 광주 예술의 거리 장소성 연구』, p. 13-14.

9) 한연희(2006), 『문화의 거리 활성화 방안 연구: 경기도 지역을 중심으로』, p. 9와 유병림의 글 참고.

거리 조성 사업 등 5개 사업이 선정되면서부터임

- 그 후 2000년 1월 개정된 문화예술진흥법에서 ‘문화지구’라는 용어로 법적 근거를 마련하면서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되었음. 그러나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이 도시계획 사업과 연계하여 계획·시행 되고 있었다는 점에서 볼 때 문화예술진흥법 개정 시 ‘문화의 거리(또는 문화거리)’라는 용어가 들어갔어야 했음에도 ‘문화의 거리’보다 광의의 개념인 ‘문화지구’라는 법률적 용어가 선택되면서 문화지구로 들어서는 권장시설은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음. 이렇게 되자 이미 조성되어 있는 ‘문화의 거리’사업의 경우 개정된 법률에 근거 한 용도제한이나 조세감면을 받을 수 없다는 한계가 있었음
- 1996년 6월 정부에서는 문화의 거리 사업에 대하여 계획수립단계에서 도시계획전문가 또는 문화시설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조례를 제정할 경우 국비를 우선 지원한다는 의지를 표명했으나 조례를 제정한 지방자치단체는 소수에 불과한 실정이며 2005년부터는 지방이양 사업으로 분류되어 지방자치단체 자율로 추진하고 있음
- 그러나 지방이양 사업으로 결정된 후 정부의 관심과 지원의지가 약화되면서 문화의 거리는 물리적으로 환경이 파괴되거나 당초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음

(2) 「문화비전2030」, 「새 예술정책」, 「제2차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

① 「문화비전2030」(2018~2030)

- 「문화비전2030」은 사람이 있는 문화를 비전으로 △자율성 △다양성 △창의성 3대 가치와 이에 따른 △개인의 자율성 보장 △공동체의 다양성 실현 △사회의 창의성 확산의 3대 방향과 9가지 정책 의제 및 실천적 세부과제를 담고 있음
- △자율성 △다양성 △창의성은 국민의 문화적 권리에서 출발하는 「문화기본법」에 기초한 핵심가치임
- 기존의 중장기계획 수립 시 행정이 주도하는 형태에서 벗어나 최초로 민간이 의제를 주도해 내용을 구성하고, 정부가 제안된 정책의 구체화를 지원하면서 상향식의 정책비전이라는 점에서 차별성을 가짐¹⁰⁾

② 「새 예술정책」(2018~2022)

- 「새 예술정책」은 「문화비전2030」과 함께 예술인의 낮은 수입과 불안정한 고용, 창작과 발표 기회의 부족, 예술작품 공급과 관람률의 지역 편차, 협소한 시장규모 및 불공정관행 등을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예술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정부와 예술계의 새로운 정책임¹¹⁾
- 「새 예술정책」역시 기존의 행정주도의 중장기 계획 수립이 아닌 예술계와 정부가 함께 160여 회의 토론회 및 간담회를 통해 숙의형·개방형 방식으로 정책방향과 과제를 발굴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님

10) ‘사람이 있는 문화’ 문화비전 2030 발표, 문체부 보도자료(2018.5.16.)

11) 같은 글.

- ‘사람이 있는 문화, 예술이 있는 삶’을 비전으로 4대 추진전략¹²⁾과 8대 핵심과제¹³⁾를 제시하고 있으며 특히 ‘모두에게 열려있는 예술 참여 환경 조성’은 ① 지역의 문화 예술 향유기회 확대와, ② 공연예술축제의 지역 예술가/단체, 공연시설 등 교류 및 유통의 핵심 플랫폼으로의 개편을 제시함

③ 「제2차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2020~2024)

-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6조에 근거하여 지역문화 진흥을 위해 5년마다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며, 「제1차 지역문화진흥계획(2015~2019)」은 지역문화 정책의 기본방향과 전문인력 양성 등 지역역량의 강화와 기반시설 구축에 기여함

| 그림 II-4 | 제2차 지역문화진흥계획 핵심가치 및 비전



- 「제2차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은 중앙정부와 광역·기초지자체, 유관단체의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 간의 문화격차 해소, 지역별 특색 있는 고유문화의 발전, 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함
- 지자체의 지역문화협력위원회 설치·운영, 문화기부 증진, 문화 분야 주민참여 예산제 독려, 지역문화현황통계 주기 단축 등 법·제도·구조개선을 추진함

12) 새 예술정책의 4대 추진전략은 다음과 같다. ① 자율과 분권의 예술행정, ② 예술 가치 존중의 창작환경 조성, ③ 함께 누리는 예술 참여 확대, ④ 예술의 지속 가능성 확대

13) 새 예술정책의 8대 핵심과제는 다음과 같다. ① 예술표현의 자유와 예술인의 인권 보호, ② 예술지원체계의 독립성과 자율성 제고, ③ 예술 가치 중심의 창작 지원, ④ 예술인의 삶을 지키는 복지, ⑤ 모두에 열려있는 예술 참여 환경 조성, ⑥ 소수자가 예술로 어울려 사는 사회, ⑦ 공정하고 활력 있는 예술시장 환경 조성, ⑧ 예술의 미래 가치 확장

3) 홍사용 문화거리 관련 화성시 법령 및 정책

- 현재 화성시는 홍사용 문화거리 구성에 대한 조례가 존재하지는 않으나 「**화성시 문화예술진흥조례**», 「**화성시 생활문화진흥조례**», 「**화성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대한 조례**», 「**노작 홍사용문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관련 조례를 검토하여 홍사용 문화거리 발전 방향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검토함

① 「화성시 문화예술진흥조례」

| 표 II-9 | 화성시 문화예술진흥조례 주요내용

구 분		내 용
제1조(목적)		이 조례는「문화예술진흥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화성시 문화예술진흥과 시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시장의책무)		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들이 높은 수준의 문화예술을 폭넓게 향유할 수 있도록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3장 문화 예술 진흥 종합 계획	제13조 (계획수립)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장·단기 종합계획(이하 “문예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문예진흥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기본 목표와 방향 제시 2.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과 지역문화 창달에 관한 사항 3. 문화예술행사 발굴과 지원에 관한 사항 4. 문화와 관광사업의 연계 발전에 관한 사항 5. 시와 자매·우호 도시와의 문화예술 교류 및 방문에 관한 사항 6. 그밖에 문화예술진흥에 필요한 시책

- 화성시 문화예술진흥조례(2015.8.12.)의 제3장 제13조(계획수립)에는 ‘문화예술진흥 종합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대한 사항이 위와 같이 명시되어 있으며 이에 화성시는 「2040 화성시 장기발전계획」(2019) 및 제2차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2020-2024)을 반영한 새로운 문화예술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 화성시 문화예술진흥 기본계획은 2020년을 기준년도로 중단기계획(2021~2025)과 장기계획(2026~2030) 수립을 통해 화성시의 특성을 반영한 문화예술진흥 비전을 설정하고, 기본계획 추진을 위한 기본 전략 및 세부과제 등의 시행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함(화성시문화재단, 2020)

② 「화성시 생활문화진흥조례」

| 표 II-10 | 화성시 생활문화진흥조례 주요내용

구 분	내 용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성시 생활문화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들의 자발적인 문화활동을 장려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문화”란 시민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무형의 문화예술 활동을 말한다. 2. “동호회”란 생활문화활동에 자발적·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말한다. 3. “생활문화단체”란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무형의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관련자 또는 동호회 등 단체를 말한다. ②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역문화진흥법」 제2조에 따른다.
제5조 (생활문화시설 의 범위)	생활문화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지역주민의 생활문화가 이루어지는 시설로 한다. 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2. 「평생교육법」 제21조 및 제21조의3에 따른 평생학습관 및 평생학습센터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바목 및 사목에 따른 지역자치센터 및 마을회관 4.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 내에 위치한 시장이 설치·운영하고 있는 시설로써 생활문화 관련 활동 또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시설
제6조 (생활문화 지원 등)	① 시장은 생활문화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생활문화단체 및 동호회 활동을 위한 공간 및 시설 지원 2. 생활문화단체 및 동호회 상호간의 네트워크 촉진 3. 생활문화단체 및 동호회의 재능기부 등 사회적 공헌 활동 지원 4. 문화예술 역량을 높이기 위한 전문 인력 지원 5. 생활문화 활동의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6. 그 밖에 생활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생활문화시설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 등 필요한 인력을 배치 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급식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화성시는 생활문화진흥조례를 통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문화활동을 장려하여 문화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있으며 생활문화시설의 범위 및 생활문화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음.

- 한편, 홍사용 문화거리에는 ‘동탄복합문화센터’ 및 ‘화성시 미디어센터’, ‘노작 홍사용문학관’ 등 3개의 주요 문화기반시설이 축을 이루고 있으며 각 설립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은 아래와 같음

| 표 II-11 | 「노작 홍사용문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구 분	내 용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작 홍사용 선생의 생애와 문학정신을 전승·보전하기 위하여 건립한 노작 홍사용문학관(이하 “문학관”이라 한다)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문학관”이라 함은 전시관, 작은 도서관, 부대시설 등을 말한다. 2. “사용”이라 함은 개인 또는 단체에서 문학 활동을 위해 문학관을 일시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 (업무 및 기능)	문학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학관 자료의 수집·전시 및 관람업무 2. 소장품의 보관·진열·고증평가·수리·모사 및 복원 3. 홍사용 선생의 문학성 조사·연구 및 문학에 관한 교육 운영 4. 문학과 연계된 학습과 실질적인 사회교육의 장 마련 5. 기타 문학관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 화성시는 주요 장기발전계획(2025 화성시 장기발전계획·2040 화성시 장기발전계획) 및 발전전략의 문화예술정책부문에서 다음과 같은 추진과제를 설정하고 있음 (<표 II-12>)
- 먼저, 2025 화성시 장기발전계획은 Upgrade(향상, 상승), Universal(글로벌의, 국제적인), Unique(독특한, 창의적인), United(단결한, 통합된), Utopia(이상향, 유토피아) 등 5개의 비전을 설정하고 있으며 “Unique Hwaseong” 이 문화예술부문의 발전 전략에 해당함
- 화성시 동서발전전략(2018)은 화성시를 동부권, 서부권, 남부권으로 구분하고 그 중 사업대상지인 동탄신도시가 위치한 동부권을 ‘품격의 첨단문화예술 중심지’로 설정하여 다양한 문화예술진흥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 2040 화성시 장기발전계획은 화성시 문화예술진흥조례상의 문화예술진흥계획 수립과 문화예술인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기수립된 주요계획의 실천적 방안을 제시함

| 표 II-12 | 화성시 주요 발전계획 문화예술정책부문 구분

구분	문화예술정책부문 주요내용	
2025 화성시 장기발전계획 (2017)	• 화성시 도시비전 분야별 제시	
	• "Unique Hwaseong" ▶ 삶의 품격과 여유가 있는 문화예술 도시	▶ GMT : Gallery Music Town ▶ Art Cluster 벨트 ▶ 화성 도시갤러리 건립 ▶ 폐공간의 문화적 재생 프로젝트
화성시 동서간 발전전략 (2018)	• 화성시 권역별 발전목표 및 추진과제 제시	
	• 품격의 첨단문화예술중심지 ▶ 문화예술의 메카 	
2040 화성시 장기발전계획 (2019)	• 주요 상위계획의 기본 방향과 골격을 반영하고 '2025 장기발전계획' 등 기 수립된 주요계획 및 각종 사업계획과 상호 보완적 성격	
	• 문화예술진흥 종합계획 수립 • 문화·예술인 네트워크 구축 - 공공사업 분야에서의 네트워크 구축 ▶ 지역 내 문화예술인 DB구축 ▶ 화성시 '문화예술정책위원회' 구축 - 민간부문에서의 네트워크 구축 지원 ▶ 인적교류 유도 및 공동의 행사 기획 및 실행 ▶ 정례모임 개최 및 지원, 다양한 행사 및 이벤트 기획	

- 화성시는 민선7기 10대 핵심과제 81개 공약사업에서 ‘일상에서 만나는 문화관광-시민에게 다가가는 거리예술 문화 확산’을 제시하고 있으며 내용은 아래와 같음

| 표 II-13 | 화성시 민선7기 10대 핵심과제 81개 공약사업 | 거리예술 활성화 사업

일상에서 만나는 문화·관광-시민에게 다가가는 거리예술 문화 확산

-사업기간 : 2019년~2022년

-사업내용 : 거리예술 특화지역을 지정하여 예술가의 자생적 예술활동 지원 및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

-총 사업비 : 287백만 원

목표년도	사업목적	추진계획
2020	거리예술 활성화	• 2020.4. 간담회 및 연간공연 계획 수립 • 2020.4.~10. 3개 장소*1일 2회*18일, 108회 공연 • 2020. 12. 사업정산 및 2021년도 공연존 5개 장소 확정
2021		• 거리로나온 예술 사업계획 수립 • 공모 및 공연단체 선정 • 간담회 및 연간공연 계획 수립 • 2021.4.~10. 5개 장소*1일 2회*18일, 180회 공연 • 2022년도 공연존 7개 장소 확정
2022		• 거리로나온 예술 사업계획 수립 • 공모 및 공연단체 선정 • 간담회 및 연간공연 계획 수립 • 7개 장소*1일 2회*18일, 252회 공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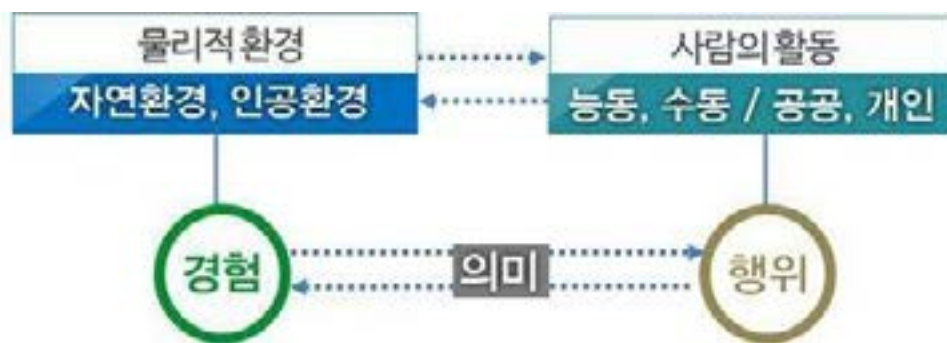
자료: 화성시청 홈페이지(검색일:2020.9.20.)

3. 소결

1) 문화의 거리 개념 검토 내용 종합

- ‘거리’의 개념이 ‘문화’와 합쳐진 문화의 거리는 물리적 공간일 뿐만 아니라 도시민의 구체적인 활동과 행위가 벌어지는 삶의 현장임. 또한 고유의 자생적 문화자원을 활용해, 그 도시만의 문화적 정체성이 있는 환경으로 인식되고 공유되는 도시의 일정한 가로환경이라 할 수 있음
- 문화의 거리는 일상적인 생활 문화공간이자 시민의 사회적 교류의 장으로서 도시의 매력과 경쟁력을 향상시키는데 큰 역할을 함
- 일정지역의 점적인 문화요소를 선적으로 연결하여 형성된 문화공간인 문화의 거리는 지역의 최소화의 문화거점이라고 볼 수 있으며, 점차 문화도시나 문화지구와 같은 넓은 범주로의 확장을 기대할 수 있음
- 문화의 거리에서 자연환경과 인공환경을 포함한 ‘물리적 환경’에서의 경험과 공공 및 개인의 능·수동적 ‘활동’으로부터 발현되는 행위가 상호작용을 통해 ‘의미’를 형성하게 됨. 한마디로 어떤 사람이 살고, 어떤 축제에 참여하고, 얼마나 자주 드나드는 지에 따라 그 거리가 다른 거리와 차별화 될 수 있음

| 그림 II-5 | 문화거리로서 가로의 구성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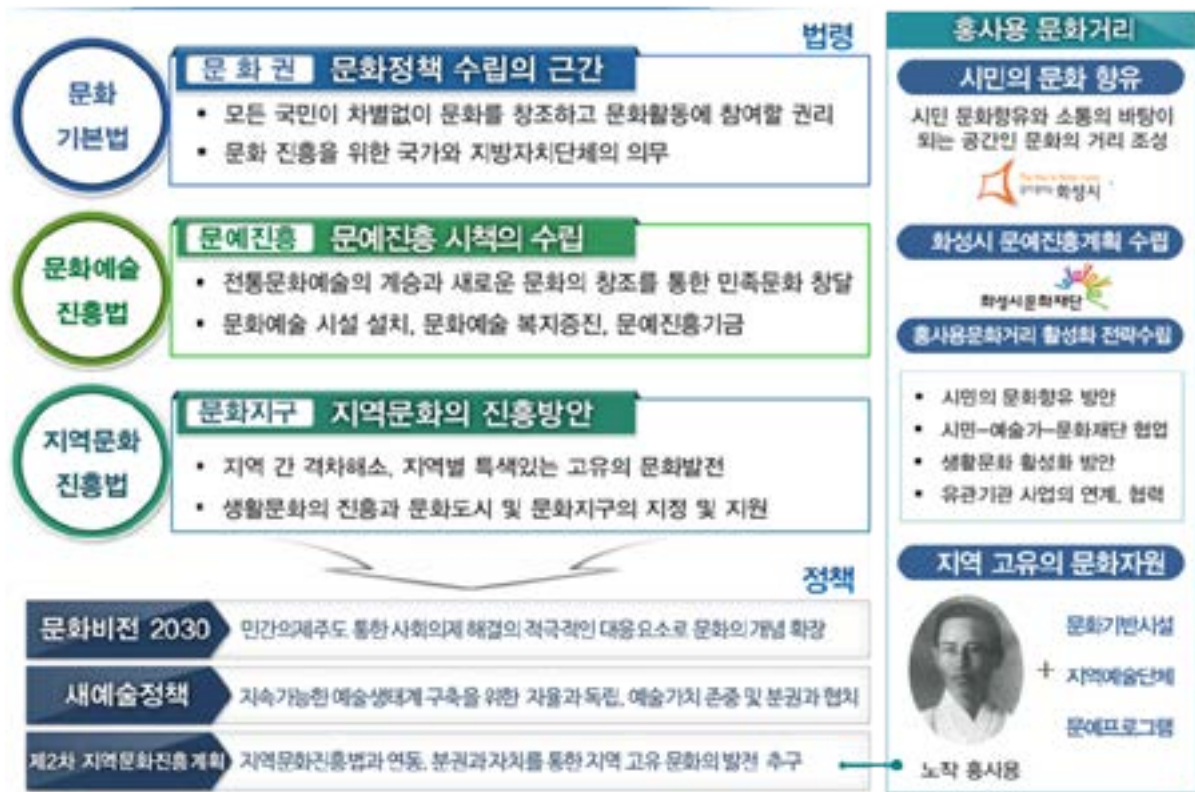


- 문화의 거리는 도시 내 일정한 가로로 독자적 문화 패턴과 주제를 지니고 있어, 지역의 상징적인 특징 즉 장소성을 지니고 있음
 - 친교와 휴식 등 시민들의 사회적 교류, 문화 활동의 장이 될 수 있음
 - 문화·예술적 풍토가 만들어지는 장소로, 도시의 일상적 문화가 형성되고 발전될 수 있으며, 이것이 문화 경관으로 이어질 수 있음
- 문화의 거리는 문화예술행위 및 관광행위가 자생하거나 수요를 촉발시킬 수 있어 지역 활성화의 촉매역할을 담당할 수 있음
 - 독특한 문화적 성격이 강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축제나 행사 등이 정기적으로 일어날 수 있음
 - 주변지역의 경제적 향상을 가져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며, 결과적으로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는 역할을 수행하게 됨.

2) 정책적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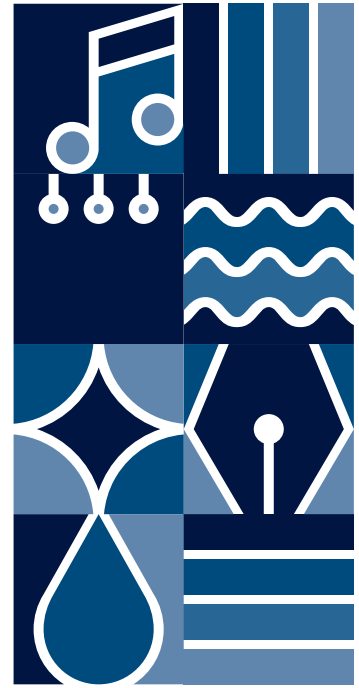
- 홍사용 문화거리는 동탄신도시 문화기반시설과 연계된 특정 공간에 물리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 고유의 문화자원인 노작 홍사용의 활동을 바탕으로 동탄 거주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활성화하여 정주의식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사업의 목적으로 함

| 그림 II-6 | 법령 및 정책구조와 홍사용 문화거리



- 「문화기본법」,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민의 문화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정책수립과 지원의 책무가 규정되며, 「지역문화진흥법」은 지역의 특색 있는 고유한 문화발전과 생활문화의 진흥, 문화도시 및 문화지구의 지정 및 지원을 명시함
-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은 이러한 중앙법령과 정책의 흐름에 문화의 거리, 문화지구, 문화벨트 등을 조성하고 있으며 필요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여 관리하는 경우도 있음
 - 2020년 9월 현재 전국의 문화특화거리 약 250여개 중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의 거리 조례를 제정한 경우는 약47여 건으로, 대부분이 경기도와 충청북도에 집중되어 있음
 - 각 조례의 주요 공통된 사항으로 ① 문화의 거리 지정에 있어서의 고려사항, ② 지자체장의 의무, ③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 등이 있으며 지역문화진흥법상의 문화지구 지정 및 운영과 유사한 맥락을 지님

- 화성시는 문화의 거리 구성에 관한 조례는 존재하지 않으나, 「화성시 문화예술 진흥조례」, 「화성시 생활문화진흥조례」, 「화성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대한 조례」, 「노작 홍사용문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관련 조례가 마련되어 있음. 또한 「2040 화성시 장기발전계획」(2019) 및 제2차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2020-2024)을 반영한 새로운 문화예술진흥 발전계획을 수립 중에 있음
- 홍사용 문화거리 구성에 있어 법·정책적 환경 분석은 홍사용 문화거리 조성사업 추진과 활성화 전략 수립에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정책을 위한 근거로 작용하며, 이에 화성시 및 화성시 문화재단, 노작 홍사용문학관등 공공주체간의 역할분담과 공동된 목표의 설정이 필요함을 시사함
- 또한 문화정책에 있어 상향식으로의 정책기조에 대응하여 사업의 계획·공모에서 시행, 조성 이후 운영에 이르는 사업추진의 단계에 시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함
- 특히, 본 사업의 매개자로서 화성시 문화재단의 역할이 중요하며 각 주체들의 역할 정의와 분담, 프로세스 구성에 따른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함



III

문화의 거리 활성화 사례검토

1. 해외사례
2. 국내사례
3. 정책적 시사점

III. 문화의 거리 활성화사례 검토

- 본 장에서는 동탄신도시의 문화시설과 유·무형의 문화자원을 바탕으로 콘텐츠를 개발 및 연계하여 홍사용 문화거리를 활성화하고자 ‘해외사례’ 및 ‘국내사례’로 나누어 관련사례를 검토함
- 지역의 문화예술 자원인 ‘노작 홍사용’의 활동을 바탕으로 한 동탄신도시 거주민의 공동체·정주의식 확립을 목표로 하는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기 위해 첫째, 문화예술을 통한 공원 및 고가 하부공간의 활성화 사례와 둘째, 시민의 참여를 통한 환경 및 네트워크 구축 사례 셋째, 시민-예술가-문화재단의 관계구축을 통한 문화예술 생태계 구축이라는 세 가지 관점에서 해외 및 국내사례를 선정하고 분석하고자 함
- 각 사례는 단순히 ‘문화의 거리’의 형태에 국한되지 않고 공원, 공방거리, 마을, 문화예술시스템 등 다양한 유형이며 이에 대한 분석을 통해 홍사용 문화거리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1. 해외사례

- 홍사용 문화거리의 활성화를 위해서 대상지의 환경적인 요인에 따른 장단점과 지역 문화예술 생태계 구축방안을 동시에 고려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세 가지의 해외사례를 검토함
- 홍사용 문화거리는 센트럴파크 공원과 이어지는 고가하부 및 지상 녹지가 결합된 구조로 시민의 참여를 통해 문화예술적 재생이 이루어진 미국의 하이라인 파크(HIGH LINE PARK) 및 고가하부 교각의 공간을 장인들의 공간으로 조성한 일본의 2k540 아키-오카 아티잔(Aki-Oka Artisan)의 사례를 통해 환경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또한 홍사용 문화거리 활성화를 위한 콘텐츠 개발에 있어 프랑스재단의 새로운 주문자(Les Nouveaux Commanditaires) 프로젝트 사례연구를 통해 시민-예술가-공공기관의 새로운 관계와 문화예술생태계 조성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표 III-1 | 해외 사례조사 대상

분석대상	국가 및 지역	환경 및 특성
하이라인 파크(HIGH LINE PARK)	미국 뉴욕시	공원
2k540 아키-오카 아티잔(Aki-Oka Artisan)	일본 도쿄시	고가하부 공방
새로운 주문자(Les Nouveaux Commanditaires) 프로젝트	프랑스 외 유럽	문화예술 생태계

1) 하이라인 파크(HIGH LINE PARK), 미국 뉴욕시

| 그림 III-1 | 하이라인파크 전경



(1) 조성개요

- 철거 대상이었던 하이라인은 맨해튼(Manhattan) 서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커뮤니티가 용도를 변경하여 오늘날의 공원으로 만들어 세계적인 영감이 되는 공공공간으로 불리게 됨
- 1999년 프렌즈 오브 하이라인(FHL:Friends of the High Line)라는 비영리 단체가 설립되었으며, 2003년 아이디어 대회 주최를 통해 하이라인은 인지도를 높이고 관심을 끌었음
- 이후 본격적인 재생 프로젝트를 통해 하이라인의 야생화는 그대로 보존하면서 한쪽 철로 또한 그대로 살리고, 다른 방향 철로는 걷기 좋게 만들어진 하이라인 파크가 2009년 6월에 처음 공개되었으며 2014년 9월에 완공됨
- 하이라인 안팎의 커뮤니티와의 협력을 통해서 연결되고, 건강한 이웃과 도시를 만드는데 있어 공공공간의 역할을 재구상하는데 전념하고 있음
- 연간 예산의 대부분은 공원 운영, 유지 및 프로그램 지원자들의 기부를 통해 이루어짐. 하이라인은 뉴욕시의 소유로 NYC Parks과의 라이선스 계약에 따라 운영됨

| 표 III-2 | 하이라인파크 사업 추진 경과

시기(년도)	추진내용
1999	하이라인 소유주인 CSX 교통이 구조물의 재사용을 위한 제안을 시작함. 철거 위기에 처한 하이라인 속 야생 식물이 가득한 정원에 영감을 받은 Joshua David와 Robert Hammond가 공공공간으로서의 보존 및 재사용을 옹호하기 위해 비영리 보호단체인 프렌즈 오브 하이라인(FHL:Friends of the High Line)을 설립함.
2003	프렌즈 오브 하이라인(FHL)은 36개 이상의 국가에서 720개의 아이디어를 받은 '아이디어 대회'를 주최하였으며, 이 대회는 인지도가 높았고 사람들의 흥분을 불러 일으켰다.
2004 - 2006	시장과 시의회의 강력한 지원으로 특별 구역 지정 구역이 제안됨. 첼시 서부 특별 법은 하이라인을 공공공원으로 사용하는 것을 촉진하였음. 시의회가 구역 변경에 통과하였고, 조경회사 및 디자인 스튜디오, 정원 디자이너를 선정함.
2009	CSX 교통이 구조물 소유권을 뉴욕시에 기증한지 4년 후, 최초 착공인 2006년 4월의 3년 후 하이라인의 첫 번째 구간이 대중에게 공개됨(Gansevoort에서 20번가까지). High Line Art는 2009년에 설립되었으며 매년 하이라인 주변에서 작품을 의뢰 및 제작하고 있음.
2012 - 2014	하이라인의 두 번째 섹션(20번가에서 30번가)이 대중에게 공개됨에 따라 뉴욕시 계획위원회는 철도 구역에서 세 번째 구간을 가능하게 하는 구역 설정 수정안을 승인함. 레일 구역의 하이라인(30번가에서 34번가, 10번가와 12번가 사이)는 임시 보도를 포함하여 2014년에 개장함.
현재	하이라인은 현재 500종 이상의 식물과 나무가 있는 1.45마일 길이의 하나의 연속 그린웨이임. 공원은 NYC공원 및 레크레이션 부서와 협력하여 프렌즈 오브 하이라인(FHL)에 의해 유지, 운영 및 프로그래밍됨. 공공공간과 정원 외에도 다양한 공공 프로그램, 커뮤니티 및 청소년 참여, 세계적 수준의 예술작품 및 공연을 모두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공간임.

출처 : 하이라인 홈페이지(<https://www.thehighline.org>, 검색일:2020.0925.)

(2) HIGH LINE PARK의 프로젝트

- 단순히 버려진 유휴공간을 공원화한 것이 아닌, 그 안에서 시민이 서로 만나고 교류하면서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마련함.
- 역사적인 고가 철도 라인에 지어진 하이라인은 공원 그 이상으로 꾸며짐. 정원을 산책하면서, 예술을 감상하며, 공연을 보고, 맛있는 음식을 맛보거나 친구 및 이웃과 교류하면서 뉴욕시의 독특한 관점을 즐길 수 있음.

| 표 III-3 | 하이라인 파크 주요 프로그램 소개(1)

주요사업 분야	주요사업 및 내용
Public Program 공공 프로그램	<u><i>OUT OF LINE</i></u> 뉴욕시에서 가장 흥미롭고 특별한 공연을 선보임. 월간 시리즈에서 공연 아티스트는 하이라인의 고유한 장소에 맞춤형되고 영감을 받은 장르와 연결된 '결속을 위한' 작품을 만들. 이러한 참여 공연은 음악, 춤, 대화 및 놀이를 통해 예상치 못한 여행으로 관객을 초대함.
	<u><i>ARRIBA!</i></u> 여름 밤, 하이라인은 공원에서 야외 댄스 공연장으로 변모함. 이는 이웃의 제안에 따라 개발한 파티로 뉴요커들이 모여 현지 살사를 즐기고 마스터로부터 춤 동작을 배우는 프로그램임. 숙련된 살사 댄서든, 아니든 상관없이 참여할 수 있음.
	<u><i>CONVERSATIONS</i></u> 공공장소에서 열어나가는 대화에 관한 공공 프로그램으로 친밀하고 참여적인 대화를 통해 우리 시대의 더 큰 문화적, 사회적 문제를 다룰 수 있음.
	<u><i>We are Here</i></u> 하이라인의 여러 위치에 걸친 텍스트 기반 사운드 설치작업임. 이 오디오 경험을 통해 시간의 흐름 속에서 보이거나 혹은 보이지 않는 사람들의 존재를 인식하고 참여시킴. 고가 산책로의 건축물은 지평선이 바뀌었음을 알 수 있는 대중에게 특정한 지점으로 재조정시킴. 청중은 하이라인의 4개 장소에서 이 작업을 경험할 수 있음. “여기(‘내 자신을 두는 곳에’)”라는 단어의 어원은 우리가 시간을 어떻게 살아가는지 상기시켜줌. 도시 존재의 의미를 탐구하며 “여기”와 관련된 모든 상태를 인식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고민하게 함. 지금까지, 여기에 대해, 그리고 앞으로를 생각하게 함.
Community Engagement 지역사회 참여	<u><i>High Line Network</i></u> 인프라 재사용 프로젝트의 그룹이며 이를 지원하는 사람들을 의미함. 먼저, 차세대 공공공간을 위한 프로젝트가 존재함. 활용도가 낮은 인프라를 새로운 도시 경관으로 전환하여 줄어드는 녹색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창의적 방법을 찾아내는 프로젝트라고 볼 수 있음. 공원이 될 수 있는 것을 재 정의하며 공공광장, 야외 박물관, 식물원, 사회 봉사단체, 보도, 환승 통로 등을 제시함. 두 번째로,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지원하는 프로젝트임. 도시의 사회적, 환경적, 경제적 이익이 가능한 많은 사람들, 특히 이웃 커뮤니티의 오랜 거주자에게 전달되는 것을 목적으로 공평한 공공공간을 만드는 방법을 모색함.
	<u><i>Sustainable Garden Project</i></u> 2019년 가을에 시작된 프로젝트로, 뉴욕시 전역의 수분절제 식물 재배에 초점을 맞춘 혁신적인 도시 원예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임. 이는 커뮤니티 주도로 이루어짐.

출처 : 하이라인 홈페이지(<https://www.thehighline.org>, 검색일: 2020.09.25.)

| 표 III-4 | 하이라인 파크 주요 프로그램 소개(2)

주요사업 분야	주요사업 및 내용
Art 예술	<u>전시(Commision)</u> 신흥 및 유명 아티스트와 협력하여 매년 하이라인 파크를 위한 특별하고 새로운 작품을 의뢰하고 제작함. 조각, 설치물, 벽화 등으로 공공예술의 전통적인 개념에 도전함. 정기적으로 1년 동안 진행되며, 지나가는 계절에 따라 각 작업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공함.
	<u>비디오 아트 예술프로그램(Channel)</u> :14th Street 하이라인에 위치한 비디오 아트 프로그램으로 개인전, 그룹전, 역사 작품, 신작 등의 순환 프로그램을 동영상 형식으로 선보임.
	<u>공연(Performance)</u> : 하이라인은 일 년 내내 예정된 아티스트 주도의 라이브 이벤트를 통해 야외극장으로 변신함. 공원 안팎에서 펼쳐지는 이 공연은 하이라인의 독특한 물리적 풍경과 사회적 공간과 상호 작용하여 관객의 참여를 유도하고 사려 깊은 대화를 유도함.
Learning 배움	<u>교육적인 파트너십(Educational Partnership)</u> : 학생들에게 하이라인을 사례 연구 장소이자, 실험실이 되어 실험, 분석 및 발견할 수 있는 장소로 제시함. 하이라인의 교육 프로그램은 학제 간 및 장소 기반 접근 방식을 취하며 학교와 협력하여 교실 내 워크숍과 공원 방문을 혼합하여 방과 후, 및 실습을 제공함. 매년 약 10,000명의 학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함. 하이라인은 학교와 교육자를 위한 독특하고 다양한 교육 도구를 제공하는데, 공공예술, 원예, 디자인 및 공학에 대해 배울 수 있음.
	<u>10대 대상(Teens)</u> : 하이라인은 예술 및 사회 정의, 도시 정원 가꾸기 및 식품 정의, 문화 행사 제작, 시민 참여 및 이웃 참여 분야에서 지역 청소년(15-19세)에게 유급 일자리를 제공함. 청소년은 실무자로서 전문 기술과 실무 경험을 습득하고 도시 전역의 공공장소에서 다른 청소년을 만남. 하이라인은 공원 주변 지역과 관계를 맺어 해당 지역의 학교에 다니거나 근처에 사는 청소년을 고용함. 녹색위원회, 청소년 예술 및 문화위원회, 청소년 참여예산위원회의 세 가지 채용 프로그램을 통해 1년에 4,500시간 이상을 함께 일함. 또한 졸업생들에게는 지속적인 멘토링과 네트워킹 지원을 제공함.
	<u>가족 대상(Families)</u> : 공공예술, 원예 및 역사를 탐구할 수 있는 장소로서 하이라인 파크를 제시하고 가족이 함께 놀고, 만들고, 배울 수 있는 식물 및 동물의 특징을 지닌 탐험 가이드 책자를 제공함.

출처 : 하이라인 홈페이지(<https://www.thehighline.org>, 검색일: 2020.09.25.)

(3) 특징 및 시사점

○ 방문객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함

- 약 45분 동안 무료로 하이라인파크의 역사, 디자인 등에 대해 설명을 들으며 투어할 수 있는 가이드 투어, 하이라인 공원 곳곳에 펼쳐지는 다양한 분야의 예술 작품 전시 및 공연, 가족단위로 참여하는 미술, 원예 관련 교육 프로그램 등 다양하고 풍부한 프로그램으로 방문객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고 이어짐

○ 하이라인 대표 콘텐츠 '4가지'는 공공예술, 자연친화적 조경, 디자인, 역사를 꼽을 수 있음

- 기본적으로 100년 역사의 철도 구조물과 그동안 자란 풀과 식물을 그대로 보존하고, 인공과 자연(Agri-Tecture)을 조화를 이룸. 보도와 화단에는 식생을 강조하기 위한 특색 있는 디자인을 도입하고, 다양한 문화예술 콘텐츠와 커뮤니티를 운영하여 하이라인을 사람이 모이는 문화 중심지로 만들었음.
민간 주도로 운영되고 있는 하이라인은 '하이라인을 사람이 모이는 공공공간으로 만들자'는 꿈에 공감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회복된 공간이었음
- 비영리 단체인 '프렌즈 오브 하이라인(FHL)'이 주민, 지자체, 부동산 개발자들을 일일이 설득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자 모두 만족할 성과를 얻기 위해 노력했으며, 그러한 노력 끝에 지금까지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공공공간의 가치를 지키고 있음.
- 자원봉사자로서의 시민이 하이라인의 가치와 정체성을 보여주는 안내자이자 일꾼으로서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하이라인을 지탱하고 있음. 도슨트, 포토그래퍼, 방문객을 위한 안내자, 다양한 문화행사 프로젝트의 행정적 처리 및 뒤처리를 담당하는 담당자 등이 모두 시민으로 이루어져 있음.

○ 외부자본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닌 기부금으로 자금 대부분이 운용되고 있음

- 하이라인 전체를 총괄 운영 및 관리하는 '프렌즈 오브 하이라인(FHL)'은 현재 약 120명에 이르는 인원들이 상주 근무하며, 운영 자금 대부분은 기업, 개인으로부터 받은 기부금으로 쓰이기에 운영을 위한 기부금 유치에 노력함
- 관리비 90% 이상을 기부금과 멤버십 후원, 아트샵, 하이라인 대관 수익으로 충당하고, 처음부터 지금까지 시민봉사자와 민간단체가 주도하여 만들고 있기에 흔들리지 않고 정체성을 지키며 나아가고 있음
- 멤버십은 유료로 등록이 이루어지며, 모든 비용은 후원금으로서 하이라인 관리비에 기부됨. 하이라인 매거진, 문화행사 할인, 멤버십 회원만 가능한 투어, 문화콘텐츠를 제공하며 봄이 되면 하이라인 파크 가드닝 작업에 직접 참여함. 또한 회원을 토대하여 분기별 파티로 회원간 커뮤니티를 돈독하게 하며 더욱 하이라인을 만끽할 수 있도록 도움

2) 2k540 아키-오카 아티잔(Aki-Oka Artisan), 일본 도쿄(東京)시

(1) 조성개요¹⁾

- 경관, 소음, 일조 등의 문제로 별다른 활용 없이 방치되는 경우가 많은 도시 고가도로 하부를 사람들의 동선을 활용한 테마가 있는 커뮤니티 거리로 조성함
- JR동일본도시개발이 JR야마노테선(山手線, Yamanote Line), JR게이힌도후쿠선(京浜東北線, KeihinTohoku Line) 철로 교각 아래에서 운영하는 상업시설로 낙후된 공간을 활용한 상업과 문화의 중심임
- 2K540은 상점부터 도쿄역까지 2.540km, Aki는 아키하바라(秋葉原, AKIHABARA)를, Oka는 오카치마치(御徒町, OKATIMATI), ARTISAN은 프랑스어로 장인(匠人)을 의미함
- 도쿄 오카치마치와 아키하바라역 사이의 철로교각 아래에 위치한 상점가로 일본인 특유의 장인정신이 반영된 가죽공방과 목공예·수공예품 등을 판매하는 상점가들이 대규모로 위치해 있음

| 표 III-5 | 2K540 Aki-Oka Artisan의 활용사례 분석

프로젝트명	2K540 Aki-Oka Artisan	
시 공 사	JR동일본도시개발 JR East Urban Development	
소 재 지	일본 도쿄(東京) Tokyo, Japan	
건축 연도	2010	
공간 용도	공방 및 상업시설	
입지 유형	상권 근접형	
활용유형		활용정도
고가철도 하부 유휴 공간 이용		적극적 활용 (유휴지와 주변 환경과의 연계)

1) 김제중(2019), 「공공공간을 활용한 문화공간화 사례 연구 -도쿄 우에노지역을 중심으로-」, 『조형미디어학』 Vol.22 No.2, 한국일러스트아트학회 등 참고

(2) 운영 현황

- 약 5,000㎡의 면적으로 주식회사 JR 동일본 도시개발이 오전 11시부터 오후 19시까지 운영하며(제1기 32점포, 제2기 20점포), 매주 수요일이 휴무일이나 점포 및 시설에 따라 유동적이고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 수요자(관광객)와 공급자(판매자)가 직접 소통 및 교류할 수 있도록 하여 유행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물건을 판매하는 것 외에 교육의 기능을 추가하여 콘텐츠를 다양화 하고 있음

(3) 공간배치 및 매장구성 현황

| 그림 III-2 | 2K540 Aki-Oka Artisan 매장 배치도



출처: 2K540 Aki-Oka Artisan 홈페이지(검색일: 2020.09.24.)

- 관광객들이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매장의 위치에 영문 이니셜을 부여하였으며, 다양한 상점, 카페 및 레스토랑, 화장실, 자전거 및 휠체어 거치대, 무선인터넷(Wifi) 등을 설치하여 이용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사회적 약자의 참여 촉진과 교류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

(4) 입점 매장 정보

| 표 III-6 | 공간별 매장 현황(1)

위치	상호	업종	매장설명
A	일본백화점 (日本百貨店)	백화점	일본의 전통 공예품 등 판매
B	공간공방 타쿠야 (空間工房 卓屋)	가구, 잡화	식탁 등 목재 가구 전문 매장
	히노모토탄푸 (日乃本帆布)	가방	가방 전문 매장
	ターナー・カラスパイス	인테리어	다양한 소재의 인테리어 작품 매장

| 표 III-7 | 공간별 매장 현황(2)

위치	상호	업종	매장설명
C	conosaki	가방 (란도셀)	순수 일본제품을 사용하는 란도셀(일본 가방)매장
	DIARGE EAST TOKYO	가죽 잡화	남성 스타일의 가죽 잡화 매장
	AngelDEPT	베이비용품	‘다른 사람들과 다른 욕아를 한다’는 컨셉을 가진 독특한 베이비용품 매장
D	ミック	가죽 잡화	‘2년 후에도 사용하고 싶은 제품만들기’를 컨셉으로 한 가죽 잡화 매장
	やなか珈琲店	커피	30여 종류의 커피콩 전문 매장
E	イフティアート	모자	과거의 향수를 느끼게 하는 전통모자 매장
	Atelier Rimo	꽃	‘꽃을 만드는 설렘과 기쁨’이라는 컨셉의 꽃 공예 매장(레슨, 판매 등)
	BLUE TRICK	청바지	오카야마현(岡山県) 이하라시(井原市) 출신 장인이 만드는 청바지 가게
F	K CRAFTWORK JAPAN	시계	시계 전문 매장, 디자인 고안 및 제작, 가공, 조립 등 가능
	Cafe ASAN	카페	애니메이션 카페
G	R A Y Z C L O S E T	가방	가죽 공예품 매장
	匠の箱 きせつとこうげい	공예	손톱깎이 등 공예품 매장
	創心万華鏡	만화경	만화경 전문 매장
H	Borsa	가죽제품	가죽제품 제조 및 판매
	器屋_tuku	도자기	교토(京都) 및 고베(神戸) 출신 도예 작가들의 공동 매장, 찻잔 및 그릇 등 판매
	MASUNAGA 1905	안경	1905년 일본 후쿠이현(福井県)에서 창립한 안경가게, 기계가 아니라 손으로 제작하는 안경 전문점
I	nocra	목제 잡화	홋카이도(北海道) 아사히카와(旭川)에서 제작한 목제품 매장
	田畑硝子工房	유리공예	2020.2.13. 영업 종료
	World Coin Gallery	보석	고대 그리스, 로마시대 동전 등 코인 주얼리 매장
	Partina	잡화	애완동물용 잡화 매장
J	GLEN CLYDE SOCK CLUB TOKYO	양말	양말 전문 매장
	Hacoa	목제 잡화	일본의 잡화 브랜드 「Hacoa」의 직영점
K	@griffe東京	가방	빈티지 풍의 가방 매장으로 ‘세상에 단 하나 뿐인 제품’을 지향
	Resew	의류	의류 및 각종 소품 전문 매장

| 표 III-8 | 공간별 매장 현황(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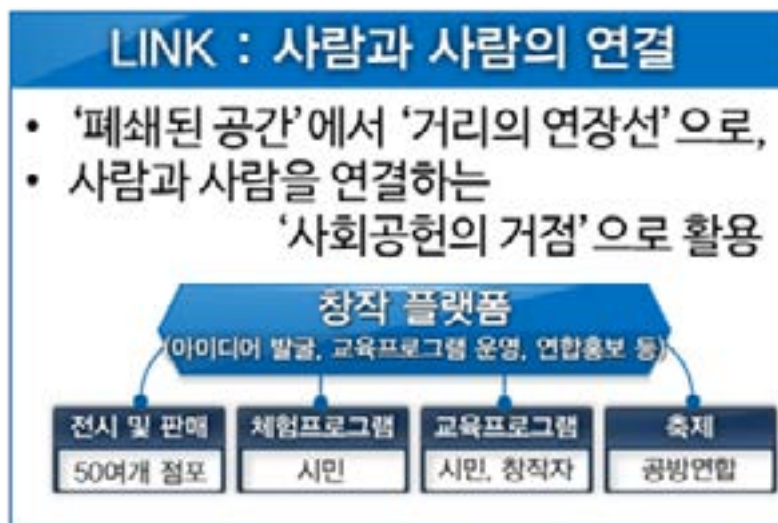
위치	상호	업종	매장설명
L	めぐりて	전통 공예	전통 공예 전문 매장
	b3Labo	가죽 제품	가죽 제품 판매 매장
	LITSTA	가방	수공예 가방 매장
M	MAITO	염색 제품	전통기법의 초목염색으로 니트, 가방 등을 제작하여 판매하는 매장
	2moa	주얼리	여러 소재로 만드는 주얼리 매장
	高取焼 鬼丸雪山窯元	도자기	후쿠오카현(福岡県) 산 속의 재료로 만드는 도자기 전문 매장
N	Atelier SYOKO	클레이	클레이로 만든 인형 및 각종 제품 판매
	Allamanda-leather	액세서리	가죽 액세서리 매장
	Tokyo noble	우산	‘세계에서 단 하나뿐인 우산’을 목표로 하는 우산 전문 매장
	遊食家Boo	음식점	일본식 퓨전요리(수요일 영업)
	STUDIO UAMOU	디자인	숍, 갤러리 등
O	inouei	가죽	프랑스 출신 장인이 만드는 가죽제품 매장
	A:buchiadot	액세서리	독특한 디자인의 액세서리 매장
	染めこうば にじゆら	손수건	오사카(大阪) 사카이(堺) 지역 브랜드 손수건
	MASAAKi TAKAHASHi	액세서리	전통공예기술인 ‘요세모노(よせもの)’로 만드는 액세서리 매장
P	SPINGLE MOVE	신발	국산(일본산) 운동화 매장
	桐屋田中 2k540店	가구	明治25年(1892)에 설립 된 가구점
	L a r g e s k	액세서리	남성 액세서리 공방 겸 숍
	toumei ha na re	잡화	투명한 제품(인테리어 소품 등)을 직접 만들거나 살 수 있는 점포
Q	クリエー鉄	잡화	철, 스테인리스 등을 소재로 한 공방형 점포
	中澤鞆	가죽제품	가방 등 가죽제품 판매
	トウメイ	수지제품	1,000여 종류의 수지 제품을 판매

출처: 2K540 아키오카 아티잔 홈페이지(<https://www.jrtk.jp/2k540/shop>) , 검색일 2020.09.24.

(5) 특징 및 시사점

- 고가도로의 하부는 환경적으로 불리한 부분이 있으나 이를 적극적으로 보완한다면 상업적 공간 혹은 전시 및 체험을 위한 공공의 공간으로 활용 및 활성화가 가능함을 보여줌
- 오카치마치 인근은 에도(江戸)시대의 문화를 전하는 전통공예 장인이 활동하는 공간으로 현재에는 급변하는 사람들의 감성을 반영하여 상품을 판매하는 것 외에 생활 스타일을 제안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변화하고 있음
- 교각 아래에 위치해 있어 기상현상의 영향에서 비교적 자유로우며, 누구나 제한 없이 어느 방향에서든 접근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여 지역 주민 및 관광객들 간의 인적교류가 가능한 플랫폼의 기능을 함
- 오카치마치 주변의 옛날식 건물, 창고를 비롯해 주차장이나 창고로 이용하던 공간을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공간으로 활용하여 교각 아래라는 다소 어두운 공간을 과거의 감성을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재탄생시킴

| 그림 III-3 | 2K540 아키오카 아티잔 운영구조



- “LINK=묶다” 라는 개념을 활용하여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사회공헌의 거점으로, 창작자와 창작자, 창작자와 기업, 창작자와 방문객 등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장소로서 교각 아래를 폐쇄된 공간이 아니라 거리의 연장선이라는 개념으로 재탄생
- 다양한 이벤트를 통한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를 회복시킬 수 있으며, 물건의 판매 외에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함으로써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 및 제안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발전함

3) 새로운 주문자(Les Nouveaux Commanditaires) 프로젝트 : 프랑스

(1) 구조 및 개요

- 1991년 프랑스 재단(Fondation de France)²⁾의 문화정책으로 채택되어 유럽 각지로 보급된 공공미술 프로젝트로, 시민이 미술관에 전시된 작품을 수용하는 단순한 관객에서 벗어나 창작예술의 커미션을 하는 실제적 주문자의 역할을 취한다는 새로운 형태의 모델을 제안함
- 새로운 주문자에 관한 의정서(The Protocol of the New Patrons, 1991)에 따르면 이는 주문자, 예술가, 이를 잇는 매개자를 유기적으로 예술과 사회를 긴밀히 연결시켜 나가려는 시도로 예술가와 주문자(patrons) 그리고 매개자(mediator)의 공동 작업으로 진행되며 각자의 역할 및 특징을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음

| 표 III-9 | 새로운 주문자에 관한 의정서에 따른 각 주체별 역할

주 문 자 (Patrons)	- 사회를 구성하는 개인 혹은 단체 등 누구라도 환경이나 주어진 상황에 변화를 바라며, 예술작품의 실현에 있어서 단순한 관람객·수용자가 아닌 주문자로서 책임을 지는 사람
매 개 자 (Mediator)	- 예술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주문자의 요구를 구체화·현실화하여 적합한 작가를 선정할 역량을 가진 자 - 주문자와 예술가, 공공과 예술의 영역을 매개하고 협력을 도출하는 역할 - 기존 미술관에서 큐레이터·커미셔너가 직접 주문자의 지위에서 작가 및 작품을 주문해 온 것과 차별
지 원 자 (Supporters)	- 프로젝트 진행시 연구·조사 단계의 비용 지원 - 매개자의 작가 초대 및 현장답사 지원 - 매개자 1차 초빙

출처: 프랑스재단 홈페이지(<https://www.fondationdefrance.org/>)자료를 토대로 재구성

- 프랑스재단은 지원자(supporter)로서 프로젝트 진행을 위한 매개자를 선정하고, 매개자가 예술가를 선정함
- 또한 지원자로서의 재단은 ‘매개자가 수행하는 연구, 조사 단계의 비용 지원’, ‘매개자의 작가 초대 및 현장 답사 지원’ 등 매개자가 주문자에게 구체적인 제안을 제시하고 이를 주문자가 결정하기까지 모든 준비 단계의 비용을 지원해 주는 역할을 수행함
- 지원자의 역할은 프랑스재단 뿐만이 아니라 각 국의 사례에서 다양한 문화주체들이 수행할 수 있음

2) 프랑스 재단은 초대 프랑스 문화부 장관인 앙드레 말로(Andre Malraux)에 의해 1969년 설립된 민간기관으로 예술분야의 연구와 새로운 방법의 접근을 위해 지원을 진행함.

(2) 주요 사례

- ‘새로운 주문자’의 첫 프로젝트는 프랑스 디종대학 학생식당 주방직원들의 초상화(Portraits)프로젝트로 프랑스의 대표적 현대미술 기관 중 하나인 르 콩소르시엥(Le Consortium, 프랑스 디종시 소재) 창립 디렉터인 자비에르 두루(Xavier Douroux)를 매개자로 진행됨

| 표 III-10 | 새로운 주문자 프로젝트 디종대학 사례 분석

주 문 자	프랑스 디종 대학교 학생식당 주방직원 일동
매 개 자	자비에 두루(Xavier Douroux)
지 원 자	디종대학교 생활지원센터, 프랑스재단
예 술 가	얀 페이밍(Yan Pei-Ming)



출처: 프랑스재단 홈페이지, <https://www.fondationdefrance.org/>(검색일:2020.09.27.)

- 프랑스 디종대학은 오랜 역사를 지닌 미술대학이지만 학생식당에서 종사하는 주방직원들에게 예술이란 선택받은 소수만이 향유하는 별개의 영역으로 존재하였음
- 주방직원들은 대학의 구성원으로서 예술을 통해 소통하고자 하였으며, 대학은 이에 이들의 요청에 대해 지원자로서 관심을 기울이고 프로젝트에 부분적인 편당을 제공함
- 매개자는 이들과의 교류를 통해 주문자로서 예술에 대한 요구를 구체화하여 지역에 거주하는 예술가와의 작업을 주선하였고, 참여를 희망하는 주방직원들의 초상화가 제작되어 학생식당에 설치되었음
 - 초상화는 하나의 예술작품일 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학생식당을 방문하는 학생들과 그들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종사자를 잇는 의의를 지님
- 새로운 주문자 프로젝트에 따른 예술작품 혹은 프로젝트의 주문은 이를 원하는 주민들에 의해서도 이루어졌는데, 아래 프랑스 볼로뉴의 들라크루아가(Delacroix 街)의 사례가 이에 해당함

| 표 III-11 | 새로운 주문자 프로젝트 들라크루아가(街) 사례분석

주 문 자	들라크루아가(Delacroix street) 주민 일동
매 개 자	브루노 듀퐁(Bruno Dupont)
지 원 자	프랑스재단
예 술 가	킨야 마루야마(Kinya Maruyama)





출처: 프랑스재단 홈페이지, <https://www.fondationdefrance.org/>(검색일:2020.09.27.)

- 프랑스 볼로뉴 시에 위치한 들라크루아·몰리넷 가(街)의 거주민들은 참여형 주택개조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이와 어우러질 예술적 프로젝트를 주문함
- 해당 프로젝트는 첫째, 아이들을 위한 공간의 부족과 둘째, 이웃과의 만남 및 커뮤니티 활동장소의 부족을 개선하기 위한 새로운 공간과 활동을 목적으로 하였음
- 주문자인 들라크루아·몰리넷 가(街)의 거주민들은 생활공간 내에 상기의 변화를 주기로 결정하고 예술적인 프로젝트를 바탕으로 지역의 이미지를 개선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해 2012년 7월에 일본 예술가 킨야 마루야마와 건축가 소피 리처드를 초빙하여 워크숍을 진행함
- 예술가들은 들라크루아·몰리넷 가(街)의 거주민들의 요구를 수용하여 이를 위한 커뮤니티 공간과 정원, 불링장, 뷰포인트 등의 위락공간에 주민참여형 예술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음

(3) 특징 및 시사점

- 전통적으로 국가 주도적 공공서비스 원칙에 따라 중앙집권적 관료체제에 의한 프랑스문화예술정책의 기초상 1991년부터 민간재단이 주도한 ‘새로운 주문자 프로젝트’는 문화예술생태계의 다양성 확보에 상당한 의의를 지님

| 그림 III-4 | 새로운 주문자 프로젝트 클러스터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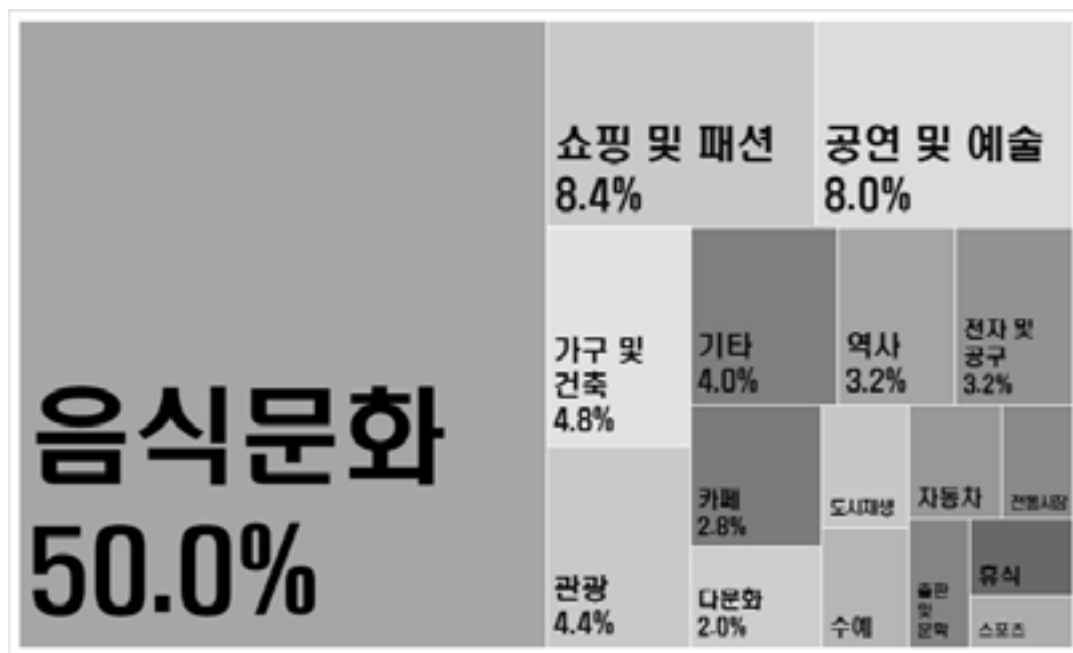
출처: 프랑스 문화재단 홈페이지, <https://www.fondationdefrance.org/> (검색일:2020.9.25.)

- ‘새로운 주문자 프로젝트’는 1991년 이후 지난 30여 년간 각국의 현장에서 334건의 프로젝트가 등록되어 프랑스 외에도 벨기에, 이탈리아, 영국 등에서도 채택이 확산되고 있음(<그림 III-4>).
- 해당 사례는 국가와 지역에 따른 프로젝트 각각의 내용보다 각 문화예술의 영역에 있어 소비자와 매개자 그리고 예술가가 함께 지역의 문화 예술적 환경을 만들어 가는 새로운 방식을 구축한 것에 함의가 있음
- 즉, ‘새로운 주문자 프로젝트’는 시공간적으로 한정된 예술의 영역에서 벗어나, 다양한 수요에 바탕을 두고 모두가 새로운 방식의 예술주문체계에서 ‘주문자’가 될 수 있음을 선언하여 생활의 영역에서 시민이 어떤 문화예술을 필요로 하는지를 반영하고 스스로 주체로서 참여하는 상향식 구조임에 함의가 있음

2. 국내사례

- 행정안전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수집하여 ‘공공데이터포털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자료(2020년 9월 기준)에 따르면 약 250여 곳의 국내 특화거리가 조성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됨.³⁾ 거리소개에 의한 핵심 키워드를 분석하여 순위별로 보면 ‘음식문화’ 50.0%, ‘쇼핑 및 패션’ 8.4%, ‘공연 및 예술’ 8.0%이며 주로 상업지구를 중심으로 형성된 모습을 보임

| 그림 Ⅲ-5 | 2020 전국지역특화거리 키워드 분석



출처 : 공공데이터포털 홈페이지 자료를 토대로 재구성(검색일:2020.10.4)

- 국내의 특화거리들은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추세이며 대다수의 ‘문화의 거리’ 사업 역시 유사한 맥락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 시민의 문화향유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지 못하는 실정임.
- 이에 본 절에서는 문화적인 인물의 활동을 중심으로 형성된 대구광역시의 ‘김광석 거리’와 민간영역을 중심으로 예술인과 거주민간의 자발적인 활동의 결과물인 수원시의 ‘행궁동 벽화골목’, 유희공간의 활성화를 문화적으로 시도하고 있는 인천광역시의 ‘문화예술특화거리 조성사업’ 사례를 통해 ‘홍사용 문화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활성화 방안에 있어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3) 단, 특화거리의 지정은 조례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행정안전부가 파악하고 있는 시도별 특화거리 데이터가 전국의 지자체별 특화거리로 조성된 모든 거리를 반영하지 못 할 가능성이 있음

1) 김광석 거리, 대구광역시

| 그림 III-6 | 김광석 거리 전경



(1) 조성개요4)

- 김광석 거리는 방천시장의 ‘별의별 별시장 프로젝트’ 이후 추진된 ‘문전성시 프로젝트’에 파생되어 탄생하였음. 방천시장은 대구의 재래시장으로 한때는 점포수가 1,000개가 넘기도 하였으나 도심공동화와 대형마트, 백화점 등에 밀려 점점 쇠락해져갔으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별의별 별시장 프로젝트’, ‘문전성시프로젝트’ 등의 사업이 진행되었음

① 별의별 별시장 프로젝트

- 방천시장 예술프로젝트로 2011년 세계육상경기대회를 앞두고 주요 마라톤코스인 방천시장 일원의 열악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2009년 2월부터 6월까지 시행된 프로젝트임(대구광역시 중구청, 2019)
- 시장의 빈 점포를 예술인들의 창작공간 및 전시공간으로 활용하여 방천시장의 침체된 공간에 생기를 불어넣었으며, 작가들의 작업실 및 작품이 일반인들에게 공개되어 관광명소화 됨. 하지만 단기적 프로젝트의 성격이 강하여 지속적인 추진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었음

② 문전성시프로젝트

- ‘별의별 별시장 프로젝트’에 이어 추진되었으며, 대구광역시 중구가 주최하고 (사)한국건축가협회 대구지회가 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 대구광역시가 후원하였음.
- 예술가의 활동이 더해진 전통시장의 새로운 형식을 제시하고 예술과 문화가 어우러진

4) 『문화상업가로 이용행태 및 만족요인분석: 김광석 다시그리기 길을 대상으로』, 장석규(2020), pp. 31-32, 『문화상업가로의 젠트리피케이션 과정 및 특성에 관한 연구: 김광석길 및 방천시장을 사례로』, 최연우(2018), pp.32-37를 재구성

장터로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으며, 시장상인과 예술가들의 협업을 통한 김광석길만의 특색 있는 문화상업 가로로 조성되었다는 평가를 받음.

- 1단계('09.10~'10.5)는 가판대 디자인 개선, 시장게이트 설치 등 13개의 사업을, 2단계('10.6~'11.3)로 김광석 다시그리기길 조성 등 18개 사업이 이루어졌으며, 3단계('11.5~'11.12)에서는 방천시장 상인회가 주관이 되어 상인교육, 토요 오! 오시장 등 4개 사업을 추진하였음.

③ 김광석 다시그리기길

- 김광석 길은 김광석의 삶과 음악을 바탕으로 어둡고 우범지역화 되어가는 방천독길 벽면에 문화를 입혀 사람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공간을 조성한 것으로, 현재는 대구시 중구 골목투어 4코스에 포함된 전통시장과 문화예술 공간이 결합된 문화콘텐츠임.
- 문전성시 프로젝트의 2단계 사업추진 과정에서 진행된 ‘김광석 다시그리기길’이 전국적으로 명성을 얻으며 대구 관광의 거점 명소가 됨.
- 문전성시사업 종료 후에도 잔여구간인 110m에 대한 벽화작업을 마무리하였으며, 쌈지공원조성 및 김광석 조형물을 설치함. 2013년에는 김광석 거리 관광활성화사업을 통해 벽화 리뉴얼 사업, 골목방송국 설치, 야외공연장 조성, 화장실 신축 등으로 편의 시설 확충. 김광석 노래 부르기 대회, 추모행사, 50주년기념 거리콘서트 등의 추진과 히든싱어 프로그램 등 김광석이 언론에 조명됨과 더불어 전국적으로 관광명소가 됨.

| 그림 III-7 | 김광석 거리 위치



출처 : 대구광역시 중구 근대문화여행 홈페이지(검색일: 2020.10.11.)

④ 김광석길 리뉴얼 사업

- 2010년부터 2012년에 설치된 벽화들이 노후화되어 김광석 거리에 근대골목 관광활성화 사업과 연계하여 벽화, 시설을 포함한 전반적인 리뉴얼사업을 추진하게 됨
- 대구 근대골목 투어가 ‘2012관광의 별’, ‘대한민국 대표 관광명소 100곳’에 선정되는 등 전국적인 관심지역으로 부상함에 따라 늘어나는 관광객에 대비한 관광인프라 및 서비스 기반 정비 및 보완이 필요하여 2013 문화체육관광부의 도시 관광 활성화

사업에 공모하여 선정되었고, 중구의 다양한 골목 투어 코스와 연계 활성화 할 수 있는 스토리텔링 기반 관광 활성화 방안을 준비함

- 시작은 근대골목 2코스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었으나, 김광석 거리를 포함한 사업으로 계획을 변경하고 스토리텔링 및 마스터플랜 추진 방향을 도출, 근대골목 2코스 및 김광석 거리에 대한 안내체계 등 관광기반 사항을 정비 및 보완함은 물론 다양한 관광프로그램 도입을 통하여 방문객 수용태세를 정비하는 계기가 됨
- 사업의 성과로 김광석 거리 콘서트홀, 골목방송 스튜디오의 시설을 조성하고 벽화 47점, 조형물 2점 교체 및 정비, 스피커 19개소 정비, 보안등 41개소 교체 등 시설을 리뉴얼함
- 2014년,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김광석 길 운영위원회’를 꾸려 주도적으로 ‘벽화 리뉴얼 사업’을 진행하였으며 이후 지역 예술가 및 다양한 분야의 예술가들이 주도한 ‘2014 방천 아트 페스티벌’이 자체적으로 열리며 이러한 흐름 속에서 마을 기업,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의 형태들이 다양하게 나타남

| 표 III-12 | 김광석 거리 추진과정

시기(년, 월)	추진내용
2009. 02	별의별 별시장 프로젝트
2009. 10	문전성시 1차
2010. 06	문전성시 2차
2011. 05	문전성시 3차
2012. 11	근대골목 관광활성화사업
2015. 04	열린관광지 시설보강
2016 이후	유지, 보수, 관리

(2) 시설 및 프로그램

- 대구광역시 중구 대봉동에 위치하였으며 근린상업지역, 준주거지역, 제2종 일반 거주 지역으로 지정되어 카페, 상점 등 63개소의 상업시설이 있음. 초기에는 공방 및 문화적 시설이 많았으나, 지가와 임대료 상승에 따라 대봉동 안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하여 현재 김광석 거리에는 카페와 음식점 등의 상업시설만 남아있는 실정임
- 김광석 거리 벽화시설의 경우 벽화와 조형물, 그리고 벽화거리의 관광안내소인 골목방송 스튜디오로 나눌 수 있음. 휴게시설의 경우 버스킹, 거리 이벤트 등이 이루어지는 광장에 벽 1식이 구성되어 있고, 벽화 앞 포토존을 위한 14개소의 벤치가 구성되어있음. 주요시설을 살펴보면 야외 공연장은 남측입구에서 북측입구 쪽으로 약 100m지점에 위치하고 있으며, 김광석길 콘서트홀이라는 명칭으로 대구광역시 중구청에서 별도의 공연 신청을 접수받아 상시 운영되고 있는데 주말 대부분 지속적으로 공연이 열려 지역 대중예술을 위한 문화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음.
- 김광석 스토리하우스는 동덕로 8길 14-3에 구성되어 있으며, 남측입구 끝부분에서 약50m 떨어진 우측골목에 위치하고 있음. 김광석의 사진과 악기, 악보 등 유품

100여점이 전시되어 있는 공간으로 김광석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라 할 수 있음⁵⁾

| 표 III-13 | 김광석 거리 주요시설

	
골목방송 스튜디오	벽화 및 조형물

| 표 III-14 | 김광석 거리의 시설 및 프로그램 현황

구분	내용		
벽화거리 시설	벽화 41점	조형물 3점	골목방송스튜디오 (관광안내소)
휴게시설	앉음벽 1식, 벤치14개		
편의시설	화장실 1개소, 주차장 1개소, 스피커 13점, CCTV 및 보안등		
주변현황	카페, 상점 등 63개소, 쌈지공원		
프로그램	스탬프 투어, 버스킹 공연		
주요시설	야외공연장, 김광석 스토리하우스		

5) 장석규, 위의 논문, pp.35-37.

○ 김광석 거리 세부 요소⁶⁾

| 표 III-15 | 김광석 거리 세부요소

분류		내용
물리적 요소	벽화거리	방천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지역주민, 상인, 문화예술인들의 여론을 수렴하여 우범지역으로 전락해가는 방천독길을 사람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공간으로 조성함. 30여명의 작가가 참여하여 방천시장의 역사, 이야기, 상인들의 이야기를 스토리텔링을 통해 벽에 조형물, 페인팅, 설치미술을 통해 환경개선을 이루었고 방천시장과 연계되는 ‘예술시장’, ‘예술공간’으로서의 이미지를 구축함
	편의시설	공연장, 골목방송국, 화장실 등관광객을 위한 편의시설을 확충하며 발전하고 있음.
비물리적 요소	휴먼웨어	상인 공모, 기획단 구성, 워크숍 및 타운 미팅, 스탬프 투어, 팸 투어 등을 중심으로 한 예술가 상인 프로그램이 고안되었으며, 공중 토론장이 펼쳐졌음.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리뉴얼 도미노 상점, 방천릴레이 리뉴얼 프로그램 구체적으로 진행되었는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방천 릴레이리뉴얼 프로그램’을 통해 김광석이라는 주제로 스토리텔링 벽화가 고안되고 실천되었다는 것임. 이 프로그램을 통하여 지금까지 대구 방천시장이 성공 사례로 남게 되는데 지대한 공헌을 함.
	홍보 및 마케팅	예비 작가 아카데미, 속닥속닥 수다방(BBS 음악방송, 속풀이 노래방, 수다방으로 이어짐), 아트 스페이스 방천 기획전(아트 스페이스 방천, 방천시장 사진 공모전 등이 이어짐), 토요 오! 시장 토요일은 밤이 좋아(참여마켓, 방천 스타 발굴, 체험 교실, 장수 사진과 다문화 가족에 대한 촬영 서비스 등이 이어짐), 방천 소식지(방천신문, 홍보책자, 방천시장 홍보 영상물 발간을 통한 마케팅 전략을 실천함)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함. 현재 ‘버스킹 공연’, ‘문화체험투어’, ‘맛집 투어’, ‘스탬프 투어’, ‘골목 방송국’이 진행 중임.

(3) 시사점

○ 문화예술을 활용한 도시재생으로서 지역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영향을 끼침

- 문화 자원을 활용해 전통시장이 새로운 활력을 찾은 도시재생의 일환으로서, ‘문화 예술형’ 시장 만들기를 테마로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음. 쇠락해가고 있던 방천시장에 생기를 불어넣었고, 예술가들과 시장상인들이 함께하여 예술시장을 기획하였는데, 여기에 김광석 거리도 포함됨
- 지역 내 활력을 불어넣었을 뿐만 아니라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합동조합 설립 등 일자리 창출과 공방, 갤러리, 체험시설, 아트숍, 뮤지컬, 무용, 다큐 등 새로운 문화예술 창작공간을 형성함으로써 지역 경제를 활성화했다고 볼 수 있음.

6) 김광석 거리의 도시재생사업요소가 이용자의 만족도 및 행동의도에의 영향 관계 분석: 김광석 다시 그리기 길의 방문객을 중심으로, 백승준(2019), pp. 30-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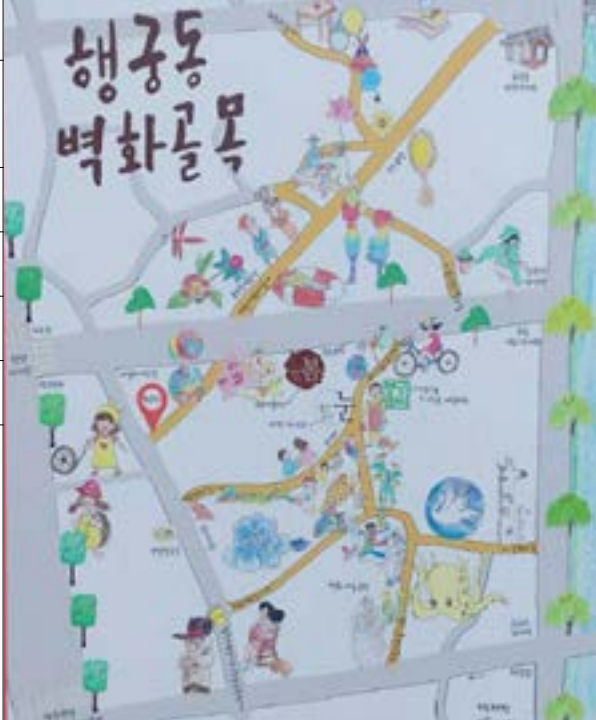
- 지역 명사를 스토리텔링을 통해 활용함으로써 거리를 조성하였으며, 이는 새로운 장소성을 부여함
 - 대구 대봉동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가수 故김광석을 활용하여 예술가들이 벽화 및 조형물들을 설치하고, 공연 및 프로그램 등을 통해 사람, 예술, 공간을 결합한 문화의 거리로 거듭남
- 지속적인 발전이 거듭되는 과정 지향의 프로세스를 보여주는 사례임.
 - 별의별 별시장 프로젝트와 문전성시 프로젝트를 거쳐 김광석 거리가 점진적으로 발전하는 방향으로 구성되었으며, 프로젝트 사업이 종료된 후에도 거리 활성화를 위한 꾸준한 노력들을 해나감
 - 물리적인 측면에서 벽화리뉴얼 및 쌈지공원 조성, 골목방송국 설치, 야외공연장 조성, 화장실 신축 등이 점진적인 발전이었음
 - 또한 비물리적 측면에서 김광석 노래 부르기 대회, 추모행사, 50주년 기념 거리 콘서트 등의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진행함으로써 김광석 거리의 문화콘텐츠를 강화해 나가고 있음

2) 행궁동 벽화골목(마을), 경기도 수원시

(1) 조성개요

- 2010년, 민간주체인 [대안공간 눈]에서 ‘이웃과 공감하는 예술프로젝트 행궁동 사람들’을 시작으로 작가와 주민,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다양한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사랑의 쉼터 길’, ‘행복하 길’, ‘숨어있기 좋은 길’, ‘사랑하다 길’, ‘처음아침 길’, ‘로맨스 길’, ‘뒤로 가는 길’을 조성함

| 표 III-16 | 행궁동 벽화거리 사례분석

거리(마을)명	행궁동 벽화거리(마을)	
조성 및 관리주체	대안공간 눈(~2019) → 마을기업 행궁숨씨	
소재지	경기도 수원시	
건축 연도	2010	
공간 용도	전시·공방 및 상업시설	
입지 유형	근린재생지	
주제	신화를 품은 골목 살아있는 벽화골목	
활용유형		활용정도
원도심 상권 및 거주지역 활용		적극적 활용 (유흥지와 주변 환경과의 연계)
주요연혁		
2010. 행궁동 사람들-이웃과 공감하는 예술프로젝트 2011. 국제레지던시 프로그램-골목길 흥-행궁동을 걷다, 마을르네상스사업 대한민국공간문화대상 대통령상 수상 2014. 국제협업아트프로젝트-신화와 예술맥놀이 2016. 건축개발관련 일부벽화 훼손 2018. 행궁동 벽화골목 복원 프로젝트-들썩들썩 골목난장 2019.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1월 무장애여행지		

| 표 III-17 | 행궁동 벽화별 위치 및 주요 작품

행궁동 작품별 벽화 위치도																																																																																
행궁동 벽화마을 <table> <tr> <th>번호</th><th>작품이름</th><th>작가</th></tr> <tr><td>1</td><td>다시사는 나무 1</td><td>이현미</td></tr> <tr><td>2</td><td>심청생</td><td>백미경 가족</td></tr> <tr><td>3</td><td>거대림</td><td>자음용사자들</td></tr> <tr><td>4</td><td>추억은 방울방울</td><td>김성래</td></tr> <tr><td>5</td><td>천사</td><td>김성래</td></tr> <tr><td>6</td><td>우리결혼했어요</td><td>김지영(소피아)</td></tr> <tr><td>7</td><td>농소화</td><td>임지은</td></tr> <tr><td>8</td><td>밤의 정령, 하늘의 정령(하늘에 이닿고)</td><td></td></tr> <tr><td>9</td><td>태몽수집</td><td>라오미</td></tr> <tr><td>10</td><td>흥식</td><td>김미정</td></tr> <tr><td>11</td><td>스무티아지피</td><td>김영애, 홍영애</td></tr> <tr><td>12</td><td>만파식적</td><td>박은신</td></tr> <tr><td>13</td><td>행궁동 다실바 화분</td><td>조정은</td></tr> <tr><td>14</td><td>꽃꾸는 섬</td><td>내함상작소</td></tr> <tr><td>15</td><td>행궁동 속 격원, 조선 하이브리드 2</td><td>조성훈</td></tr> <tr><td>16</td><td>행궁동 속 격원, 조선 하이브리드 2</td><td>조성훈</td></tr> <tr><td>17</td><td>일하오별</td><td>조성훈</td></tr> <tr><td>18</td><td>분여 H-여덟개의 길</td><td>이영희, 홍영애</td></tr> <tr><td>19</td><td>꽃의 정령 마음의 정령(하늘에 이닿고)</td><td></td></tr> <tr><td>20</td><td>가-친</td><td>유겨상</td></tr> <tr><td>21</td><td>학(鳥) 없는 땅</td><td>호프에 이닿고</td></tr> <tr><td>22</td><td>물론 나의 피다</td><td>호프에 이닿고</td></tr> <tr><td>23</td><td>깨무스리 디너에, 사람의 침침히 저지스</td><td></td></tr> <tr><td>24</td><td>기원</td><td>라벨 셀트리</td></tr> <tr><td>25</td><td>기쁨의 탄생</td><td>백도기</td></tr> </table>	번호	작품이름	작가	1	다시사는 나무 1	이현미	2	심청생	백미경 가족	3	거대림	자음용사자들	4	추억은 방울방울	김성래	5	천사	김성래	6	우리결혼했어요	김지영(소피아)	7	농소화	임지은	8	밤의 정령, 하늘의 정령(하늘에 이닿고)		9	태몽수집	라오미	10	흥식	김미정	11	스무티아지피	김영애, 홍영애	12	만파식적	박은신	13	행궁동 다실바 화분	조정은	14	꽃꾸는 섬	내함상작소	15	행궁동 속 격원, 조선 하이브리드 2	조성훈	16	행궁동 속 격원, 조선 하이브리드 2	조성훈	17	일하오별	조성훈	18	분여 H-여덟개의 길	이영희, 홍영애	19	꽃의 정령 마음의 정령(하늘에 이닿고)		20	가-친	유겨상	21	학(鳥) 없는 땅	호프에 이닿고	22	물론 나의 피다	호프에 이닿고	23	깨무스리 디너에, 사람의 침침히 저지스		24	기원	라벨 셀트리	25	기쁨의 탄생	백도기		
번호	작품이름	작가																																																																														
1	다시사는 나무 1	이현미																																																																														
2	심청생	백미경 가족																																																																														
3	거대림	자음용사자들																																																																														
4	추억은 방울방울	김성래																																																																														
5	천사	김성래																																																																														
6	우리결혼했어요	김지영(소피아)																																																																														
7	농소화	임지은																																																																														
8	밤의 정령, 하늘의 정령(하늘에 이닿고)																																																																															
9	태몽수집	라오미																																																																														
10	흥식	김미정																																																																														
11	스무티아지피	김영애, 홍영애																																																																														
12	만파식적	박은신																																																																														
13	행궁동 다실바 화분	조정은																																																																														
14	꽃꾸는 섬	내함상작소																																																																														
15	행궁동 속 격원, 조선 하이브리드 2	조성훈																																																																														
16	행궁동 속 격원, 조선 하이브리드 2	조성훈																																																																														
17	일하오별	조성훈																																																																														
18	분여 H-여덟개의 길	이영희, 홍영애																																																																														
19	꽃의 정령 마음의 정령(하늘에 이닿고)																																																																															
20	가-친	유겨상																																																																														
21	학(鳥) 없는 땅	호프에 이닿고																																																																														
22	물론 나의 피다	호프에 이닿고																																																																														
23	깨무스리 디너에, 사람의 침침히 저지스																																																																															
24	기원	라벨 셀트리																																																																														
25	기쁨의 탄생	백도기																																																																														
		9. 라오미, 태몽수집																																																																														
		15. 조성훈, 조선 하이브리드 2																																																																														

- 행궁동은 재래시장과 집객으로 인한 도매 및 소매업(43.0%), 숙박 및 음식점 업(18.4%)을 주된 산업으로 하고 있으며, 문화재보호를 위한 높이규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아 구역 내 건축물의 85.7%가 노후 되어 지역주민의 정주권보다 문화재 중심의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수원시, 2018)

- 이에 벽화골목 조성 전 대상지는 어둡고 좁은 골목길로 인해 범죄발생우려 및 유입인구 감소로 상권의 약화되는 악순환이 진행되고 있었으나 주민-예술가와의 꾸준한 예술적 시도로 거리의 곳곳이 갤러리화 되어 거리활성화를 통한 공생의 방향을 실현함.

| 표 III-18 | 행궁동 벽화골목 인근 주요 문화예술 거점 현황

	① 묘수사
	② 대안공간 눈(~2019), 예술공간 봄
	③ 화성행궁
	④ 복수동 성당
	⑤ 장안문
	⑥ 생태교통마을
	⑦ 아름다운 행궁길(행궁동 공방거리)
	⑧ 통담골목
	⑨ 화흥문
	⑩ 방화수류정
	⑪ 연무대
	⑫ 매향 벽화골목
	⑬ 아담스기념관
	⑭ 한옥게스트하우스
	⑮ 수원화성박물관
	⑯ 전통시장 밀집

자료 : 수원시(2018), 행궁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 행궁동에서 이루어진 1차 벽화조성 프로젝트는 주민과 작가가 뭉친 공동체로 낙후된 마을을 예술로 살리는 것을 목표로 2015년까지 500여명의 주민과 작가 등이 참여했고, 작품성이 높은 대상을 기준으로 50여점 벽화가 완성되었음.
- 먼저, 2010년 시작 된 <이웃과 공감하는 예술 프로젝트 ‘행궁동 사람들’>은 화성 성곽이라는 공통된 틀에서 살아가는 주민을 모두 ‘이웃’ 이라는 틀로 설정하고, 주민 스스로가 창작과정의 주인이 되는 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고 생활예술프로젝트를 진행함
- 해당 사례는 행정주도의 대대적인 시공이나 경관개선사업 없이 역사문화중심지의 조건을 활용하여 인근의 문화재, 음식문화중심지, 주거중심지, 학교밀집지역 모두와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며, 2011년 지자체의 개입 없이 일궈낸 변화사례로 ‘대한민국공간문화대상 대통령상’을 수상함

(2) 갈등과 복원

- 한편, 행궁동 벽화거리가 관광 명소화되고 건축규제가 기존의 3층에서 5층으로 완화되면서 개발업체에 의한 건물 매입과 빌라건축 허가가 이루어짐
- 이에 2016년 9월 수원시는 보존을 명목으로 행궁동 일원 1600여㎡를 문화시설로 지정하는 안을 공고했으나 주민의견수렴에 대한 사전협의를 부족하였고 이는 일부 주민이 사유재산권 침해를 주장하며 라켈 쉼브리(Raquel Lessa Shembri) 작가의 ‘금보여인숙 물고기’, ‘처음아침 길’ 등 15점 가량을 훼손하는 결과를 불러옴

| 그림 III-8 | 2016년 개발규제로 인한 갈등과 훼손된 행궁동 벽화



출처: “수원 행궁동 벽화마을 문화시설 지정갈등”, 서울신문, 2016.10.11.

- 해당 훼손은 2010년부터 2016년에 이르기까지 주민과 민간의 예술가가 공동의 발전과 가치를 위해 행해온 모든 합의를 원점으로 돌이킬 수 있었던 사안에 해당하며, 개발업체의 철수와 수원시의 일부 부동산 매입으로 갈등이 마무리되었음
- 거리의 훼손된 풍경으로 다시 마을이 이전과 같이 낙후될 조짐을 보이자, 주민과 작가 공동체는 ‘2018 행궁동 벽화골목 복원 프로젝트’ 공모를 통해 국내외 작가 6명이 주민과 한 팀으로 벽화를 복원함
 - 2018년 벽화 복원과정에 참여한 작가의 지원조건은 다음과 같음⁷⁾
 - ① 행궁동 주민들과 자원봉사자와의 협업을 통해 제작할 것
 - ② 참여자는 벽화를 제작할 시 대안공간 눈 사업기획팀과 논의 후 행궁동 주민들의 의견을 취합하여 ‘행궁동 예술마을 벽화 이야기’가 구성될 수 있는 내용일 것
 - ③ 벽화제작이 마무리되는 6월 30일(토)에 진행되는 ‘벽화제작 작가와의 만남-벽화 이야기 투어’에 참여할 것

7) 네이버블로그, <https://cafe.naver.com/ehistoryofart/1102> (검색일 2020.09.27.)



- 이는 미술관에 설치된 예술가 개인의 작품이 아닌 ‘행궁동’이라는 지역의 벽에 구현되는 벽화의 특성을 고려하면서 행궁동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예술가-주민간의 유기적인 관계를 복원하는 시도에 해당함.
- 나아가, 행궁동에 거주하는 주민들 역시 단순한 관람자 혹은 향유자가 아니라 일련의 예술 활동에 있어서 실질적인 ‘참여자’ 이자 ‘작가’, ‘후원자’로서의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며 거리의 복원에 참여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를 만들어가는 다양한 주체 간 공동의 이익과 발전방향에 대한 숙의과정의 중요성을 환기함.

(3) 특징 및 시사점

- 행궁동 벽화골목은 관주도의 단순한 환경미화가 아닌 민간주체인 ‘대안공간 눈’에서 2010년부터 진행한 예술프로젝트 ‘행궁동 사람들’의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주민과 작가, 기획자의 소통의 결과물이라는데 의의가 존재함
- 이들은 성공과 실패, 갈등과 복원을 함께 경험하며 예술을 통한 문화적 공동체로서의 성숙을 꾸준히 축적하여 성장하고 있음
- 행궁동 주민조직들은 행궁동 벽화골목의 조성과 실패경험을 바탕으로 문화예술 부문에 있어 활발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3) 문화예술특화거리 조성사업, 인천광역시

(1) 사업개요

- 인천광역시(이하 ‘인천시’)의 민선7기 공약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문화예술 특화거리 조성’ 사업은 창작문화예술인 레지던시와 플리마켓을 집적시켜 예술인의 창작기반을 강화하고자 계획되었음(민경선, 2019)

- 인천시는 문화예술 특화거리 조성을 통해 예술가들의 창작활동이 폴리마켓, 전시, 공연, 마케팅, 산업으로 연계되도록 지원하고자 문화예술특화거리 조성사업을 계획함

표 Ⅲ-19 | 인천광역시 문화예술특화거리 조성사업

사업명	인천시 문화예술특화거리 조성사업	
조성 및 관리주체	인천시 → 인천시문화재단(축제문화팀)	
소재지 및 사업규모	인천광역시 개항장일원 부평권 일원	
사업 기간	2018년 ~ 2022년 *2023년 이후 지속	
공간 용도	전시·공방 및 상업시설	
입지 유형	상업지역	
주제	- 예술인 창작공간 지원 - 폴리마켓 운영 ↓ - 시범사업 운영	
활용유형	원도심 상권 활용	활용정도
		적극적 활용 (유흥지와 주변 환경과의 연계)

- 기존 계획상 사업의 주제는 크게 창작공간 입주금 지원 및 아트플랫폼 레지던시, 공연장, 전시장과 연계를 골자로 하는 ‘예술인에 대한 창작공간지원’과 창작 예술품을 통해 시민과 예술가가 소통하는 ‘폴리마켓 운영’으로 구분할 수 있음
- 그러나 문화예술특화거리 조성 자문 위원회를 중심으로 사업계획에 변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계획이 변경되었으며 주요 의견은 다음과 같음
 - 주요 사업내용 중 하나였던 폴리마켓의 경우 연 20회의 운영계획을 가지고 있었으나 문화예술인들의 자생력을 갖추도록 지원하지 않으면 운영비 지원 종료 이후 제2의 청년몰 사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으로 단순공모가 아닌 프로그램 발굴과 공간, 인력 매칭의 필요성이 제기됨⁸⁾
 - 다음으로 인위적으로 ‘거리’를 만드는 계획 역시 지자체가 인위적으로 특화거리를 조성했다 실패한 사례를 들어 최소한 마을단위로 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의견으로 사업의 형태 변경이 요구되었음
 - 또한 조성사업의 수요자인 예술인과 지역주민의 참여가 중요한 과제로 지적되었음

8) “문화예술특화거리 조성 계획 대폭 조정 발표”, 기호일보, 2019.08.05.

- 이에 특화거리의 구성방안이 다시 논의되어 2019년 9월부터 문화예술 특화거리 조성사업의 주체가 인천시에서 인천문화재단으로 변경되었으며, 재단에서는 중구·개항장 일대를 중심으로 문화예술 특화거리 조성을 위한 시범사업을 우선 추진할 계획을 수립함
- 이후 문화예술특화거리 조성사업의 계획수립을 통해 시범사업으로 사업대상지의 창작공간과 연계한 예술 활동을 다년간 지원하여, 향후 문화예술 특화거리 조성을 위한 계획을 구체화하고자 하였으며, 세부적인 추진경위는 아래와 같음

| 표 III-20 | 인천광역시 문화예술 특화거리 조성사업 2019 추진경위

시기	추진내용
2019. 1~3월	·주관부처 실무협의 및 국내·외 사례조사
2019.4.6.~4.15	·「문화예술온라인자문단」정책자문 추진 *주요의견: 다양한 장소에서 소규모로 시작, 레지던시 공간 ‘복합문화공간’ 기능, 플리마켓 ‘시민 친화공간’ 기능 활성화
2019.4.15.~4.19	·군·구 자체사업 추진현황 조사
2019.5~7월	·지역문화계 및 관계전문가 자문회의 3차례 개최 및 현장답사 *①민간에서 장기간에 걸쳐 문화예술 특화거리 조성사업 추진 ②단기, 중·장기 사업으로 구분하여 추진 ③시민과 예술인이 만나는 공유 문화공간 조성 ④지역 고유의 특성을 반영하여 조성
2019.8	·사업조정결정 : 사업 구성방안 재논의 협의
2019.8	·문화예술특화거리조성 기획위원회 구성
2019.9~10월	·기획위원회의 시범사업 추진 방향성 회의 개최(총6회) *다년간의 시범사업 추진 후 수요를 반영한 거리조성 방향성 수립
2019.11월~	·3년 간 ‘문화예술 특화거리 <점점점>’시범사업 추진

자료 : 인천연구원, 인천시 문화예술 특화거리 조성을 위한 정책제언(2019), 재구성

- 현재 실질적인 운영주체인 인천시문화재단은 예술인들이 지역을 기반으로 창의력 있는 예술실험에 도전해 보는 기회를 제공하여 이들의 자생성과 지속가능한 활동 영역 발굴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함(민경선, 2019)

(2) 주요특성

- 역사적으로 중구의 개항장은 1876년 일본과의 강화도 조약(江華島條約) 체결로 인해 1882년 인천 중구의 제물포가 개항 항구로 결정되어 1883년 개항하게 되었으며 제국주의 열강의 각축장이 됨

| 그림 Ⅲ-10 | 인천시 문화예술 특화거리 사업장소 위치



자료: 인천문화재단, 2019 문화예술특화거리 <점점점> 참여자 신청안내서

- 산업화 시기에는 내항 준공으로 내항 주변에 철조망이 설치되었으며 중구와 동구 주변의 공업화에 따라 도시환경이 악화되었음(민경선, 2019)
- 2000년에 들어서면서 신도시 개발로 인구유출이 심화되며, 신규 항만 건설로 내항 기능은 이전 및 축소되었으며 개항장 일대 원도심 활성화의 필요성이 대두하여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되고 있음
 - ‘인천아트플랫폼 조성사업’, ‘인천 개항장 문화지구 조성사업’, ‘인천 개항 창조도시 재생사업’ 등
- 개항장은 인천의 원도심으로서 도시환경 면에서 상당히 낙후되었으나, 역사문화적 가치를 지닌 다수의 문화재와 건축물, 문화기반시설이 위치하여 문화예술 특화거리 시범사업 <점점점> 사업 대상지에 선정됨

(3) 시범사업 : <점점점> 프로젝트

- 인천시문화재단이 추진하는 <점점점> 사업의 궁극적 목적은 단기간에 종료되어 사후관리 및 지원의 명맥이 끊기는 기존 지원사업의 한계를 극복하여 공간과 예술인, 지역이 상생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고, 장기적으로 인천의 공동체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그림Ⅲ-11>)

인천시 문화예술특화거리 <점점점>

사업내용 인천 문화생태 활성화를 위한 예술실험 사업

- 인천의 원도심 예술 거점 구축 및 지원
- 인천의 자원을 활용한 모든 분야의 예술 창작 활동 지원
- 지역 커뮤니티 연계 및 홍보채널 구축
- 참여 예술인의 문화 자치역량 강화

사업기간 2019년 - 2022년(3년)

사업 키워드 지속가능성, 자생력, 자치, 생태계, 유희공간, 인천광역시의 지역적 특색

사업목적

- 인천의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만의 정체성 발굴
- 예술인들이 지역을 기반으로 창의력 있는 예술실험에 도전해 보는 기회 제공
- 수요자 맞춤형 지원을 통해 지역의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해 나가는 계기 마련
- 기존 지원사업의 기간적 한계를 극복해 예술인의 자생적, 지속가능한 활동영역 발굴 계기 마련
- 공간-예술인-지역이 상생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
- 참여 예술인들의 공동 프로젝트 수행을 통한 문화 자치역량 강화
- 공동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 커뮤니티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 마련

✓ 인천의 자원을 활용하여
예술실험을 하고 싶은 예술인

자료: 인천문화재단, 2019 문화예술특화거리 <점점점> 참여자 신청안내서를 토대로 작성

- 단순한 선형 거리조성이 아닌 ‘점’으로 구성된 거점을 바탕으로 다양한 실험적 예술 활동을 통해 참여 예술인들의 역량을 강화하여 공동의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시민과의 소통을 지원함

| 그림 III-12 | 인천시 문화예술특화거리 <점점점> 참여 예술인(팀)별 프로젝트



자료: 인천문화재단, 2019 문화예술특화거리 <점점점> 참여자 신청안내서

| 표 Ⅲ-21 | 점점점 프로젝트 지원내용

유형	A유형 : 신규 창작공간	B유형 : 기존 창작공간
신청 대상	새로운 창작공간에서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픈 개인 혹은 그룹	기존의 본인의 창작공간에서 프로젝트를 수 행하고픈 개인 혹은 그룹
사업 내용	- 개별 프로젝트 : 문화예술 장르 불문 활동 수행, 작품발표회 필수 - 공동 프로젝트 : 참여자들과의 논의를 통한 공동프로젝트 참여 필수, 공유공간 운영 등	
지원 금	- 개 인 : 최대 1,200만원 - 그 룹 : 최대 2,500만원 *자부담 예산편성 가능	
지원 내용	- 임차료(월세) : 지원금의 최대 30% - 프로젝트비 : 임차료 제외한 나머지	- 공간수선비 : 지원금의 최대 30% - 프로젝트비 : 공간수선비 제외한 나머지
향후 계획	선정 후 기획위원회와 함께 개별 공간을 찾아 매칭하는 과정을 통해 공간 결정 (매칭 공간 컨설팅 지원) ※공간 매칭 무효 시 사업지원이 불가함	선정 후 기존의 공간 현장실사, 부동산 임대 차계약서 제출 필수
기타 사항	- A유형일 경우 선정대상이 임차인이 되어 공간과 직접 계약하게 됨(보증금 등 자부담) - 심의를 통해 지원금 조정될 수 있음(사업계획서 심사결과에 따라 결정된 금액 지원) - 참여자 워크숍 필수참석 - 공동 프로젝트 및 기타 공동체 활동(운영위원회) 참여는 의무사항 - 1년간의 사업(2019.11~2020.10)에 대한 평가에 따라 사업 연속 지원 여부 및 지원 범위가 결정됨 - 활동기간 중 문제가 있을시 월세 등의 공간계약 관계에 대한 모든 것은 선정자 책임 - 예산편성 항목 및 기준표에 의거하여 예산계획 수립해야 함	

자료 : 인천문화재단, 2019 문화예술특화거리 <점점점> 참여자 신청안내서

- 대상지의 공간 거점에서 커뮤니티, 지역예술계와의 관계성, 지속적인 공간 활용 등을 중심으로 하는 ‘점점점’ 사업은 공모를 통해 1차 16개 사업을 지원받아 4개 사업을 선정하고(2019.11), 2차에 24개 사업 중 지원 5개 사업을 선정(2020.2)함
- 2020년 7월 및 11월에 점점점 공동프로젝트 <신포 점거-장>을 개최하였으며, 9개소의 창작공간과 소극장·갤러리 등 권역내 문화공간을 연계하여 사업을 운영 중에 있음

(4) 특징 및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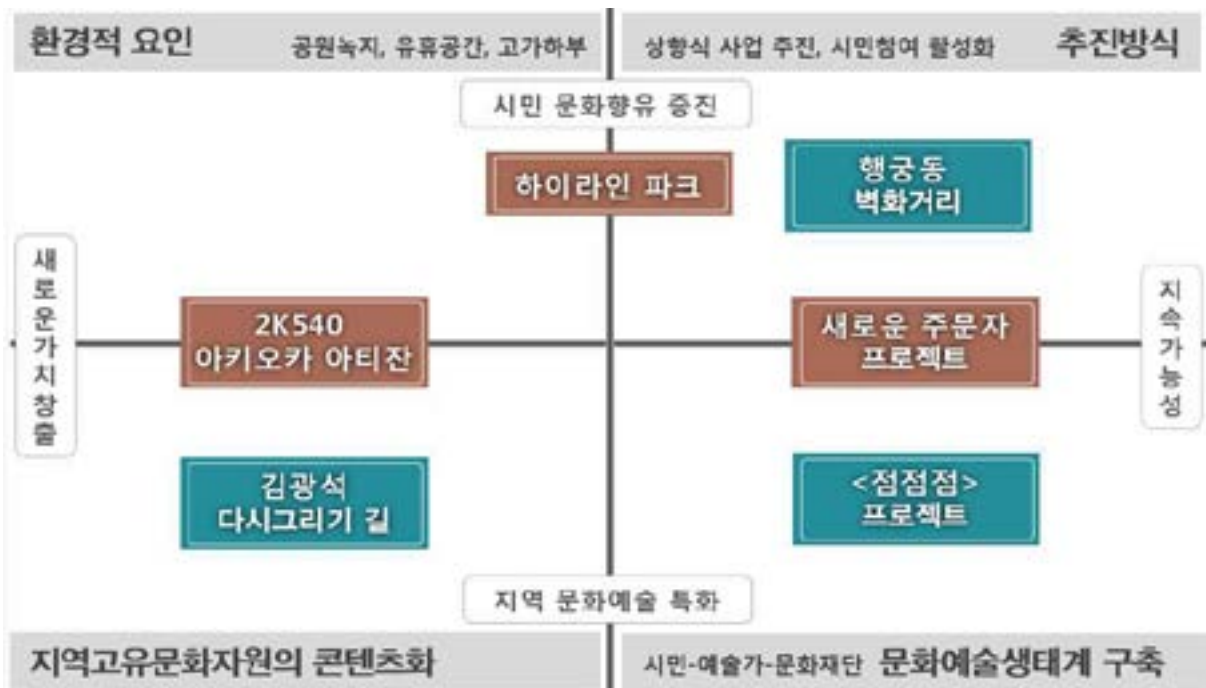
- 문화예술특화거리는 공간적 기반 구축과 지역 문화 자치역량 향상을 목표로 하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되어야 함

- 인천 문화예술특화거리 조성사업은 ‘기획위원회(지역 문화예술 기획 전문가)’ - ‘운영위원회(사업 참여 예술인)’ - ‘지역주민·상인’ - ‘공간(문화예술활동장소)’를 잇는 매개자 역할을 인천시문화재단이 수행함으로써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있음
- 또한 개항장 일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재생사업 및 인천문화재단이 위탁 운영하는 인천아트플랫폼과의 협업 등을 통해 유관 사업과의 연계 추진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이로 사업의 확장성을 강화하는 시사점을 지님

3. 정책적 시사점

- 홍사용 문화거리 활성화에 관련하여 해외사례로 미국 하이라인 파크, 일본의 2k540 아키오카 아티잔, 프랑스의 새로운 주문자 프로젝트와 국내사례로 대구 김광석 다시그리기 길, 수원 행궁동 벽화마을, 인천 문화예술특화거리 조성 사업 프로젝트<점점점>을 종합적으로 분석함
- 해당 사례를 바탕으로 ‘환경적 요인’, ‘지역 고유 문화자원의 콘텐츠화’, ‘추진 방식’, ‘문화예술생태계 구축’의 네 가지 활성화 요인을 도출함

| 그림 III-13 | 국내외 사례분석 시사점 도출



1) 환경적 요인 : 다양한 환경의 공간 재해석

- 환경적 요인은 특정 공간에 인간의 문화 활동을 이루어지기 하는 물리적 기반으로 도심중앙 또는 유희 공간 및 공원녹지, 고가 하부에 이르기까지 범위가 다양하고 각각의 환경에 따라 활성화 방안에 차이가 존재함
- ‘하이라인 파크’와 ‘2K540 아키오카 아티잔’의 경우 공원녹지와 연계, 고가 하부공간의 재해석을 통해 환경적인 장애요인을 강점으로 변화시켰으며 ‘홍사용 문화거리’ 조성지 환경과 부분적인 유사점을 지님
- 먼저, 유희공간이자 철거대상지였던 ‘하이라인 파크’는 다양한 시민의 아이디어를

차용한 재생프로젝트를 통해 철로 및 자생식물 등의 환경적인 요소를 최대한 보존하는 방향의 사업을 진행함

- ‘2k 540 아키오카 아티잔’의 경우는 어두움과 소음 등 고가도로의 하부가 환경적으로 가지는 불리한 특성을 적극적으로 보완하여 상업적 공간 혹은 전시 및 체험을 위한 공공의 공간으로 활용 및 활성화가 가능함을 보여줌
- 오히려 교각 아래에 위치하여 기상현상의 영향에서 비교적 자유로우며 다소 어두운 공간을 과거의 감성을 느낄 수 있는 장점으로 발전시켜 지역 주민 및 관광객들 간의 인적교류가 이루어지는 플랫폼의 기능을 함
- 따라서 홍사용 문화거리의 활성화방안을 모색함에 있어서 경관개선사업으로 조성되는 세부공간의 특성과 대상지의 환경적 특성을 고려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함

2) 지역고유 문화자원의 콘텐츠화 : 지역 문화에 대한 이해를 통한 공동체 회복

- 각각의 지역이 가지는 특색있는 문화자원은 문화거리 사업에 있어 고유의 테마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이자 지역의 구성원에게 내부적으로 공동의 가치를 형성하여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는 기반이 됨
- 일본의 ‘2k 540 아키오카 아티잔’이 위치한 오카치마치 인근은 본래 에도시대부터 귀금속 분야의 장인이 주로 활동하던 공간이었으며 이들의 장인정신을 다양하고 현대적인 시각으로 계승하여 콘텐츠화 함
- ‘2k 540 아키오카 아티잔’은 공방에 특정 품목과 형태에 제한을 두지 않고 거리가 위치한 도쿄시뿐만이 아닌 후쿠오카, 교토, 고베, 오사카 등 각지의 ‘장인정신’이 담긴 물품과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인’이라는 테마가 오히려 강조되며, 나아가 공방의 장인과 방문객들은 지역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고 있음
- ‘김광석 길’은 김광석의 삶과 음악을 바탕으로 물리적인 측면에서 벽화 및 공원, 골목방송국, 야외공연장 조성 및 비물리적 측면에서 김광석 노래 부르기 대회, 추모행사, 50주년 기념 거리 콘서트 등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김광석을 대구의 문화자원으로 지역의 공동체 회복을 넘어 관광자원으로 도약함
- 이처럼 문화거리 사업은 지역이 가진 고유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원주민과 새로이 유입된 주민 혹은 세대 간의 차이를 극복하여 공동체 회복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진행되어야 함
- 이를 위해서 노작 홍사용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기반으로 한 콘텐츠 개발 및 연계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시민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홍사용 문화거리의 테마를 전달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요구됨

3) 추진방식 : 상향식 사업추진을 통한 시민참여 활성화

- 국내 대다수의 문화거리들은 지속적인 사업을 이어가지 못하고 있으며 그 주요한 원인 중 하나는 시민의 문화적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공공주도의 사업추진방식을 꿈꿀 수 있음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문화의 거리 혹은 공원, 마을에 이르기까지 민간이 지역의 공간을 바탕으로 문화예술의 활동에 참여하는 방식에는 사업주도, 공모, 프로젝트 참여 등 다양한 방식이 있으며 그 기반은 공공의 이익 창출임
- 민간 주도로 운영되고 있는 ‘하이라인 파크’는 ‘하이라인을 사람이 모이는 공공의 공간으로 만들자’는 꿈에 공감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회복된 공간에 해당함
- ‘하이라인 파크’에서 시민들은 도슨트, 포토그래퍼, 안내자, 다양한 문화행사 프로젝트의 행정 담당자에 이르는 역할을 자원봉사를 통해 참여하여 지속적인 운영이 이루어지는 근간이 됨
- 한편, ‘새로운 주문자 프로젝트’는 미술관이나 박물관 등 시공간적으로 한정된 예술의 영역에서 벗어나 모두가 새로운 방식의 예술주문체계에서 ‘주문자’가 될 수 있음을 선언하여 생활의 영역에서 시민이 어떤 문화예술을 필요로 하는지를 반영하고 스스로 주체로서 참여하는 의식의 전환을 가져옴
- 이는 국내 사례인 ‘행궁동 벽화거리(마을)’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행궁동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단순한 관람자 혹은 향유자가 아니라 일련의 예술 활동에 있어서 실질적인 ‘참여자’이자 ‘작가’, ‘후원자’로서의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며 거리의 복원에 참여하는 계기가 됨
- 위의 사례들은 문화거리를 만들어가는 다양한 주체 간 공동의 이익과 발전방향에 대한 숙의과정의 중요성을 환기함
- 홍사용 문화거리 활성화를 위해 공모, 프로젝트 참여 등 지역 주민들이 제안하고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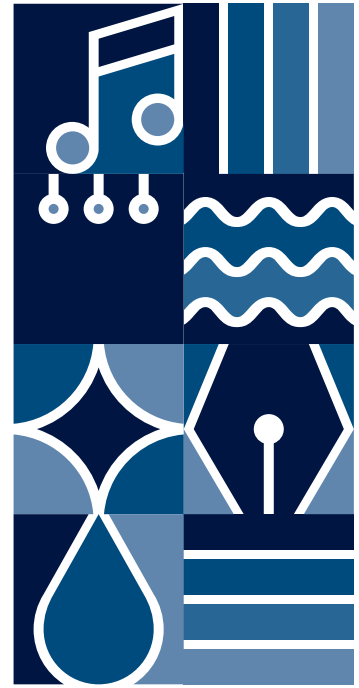
4) 문화예술생태계 구축 : 시민-예술가-문화재단의 관계형성을 통한 공생(共生)

- 시민과 예술가, 문화재단 혹은 공공의 영역 세 축이 함께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전술한 사업의 상향식 추진방식만큼이나 문화거리 사업의 지속성을 좌우하는 요인임
- 이러한 문화예술생태계의 중요성에 기점을 둔 ‘새로운 주문자 프로젝트’는 문화예술의 영역에 있어 소비자와 매개자 그리고 예술가가 함께 지역의 문화예술적

환경을 만들어 가는 새로운 방식을 만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다양한 시도를 이어가고 있음

- 다음으로 인천의 ‘문화예술특화거리 조성사업’은 ‘기획위원회(지역 문화예술 기획 전문가)’ - ‘운영위원회(사업 참여 예술인)’ - ‘지역주민·상인’ - ‘공간(문화예술활동장소)’를 잇는 매개자 역할을 인천시문화재단이 수행함으로써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있음
- 인천문화재단은 ‘문화예술특화거리 조성사업’을 위한 시범사업으로 <점점점>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는 단기간에 종료되어 사후관리 및 지원의 명맥이 끊기는 기존 지원사업의 한계를 극복하여 공간과 예술인, 지역이 상생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고, 장기적으로 인천의 공동체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 이처럼 지역의 문화예술생태계는 다양한 시도와 실험,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한 영역이며, 홍사용 문화거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각 주체의 관계구축방안과 시범사업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IV

동탄신도시 문화예술 활성화 여건 및 현황분석

1. 동탄신도시 지역 여건 분석
2. 동탄신도시 문화예술 기반 분석
3. 홍사용 생애 및 주요활동
4. 홍사용 문화거리 조성사업 추진경과
5. 동탄신도시 거리활성화 사례 : 센트럴파크 인근 행사

Ⅳ. 동탄신도시 문화예술 활성화 여건 및 현황분석

1. 동탄신도시 지역 여건 분석

1) 지역여건 분석

(1) 지역 일반 현황

○ 지리적 위치¹⁾

- 동탄신도시가 위치한 화성시는 서울에서 약 40km 위치하며, 경기도의 서남해안을 끼고 북쪽으로 시흥시·안산시·수원시와 접하고 동쪽으로 용인시, 남쪽으로 오산시와 평택시 등 6개 시와 접함. 동탄신도시는 오산천을 기준으로 서쪽인 동탄1신도시와 동쪽인 동탄2신도시로 구분됨. 2001년부터 동탄1신도시(반송동, 석우동, 능동 지역)가 먼저 조성되었고, 2011년부터는 동탄2신도시(청계동, 영천동, 오산동, 신동, 목동, 산척동, 장지동, 송동 지역)가 조성되고 있음
- 동탄신도시는 수원~태안~오산 축의 중심인 태안 도시계획구역과 연결하며 서북쪽에는 삼성반도체, 화성 지방 산업단지가 위치함. 또한 동탄신도시의 중심반경 10km권내에 경희대, 아주대, 수원대, 경기대, 협성대 등 다수의 대학이 입지하고 있음.
- 전체 면적 중 택지 등 기타면적(43.6%)의 비율이 가장 높으며 그 다음으로는 임야(34.1%), 전답(16.8%), 공장용지(5.4%)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 그림 IV-1 | 화성시 및 동탄신도시 권역 구분



* 출처 : 화성시 홈페이지 및 구글 지도(검색일: 2020.10.22.)

1) 위키백과 홈페이지, <https://ko.wikipedia.org> : LH 동탄사업본부 화성동탄1신도시 홈페이지, http://dongtan.lh.or.kr/dongtan_1/index.asp

○ 행정구역

- 2019년 12월 기준으로 동탄신도시는 1동 부터 8동까지 총 8개 동으로 구성되며, 동탄 1-3동을 동탄1신도시, 동탄4-8동을 동탄2신도시로 분류함
- 동탄1신도시는 동탄1동의 석우동 및 반송동 일부, 동탄 2동의 반송동 그리고 동탄 3동의 능동으로 구분됨
- 동탄 2신도시는 동탄4동의 청계동, 동탄5동의 영천동 및 중동, 동탄 6동의 금곡동, 방교동, 오산동 외에도 2019년에 분동된 동탄 7동의 송동, 산척동, 목동, 신동 그리고 동탄 8동의 장지동까지를 포함함
- 동탄신도시의 행정구역 면적은 총 56.30㎢로, 화성시 전체면적의 8.1%를 차지함. 먼저 개발된 동탄1신도시는 전체면적의 17.7%를 차지하는 반면, 이후 개발된 동탄2신도시는 전체면적의 82.3%를 차지할 만큼 넓은 지역에 걸쳐 있음. 특히 동탄 6동의 면적은 30.7㎢으로 동탄신도시 전체의 54.5%의 비율을 차지할 만큼 매우 넓음

| 표 IV-1 | 동탄신도시 지목현황

(단위 : ㎡)

구분		합계	전	답	임야	공장용지	기타	구성비 (%)
동탄1신도시	동탄1동	9,960,461	216,633	419,098	178,724	979,311	8,166,695	17.7%
	동탄2동							
	동탄3동							
동탄2신도시	동탄4동	4,236,911	15,305	15,971	910,579	4,581	3,290,474	7.5%
	동탄5동	11,407,496	503,176	645,602	5,082,991	328,631	4,847,096	20.3%
	동탄6동	30,693,663	2,772,124	4,896,786	13,045,296	1,747,775	8,231,682	54.5%
합계		56,298,531	3,507,238	5,977,457	19,217,591	3,060,298	24,535,947	100%

※ 화성시 토지정보과 제공(2018.11월 기준)

* 출처 : 화성시 홈페이지 <http://www.hscity.go.kr/www/intro/gnrlSttus/ctyhllAr.jsp>

○ 인구

- 2019년 기준 동탄신도시의 총인구는 340,428명(외국인 제외)으로 전년도 대비 15.9%가 증가함. 2010년부터 매년 증가 추세로, 평균 13.9%의 증가율을 나타냄. 특히 2015년부터는 인구 증가율이 평균 20.6%의 높은 수치를 나타내는데, 이는 첨단산업도시로서의 동탄신도시의 높은 성장 잠재력을 증명함
- 동탄신도시 인구수는 2018년 293,773명에서 2019년 340,428명(외국인 제외)으로 늘어난 반면, 동탄신도시를 제외한 나머지 화성지역의 인구수는 2018년 464,949명에서 2019년 474,968명으로 불과 2.2%의 증가율을 보임
- 세대수는 총 124,678으로, 전년 대비 18.1%의 증가율을 보임. 평균 15.1%의 증가율을 보이는데, 특히 2015년과 2018년에 34%의 높은 증가율을 달성함

| 표 IV-2 | 동탄신도시 연도별 인구 현황

(단위 :세대수, 명)

년도	내국인			세대수	증감률(% , 전년대비)	
	총인구(명)	남자(명)	여자(명)		총인구(명)	세대수
2010	109,435	54,492	54,943	36,891	-	-
2011	124,455	61,978	62,477	40,652	13.7%	10.2%
2012	128,019	63,878	64,141	41,548	2.9%	2.2%
2013	130,291	65,086	65,205	42,062	1.8%	1.2%
2014	135,422	67,744	67,678	44,214	3.9%	5.1%
2015	179,739	89,870	89,869	59,523	32.7%	34.6%
2016	207,623	103,771	103,852	70,072	15.5%	17.7%
2017	226,093	113,165	112,928	78,394	8.9%	11.9%
2018	293,773	147,846	145,927	105,540	29.9%	34.6%
2019	340,428	171,694	168,734	124,678	15.9%	18.1%

* 출처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외국인 제외

- 화성시 전체 중 동부권(168.3km²)을 동탄신도시 권역(56.3km²)과 기타 동부권(112.0km²)으로 구분해보면, 기타 동부권의 1/2면적에 해당하는 동탄신도시에 356,978명 즉 전체의 60%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동탄신도시의 동별 세대 및 인구수를 살펴보면, 동탄 1신도시(동탄1-3동)는 47,703세대수와 128,059명의 인구수를, 동탄 2신도시(4-8동)은 76,975세대수와 212,369명의 인구수를 보여줌. 그 중 동탄7동의 세대수가 25,427세대로 가장 많으며, 인구 역시 72,522명으로 가장 많음
 - 세대수 기준, 동탄 7동이 가장 많은 세대수를 보유하고 있으며, 동탄 1동 19,483세대, 동탄 4동 16,592세대수, 동탄3동 16,521세대수 순임
 - 인구수 기준, 동탄7동이 가장 많은 인구수를 보유하고 있으며, 동탄 4동 53,690명, 동탄 3동 41,898명 순임

| 표 IV-3 | 동탄신도시 동별 인구 현황

(단위: 세대, 명)

구분		세대수	인구수		
			합계(명)	남(명)	여(명)
동탄1 신도시	동탄1동	19,483	50,401	25,757	24,644
	동탄2동	11,699	35,760	17,605	18,155
	동탄3동	16,521	41,898	21,399	20,499
동탄2 신도시	동탄4동	16,592	53,690	26,683	27,007
	동탄5동	14,871	37,140	18,545	18,595
	동탄6동	12,006	28,648	14,815	13,833
	동탄7동	25,427	72,522	36,509	36,013
	동탄8동	8,079	20,369	10,381	9,988
합계		124,678	340,428	171,694	168,734

* 출처 : 화성시 홈페이지 자료를 재가공

- 2019년 12월 기준 동탄신도시의 연령별 인구는 30~39세가 74,201명(21.80%), 40~49세가 69,732명(20.48%)으로 30~40대가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
 - 10대부터 50대까지의 비중이 약 92.65%를 차지할 정도로, 젊은 인구 구조를 지니고 있음
 - 30~40대 다음으로 9세 이하 55,940명(16.43%), 10세 이상 42,616명(12.52%)순으로 10대의 구성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동탄신도시의 인구구조를 성별에 따라 구분하여 살펴보면, 30~39세 여성이 37,659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30~39세 남성이 36,542명, 40~49세 남성이 36,174명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남

| 표 IV-4 | 동탄신도시 연령별 인구 현황

(단위 : 명, %)

연령	인구현황					
	남자(명)	구성비(%)	여자(명)	구성비(%)	합계(명)	구성비(%)
0~9세	28,609	16.66%	27,331	16.20%	55,940	16.43%
10~19세	21,705	12.64%	20,911	12.39%	42,616	12.52%
20~29세	19,228	11.20%	18,856	11.17%	38,084	11.19%
30~39세	36,542	21.28%	37,659	22.32%	74,201	21.80%
40~49세	36,174	21.07%	33,558	19.89%	69,732	20.48%
50~59세	18,101	10.54%	16,725	9.91%	34,826	10.23%
60~69세	7,476	4.35%	8,329	4.94%	15,805	4.64%
70~79세	3,004	1.75%	3,523	2.09%	6,527	1.92%
80~89세	790	0.46%	1,565	0.93%	2,355	0.69%
90~99세	62	0.04%	267	0.16%	329	0.10%
100세 이상	3	0.00%	10	0.01%	13	0.00%
합계	171,694	100.00%	168,734	100.00%	340,428	100.00%

*출처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외국인 제외

○ 교통 여건 분석²⁾

- 동탄신도시는 원활한 광역 교통 대동맥의 경부고속도로, 경부선 철도, 국도 1호선 등이 가까이 위치해 수도권 남부의 교통의 요충지로 인식되고 있음
- 제1호선 경부고속도로 기흥동탄 나들목이 신도시 북편에 연결되어 고속도로 진출입이 용이함. 제400호선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북오산 나들목이 동탄1신도시 남쪽에, 또한 제171호선 용인서울고속도로 흥덕 나들목과 연결되는 지방도 제311호선의 영천 교차로가 동탄1, 2신도시 중앙에 위치해 경부고속도로의 대체 도로로서 서울의 강남 접근에 용이함
- 수도권 전철 1호선을 이용할 수 있으며, 수서고속철도 동탄역이 도시 중심을 지남. 또한 인덕원-동탄선 역시 2026년에 개통될 예정으로, 2024년부터 동탄과 운정을 잇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A선이 운행될 계획임

2) LH 동탄사업본부 홈페이지, http://dongtan.lh.or.kr/dongtan_1/index.asp

| 그림 IV-2 | 동탄신도시 교통망



* 출처: 한국토지주택공사, www.lh.or.kr, (검색일:2020.11.20.)

2) 동탄 신도시의 형성

(1) 동탄신도시 개발전 생활상

- 동탄신도시 지역은 전형적인 농촌지역으로 대대로 농사를 짓던 곳으로 산기슭마다 크고 작은 7개의 저수지가 있어 도로 좌우에 풍요로운 주곡단지가 펼쳐져 있었음. 단독주택이 자연취락형태로 산재해 있었는데 주로 능리, 석우리, 반송리에 자연취락을 형성하고 있었음.
- 동탄면의 과거 세시풍속은 전체적으로 다른 지역과 커다란 차이 없이 경기도 남부지역의 기본적인 세시양상을 띠고 있었지만 ‘연극 공연하기’라는 특이한 점이 발견됨.

1940년대 후반부터 1950년대에 추석이 되면 동네의 처녀·총각들이 수수깡으로 만든 옷을 입고 거북이, 토끼 등의 분장을 하고 연습하는 풍습이 있었음. 마을에서 큰 집의 사랑마루가 연극의 무대가 되었으며 사랑방은 분장을 하고 준비하는 대기실의 역할을 하였고, 연출은 동네사람이 맡아서 함. 이야기의 주된 내용은 여러 종류의 우화를 엮어서 만들었다고 함.

- 전반적으로 마을사람들은 주로 수원 생활권으로 안산, 오산시 등지에서 경제활동을 하였고 1994년 이후 준 농림지역 개발붐과 수도권 공장 분산정책으로 중소규모의 공장들이 산발적으로 들어서자 평화로운 농가의 모습이 농산업 복합지역으로 변모함.
- 1970년 경부고속도로의 개통으로 동탄면 내에 인터체인지가 설치된 것은 아니지만, 동탄면 북쪽 경계인 용인시 기흥읍 고매리(현 기흥구 고매동)에 톨게이트가 설치됨. 동탄면을 남북으로 가로지르는 23번 국도와 연결되어 동탄면은 외부와의 접근성이 높아지게 되었고, 외지인의 유입이 활발해져 특히 고속도로를 자주 이용하는 물류 센터나 공장시설들이 들어서게 됨. 경부고속도로와 인접한 마을은 미관상을 이유로 주택개량사업이 추진되었고, 이에 따라 고속도로에서 마을의 모습이 보이는 지역을 중심으로 지붕개량과 주택개량사업이 이루어짐³⁾

| 그림 IV-3 | 동탄신도시 생활 변화상



1981년 반송동 항공 촬영



2000년 반송동 항공 촬영

3) 동탄(2)신도시 마을지 총론, 2014, LH한국토지주택공사, p. 9, 13.



2020년 반송동 항공 촬영

출처 : 화성시 생활공간 웹포털, <https://air.hscity.go.kr/hsgisMap/index.do>, (검색일:2020.11.20.)

- 동탄면의 관악골프장 개장으로 오지마을이었던 중리가 외부와의 접근성이 좋아지게 됨. 골프장의 건설로 인한 도로의 확충으로 이후 공장 등 여러 산업시설들이 들어서게 되었으며, 농사를 주 생업으로 했던 주민들은 골프장에서 일을 하거나 골프장을 이용하는 외지인을 대상으로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생겨남.
- 2006년에는 동탄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조직되었고, 주민자치센터가 주민을 위한 문화, 복지, 편의 기능과 주민자치 기능을 하게 됨.
- 자치센터에는 풍물놀이교실, 체력단련실, 주민 정보화교육, 노래교실, 스포츠댄스, 요가, 수지침, 민요교실 등 다양한 문화프로그램과 함께 무봉산 가꾸기 운동, 신년 해맞이 풍년 기원제, 경로잔치, 면민체육대회 등 다양한 지역복지 및 진흥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었음. 지역 문제에 대한 토론 및 건의를 할 수 있는데 이 모든 것을 기획·구성하고 결정하는 일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맡고 있었음⁴⁾

(2) 동탄신도시 조성 과정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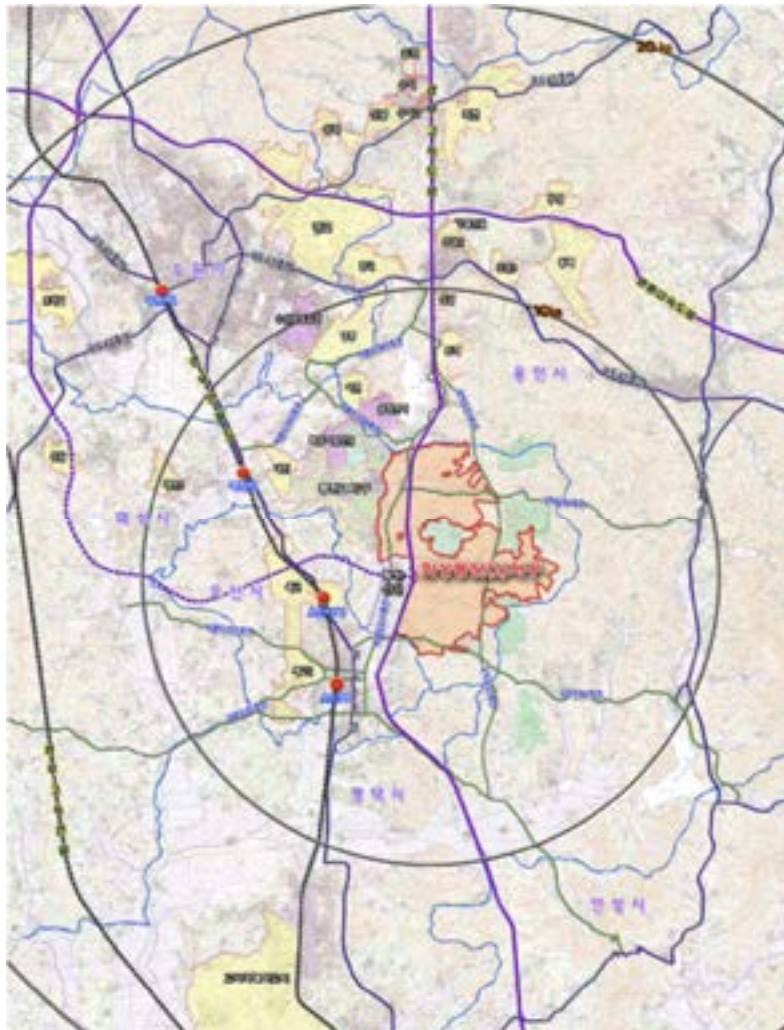
- 경부고속도로 개통(1970)으로 동탄면의 일부지역, 특히 북부지역은 점차 도시화·산업화되어 갔으며 특히 각종 공장과 사업체가 들어서 농촌의 모습은 점차 사라져감. 그러던 중 동탄면은 정부의 도시개발정책에 따라 동탄1신도시 개발로 급격한 변동을 경험하게 되었음
- 동탄1신도시는 ‘환경친화적 녹지생태도시(Eco-City)’를 건설하는 목적 하에 오산천의 서부 지역에 건설되었고, 태안읍 만월리·능리·병점리·기산리 및 동탄면 석우리·반송리·금곡리·영천리·청계리·오산리 일원이 신도시 개발 부지에 포함됨. 그 결과 동탄면의 관할 지역은 신도시 개발 구역에서 제외된 지역으로 축소되었으며, 신도시로 개발된 지역은 동탄동으로 재편되어 운영됨

4) 「동탄2신도시 마을지 총론 및 동탄신도시개발사」 pp.10, 103을 참고해 재구성

5) 앞의 책 pp.10-14를 참고해 재구성

- 오산천을 기준으로 서쪽인 동탄1신도시(13만5천 명)와 동쪽인 동탄2신도시(29만 명)로 나누어 동탄1신도시(반송동, 석우동, 능동 지역)가 먼저 조성되었고, 동탄2신도시(청계동, 영천동, 오산동, 신동, 목동, 산척동, 장지동, 송동 지역)가 조성 중에 있음.
- 동탄1신도시의 개발로 주변 지역은 오산천을 기준으로 동쪽과 서쪽이 농촌과 도시라는 이질적인 두 경관이 공존하게 되었지만 2007년 12월 기존의 동탄신도시 개발 지역에 속하지 않았던 오산천 동쪽의 동탄면 지역이 동탄2신도시 개발로 확정됨. 당시 제4차 국토종합계획의 수립은 더불어 잘 사는 ‘균형국토 건설, 자연과 어울어진, 녹색국토, 지구촌으로 열린 “개방국토”’, ‘민족이 화합하는 “통일국토”’를 기본목표로 하여 개방형 통합국토축 형성과 남북한 교류협력 기반 조성 등 5대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하였음. 환황해축, 수도권 남부, 서남권 철도구축 및 웅진·시흥·화성지역으로 나눠 부문별 추진계획을 세우고 “역사문화와 함께 해양리조트형 복합단지”로 개발을 시도함

| 그림 IV-4 | 동탄1,2신도시 지도(1)



| 그림 IV-5 | 동탄신도시 지도(2)



출처 : LH, 동탄2신도시 토지이용계획도, 부분 발췌

(3) 동탄1신도시의 개발특징⁶⁾

- 동탄1신도시는 수도권 배후에 자족형 첨단 신도시를 건설함으로써 수도권에 집중된 정치·경제·사회·문화·행정·인구 등 모든 분야를 지방 향토자원에 맞게 분산시켜 다핵형의 국토균형 발전을 선도하기 위해 개발됨.
- 체육공원, 테마공원, 생태공원 등의 다양한 커뮤니티가 상생하는 생태도시를 건설하여 환경과 인간이 조화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또한 삼성반도체공장, 무공해 첨단벤처단지 및 연구단지 등 첨단산업 클러스터를 형성하여 지방분권을 선도하고 수도권 남부지역 발전을 견인하는 성장거점도시로 육성하는데 목적이 있음
- 위치는 경기도 화성시 태안읍, 동탄면 일원으로 면적은 9,035,000m² 임
- 동탄1신도시에는 교통 대동맥의 경부고속도로, 경부선 철도, 국도 1호선 등이 가까이 위치하여 수도권 교통의 요충지로 평가받고 있으며, 40km에 달하는 자전거 전용도로망을 구축하여 교통문제를 해소하고자 하였음. 센트럴 파크를 중심으로 동서방향으로 길게 뻗은 공원축이 동탄1신도시의 상징이 되며 센트럴 파크와 문화시설 및 체육시설로 생활의 즐거움을 제공하려고 함. 또한 디지털 도시, 미래형 첨단자족도시, MP제도 도입 등으로 사업을 추진함

(4) 동탄2신도시의 개발특징⁷⁾

- 첨단산업과 주거 교육 문화 비즈니스 기능이 조화된 자족적 중핵 거점도시를

6) LH 동탄사업본부 화성동탄1신도시 홈페이지, http://dongtan.lh.or.kr/dongtan_1/index.asp

7) LH 동탄사업본부 화성동탄2신도시 홈페이지, http://dongtan.lh.or.kr/dongtan_2/index.asp

조성하고, 수도권 남부 주택수요를 흡수하여 주택시장 안정화에 기여하기 위해 사업이 착수되었고, 현재까지도 진행되고 있음

- 동탄2신도시로 사업이 시행된 지역은 석우동, 반송동, 동탄면 금곡리, 목리, 방교리, 산척리, 송리, 신리, 영천리, 오산리, 장지리, 중리, 청계리 일원이며, 면적은 24,014,896㎡임
- 동탄2신도시 사업은 택지개발사업으로, 커뮤니티시범단지, 광역비즈니스콤플렉스, 문화디자인밸리, 동탄테크노밸리, 워터프론트콤플렉스, 신주거문화타운, 의료복지시설 등이 계획 및 추진되고 있음⁸⁾
- 동탄2신도시의 개발방향은 자연과 인간, 첨단기술의 어울림이 있는 수도권 남부의 중핵도시를 조성하는 것임. 첨단산업, 교통, 환경, 문화, 교육기능이 조화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함⁹⁾

3) 대상지 환경 분석

(1) 대상지 개요¹⁰⁾

- ‘홍사용 문화 거리’ 위치는 화성시 반송동 93-5 일원임. 동탄신도시의 여가축인 센트럴파크와 주변 문화시설(홍사용문학관-화성시미디어센터-동탄복합문화센터)을 ‘T’ 자형 홍사용 문화 거리로 조성하여, 지역문화정체성을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이 지역은 주거 밀집 지역으로 시민들이 산책로로 단순하게 이용되고 있으며, 시민의 문화욕구를 충족시켜줄 필요성이 존재함. 또한 환경적으로 동탄 센트럴파크 주변 버스노선 및 주차장 등의 현황을 볼 때, 보행자들을 끌어들이기 어려운 조건을 가지고 있음
- 시민의 여가 축으로 기능하고 있으나, 문화예술행사가 미흡한 실정임. 또한 인근에 핵심적 문화시설인 홍사용문학관, 화성시미디어센터, 동탄복합문화센터가 위치해 있음에도, 가로거리와 연계성이 부족한 실정임.

(2) 접근성 분석¹¹⁾

- 가로환경
 - 홍사용 문화 거리는 직선 형태로 차도보다 낮게 조성되어 있고 거리 양쪽으로 상가와 오피스텔이 배치되어 있는데, 폭이 넓은 거리의 형태로 차도에서 본 구역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계단이나 승강기를 통해 내려와야 하므로 목적성 없이 지나가는 사람들의 접근을 기대하기 어려움

8) 건설교통부, 「화성동탄2지구 신도시개발 추진」, 2008, pp. 3-5.

9) 건설교통부, 「화성동탄2지구 신도시개발 추진」, 2008, pp. 3-5.

10) 화성시문화재단, 「문화의 거리 활성화(지역문화컨설팅) 계획」, 부분발췌

11) 「홍사용 문화의 거리 활성화 전략컨설팅 자문의견서」, 2020.10.08. 부분 발췌

○ 교통현황

- 버스노선의 경우 동탄센트럴파크 주변 노선이 보행자들을 끌어들이기 어려운 조건을 가짐
- 광역노선 및 주요노선 버스는 동탄중앙로 환영교에서 정차하고 있어, 대상지와의 인접성이 떨어짐. 또한 대상지인 노작로에 정차하는 버스들은 마을버스로서 미디어센터, 에코스쿨, 반석산 등을 이용하려는 승객들이 정차하는 장소임. 이는 대상지는 그 자체가 목적지가 아니라, 다른 목적지로 이동을 위한 통과의 장소로 이용되고 있음

| 그림 IV-6 | 대상지 교통현황 분석도



- 대상지 부근인 메타폴리스(중) 버스정류장의 경우 센트럴파크를 경유하는 버스로는 일반버스H67, 64, 마을버스H4, 12, 17, 27-2가 있으며, 화성미디어센터, 센트럴파크를 경유하는 일반버스H65, 마을버스H4가 있음
- 또한 대상지 앞 버스정류장의 경우 센트럴파크를 경유하는 마을버스17-1, 709와 센트럴파크, 메타폴리스를 모두 경유하는 일반버스H65, 마을버스H4가 있음

| 표 IV-5 | 대상지 버스정류장 버스 정보

구분		이동범위	버스번호	비고
서울권	광역	동탄-서울역	4108, M4108	대상지 부근(메타폴리스(중)) 버스정류장 버스 정보
	광역	동탄-강남역	4108, 4403, 8501, M4403	
외부지역	일반	동탄-화성시	7-1, 9, 62-1, 708, 712	
	일반	동탄-오산시	1001, H67	
	일반	동탄-안양시	64	
	일반	동탄-성남시	116-1	
동탄관내	일반	동탄 내	98, H65	
	마을	동탄 내	H4, 12, 17, 27-2, 81, H24	
	일반	동탄 내	H65	대상지(화성미디어센터) 버스정류장 버스 정보
	마을	동탄 내	H4, 17-1, 709, H5, H16	

* 출처 : 직접 현장조사

- 자동차를 이용하는 경우 방문객들을 위한 주차장은 동탄 센트럴파크 노상 공영주차장으로 센트럴파크 4거리(식당가)에 위치하고 있음. 대상지 근처의 유료공영주차장인 한빛지하 공영주차장, 한빛지상 공영주차장은 대상지를 중심으로 양쪽에 있지만 주차면수의 제약으로 충분한 인원이 사용하기에는 미흡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음.

(3) 사업대상지 유동인구 분석

※ 사업대상지 인근의 유동인구 조사는 2020년 COVID-19 감염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로 평년대비 유동인구가 격감된 상태에서 진행된 샘플링 조사임. 또한 평일과 주말 이용패턴이 상이하므로 평일과 주말을 구분해 조사하였음.

- 조사방법 : 참여관찰
- 조사일시
 - 평일 : 2020년 9월 18일~29일(7일간)에 조사하였으며, 조사시간 10:00-12:00, 14:00-17:00
 - 주말 : 2020년 9월 26일~27일(토, 일요일)에 조사하였으며, 조사시간 13:00-17:30임.
- 조사내용 : 평일과 주말로 구분해 대상지의 유동인구 수 및 성별, 방문목적, 동반자수 및 형태, 이용교통 수단, 정주시간을 조사함

| 표 IV-6 | 홍사용 문화거리 평일과 주말의 유동인구 분석

요일 · 시간대별 유동인구 조사									
성별	평일	남자	863						
		여자	1,147						
	주말	남자	804						
		여자	605						
연령대 (명)		10대 미만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평일	59 (2.9%)	288 (14.3%)	281 (14.0%)	507 (25.2%)	354 (17.6%)	277 (13.8%)	186 (9.3%)	58 (2.9%)
	주말	91 (6.5%)	249 (17.7%)	261 (18.5%)	322 (22.9%)	261 (18.5%)	138 (9.8%)	62 (4.4%)	25 (1.8%)
이동 교통 수단 (명)		도보	자전거	킥보드	롤러 스케이트	유모차	전동 킥보드	스케이트 보드	휠체어
	평일	1,687 (83.9%)	233 (11.6%)	55 (2.7%)	2 (0.1%)	31 (1.5%)	2 (0.1%)	0 (0.0%)	
	주말	1,017 (72.2%)	304 (21.6%)	52 (3.7%)	8 (0.6%)	14 (1.0%)	12 (0.9%)	1 (0.1%)	1 (0.1%)
동반자 수 및 형태 (명)		1인	부부 및 연인	가족단위 (자녀동반)	형제	친구	직장동료		
	평일	1,262 (62.8%)	206 (10.2%)	404 (20.1%)	4 (0.2%)	124 (6.2%)	10 (0.5%)		
	주말	402 (28.5%)	358 (25.4%)	382 (27.1%)	39 (2.8%)	219 (15.5%)	9 (0.6%)		
방문 목적 (명)		다른 곳 이동을 위한 통과	걷기 및 산책	친교	상가방문	아파트 출입	휴식 (벤치이용)	운동 (조깅, 골프연습 등)	
	평일	663 (33.0%)	691 (34.4%)	67 (3.3%)	569 (28.3%)	15 (0.7%)	5 (0.2%)	0 (0.0%)	
	주말	583 (41.4%)	674 (47.8%)	9 (0.6%)	109 (7.7%)	7 (0.5%)	16 (1.1%)	11 (0.8%)	
정주 시간		5분 이내	5~30분	30~60분	60분 이상				
	평일	612 (30.4%)	965 (48.0%)	328 (16.3%)	105 (5.2%)				
	주말	899 (63.8%)	351 (24.9%)	122 (8.7%)	37 (2.6%)				

(5) 평일과 주말 비교

- 먼저, 평일과 주말의 총 인구 수는 평일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여성과 남성 비율을 보면 평일에 여성이 더 많고, 주말에 남성이 더 많음. 총 이동인구의 연령대를

보면 평일의 경우 30대와 40대가 높게 나타났으며 주말에는 30대와 40대 외에 20대의 이동인구 수가 늘어났음을 알 수 있음

| 그림 IV-7 | 평일 유동인구 키워드 분석



| 그림 IV-8 | 주말 유동인구 키워드 분석



- 이용교통수단은 평일과 주말 모두 걷기가 가장 높은 순위를 나타냈고, 다음으로 자전거가 높은 퍼센트를 차지했음. 방문객들의 동반자수 및 형태는 평일과 주말 모두 1인, 가족단위(자녀 동반), 부부 및 연인 순으로 높게 나타났지만 평일의 경우 1인 방문자가 월등히 높음. 방문목적은 걷기 및 산책, 다른 곳 이동을 위한 통과가 평일과 주말 모두 높게 나타났음. 평일에는 주말과 다르게 상가 방문도 높은 퍼센트를 차지하는 것이 특이점이라 볼 수 있음. 정주시간은 평일의 경우 5~30분이

가장 높게 나타났지만, 주말은 5분 이내가 가장 높게 나타났음. 이는 평일에 공간에 더 머무르는 편이며, 주말은 잠시 머물다 간다는 것을 나타냄

4) 시사점

- 평일이나 주말 모두 30~40대의 1인, 연인·가족 단위 방문객이 걷기 및 산책 그리고 단순통과를 위해 대상지를 방문함. 특히 주말의 경우 단순 통과지로 이용되는 비율이 높은데, 이는 콘텐츠가 부족하기 때문으로 보임
- 따라서 홍사용 문화 거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30~40대의 1인, 연인·가족 단위 방문객을 끌어들이고, 대상지를 단순 통과가 아닌 목적지 자체로 인식될 수 있게 하는 매력적인 문화콘텐츠 개발이 요구됨. 또한 브랜딩 및 다양한 홍보 전략을 통해 홍사용 문화 거리를 주변 지역사회에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는 노력도 병행되어야 함

2. 동탄신도시 문화예술 기반 분석

1) 동탄신도시 문화예술 기반시설 현황

- 동탄신도시에는 공공도서관 3개소, 문예회관 1개소 및 미디어 센터, 문학관 각 1개소가 있음
- ‘동탄복합문화센터 도서관’, ‘반석아트홀’, ‘화성시미디어센터’, ‘노작 홍사용문학관’, ‘두빛나래 어린이 도서관’, ‘동탄 중앙 이음터도서관’ 등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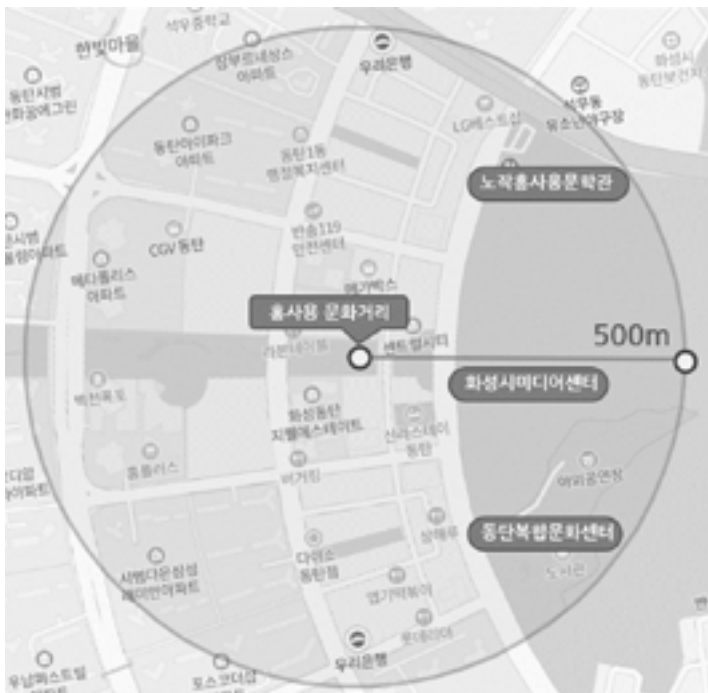
표 IV-7 | 화성시·동탄신도시 문화기반시설 현황(2019년 기준)

(단위 : 개소)

구분	합계	공공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문예회관	지방문화원	문화의집	미디어센터	문학관
		계	지자체	교육청	계	국공립	사립	대학	계	사립					
화성시	26	13	12	1	4	2	1	1	1	1	3	1	2	1	1
동탄신도시	6	3	3	0	0	0	0	0	0	0	1	0	0	1	1

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19), 2019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을 토대로 재구성

그림 IV-9 | 홍사용 문화거리 인접 문화기반시설



- 2008년 설립된 ‘화성시문화재단’이 동탄복합문화센터 도서관 및 반석아트홀, 화성시미디어센터를 운영 중이며, 이외에도 노작홍사용문학관 등의 문화기반시설이 위치하여 동탄신도시 문화·예술 활동의 중심축에 해당함
- 본 연구에서는 실천적인 사업계획 수립을 목표로 동탄신도시 홍사용문화거리와 반경 500m 내외에 인접한 문화거점인 동탄복합문화센터 및 노작 홍사용문학관, 화성시미디어센터를 중심으로 분석함

(1) 동탄복합문화센터

소재지 | 화성시 노작로 134

건축비 | 약 550억 원

준공일 | 2010.12.10

개관일 | 2011.01.02

- 동탄복합문화센터는 공연장인 반석아트홀, 동탄아트스페이스(갤러리), 문화센터와 같은 문화시설과 수영장, 트레이닝센터 등 스포츠시설이 있는 문화, 도서관, 어린이집 등의 교육시설이 있는 도서관동, 야외공연장으로 구성되어 연간 약 150만 명의 이용객들이 이용하고 있는 동탄신도시의 복합 문화공간임

| 표 IV-8 | 동탄복합문화센터 시설현황

동탄복합문화센터 전경		
		
구분	면적(m ²)	용도
3층	4,630	사무실, 식당, 키즈카페, 도서관 열람실
2층	5,209	도서관, 헬스장, 강의실
1층	6,876	수영장, 어린이집, 전시실, 다목적실
지하 1층	6,227	주차장, 공연장
지하 2층	5,735	주차장
건축면적	10,853m ² (연면적 28,677m ²)	

출처 : 화성시문화재단 제공

- 특히, 동탄복합문화센터는 스포츠시설과 도서관 이외에도 548석 규모의 반석아트홀과 최대 2천 명까지 수용할 수 있는 야외공연장을 보유하고 있어 동탄신도시 거주민에게 공연예술의 접근성을 높이고 있음
- 2018년 기준 반석아트홀의 경우 약 32회의 공연이, 야외공연장에서는 기상여건을 고려하여 5월부터 10월까지 약 11회의 공연이 진행되었음

| 표 IV-9 | 동탄복합문화센터 공연장 시설현황

구분	반석아트홀	야외공연장
시설		
좌석	고정좌석 542석, 장애인석 6석	고정좌석 600석, 장애인석 7석, 자유석 1,000석(최대 수용인원 2,000명)
면적	175m ² 의 메인무대	19,218m ² (메인무대 175m ²)
출처 : 화성시문화재단 제공		

(2) 화성시미디어센터

소재지 | 화성시 노작로 158

건축비 | 약 10억 원 (리모델링)

준공일 | 2016.10

개관일 | 2016.12.22

- 미디어 관련 체험 및 교육시설인 화성시미디어센터는 ‘미디어를 통해 자유롭게 소통하는 미디어 플랫폼’을 목표로 2016년 개관하여 시민을 대상으로 미디어 활용 능력을 개발하고 전문가를 양성하는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 표 IV-10 | 화성시미디어센터 전경



출처 : 화성시문화재단 제공

| 표 IV-11 | 화성시미디어센터 시설현황

구분	면적(m ²)	용도
2층	567.73	영상스튜디오, 소리스튜디오, 일반교육실, 미디어편집실, 기자재실, 통신실, 사무실 등
1층	588.58	영상교육실, 디지털교육실, 미디어체험실, 미디어카페, 영상감상실, 미팅룸 등
건축면적	1,659.29m ² (연면적 11,56.31m ²)	

출처 : 화성시문화재단 제공

- 화성시미디어센터는 ‘맞춤형 미디어교육’, ‘찾아가는 미디어 프로그램’, ‘미디어 커뮤니티 활동지원’, ‘마을미디어 운영지원’, ‘미디어 콘텐츠 제작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3) 노작 홍사용문학관

소재지 | 화성시 노작로 206 개관일 | 2010.03.18 부지면적 | 990㎡(연면적 941.55㎡)

- 노작 홍사용문학관은 2010년 개관 이후 2018년부터 (사)홍사용기념사업회에 의해 위탁 운영되고 있으며, 문학관 자료의 수집·전시·관람 외에 창작, 인문, 출판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 표 IV-12 | 노작 홍사용문학관 시설현황

노작 홍사용문학관 전경	
	
구분	용도
2층	제 2전시실, 강의실, 작가의 방, 아동 청소년 자료실, 야외테라스, 북카페 등
1층	산유화극장, 제1전시실, 수장고, 작은도서관(북카페), 사무실 등

출처 : 노작 홍사용문학관 제공

| 표 IV-13 | 노작홍사용 문학관 주요 공간구성

구분	활용	공간 특성	대관	관람
산유화극장 (다목적 소극장)	시낭송회, 세미나 소규모연극공연	공연 교류공간	0	0
수장고	유물보존, 장서소장	보존공간	-	0
작은 도서관	독서, 도서대출	열람 및 교류공간	-	0
제1전시실	노작홍사용 유물 및 사료 보존·전시	보존 및 정보공간	-	0
제2전시실			-	0
북 카페 *야외테라스	독서와 커피를 즐기는 공간	교류 및 휴게공간	-	0
강의실	각종 문예강좌, 합평회, 토론 * 적정인원 25명	창작 및 교류공간	0	-

출처 : 노작 홍사용문학관 제공

(4) 기타시설 : 동탄중앙이음터도서관

소재지 | 화성시 동탄대로시범길 117 개관일 | 2016.09.30 건축면적 | 3,035m²

- 2016년 개관한 동탄중앙이음터 도서관은 동탄2신도시의 동탄중앙이음터¹²⁾ 내에 입주하고 있음

| 표 IV-14 | 동탄중앙이음터 도서관 시설 및 현황

전경	구분	실별	비고
	1층	로 비	
	2층	어린이 자료실	
		유아 열람실	
	3·4층	종합자료실 1	
		종합자료실 2	
	5층	디지털자료실	좌석수: 30석
		학생열람실	좌석수: 82석
		일반열람실	좌석수: 98석
		노트북실	좌석수: 28석
		휴게실	좌석수: 25석

출처 : 동탄중앙이음터 제공

12) 「화성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 설립된 학교복합시설로서「고등학교이하 각급 학교 설립 운영 규정」 제3조의 2에 따른 문화 및 복지시설, 생활체육시설, 평생교육시설 등을 말함

2) 문화예술부문 인적현황

(1) 동탄신도시 생활예술단체 현황

- 동탄신도시에는 화성시문화재단 및 노작홍사용 문학관, 동탄중앙이음터 등을 중심으로 30여개의 생활예술단체가 활동하고 있으며 음악 분야(10개, 34%) 및 미술 분야(6개, 20%), 무용 분야(4개, 13%) 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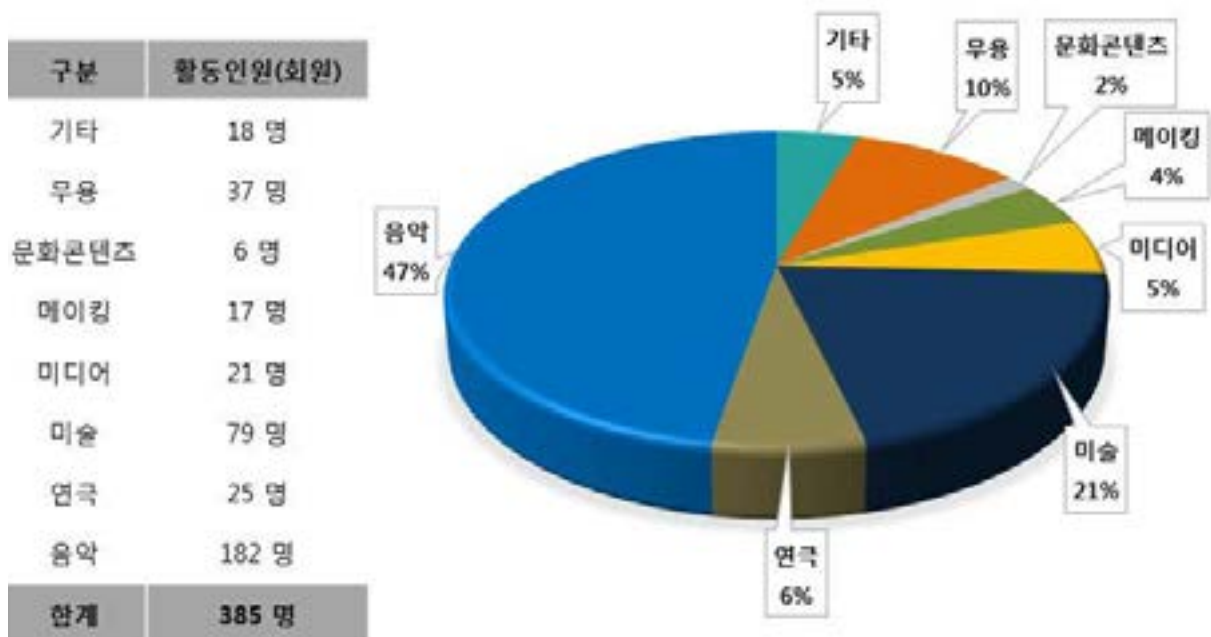
| 표 IV-15 | 동탄신도시 생활예술단체 현황

(단위 : 개)

구분	사례수	단체명
무용	4	루비스 댄리, 텔루스, 미담 춤사랑연구회, 동탄ys-헤라벨리댄스
문화콘텐츠	1	화성연구소
미디어	3	더빙통(通), Ebooker, 우리동네 아나운서
미술	6	동목회, 동탄 반송 수채화회, 동탄 물향기 수채화, 붓 꽃 人 동탄, 목동 파(목요일 동탄 파스텔), 동심
사진	1	썸앤레미니스
연극	1	시민극단 산유화회(노작 홍사용문학관)
요리	1	요리조리
음악	10	화성메아리, 비타민색소폰, 화성타악울림소리, 나래울하모니카앙상블, 오락가락재즈, 오카모니, 동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화현, Mars Ensemble(마르스스트링), 21세기 남성합창단
메이킹	3	소잉엔젤, 한미모, 동그라미 팝업북

자료 : 동탄중앙이음터 2019 성과보고서 및 화성시문화재단 자료를 토대로 재구성

| 그림 IV-10 | 동탄신도시 생활예술단체 장르별 활동인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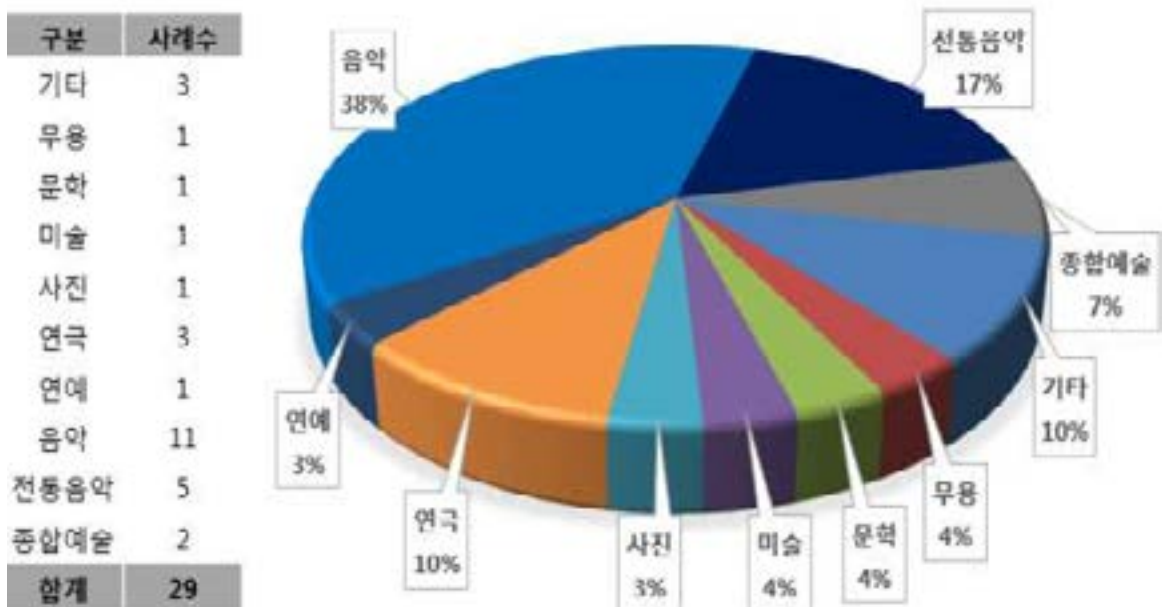
자료 : 동탄중앙이음터 2019 성과보고서 및 화성시문화재단 자료를 토대로 재구성

- 생활예술단체의 분야별 활동인원 현황을 살펴보면, 동탄신도시의 생활예술활동은 총 385명 중 음악 분야가 182명(47%)로 가장 많으며, 미술 분야 79명(21%), 무용 분야 37명(10%), 연극 25명(6%) 순으로 나타남
- 2010년에 창단한 ‘동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는 매년 정기연주회 및 찾아가는 음악회, 장애우를 위한 자선음악회, 시민을 위한 무료음악회 등 연주를 통해 음악을 바탕으로 한 시민간의 소통과 나눔을 지향하고 있음
(동탄필하모닉 오케스트라 홈페이지, 2020. 11.17. 검색)
- 한편, 노작 홍사용문학관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시민극단 ‘산유화’는 ‘산유화회’를 계승하고자하는 시민이 주체가 되는 연극동아리로, 연극현장에서 활동하는 연극 연출가, 배우 등을 초빙하여 연극 이론과 실체에 대해 배우고, 직접 배우와 스태프로 참여하여 결과물을 공연을 통해 화성시민과 공유하는 활동을 하고 있음
(노작 홍사용문학관, 2020.11.17. 검색)

(2) 전문예술법인단체 현황

- 2020년 11월 기준 화성시에 등록된 전문예술법인 및 단체는 총 29개로 음악 분야가 11개(38%)로 가장 많으며, 전통음악 5개(17%), 연극 3개(10%)순으로 나타남

| 그림 IV-11 | 화성시 전문예술법인·단체 현황



자료 : 화성시문화재단 자료를 토대로 재구성

- 이들 전문예술법인단체들은 동탄복합문화센터 및 노작문학관 등의 동탄신도시 문화거점을 포함해 화성시 전역에서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3) 화성시문화재단 운영현황

(1) 화성시문화재단 일반현황

○ 일반현황

- 화성시문화재단은 화성시의 역사와 전통을 계승하고 문화예술을 진흥하기 위해 2008년 8월에 설립됨(화성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제1조)
- 화성시문화재단은 이사장과 대표이사를 중심으로 4개 국과 1개 관, 29개의 팀으로 구성되어 있음

| 그림 IV-12 | 화성시문화재단 조직도



- 화성시문화재단은 2019년 12월 기준 14명의 임원과 445명의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서별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음

| 표 IV-16 | 화성시문화재단 부서별 주요업무

국·관명	주요업무
경영기획국	- 주요 시책사업의 기본방향 결정 - 예산의 종합편성·조정 및 확정 - 경영평가, 정책개발 및 조사연구 - 간행물 및 홍보물 제작, 언론보도자료 작성·배포 - 인사, 노무, 회계 및 재무관리 - 동탄복합문화센터 시설관리
시민문화국	- 찾아가는 문화공연, 문화탐방, 라이징스타, 동탄아트스페이스 운영 - 서남부권 특화사업 발굴 및 운영 - 화성문예아카데미 및 동탄복합문화센터 스포츠 프로그램 운영 - 생활문화센터 및 미디어센터 운영관리 - 3.1운동 순국기념관 및 만세길 운영관리
예술진흥국	- 공연기획 및 공연시설 운영관리 - 문화예술육성지원 - 예술단운영 관련 사업개발

축제사무국	- 축제 DB관리 - 화성벚놀이축제, 정조효문화제, 능행차 재현, 병점 로드페스티벌, 봄사람가족축제, 품앗이축제, 파크페스티벌 운영
도서관	- 화성시립도서관 및 작은도서관 운영 - 자료수집·정리 및 보존, 제공 - 독서 및 평생학습 진흥사업 운영 - 교육·문화프로그램 운영 - 사립작은도서관 지원사업 운영 - 사회공헌사업 운영

자료 : 화성시문화재단,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 비전 및 목표

| 그림 IV-13 | 화성시문화재단 비전 및 목표



- 화성시문화재단은 ‘지속가능한 화성 지역문화예술생태계 조성’을 비전으로 시민과 전문예술가간 정책을 조율하여 ‘문화예술로 연결되는 도시 화성’을 목표로 함

(2) 화성시문화재단 주요사업

- 2020년 화성시문화재단 사업계획에 따르면, 화성시문화재단은 지역문화예술, 문화정책, 축제 등 11개 분야로 사업 주제를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전체 사업에 대한 총 예산액은 약 101억여 원임

| 표 IV-17 | 화성시문화재단 2020년도 사업계획

(단위 : 천원)

분야	사업명	예산	홍사용 문화거리 연계
지역문화예술	서·남부권 지역문화예술 활성화사업	200,000	
문화정책	문화예술진흥계획 연구조사	200,000	●
축제	화성시 대표축제 운영	3,050,000	
공연예술	월간기획공연	2,186,500	
	문화네트워킹 콘서트	230,000	
	찾아가는 공연장	377,900	●
시각예술	동탄아트스페이스 기획전시 동탄아트스페이스	463,500	
생활문화	생활문화예술 네트워크 및 동호회 활성화	100,000	●
교육	맞춤형 미디어교육 미디어센터	126,600	●
	시민과 함께하는 화성 독립운동 체험교육 제암리 3.1운동 순국기념관	156,350	
생활체육	스포츠프로그램 운영	657,973	
도서관	생애주기별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336,000	
	도서관 장서 및 정보콘텐츠 확충	1,400,000	
	정보취약계층 지식정보서비스 강화	237,000	
콘텐츠	코리요 홍보사업	140,000	●
재단운영	홍보강화	239,500	
예산합계		10,101,323	

출처 : 화성시문화재단,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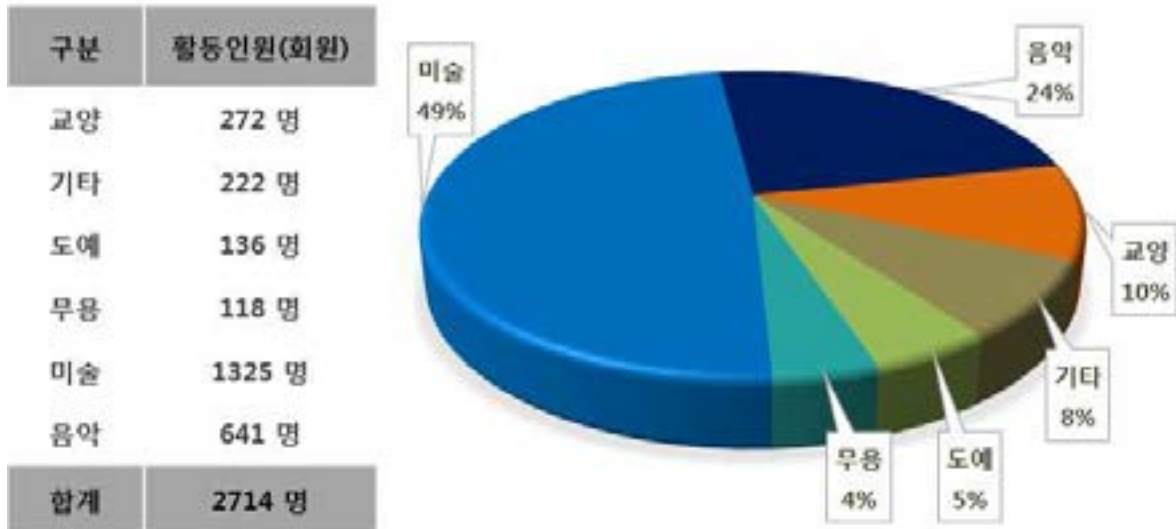
- 전체 사업 중 문화예술진흥계획 연구조사, 찾아가는 공연장, 생활문화예술 네트워크 및 동호회 활성화, 맞춤형 미디어교육, 코리요 홍보사업 등은 홍사용 문화거리 사업과 부분적인 연계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음

○ 화성문예아카데미

- ‘화성문예아카데미’는 2011년 ‘동탄문예아카데미’로 운영을 시작한 이후, 2012년부터 ‘화성문예아카데미’로 명칭을 변경하여 2015년부터 5개월 과정 2학기제로 음악, 무용, 인문교양 등의 과정을 운영하고 있음
- 2011년 3개 학기 104개 강좌가 2012년에는 145개, 2017년에는 192개로 증가하여 지속적인 프로그램의 확장이 이루어짐
- 또한 2013년부터 동탄복합문화센터 내 방문객들의 통행 빈도가 높은 M1층 복도에서 문예아카데미 미술부문 수강생의 작품을 전시하는 ‘복도 갤러리’ 사업을 운영하여 문화예술을 통한 시민의 소통기회를 확대하고 있음

| 그림 IV-14 | 화성문예아카데미 장르별 수강인원 현황

(2019년 1학기 기준)



| 표 IV-18 | 화성시문화재단 시설 및 행사 연간 이용인원 현황

(2019년 기준, 부분 2018년 기준)

분류	구분		이용인원(명)	비고
문 화 예 술	공연장 운영	화성 · 반석아트홀	108,130	기획 · 대관공연 운영
	축제운영	화성벚놀이 축제	246,158	개최장소 : 전곡향
		정조효문화제	55,000	※ 2018년 기준
		파크페스티벌	12,000	개최장소 : 동탄
		봄사랑가족축제	40,000	개최장소 : 동탄2신도시
		품앗이공연예술축제	3,439	개최장소 : 우정읍
	문예아카데미	화성문예아카데미	5,171	등록인원
	전시장	아트스페이스 관람	35,894	동탄복합문화센터 內
	화성시 미디어센터	미디어 창의 교육	1,057	※ 2018년 기준
		찾아가는 미디어 교육	3,785	※ 2018년 기준
화성시 생활문화센터	오픈키친	2,825	공유주방형태 대관	
	목공방	1,335	목공방 대관 및 프로그램	
도 서 관	도서관	이용자수	5,509,339	15개 도서관 총계
		도서관 평생교육 프로그램	111,440	
		독서문화진흥행사	129,003	
		서남부권 공연참여자	4,205	문화격차 해소공연
기타	스포츠	스포츠프로그램 이용	572,430	수영장, 헬스장 등
계			6,841,211	

출처 : 화성시문화재단 내부자료

4) 노작홍사용 문학관 운영현황

(1) 노작 홍사용문학관 일반현황

○ 일반현황

- 노작 홍사용의 문학사적 업적을 발굴하고 계승하기 위해 2010년 3월 18일 개관하였으며, 현재 (사)홍사용기념사업회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음
- 1층에는 도서관, 제1전시실, 수장고, 사무실 등이 2층에는 자료실, 북카페, 제2전시실 등이 있으며, 매 주 월요일, 명절 당일 등은 휴관함
- 노老노No카페 커피 등 화성시 노인일자리 사업시설도 함께 운영하고 있음.
- 홍사용의 본적지에 설립된 문학관으로 뒤편에 홍사용의 묘지가 소재하는 등 지역문화 예술의 거점으로 활용됨

○ 비전 및 목표

| 그림 IV-15 | 노작 홍사용문학관 비전 및 목표



출처 : 노작 홍사용문학관 제공

(2) 노작 홍사용문학관 주요사업

| 표 IV-19 | 노작 홍사용문학관 주요사업

분야	사업명	사업내용	홍사용 문화거리 연계
공연·행사	노작문학제	인문학특강, 체험프로그램, 공연 등	●
	창작단막극제	단막극 공연, 시상 등	
	문학현장답사	문학인과 관련된 현장 답사 등	
	에코 트레킹	작가들과 함께하는 반석산 등반	
	문학이 함께하는 음악회	작가와 음악가를 초청하여 문학과 음악을 함께 즐기는 음악회	
	산유화극장	전문예술인 공연과 버스킹	
	작은영화관	영화 감상과 관련 특강	
	시민극단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시민동아리 프로그램	●
	시낭송 공모전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시낭송 공모전	
교육·강좌	문예강좌	시민 대상 글쓰기 특강, 워크숍 등	●
	문예캠프	청소년 대상 글쓰기 특강 등	●
	작가특강	화성시민과 베스트셀러 작가 간의 소통, 강의	●
	심포지엄	홍사용 등 한국근대문학분야 연구자들의 발표, 토론	●
	토요문화학교 꿈다락	아동·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한 글쓰기 특강	
	문학관 상주작가	지역민들의 문학 향유 및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한 교육 등	
	도서관 상주작가	지역민들의 문학 향유 및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한 교육 등	

○ 프로그램 현황

- 화성시민을 위한 복합적 문화공간으로, 정주민과 이주민들에게 화성의 문화정체성을 제고하고 문화 향수권을 부여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됨
- 교육과 학습, 공연과 관람 등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다양한 문화적 욕구를 지닌 화성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함
- 문화예술인들의 창작공간을 제공하는 동시에 여러 방면의 문화예술인들이 교류하는 공간을 별도로 마련하고 있음
- 노작문학상과 노작문학축제 등 특화사업을 연계하고 있어서 지역 내 문화예술인들의 창작열을 고취할 수 있음

5) 소결

- 동탄신도시의 문예기반시설 중 홍사용 문화거리 조성지와 반경 500m 내외에 인접한 문화거점인 동탄복합문화센터 및 노작 홍사용문학관, 화성시미디어센터를 중심으로 분석하여 ‘공연’, ‘교류’, ‘미디어’, ‘문학’의 네 가지 테마를 도출함

| 그림 IV-16 | 동탄신도시 문예기반분석 테마도출



- 먼저, 공연의 경우 동탄복합문화센터의 ‘반석아트홀’과 ‘야외공연장’, 노작 홍사용 문학관의 ‘산유화극장’으로 실내외 대형공연에서부터 소공연까지 다양한 공연이 이루어지며, 추후 홍사용 문화거리의 야외공연장을 활용하여 거리공연을 통해 시민들의 공연예술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
- 또한 동탄복합문화센터, 노작 홍사용문학관, 화성시미디어센터는 동탄문예아카데미, 미디어교육, 문예강좌를 바탕으로 시민동아리가 조직되고 있어 홍사용 문화거리에서 특강 및 야외수업 등의 방법으로 연계할 수 있음
- 화성시문화재단의 동탄복합문화센터 복도갤러리(M1층) 사업과 같이 다양한 시민 교육 결과물을 바탕으로 전시하고 공유하는 방안이 필요하며, 축제 및 행사에서 프로그램 편성을 통해 이를 반영할 수 있음
- 미디어와 문학의 경우 화성시미디어센터와 세 개의 도서관 시설을 중심으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홍사용 문화거리의 ‘미디어 월’ 시설과 거리의 문학적인 테마를 반영한 콘텐츠 생산이 필요함
- 마지막으로, 화성시문화재단 및 노작 홍사용문학관의 주요사업 중 홍사용 문화거리와 연계가 가능한 사업을 검토하였으며 추후 구체화된 사업방안 논의가 요구됨

3. 홍사용 생애 및 주요활동

- 노작(露雀) 홍사용(洪思容)은 1900년 5월 17일 경기도 용인군 기흥면 농서리 용수골에서 태어났으나 9세에 본적지인 화성군 동탄면 석우리 492번지[현 동탄신도시 (그림 IV-17)]로 돌아와 성장하였음

| 그림 IV-17 | 화성군 동탄면 석우리(돌무리), 현재 동탄신도시 일대



출처: 노작 홍사용문학관 제공

- 이후 서울로 진학하여 휘문보통고등학교 4년 과정과 1919년 3·1운동을 겪은 후 귀향하여 산문 <청산백운(靑山白雲)>과 시 <푸른 언덕 가으로>를 시작으로 소설, 희곡, 수필, 연극단체 등 다양한 영역에 걸친 활동을 이어갔으며, 현재 동탄신도시에 노작의 활동을 바탕으로 ‘노작홍사용 문학관’과 ‘노작마을’에 이어 ‘홍사용 문화거리’가 조성중임

1) 《백조(白潮)》창간 및 발행 : 매체활동 및 네트워크

- 3·1운동 이후 노작은 사재(私財)를 출연하여 1922년 문예동인지 《백조》를 창간 하였으며, 창간 동인으로는 홍사용, 현진건, 나경손(나도향), 박영희, 이상화, 김기진, 노자영, 오천석, 안석주, 원세하, 이광수, 박종화 등 12명이 있음
 - 《백조》는 일제강점기 초창기 문학청년들이 이합집산 하여 모색하던 문학과 예술에 대한 장으로서 문학의 독자성과 자율성을 강조하였음(정우택, 2009)
 - 당시 청년세대였던 《백조》의 동인들은 다양한 모색과 시도를 거쳐 세계적 문예조

류를 바탕으로 자유시의 언어와 양식을 통해 표현을 시도함

“1920년대는 우리 문단에 온 시의 황금시대라고 할 수 있다. [...] 시가 잘 되었건 못 되었건, 문인이면 시인이 될 만큼 시의 세기(世紀)였다. 홍사용 군은 시인 중에서도 서정시인이었다. 애상(哀傷)의 시인이었다.”

— 박영희, 〈백조 화려한 시대〉(《조선일보》, 1933. 9) 중에서

- 《백조》 동인에 속했던 이들은 휘문고보·배재고보·양정고보·중앙고보·경성고보 및 기타 일본이나 지방에서 공부한 사람들로 문학에 뛰어난 재능을 가진 신진 지식인이었음
- ‘백조(白潮)’라는 이름 역시 밝고 새로운 물결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으며, 수록된 작품 중 유명한 것으로는 홍사용의 〈나는 왕이로소이다〉를 비롯하여 이상화의 〈나의 침실로〉 등이 있음
- 《문우(文友)》, 《백조》, 《서광(曙光)》 등 노작 홍사용이 주도하거나 참여한 매체 활동은 내부적으로는 예술인 간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외부적으로는 그 새로운 사상적·예술적 결과물을 공유하여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존재함

2) 토월회와 산유화회 : 연극 활동

- 노작은 연극 활동에도 적극적이었는데 현재 4편의 희곡과 부전 희곡 3편 외에도 여러 작품의 번안, 각색, 연출자로 활약함(윤진현, 2014)
- 1923년, 신파극에 대항하여 본격적인 근대극 운동을 펼치고자 박승희가 중심이 되어 조직한 토월회(土月會)에 활동과 1927년 박진·이소연과 함께 산유화회(山有花會) 조직이 대표적인 활동임
- 또한 1930년에는 홍해성·최승일과 함께 신흥극장을 조직하여 서양극 번역과 번안, 연출, 나아가 자신의 희곡작품에 직접 출연하는 등 활발히 활동함
- 당시의 희곡들이 관념적인 주제로 남녀 간의 애정, 가정불화 등을 다룬 것에 비해 노작은 민족운동의 성격을 띠고 전개하여 희곡사에 선도적인 것이었으며, 작품을 통해 민족의 아픔과 정한을 표출하며 일제에 저항함(노작 홍사용문학관 제공)
- 이후 노작은 1939년 희곡 〈김옥균전〉을 쓰기도 했으나 일제 총독부의 검열로 인해 주거제한을 받기도 하였음
- 당시의 연극 활동은 예술을 넘어서 민족운동인 동시에 계몽운동으로 대중에게 새로운 지식과 사조를 알린다는 점에서 전술한 매체활동의 일환이기도 함
- 노작 홍사용의 주요 작품 및 활동 연보는 <표 IV-20>과 같음

| 표 IV-20 | 노작 홍사용 주요 작품 및 활동 연보

발표연도	제목	발표지(근거)	비고
1918	피는 꽃		月灘, 鄭栢과 함께 펴낸 유인물
1919	청산백운(靑山白雲)	원본유족보관	정백과의 합동수필집
1919	푸른 언덕 가으로	초고본	月灘의『달과 구름과 사상과』에 수록
1921	비 오는 밤	東明 7호	민요조의 시
1922	白潮는 흐르는데 별하나 나하나 푸른 강물에 물놀이 치는 것은 어부의 跡 六號雜記(1)	백조(白潮) 창간호	卷頭詩 자유시 자유시, 이야기체 편집후기
1922	시악시 마음은 봄은 가더이다 六號雜記(2)	백조(白潮) 2호	민요조 시 자유시 편집후기
1923	해저문 나라에 어머니에게	開闢 37호	자유시
1923	墓場-시악시 무덤 그것은 모두 꿈이었지만 나는 왕이로소이다 저승길	백조(白潮) 3호	자유시 대화·이야기체, 산문시 대화·이야기체, 산문시 소설
1924	회색의 꿈 산유화(山有花)	토월회 공연, 조선극장	번역, 연출 희곡(失傳)
1925	봉화가 켜질 때	開闢 61호	소설
1927	향토심(鄉土心)	山有花會 창립공연	희곡(失傳)
1928	조선은 메나리 나라	別乾坤12,13호	논평
1928	흰젓	佛敎 50, 51合號	희곡
1928	五男妹토월회	再起공연	변안연출
1936	明星이 빛날 시	藝天座	희곡, 공연
1936	백조시대에 남긴 餘話	朝光 11호	평론
1938	민요 한 묶음 - 각시풀 민요 한 묶음 - 시악시 마음이란 민요 한 묶음 - 붉은 시름	삼천리문학1호	민요조 시
1938	山居의 달	매일신보	수필
1938	뽕덕이네	조선일보	수필
1939	감출수 없는 것은	三千里131호	민요조 시
1939	金玉均傳		희곡(집필중단)

자료: 노작 홍사용문학관 자료를 토대로 재구성

3) 노작의 작품세계: 어둠과 포용

- 노작은 《서광》 창간호에 ‘소아생’이라는 필명으로 최초 발표한 시 〈푸른 언덕 가으로〉는 ‘어둠’을 중의적인 의미로 표현함

“ 푸른 언덕 가으로 흐르는 물이올시다.
어둔 밤 밝은 낮
어둡고 밝은 그림자에
괴로운 냄새, 슬픈 소리, 쓰린 눈물로 뒤섞여 뒤범벅 같게.

돌아다 보아도 우리 시고을은 어디뎌지
꿈마다 맺히는 우리 시고을 집은 어느때 쫓이나 되는지
떠날제 ‘가노라’ 말도 못해서 만날 줄만 여기고 기다리는 그 커다란 집
찬 밤을 어찌나 날도 새우는지—”

— 〈푸른 언덕 가으로〉 중에서

- 노작은 일제 강점기로 인해 민족과 개인의 이상과 의지 등이 억압되는 어두운 시대를 표현하였고, 어둠은 고통과 죽음을 가리키지만 또한 부활의 출발을 의미하기도 함
- 나아가 어둠속에서의 절대적 평등과 평화, 정의와 미의 세계를 가리키기도 하는데 현실의 설움과 일제에 의해 벌어지고 있는 차별, 민족 내부적으로는 계급에 대한 차별을 넘어서려는 의지를 담고 있으며, 민중과 함께 슬퍼한다는 점에서 평등과 연대의 의식을 담고 있음

4) 시사점

- 현재의 동탄신도시에서 성장하고 활동한 노작의 생애와 작품 활동에서 다음과 같은 가치를 도출할 수 있음
 - ① 시와 소설, 수필, 희곡, 평론 등 문학을 통한 다양한 예술활동에서 “도전”의 가치와,
 - ② 어둠과 빛이 공존하며 극복의 의지를 담은 노작 작품세계에서의 “포용”의 가치와,
 - ③ 후원과 참여를 통한 극단 및 매체활동으로 문화적 나눔을 실천하는 “공유”의 가치임
- 이에 “도전”과 “포용”, “공유”의 관념을 홍사용 문화거리의 활성화 전략을 수립함에 핵심가치로 삼고자 함

4. 홍사용 문화거리 조성사업 추진경과

1) 과업의 목적 및 경관개선 현황

(1) 사업개요

- 사업명: 홍사용 문화거리 조성사업
- 사업주체: 화성시
- 사업위치: 화성시 반송동 92-4 일원
- 사업목적: 동탄 1신도시 선큰공원을 통해 홍사용 콘텐츠를 활용한 문화거리 조성으로 지역주민·예술인들의 커뮤니티 공간 및 문화쉼터 제공
- 사업내용: 야외 휴식공간 조성, 미디어 월, LED 그네, 병풍 조성 등
- 사업기간: 2019. 7. ~ 2021. 7.
- 사업예산: 1,290,000천원(도비: 500,000천원, 시비: 790,000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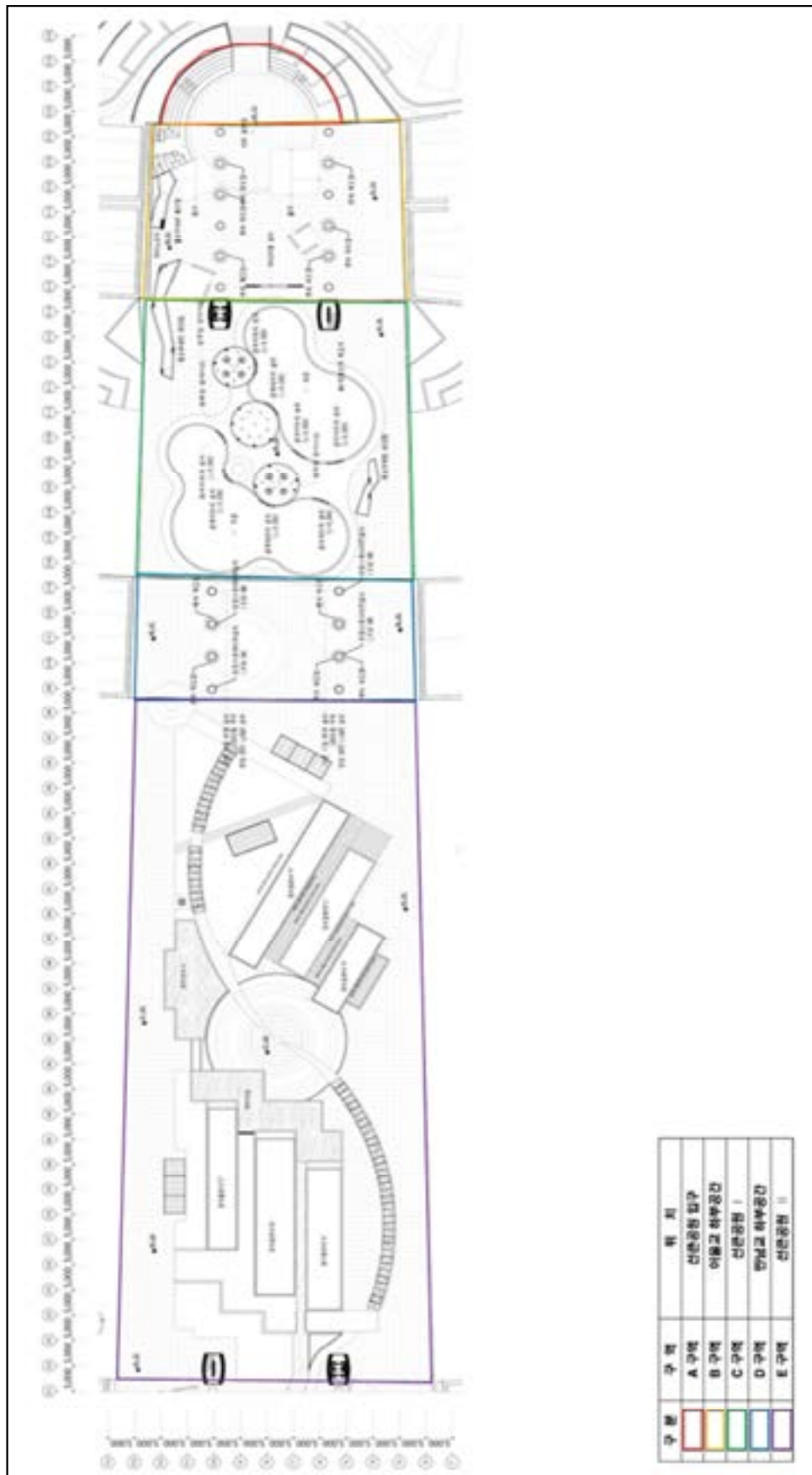
(2) 과업의 목적 및 기대효과

- 동탄 1신도시 선큰공원을 통해 홍사용 콘텐츠를 활용한 문화거리 및 공원조성으로 지역주민·예술인들의 커뮤니티 공간 및 문화쉼터 제공과 문화 도시로써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함
- 유동인구가 적고 상업시설 공실로 인해 조용하고 저녁에는 어두워 공공예술과 미디어아트 설치로 지역민들의 관심 유도 및 공간을 활성화하기 위함
- 건립 후 10년이 경과하여 노후된 동탄신도시 선큰공원을 재정비하고 주민들의 활용도를 높임
 - 어둡고 비활성화 되어 시민들이 찾지 않는 선큰공원에 조명과 다양한 휴식공간, 문화공간을 설치하여 공원의 활력을 되찾도록 함
 - 공연장, 미디어월, 이벤트공간, 벽화거리 등 다양한 활동이 가능한 공간을 마련하여, 화성시문화재단 및 화성시미디어센터, 노작 홍사용문학관 등 및 문화거점 및 시민과 다양한 행사를 운영
 - 시민들이 찾고 싶고, 걷고 싶은 거리를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과 지역가치를 높이도록 함

(3) 홍사용 문화거리 전체도면



(4) 실시설계(안)



| 표 IV-21 | 홍사용 문화거리 조성계획(안)

구역	주요시설	주요내용
A	야외공연장	문학제, 공연, 연극 등 다양한 문화행사 개최 및 시민들의 휴게 공간
B	시문학 예술광장	시민들이 만드는 쉼터공간 및 시민과 예술인간의 문화교류 공간
	노작갤러리	지역민들의 작품을 감상하는 야외 갤러리 공간
	미디어월	홍사용 문화거리 영상 콘텐츠 및 시민참여 영상 콘텐츠 공간
C	미디어 포토존	LED 그네, 오뎅이, 조명으로 이루어진 미디어 포토존 공간
D	시문학병풍거리	홍사용 시 구절이 병풍으로 이루어진 공간
E	노작그래피티 광장	홍사용 콘텐츠를 주제로 한 스트리트 아트 공간
	노작거리다	시민들이 만들어내는 '문장이 열리는 나무' 공간
F	노작 배너	홍사용 문화거리 및 인근 문화소식 홍보 배너

2) 추진경과

- 2019. 9. : 홍사용 문화거리 조성 기본계획안 수립
- 2020. 1. : 경기도 유희공간 문화재생 공모사업 선정
- 2020. 2.~5. : 디자인 용역
- 2020. 2.~3. : 조성 및 운영관련 관계기관·부서 협의
(공원관리과, 동탄출장소 교통건설과, 홍사용문학관, 화성시문화재단)
- 2020. 3. : 시민의견 수렴을 위한 설문조사

◆ 설문일자	2020. 03. 25.- 2020. 04. 01.
◆ 조사대상 및 인원	총 453명 화성시청, 화성시문화재단, 홍사용문학관 109명, 시설이용자 및 시민 344명
◆ 조사목적	홍사용 문화거리·공원조성관련 시민관심유도 및 의견수렴
◆ 조사내용	공원 내 필요 시설, 문화공원의 역할 등 조사
◆ 조사방법	(공무원)세울행정시스템 설문조사, (시민)구글폼 조사
◆ 주요 의견	- 가장 큰 불편사항 주간시간 중 조도 지적→고가하부공간 조명시설 보수 필요 - 문화거리 필요시설 '만남 및 휴게시설' 항목 1순위 차지 그늘막 부족에 대한 다수 의견으로 광장 내 그늘 조성 필요 - 기대되는 시설물 거리갤러리 - '다양한 예술품을 감상할 수 있는 공원' 예술작품 전시를 위한 공간 조성 검토 필요 - 기타의견 길거리 버스킹, 연극관람 등 무대공간, 관객석 및 공연 관련시설 조성 필요

- 2020. 8.~11. : 실시설계
 - 2020. 9.~11. : 문화거리 운영방안을 위한 지역문화컨설팅 용역
 - 2020. 11. : 공공디자인 심의
 - 2021. 1. : 공원조성계획 심의
 - 2021. 3.~7. : 조성공사
 - 2021. 9. : 홍사용 문화거리 시범사업 추진 및 거리 운영
- 홍사용 문화거리 디자인방향 및 범위 도출
- 홍사용 문화거리는 동탄신도시 조성 당시 ‘빛의 공원’으로 조성되었으며, 이를 계승하여 ‘미디어아트’를 컨셉으로 의도
 - 이용객 설문조사 결과 어두운 다리 하부 공간과 휴게 공간 부족을 불편한 점으로 꼽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는 것이 주요 방향으로 함
 - 당대 다양한 문화인들의 활동을 활성화시켰던 노작 홍사용의 역사를 계승하여 홍사용 문화거리 또한 다양한 예술인들이 문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문화공간 플랫폼’을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함

3) 구역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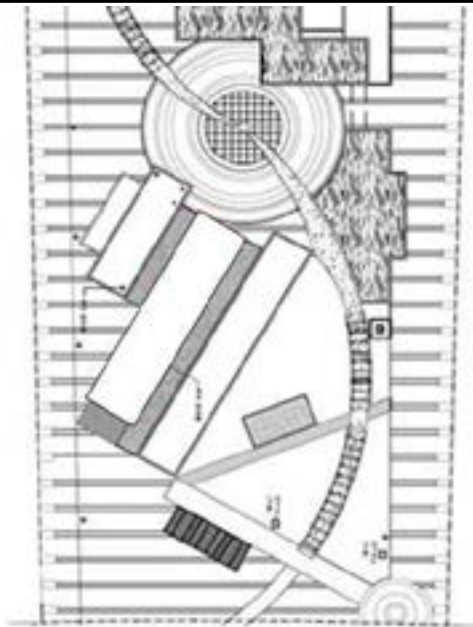
- 구역별 디자인 계획
 - 전체 디자인 컨셉

| 그림 IV-18 | 홍사용 문화거리 전체 디자인



| 표 IV-22 | 홍사용 문화거리 구역별 디자인 컨셉(A-F)

구 분	내 용		
A (선큰공원 입구)			
	현장사진	조성(안)	
	1) 200석 규모의 스탠드형 좌석과 중심부 개방형 무대를 조성 2) 다양한 공연이 가능하며, 공연이 없을 때에는 시민들의 휴식공간이 되도록 편의를 고려 3) 경관조명을 설치하여 야간에도 시민들이 찾는 장소 조성 4) 바닥 포장은 관리가 용이한 재질로 교체하고 B(어울교 하부공간)과 동일하게 조성		
B (어울교 하부공간)			
	현장사진	조성(안)	
	1) 노후된 벤치를 철거하고 고정형 벤치를 설치 2) 중심부는 공간을 비워놓아 좌석을 배치하거나 입식 행사를 진행하는 등 다양한 활동이 가능하도록 계획 3) 공연이 없을 때에도 시민들이 미디어아트를 감상할 수 있도록 미디어 월을 설치 4) 향후 운영기관과 협의 설치 5) 조명을 적절히 배치하여 주간 및 야간에도 어둡지 않도록 설계		

C (선큰공원 I)				
	현장사진		조성(안)	
	• LED 등 삽입 원형 바닥철거 후 재시공			
D (만남교 하부공간)				
	현장사진		조성(안)	
	1) 홍사용 문화거리의 역사성을 살려 시를 구현한 미디어 아트를 설치 2) 조명을 적절히 배치하여 주간 및 야간에도 어둡지 않도록 조성			
E (선큰공원 II)				
	현장사진		조성(안)	
	1) 컬러풀하고 현대적인 추상 도안 2) 도시의 맥락을 해치는 자연물 벽화는 지양하고, 뚜렷한 색채와 기하학적인 패턴을 통하여 도시의 미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디자인 3) 화성시문화재단의 '홍사용거리 활성화 컨설팅' 자문회의를 통하여 도안 조율			

F (문학관 ~ 문화센터 이음길 보도)		
	현장사진	조성(안)
	• 홍사용 문화거리를 알리는 현수막과, 현수막을 거치할 수 있는 거치대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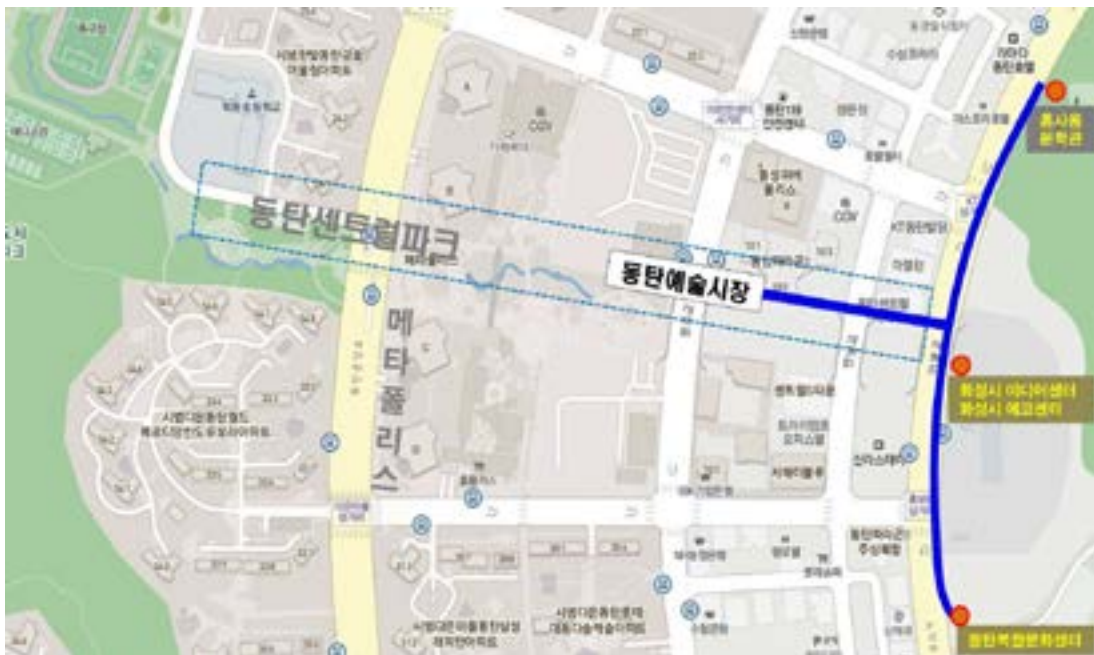
5. 동탄신도시 거리활성화 사례 : 센트럴파크 인근 행사

1) 화성시문화재단 : 생활시장 화인(華人) | Fine Market

(1) 주요내용

- 2015년 화성시문화재단이 생활예술창작자를 발굴하여 화성시민에게 문화예술상품을 소개하기 위한 예술시장과 예술체험, 공공미술, 거리공연 등을 포함하는 <동탄예술시장>시범운영을 통해 2016년부터 본격적인 운영을 거쳐 2019년부터 <생활시장 화인>으로 변경 운영함
- 화성시문화재단의 2015년 시범사업 추진계획에 따르면 동탄예술시장은 ①시민의 생활예술요구 증대와 예술향유기회 확산, ②일상 생활공간에서 창작자와 시민의 교류·소통으로 새로운 도시문화 형성, ③동탄센트럴파크를 예술 공간으로 탈바꿈하여 주변 상권 활성화 기여, ④센트럴파크(예술시장)-노작문학관-미디어센터-동탄복합문화센터를 잇는 ‘T’자형 문화예술 축(軸) 조성, ⑤ 2016년 “문화의 거리” 선정, 명소화 추진 등을 목표로 하였음

| 그림 IV-19 | 2015 동탄예술시장 시범운영 대상지



- 화성시문화재단은 2018년부터 시민주도의 생활예술축제를 지향하기 위해 생활문화사업팀으로 이관하고 2019년 ‘빛나는 당신의 생활이 모이는 공간’을 주제로 <생활시장 화인>을 운영함
- <동탄예술시장>의 경우 공급자인 판매주체는 모두 창작자였으나, <생활시장 화인>의 경우 시민이 참여하는 벼룩시장을 함께 운영하고 또한 관내공방운영자를 대상으로 자원 봉사형 시민단체인 ‘시민운영자’를 모집하여 전반적으로 시민참여의 폭을 확대함

| 그림 IV-20 | 동탄예술시장·생활시장 화인 연혁



| 표 IV-23 | 동탄예술시장·생활시장 화인 기간 및 장소

연도	축제명	기간	장소
2015	동탄예술시장 (시범사업)	2015.9.12.(토)-10.31.(토) 매월 2, 4주 토요일	센트럴파크 홈플러스광장 일대
2016	동탄예술시장	2016.5.6.(금) ~ 11.19.(토) 매월 1, 3주 금·토요일	메타폴리스 음악분수대 인근 (선큰광장)
2017	동탄예술시장	2017.4.21.(금). ~ 7.22.(토) 2017.9.1.(금) ~ 11.4.(토) 매월 1, 3주 금·토요일	메타폴리스 음악분수대 인근 (선큰광장)
2018	동탄예술시장	2018.4.21.(토) ~ 6.30.(토) 2018.8.24.(금) ~ 12.15.(토)	메타폴리스 음악분수대 인근 (선큰광장)
2019	생활시장 화인華人*	2019.6.8.(토) ~ 9.28.(토) 매월 2, 4주 토요일	메타폴리스 음악분수대 및 향남 분수광장

*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일부 행사 취소

(2) 특징 및 시사점

- 지속적인 사업운영으로 선큰광장 및 향남분수공원 등 행사지역 주변부의 공방과 카페 등이 형성되어 지역 상권발전 및 일자리 형성에 기여하고 있음
- <동탄예술시장>과 <생활시장 화인>은 공통적으로 거리공간을 바탕으로 창작품의 판매와 공연 등의 콘텐츠를 통해 시민의 문화향유 증진을 도모함
 - 2015년 시범운영 이후 지속적인 운영과 콘텐츠의 다양화를 통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자발적 문화축제로 확대되고 있음

| 표 IV-24 | 동탄예술시장 · 생활시장 화인 주요 프로그램

연도	축제명	주요프로그램	내용
2015	동탄예술시장 (시범운영)	예술시장	예술가들의 일러스트, 회화, 작품 등 판매
		설치미술	예술가들의 다양한 작품 전시 및 해설
		공공미술	페인팅, 그래피티, 도예, 목공 체험
		거리공연	밴드, 힙합, 국악 공연
2016	동탄예술시장	동탄예술전야제	화성시의 아마추어 및 동아리에서 활동하고 있는 지역 예술가들이 펼치는 무대
		잼잼아트마켓	관내에서 활동하는 생활예술 창작자들의 다양한 작품이 유통되는 플랫폼
		설치미술	다양한 작품을 광장에 설치하여 미술관이나 전시장에 존재 했던 설치 미술을 시민의 일상공간에 전시
		공공예술프로젝트	다양한 거리공연, 현대적인 퍼포먼스 버스킹 공연, 마술쇼 등
		별별거리공연	다양한 거리공연, 현대적인 퍼포먼스 버스킹 공연, 마술쇼 등
2017	동탄예술시장	잼잼아트마켓	회화, 드로잉, 공예 등 수공예 예술작품 판매 및 제작
		낭만·청년·동탄버스킹	화성시 청년·예술단체들의 버스킹 공연
		편편거리미술	일상의 거리에서 마주치고 직접 참여하며 가까워지는 미술
		담판스페셜	시민의 참여로 완성되는 공연예술 프로젝트
		돗자리 영화관	돗자리를 활용하여 즐기는 가을밤의 심야 영화관
2018	동탄예술시장	담장버스킹	청년 및 아마추어 예술가들의 공연, 연주회, 거리극
		담장스페셜	예술작품 만들기 등 시민참여형 예술프로그램
		마켓담	생활예술창작자 마켓
2019	생활시장 화인華人	화인華人시장	생활문화활동가 및 일반시민이 참여하는 벼룩시장
		가족벼룩시장	가정에서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을 싼 값에 판매
		집 앞 버스킹	시민동호회 및 전문공연가들의 버스킹 공연
		생활 속 야외수업	생활문화활동가들과 함께하는 시민참여프로그램

| 그림 IV-21 | 동탄예술시장 변화



- 또한 생활예술 활성화를 바탕으로 <동탄예술시장>에서 <생활시장 화인>으로 변경되면서 ‘사업의 운영’, ‘전시 및 판매’, ‘모니터링’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 민간주도형 사업의 기반을 마련함
- 한편, 시범운영 당시 목표하였던 ‘센트럴파크(예술시장)-노작문학관-미디어센터-동탄 복합문화센터’를 잇는 ‘T’자형 문화예술 축 조성’의 경우 유의미한 성과를 달성하지 못하여 추후 홍사용 문화거리 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발전방안을 모색할 것이 요구됨

2) 삼성나눔워킹페스티벌

(1) 주요내용

- 삼성나눔워킹페스티벌은 아산, 용인, 구미, 화성 등 삼성과 관련된 여러 도시에 개최되는 행사로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 사회적 기업이 참가하여 제품을 판매·홍보함
- 화성시에서는 2013년부터 시작되어 시민들의 참가비(1인 5,000원)와 삼성전자의 1:1 매칭으로 복지기금을 조성함

| 그림 IV-22 | 삼성나눔워킹페스티벌 연혁(1)



- 나눔워킹(5km)과 다양한 체험·참여프로그램, 화성시 정책홍보, 사회적 기업 제품 판매, 생활용품 및 지역특산품 등 경품추첨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시민들의 참여를 독려함

| 표 IV-25 | 삼성나눔워킹페스티벌 연혁(2)

연도	축제명	일시	주요내용
2015	삼성나눔워킹 페스티벌	2015.10.17.(토)	5km나눔워킹, 체험프로그램, 축하공연, 사회적기업제품 홍보, 경품추첨
2016		2016.10.15.(토)	
2017		2017.10.14.(토)	
2018		2018. 9. 8. (토)	
2019		-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 개최되지 않음

| 그림 IV-23 | 삼성위킹나눔페스티벌 코스



(2) 특징 및 시사점

- 기업(삼성)과 지역사회가 함께 하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으로 ‘사랑과 나눔의 시민 축제’를 추구함
- 걷기대회 코스 중간에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축하공연, 기업 홍보부스 운영 등을 실시하여 참가자들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함
- 매칭그랜트를 통한 지역사회와의 생상을 기대하고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함
 - * 매칭그랜트 : 비영리단체 혹은 기관에 후원금을 전달하면 기업에서 동일한 금액을 매칭(Matching)하여 기부하는 사회공헌프로그램
- 참가비는 전액 소외계층에 기부되며,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기념품(티셔츠 등)을 지급함
- 워킹 코스가 홍사용 문화거리를 통과하도록 할 경우 홍사용 문화거리 홍보 및 지역주민들의 문화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음

3) 동탄상가 상인회: 동탄 굿마켓

(1) 주요내용

- 동탄굿마켓은 동탄 상인회와 중부일보가 주최하고 화성시가 후원하는 형태에서 시작하여 2018년부터 지역상인과 주민이 주도하는 시민주도형 행사로 플리마켓을 통한 나눔문화를 실천하고 있음
- 나눔마켓(플리마켓)과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문화공연, 관내 예술단체 및 동아리 등의 버스킹, 푸드트럭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함
- 최근에는 단순히 물건을 사고파는 플리마켓의 개념에서 벗어나 가족단위 시민들이 찾아와 즐길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있음

- 판매자 참가비(10,000원)은 전액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되며, 사전 판매 신청을 통해 판매 품목을 다양화하고 있음

| 그림 IV-24 | 동탄 굿마켓



| 표 IV-26 | 동탄 굿마켓 연혁 및 내용

연도	주최 주관	일시·장소	주요내용
2015	동탄상가 상인회, 중부일보	11.14(토) ~ 15(일) 동탄 센트럴파크	플리마켓, 푸드트럭, 이동식 동물원 등
2016	동탄상가 상인회, 중부일보	10.1(토) ~ 2(일) 동탄 센트럴파크·개나리공원	플리마켓, 키(즈)덜트 체험한마당, 나눔경매, 푸드트럭, 축하공연 등
2017	화성시, 동탄상가 상인회	9.16(토) ~ 17(일) 동탄 개나리공원	플리마켓, 체험한마당, 푸드트럭, 축하공연 등
2018	동탄상가 상인회	10.27(토) ~ 28(일) 동탄 센트럴파크·개나리공원	플리마켓, 문화나눔 콘서트 버스킹공연, 개나리 놀이공원 등
2019	동탄상가 상인회	7.12(금) ~ 14(일), 20(토) 동탄 센트럴파크·개나리공원	플리마켓, 나눔공연, 어린이놀이존, 이색영화관, 기부음악회 등

(2) 특징 및 시사점

- 시민음악회, 공연, 영화제 등 다양한 행사를 통해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
- 주변 문화예술단체 및 사회복지시설 등이 참여하여 착한 소비와 기부 문화 등을 제고하고 동시에 동탄포신도시를 상징하는 명소로 부각시키는데 기여함
- 동탄 거주민들의 벼룩시장 뿐 아니라 화성시 내 사회적 기업과 공예업체 등이 참석하여 기업을 홍보하고 나눔의 가치를 실천함
- 노작 홍사용과 관련된 콘텐츠를 생산하고 판매함으로써 홍사용 문화거리 홍보 및 동탄신도시 주민들의 문화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4) 화성시 YMCA : 재활용 나눔장터

| 그림 IV-25 | 재활용 나눔장터



(1) 주요내용

- 화성시YMCA가 주최·주관하는 행사로 좌관신청금(성인 5,000원, 어린이·청소년 3,000원)은 화성시 내 취약계층 및 소외계층, 동물보호단체 등에게 지급됨
- 나눔장터 외 다양한 문화행사(페이스페인팅 등) 및 이동식 동물원 등을 운영하여 화성 시민들의 여가 및 휴식의 장소로 발전하고 있음

| 표 IV-27 | 재활용 나눔장터 연혁

연도	축제명	일시·장소	장소
2015	재활용 나눔장터	4월 ~ 11월 매일 첫 주 토요일 (8월 제외)	동탄 센트럴파크
2016			
2017			
2018			
2019			

(2) 특징 및 시사점

- 장난감, 옷, 가방 등 사용하지 않는 물품의 판매 및 교환을 통해 쓰레기 발생을 최소화하고 재활용 및 기부문화 확산에 기여함
-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직접 물건을 판매하고 수익금으로 다른 물건을 구매하면서 경제관념을 형성할 수 있음
- 재활용의 소중함과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직접 배우고, 나눔과 교류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음
- 흥사용 문화거리와 연계하여 관련 전시, 교육 등을 함께 시행함으로써 동탄 신도시 주민들의 문화생활을 풍부하게 할 수 있음

5) 소결

- 동탄신도시 거리활성화를 위한 행사는 주로 시민의 여가축인 센트럴파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생활시장화인(前 동탄예술시장)**, **삼성나눔워킹**, **굿마켓**, **재활용나눔장터**의 네 가지 사례를 분석하였음
- 먼저 행사의 주최자가 공공기관(화성시문화재단), 기업(삼성나눔워킹), 민간부문(굿마켓 및 재활용 나눔장터)로 다양한 주체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공공기관에 의한 행사 역시 민간주도형으로 변화하는 양상을 보임
- 둘째로, 야외행사개최의 어려움으로 동절기(12월~2월) 행사가 부재함

| 표 IV-28 | 2017~2019 센트럴파크 인근 행사 월별운영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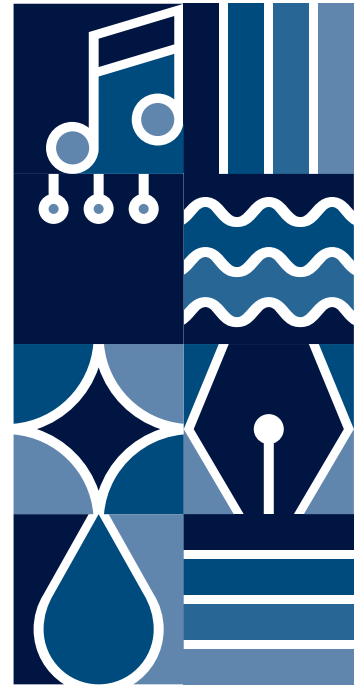
행사명	※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생활시장화인				2017년					2018년			
삼성나눔워킹						2019년						
굿마켓												
재활용나눔장터				2017년					2018년			

- 동탄신도시 센트럴파크 인근의 행사들은 야외라는 환경적 요인으로 동절기인 12월에서 2월에 이르는 기간에 행사가 개최되지 않고 있음
- 홍사용 문화거리 역시 상기의 행사개최지와 인접해 있어 계절적인 요인을 고려한 활성화 방안 수립이 요구됨
- 이에 동절기의 경우 홍사용 문화거리와 ‘T’ 자 축을 이루는 동탄복합문화센터 및 화성시미디어센터, 노작홍사용 문학관의 시설과 연계한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함

○ 행사의 성격이 나눔과 공유의 활동을 통한 소통을 지향하고 있음

- 동탄신도시 센트럴파크 인근의 ‘삼성 나눔워킹’, ‘굿마켓’, ‘재활용 나눔장터’ 등의 행사는 공통적으로 ‘나눔과 공유’ 활동을 바탕으로 소외계층 및 지역사회에 대한 기부 및 사회적 기업 참여, 재활용과 교환을 통한 환경보호, 교류 등을 추구함
- ‘생활시장 화인’ 역시 단순한 일회성의 소비 지향적 행사가 아닌 생활문화 창작자와 시민 간에 문화와 예술을 통한 소통과 교류를 목표로 운영되고 있음
- 홍사용 문화거리 활성화를 위한 방향 모색에 이를 적용하여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시민 간 나눔과 공유가 이루어지는 거리를 지향점으로 설정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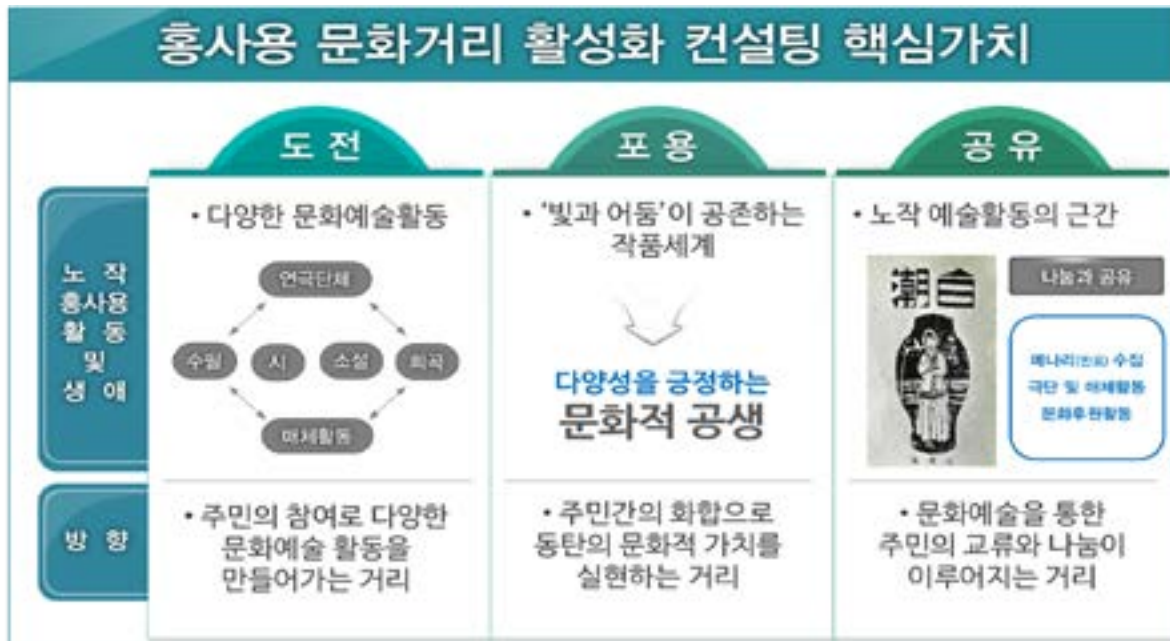
홍사용 문화거리 활성화 방안

1. 기본방향
2. 전략별 추진과제
3. 연차별 운영계획 및 로드맵

V. 홍사용 문화거리 활성화 방안

1. 기본방향

| 그림 V-1 | 홍사용 문화거리 활성화 컨설팅 핵심가치 및 방향



1) 핵심가치 : 도전 & 포용 & 공유

○ 도전

- 시, 소설, 희곡, 평론, 수필의 창작과 연극단체 및 문예지 발간 참여 등 문화예술영역에서 폭넓은 활동을 펼친 노작의 도전정신을 핵심가치로 다양한 분야에 걸친 문화예술 활성화와 더불어 주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거리를 목표로 함
- 주어진 환경과 프로그램에 따라 주민이 문화예술을 단순히 향유하는 위치에서 나아가 직접 프로그램의 제안자·발표자·참여자로서 홍사용 문화거리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의 주체로 거듭나도록 함

○ 포용

- 민족의 '빛과 어둠', 특히 어둠이 서로 다른 존재들을 감싸주는 이미지를 통해서 차별이 없음을 노래했던 노작의 작품세계 '포용'으로 정의하고 핵심가치로 삼아 다양한 지역의 이주민으로 구성된 동탄신도시 거주민들에게 문화적인 공생의 토대를 지원하고자 함
- 문화·예술활동을 통한 주민간의 화합을 도모하여 '살고 싶은 우리 동네'로서 동탄의 문화적 가치가 실현되는 거리를 지향함

○ 공유

- <백조(白潮)> 등의 매체 창간활동, 극단 활동, 메나리(민요) 수집 등 전문가의 영역을 민중-대중과 ‘공유’하고자 노력한 노작의 정신을 핵심가치로 시민과 시민, 시민과 예술인, 예술인과 예술인 간의 네트워크와 나눔이 이루어지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홍사용 문화거리와 더불어 동탄복합문화센터, 화성시미디어센터, 노작 홍사용문학관의 공간 및 프로그램을 연계하고, 신규 콘텐츠 개발을 통해 문화적 교류와 나눔의 장(場)을 구축을 목표로함

2) SWOT 분석

○ 강점(Strength)

- 동탄복합문화센터, 화성시미디어센터, 노작홍사용 문학관을 기반으로 활발한 문화예술 활동 전개

○ 약점(Weakness)

- 홍사용 문화거리 조성구역의 환경 및 홍사용에 대한 낮은 인지도

○ 기회(Opportunity)

- 동탄신도시를 포함하는 시 단위 문예진흥 계획 수립 및 상향식 정책여건 환경 조성

○ 위협(Threat)

- 시 재정 및 법령·정책 기반 미비로 콘텐츠 사업의 지속성 담보 어려움

표 V-1 | 홍사용 문화거리 내·외부 환경 및 역량 분석

	강점(S : Strength)	약점(W : Weakness)
	• 교통발달로 접근성 유리 및 인근 상업지구 방문으로 인한 잠재 유입인구 다수 존재 • 동탄복합문화센터, 화성시미디어센터, 홍사용 문학관 등 문화거점 포함 • 동탄 거주민의 높은 문화예술 욕구 및 참여의사 • 노작 홍사용문학제, 노작마을 등 연계가능한 핵심 콘텐츠 보유	• ‘노작 홍사용’의 시민 인지도 부족 • 고가도로 하부의 소음 및 대상지 상가 공실 • 이주민으로 구성되어 공동체적 기반 및 연대의식 부족 • 화장실, 주차장 등 편의시설 미비
	기회(O : Opportunity)	위협(T : Threat)
	• <홍사용 문화거리 경관개선사업>으로 인한 환경정비 및 문화휴식공간 마련 • 코로나 19로 인한 문화시장의 개별화 및 맞춤화 변화 • 지역의 고유자산과 시민기반의 문화자치, 문화의 일상화하는 사회적 변화 • 문예진흥계획 수립으로 인한 체계적 문화정책수립 실현 가능	• 문화의 거리 자체 조례, 법령기반 미비로 콘텐츠 운영시 불안요소 • 기존 주민조직의 의사 지속적 반영과 콘텐츠 조율을 위한 매개자 부재 •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재정 기반 미흡

- 홍사용 문화거리 조성에 따른 활성화 전략 수립에 있어 내·외부 환경 및 역량 분석을 통해 살펴본 강점, 약점, 기회, 위협요인을 중심으로 강점을 활용하고 약점을 보완하여 기회를 통해 위협을 최소화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 방향을 도출함

| 표 V-2 | 홍사용 문화거리 전략방안 도출

외부환경 내부역량	기회(O) : 동탄신도시를 포함하는 시 단위 문화진흥 계획 수립 및 상향식 정책여건 환경 조성	위협(T) : 시 재정 및 법령·정책 기반 미비로 콘텐츠 사업의 지속성 담보 어려움
	S-O 전략과제: 역량 확대	S-T 전략과제: 강점 활용
강점(S) : 동탄복합문화센터, 화성시미디어센터, 노작홍사용 문학관을 기반으로 활발한 문화예술 활동 전개	• 홍사용문화거리 조성이후 동탄 문화거점간 연계를 통한 사업확장 • 사업진행방향 및 실행의 단계에 시민의 직접 참여와 아이디어 반영 • 시민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해 개별화, 맞춤형화를 통한 문화예술사업 추진	• 문화거점(동탄복합문화센터, 화성시미디어센터, 홍사용문학관)을 시민과 홍사용문화거리간의 매개자로 설정하여 주민조직의 의사반영과 콘텐츠 조율 • 화성시문화재단, 노작홍사용 문학관 참여로 사업의 지속성 담보
약점(W) : 홍사용 문화거리 조성구역의 환경 및 홍사용에 대한 낮은 인지도	W-O 전략과제: 기회포착	W-T 전략과제: 위협대응
	• 노작홍사용의 원문 작품을 문화예술활동 및 상징성으로 치환하여 사업방향 수립 • 대상지의 정적인 환경을 강조하여 시민의 문화예술 휴식공간 제공 • 이주민으로 구성된 신도시 시민들이 지역의 문화자산인 '노작 홍사용'을 통해 새로운 문화적 가치를 창조할 수 있도록 지원	• 안내지표 설치를 통해 홍사용문화거리에 인접한 편의시설 및 문화거점 표기하여 시민들의 동선 유도 • 미디어월 및 고가하부공간을 이용한 야외전시, 소규모 공연, 발표회 등을 통해 노작홍사용과 동탄의 문화예술활동 결과물을 지속적으로 노출

3) 추진전략

- ▶ 기존 공간 및 프로그램 연계 & 생활권 문화공동체 형성 지원 & 연중 운영계획 수립
- ▶ 문화거리가 공간·사람, 문화적 활동과 예술을 연결하는 플랫폼으로 기능하도록 운영계획 수립

○ 동탄 문화거점 및 프로그램 연계

- '홍사용 문화거리'는 동부권 문화예술의 핵심기반인 동탄복합문화센터, 화성시 미디어센터, 노작홍사용 문학관 등 문화시설과 근접하여 사업에 따라 'T'자 축으로의 확장 및 연계가 유리함
- 노작 문학제·예술시장 등 문화예술형 사업, 걷기·나눔장터 등 생활형 사업과 연계하여 홍사용 문화거리의 활성화 기제로 활용



○ 동탄-노작(가칭) 문화공동체 형성

- 음악, 무용, 연극, 미술 등 다양한 분야의 문화예술에 관심이 있는 시민과 예술가가 협업할 수 있는 주제를 발굴·시행하여 문화기반의 공동체 형성의 토대로 활용 ex) 주민과 예술가와 함께하는 ‘홍사용 문화거리 안내표지판 만들기’, ‘홍사용 문화거리 조형물 or 전시작품 만들기’

○ 연중 운영계획 수립

- 문화·예술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공간으로서의 ‘홍사용 문화거리’ 활성화를 위해 계절에 따른 주요 행사 및 전시계획 등을 반영한 연중 운영·활용계획이 수립될 필요성이 있음

4) 사업대상지 활성화 사업 시민 설문조사 분석

(1) 개요

| 표 V-3 | 홍사용문화거리 시민의견 조사개요

- 조사명 : ‘홍사용 문화거리’ 활성화 사업 시민의견 조사
- 조사방법 : 비확률 표본추출법의 임의표집방법(Convenience Sampling Method)
※ 사전교육을 받은 설문조사원에 의한 직접면접 방식 및 자답식 방법 병행
- 조사기간 : 2019. 10. 12(토)~11.16(토)
- 장 소 : 홍사용 문화거리 조성 대상지역(동탄 선큰광장)
- 기대효과 : 시민의견 수렴으로 사업대상지의 사업의 활성화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통해 정주의식 강화 및 도시공동체 형성, 지역 활성화 등의 계기를 마련함.

(2) 설문조사 내용 및 문항

- 본 설문조사는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역의 문화정체성을 반영하고, 도시민들에게 정주인식을 높이며, 일상 속 문화예술의 접촉을 확대하여 지역 활성화를 이끌어내기 위하여 진행되었음. 설문조사의 항목은 크게 4가지 분류로 나눌 수 있으며, 각 조사항목의 조사내용 및 문항 수는 다음과 같음

| 표 V-4 | 조사내용

조사항목	조사내용	문항 수
인구통계학적 특성	성별 및 결혼여부, 연령대, 직업, 가족유형, 생활권	8문항
홍사용에 대한 인지도	홍사용에 대한 인지도 및 이미지 혹은 키워드	2문항
문화거리 조성에 따른 시민 인식도	방문빈도, 방문목적, 삶에 미치는 영향, 조성방향 등	9문항
문화거리 활성화를 위한 시민 참여도	선호프로그램, 참여의향, 참여 선호유형, 긍정적 효과 등	5문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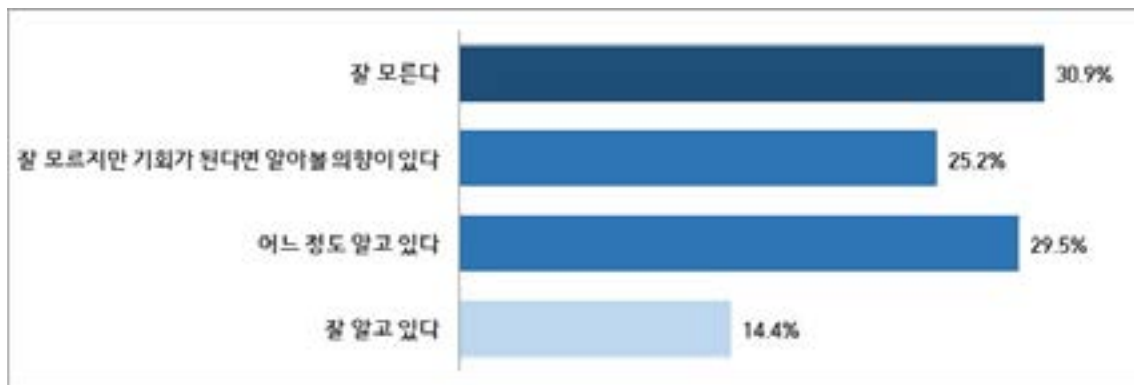
(3) 조사결과 분석

- ‘노작 홍사용’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약 69.1%가 ‘알고 있거나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조사되었는데, 이는 상당히 많은 동탄신도시 주민들이 노작 홍사용에 대해 인지하고 있음을 보여줌
- 응답자의 전체 비율은 잘 모른다는 비율이 30.9% > 어느 정도 알고 있다(29.5%) > 잘 모르지만 기회가 된다면 알아볼 의향이 있다(25.2%) > 잘 알고 있다(14.4%) 순으로 나타났음. 잘 모른다는 30.9%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69.1%는 노작 홍사용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표 V-5 | 응답자 특성별 노작 홍사용에 대한 인지도

구분	잘 알고 있음		어느 정도 알고 있음		잘 모르지만 알아볼 의향		잘 모름		계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여성	33	14.5	71	31.1	54	23.7	70	30.7	228	100
남성	20	14.2	38	27.0	39	27.7	44	31.2	141	100
합계	53	14.4	109	29.5	93	25.2	114	30.9	369	100
20대 이하	3	7.9	10	26.3	6	15.8	19	50	38	100
30대	8	8.3	27	28.1	23	24.0	38	39.6	96	100
40대	20	13.7	39	26.7	44	30.1	43	29.5	146	100
50대 이상	22	24.7	33	37.1	20	22.5	14	15.7	89	100
합계	53	14.4	109	29.5	93	25.2	114	30.9	369	100
학생	2	8.7	7	30.4	4	17.4	10	43.5	23	100
회사원	19	12.0	41	25.9	48	30.4	50	31.7	158	100
자영업	1	3.4	8	27.6	8	27.6	12	41.4	29	100
프리랜서	4	28.6	1	7.1	3	21.4	6	42.9	14	100
전업주부	19	17.4	35	32.1	25	22.9	30	27.6	109	100
은퇴인	6	46.2	4	30.8	2	15.4	1	7.6	13	100
기타	2	8.7	13	56.5	3	13.0	5	21.8	23	100
합계	53	14.4	109	29.5	93	25.2	114	30.9	369	100

| 그림 V-3 | 노작 홍사용에 대한 인지도



(4) 홍사용 문화거리 조성에 따른 시민 인식도

- 사업대상지의 방문 빈도는 ‘월 1~2회 방문’ 이 29.6%로 가장 많았고 ‘주 1~2회’ (27.1%) > ‘월 1회 이하’ (26%) > ‘주 3~5회’ (10.3%) 순이었으며 ‘매일 방문’ 비율도 7.0%로 나타남

| 표 V-6 | 홍사용 문화거리 조성 대상지역 방문 빈도

구분	여성		남성		계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① 매일	14	6.2	12	8.5	26	7.0
② 주 3~5회	22	9.6	16	11.4	38	10.3
③ 주 1~2회	58	25.4	42	29.8	100	27.1
④ 월 1~2회	61	26.8	48	34.0	109	29.6
⑤ 월 1회 이하	73	32.0	23	16.3	96	26.0
합계	228	100	141	100	369	100

- ‘노작 홍사용’에 대해 알고 있는 응답자가 **홍사용의 작품에 대해 생각할 때** 연상되는 이미지나 키워드로 ‘**다양한 창작활동**’ (26.8%)을 우선으로 꼽았는데 다음 순위인 ‘애국심·항일정신’ (7.6%), ‘향토성·민족주의’ (5.7%) 등과는 차이가 크게 났음

| 표 V-7 | 노작 홍사용 작품에 대해 연상되는 이미지 또는 키워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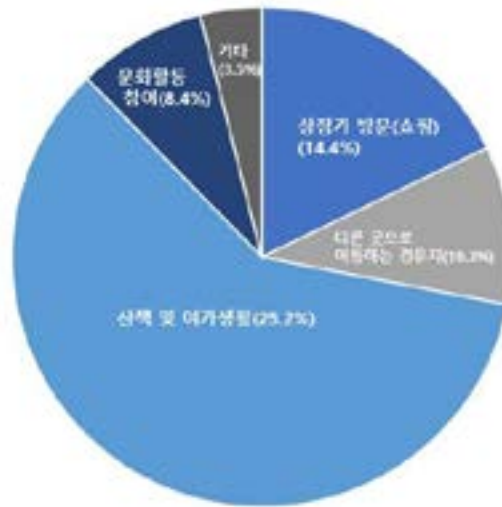
구분	빈도(명)	비율(%)
① 시·소설·수필·극단 등 다양한 창작 활동	99	26.8
② 애국심, 항일정신	28	7.6
③ 서정성, 낭만주의	12	3.3
④ 향토성, 민족주의	21	5.7
⑤ 기타	2	0.5
합계	162	43.9

- 방문목적 중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 것은 ‘**산책 및 여가생활**’ (59.9%)로 절반이 넘었음. 후순위인 ‘상점가 방문’ (17.9%) 과 큰 차이를 보였음. 이 결과는 홍사용 문화거리 조성 대상지역이 동탄신도시 생활권에 위치해 지역주민들의 접근성이 높은 것으로 보임

| 표 V-8 | 홍사용 문화거리 조성 대상지역 방문 목적

구분	여성		남성		계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① 상점가 방문(쇼핑)	38	16.7	28	19.9	66	17.9
②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경유지	27	11.8	11	7.8	38	10.3
③ 산책 및 여가생활	135	59.2	86	61.0	221	59.9
④ 문화활동 참여	19	8.3	12	8.5	31	8.4
⑤ 기타	9	4.0	4	2.8	13	3.5
합계	228	100	141	100	369	100

| 그림 V-4 | 홍사용 문화거리 조성지 방문목적



- ‘홍사용 문화거리’가 시민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서는 대부분(87.0%)이 긍정적으로 응답함으로써 ‘홍사용 문화거리 조성’이 지역주민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표 V-9 | 홍사용 문화거리 조성이 시민들 삶의 질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 정도

구분	여성		남성		계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① 매우 그렇다	81	35.5	55	39.0	136	36.9
② 그렇다	122	53.5	63	44.7	185	50.1
③ 보통이다	22	9.6	22	15.6	44	11.9
④ 그렇지 않다	2	0.9	1	0.7	3	0.8
⑤ 매우 그렇지 않다	1	0.5	-	-	1	0.3
합계	228	100	141	100	369	100

- 대상지역 이용시 불편사항은 특별히 불편함을 느끼지 못했다는 응답률이 38.3%로 가장 높았으며 ‘낮에도 어두운 다리 하부’ (24.7%) > ‘공간 내 그늘막 및 만남 공간 부족’ (19.8%) > ‘편의시설 부족’ (15.2%) 순으로 나타남

| 표 V-10 | 홍사용 문화거리 대상지역 이용시 불편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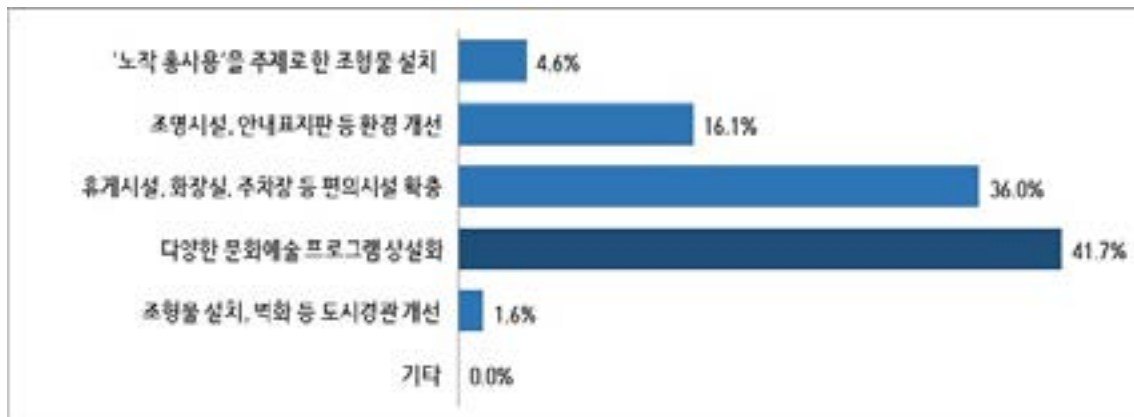
구분	빈도(명)	비율(%)
① 특별히 불편함을 느끼지 못함	134	36.3
② 낮에도 어두운 다리 하부	91	24.7
③ 공간 내 그늘막 및 만남공간 부족 (벤치, 쉼터 등)	73	19.8
④ 편의시설 부족 (화장실, 주차장 등)	56	15.2
⑤ 보행안내 표지판 부재	7	1.9
⑥ 기타	8	2.1
합계	369	100

- 문화거리 조성시 우선사항으로는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상설화’가 35.7%의 비율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서 ‘조형물 설치, 벽화 등 도시경관 개선’ (25.9%) > ‘휴게시설, 화장실, 주차장 등 편의시설 확충’ (20.6%) 순임. 다음 ‘조명시설, 안내표지판 등 환경 개선’ (13.1%)과 ‘노작 홍사용을 주제로 한 조형물 설치’ (3.8%) 등이 비교적 큰 차이로 나타남

| 표 V-11 | 홍사용 문화거리 조성시 우선사항

구분	빈도(명)	비율(%)
① 노작 홍사용을 주제로 한 조형물 설치	28	3.8
② 조명시설, 안내표지판 등 환경 개선	97	13.1
③ 휴게시설, 화장실, 주차장 등 편의시설 확충	152	20.6
④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상설화	263	35.7
⑤ 조형물 설치, 벽화 등 도시경관 개선	191	25.9
⑥ 기타	7	0.9
합계	738	100

| 그림 V-5 | 홍사용 문화거리 조성시 우선사항



- 문화거리 조성방향에 관한 질문은 ‘홍사용 문화거리’ 변화 희망사항을 리커트 5점 척도 기준으로 측정한 결과 모든 항목에서 4.2 이상으로 높게 나타남. ‘산책과 여가활동이 편리한 문화거리’ (4.47) > ‘시민을 위한 휴식과 쉼터가 있는 문화거리’ (4.40) > ‘거리공연, 전시회 등 다양한 문화행사가 있는 문화거리’ (4.34) > ‘홍사용과 관련된 문학·예술을 느끼고 향유할 수 있는 거리’ (4.27) 순으로 나타남

| 표 V-12 | 홍사용 문화거리 조성시 희망사항

구분		선호도						리커트 척도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아니다	매우 아니다	계	
(1) 홍사용과 관련된 문학·예술을 느끼고 향유할 수 있는 거리	빈도(명)	152	170	43	4	0	369	4.27
	비율(%)	41.2	46.1	11.7	1.0	0	100	
(2) 산책과 여가 활동이 편리한 문화거리	빈도(명)	200	144	24	1	0	369	4.47
	비율(%)	54.2	39.0	6.5	0.3	0	100	
(3) 거리공연, 전시회 등 다양한 문화행사가 있는 문화거리	빈도(명)	172	153	40	4	0	369	4.34
	비율(%)	46.6	41.5	10.8	1.1	0	100	
(4) 시민을 위한 휴식과 쉼터가 있는 문화거리	빈도(명)	185	148	36	0	0	369	4.40
	비율(%)	50.1	40.1	9.8	0	0	100	

(5) 홍사용 문화거리 활성을 위한 시민 참여도

- 기존 행사 중 **홍사용 문화거리**와 가장 잘 어울리는 행사로는 민간에서 추진한 **‘굿마켓과 벼룩시장’ (35.1%)**이었으며 뒤를 이어 화성시문화재단의 **‘생활시장 화인 (34.0%)’**, 홍사용 문학관에서 실시한 **‘노작 홍사용문학제(24.8%)’** 순이었음. 기업에서 실시한 **‘삼성 나눔워킹 행사’**는 3.9%로 매우 낮게 나타남

| 표 V-13 | 홍사용 문화거리와 가장 잘 어울리는 기존 행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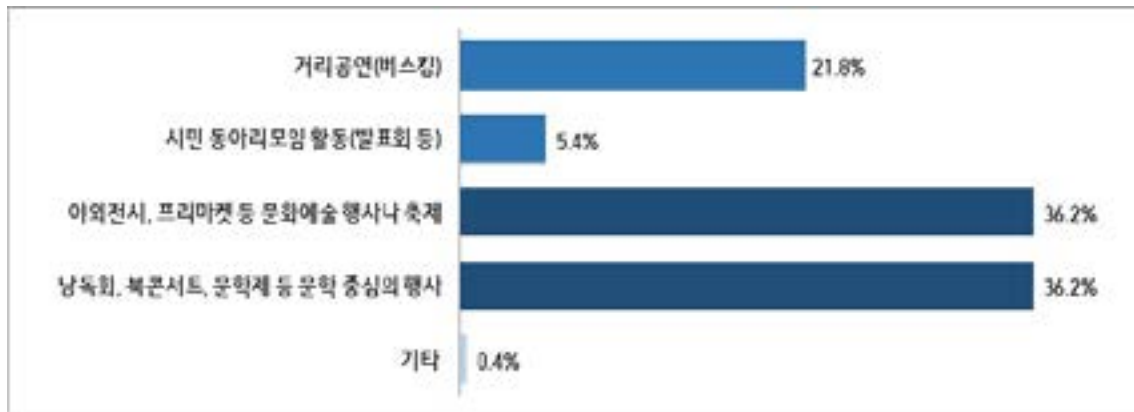
구분	빈도(명)	비율(%)
① 노작 홍사용문학관 : 노작 홍사용문학제	183	24.8
② 화성시문화재단: 생활시장 화인 (동탄예술시장)	251	34.0
③ 기업: 삼성 나눔워킹	29	3.9
④ 민간: 굿마켓, 벼룩시장	259	35.1
⑤ 기타	16	2.2
합계	738	100

- 문화거리에 적합한 문화예술 활동으로는 **‘문화예술 행사나 축제’**와 **‘문학 중심의 행사’**가 각각 36.2%의 동일한 비율로 가장 높았음. **‘거리공연’ (21.8%)**이 뒤를 이었으며 **‘시민 동아리모임 활동’**은 5.4%로 매우 낮게 나타남

| 표 V-14 | 홍사용 문화거리에 가장 적합한 문화예술 활동

구분	빈도(명)	비율(%)
① 거리공연 (버스킹)	161	21.8
② 시민 동아리모임 활동 (발표회 등)	40	5.4
③ 야외전시, 플리마켓, 등 문화예술 행사나 축제	267	36.2
④ 낭독회, 북콘서트, 문학제 등 문학 중심의 행사	267	36.2
⑤ 기타	3	0.4
합계	738	100

| 그림 V-6 | 홍사용 문화거리에 가장 적합한 문화예술활동



- 문화예술 활동 참여의향에 관한 질문에서는 ‘홍사용 문화거리’에서 문화예술 활동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참여의향은 참여하겠다는 비율이 97.3%로 매우 높았으며 적극적 참여가 30.4%, 소극적 참여가 66.9%로 나타남

| 표 V-15 | 홍사용 문화거리 문화예술 활동 참여 의향

구분	여성		남성		계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①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	81	35.5	31	22.0	112	30.4
② 가끔 참여하겠다	112	49.1	77	54.6	189	51.2
③ 한 번쯤 참여하겠다	30	13.2	28	19.9	58	15.7
④ 참여하지 않겠다	0	0	0	0	0	0
⑤ 잘 모르겠다	5	2.2	5	3.5	10	2.7
합계	228	100	141	100	369	100

- ‘홍사용 문화거리’에서 이루어지는 문화예술 활동 중 가장 선호하는 유형으로 ‘관람형’의 비율이 30.6%로 가장 높았고 이어서 ‘참여형’(28.7%) > ‘발표·공유형’(25.2%) > ‘제안형’(11.2%) 순이었으며 ‘공동제작형’은 4.3%로 가장 낮았음

| 표 V-16 | 홍사용 문화거리 문화예술 활동 참여유형별 선호도

구분	빈도(명)	비율(%)
① 관람형 (공연, 전시 등 단순 관람)	225	30.6
② 참여형 (체험, 교육 등에 직접 참여)	212	28.7
③ 발표·공유형 (문화예술 활동 결과물을 발표하고 공유)	186	25.2
④ 공동제작형 (기관·단체와 시민이 공동으로 프로그램 제작)	32	4.3
⑤ 제안형 (온·오프라인을 통해 프로그램 제안)	83	11.2
합계	738	100

- ‘홍사용 문화거리’ 조성에 따른 문화예술 활동이 동탄신도시 주민들의 정주의식과 공동체의식 함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인식도 조사 결과, **긍정적인 응답이 89.4%**로 매우 높았으며 **보통이 9.2%, 부정적인 인식은 1.4%**에 불과함. ‘매우 그렇다’와 ‘어느 정도 그렇다’의 비율이 각각 44.4%, 45.0%로 거의 비슷했으며 ‘그렇지 않다’ (1.1%)와 ‘매우 그렇지 않다’ (0.3)는 부정적인 인식은 매우 낮았음

| 표 V-17 | 홍사용 문화거리 조성에 따른 긍정적 효과에 대한 인식도

구분	여성		남성		계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① 매우 그렇다	96	42.1	68	48.2	164	44.4
② 어느 정도 그렇다	104	45.6	62	44.0	166	45.0
③ 보통이다	25	11.0	9	6.4	34	9.2
④ 그렇지 않다	2	0.9	2	1.4	4	1.1
⑤ 매우 그렇지 않다	1	0.4	0	0	1	0.3
합계	228	100	141	100	369	100

(6) 시사점

○ 노작 홍사용이라는 지역 핵심콘텐츠의 활용 가능성

- ‘노작 홍사용’의 인지도 관련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약 69.1%**가 ‘**알고 있거나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조사됨. 잘 모른다는 비율이 30.9%로 가장 높았지만, 잘 알고 있다(14.4%), 어느 정도 알고 있다(29.5%), 잘 모르지만 기회가 된다면 알아볼 의향이 있다(25.2%)를 포함하면 69.1%의 응답자가 노작 홍사용에 대해 인지하고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도 볼 수 있음
- ‘홍사용 문화거리’와 잘 어울리는 기존 행사로 ‘**노작 홍사용문학제**’가 24.8%로 비교적 많은 지지를 받은 결과를 통해 인지도를 더욱 높일 수 있는 기회로 꼽을 수 있음. 또한 홍사용 문학관을 중심으로 사업대상지에서 북콘서트, 작가와 함께하는 낭송회, 홍사용 백일장 등의 문학활동 활성화를 통해 ‘**노작 홍사용**’을 지역의 핵심콘텐츠로 활용할 수 있음.
- ‘홍사용 문화거리’에 적합한 문화예술 활동으로 ‘**낭독회, 북콘서트, 문학제 등 문학 중심의 행사**’를 꼽은 비율이 높게 나타났음. 또한 홍사용 문화거리 조성시 희망사항에 **홍사용과 관련된 문학·예술을 느끼고 향유할 수 있어야 한다는 항목을 고려해보면**, 지역문화 자산인 ‘**노작 홍사용**’을 신규 문화 사업 콘텐츠로 활용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홍사용 문화거리 조성에 따른 시민 인식도

- **시민 대부분(87.0%)**이 홍사용 문화거리 조성시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음. **홍사용 문화거리 조성시 희망사항**에서도 산책과 여가활동, 문화행사, 휴식, 홍사용 관련 문학·예술 향유 등이 가능한 문화거리에 대한 항목들이 모두 높은 점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업대상지에 조성에 대한 시민의 호의적인 인식을 알 수 있음
- 홍사용 문화거리 조성시 우선사항에 관련된 결과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상설화(35.7%)**라는 시민들의 요구를 알 수 있으며, 이외에도 도시

경관 개선 및 편의시설 확충 부분도 본 사업을 통해 시너지효과를 볼 수 있음

○ 홍사용 문화거리 활성화를 위한 시민 참여도

- ‘홍사용 문화거리’에서 문화예술 활동은 동탄신도시 주민들의 정주의식과 공동체 의식 함양에 어느 정도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는지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 대부분이 어느 정도 그렇다(45.0%)와 매우 그렇다(44.4%)로 대답함. 전체 응답자의 99.4%가 홍사용 문화거리의 문화예술 활동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
- 문화예술 활동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참여 의향에 대한 질문에 **가끔 참여하겠다(51.2%),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30.4%)의 답변을 통해 절대 다수(97.3%)가 사업대상지에서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홍사용 문화거리’와 가장 적합한 문화예술 활동으로 **‘전시나 플리마켓 등 문화예술 행사나 축제(36.2%)’, ‘낭독회, 북콘서트 문학제 등 문학 중심의 행사(36.2%)’**를 선호한다는 것, 그리고 문화예술 활동 참여유형으로 **관람형(30.6%)과 참여형(28.7%)**이 선호도가 높고, 발표·공유형(25.2%)의 선호도도 비교적 높다는 것을 반영하여 더욱 시민 참여를 이끌어내는 사업을 계획해 볼 수 있음

2. 전략별 추진과제

| 그림 V-7 | 홍사용 문화거리-콘텐츠 운영 개념도



- 홍사용 문화거리 활성화 추진전략은 먼저, 동탄 문화거점 및 프로그램 연계, 둘째, 동탄-노작(가칭) 문화공동체 형성, 셋째, 연중 운영계획 수립을 통한 사업구조를 구축하는 세 가지로 계획되었음
- 이에 기존 콘텐츠와의 연계, 거리공간활성화, 동탄신도시 거주민 공동체의식 형성지원, 주제특화사업(노작 홍사용)의 추진과제를 설정하고, 각 추진과제별 세부 콘텐츠의 운영방안을 제시함

1) 기존 콘텐츠 연계

| 표 V-18 | 연계 가능 기존 사업 프로그램

구분	사업팀	사업명	사업 내용
화성시 문화 재단	생활문화팀	생활시장 화인	2015년 동탄예술시장으로 시작, 2019년까지 진행한 생활 예술시장으로 공연 및 체험프로그램까지 포함된 문화예술 사업
	시민문화팀	찾아가는 공연장	선정된 공연단체가 직접 시민을 찾아가, 문화소외 격차를 줄이고 도심광장의 거리예술을 활성화하는 사업
		코리요 홍보	화성시 대표 캐릭터 '꾸러기 케라톱스 코리요'를 문화 예술콘텐츠로 활용한 대외 홍보사업
	미디어팀	미디어동아리 페스티벌	시민과 동아리 창작활동을 공유하여, 미디어 중심의 문화적 활력 증진 도모하는 동아리 축제
		찾아가는 시네마식객	영화 상영을 핵심 콘텐츠로 하며, 간편식사까지 제공해 시민들의 미디어 문화 향유 만족도를 제고하는 문화사업
	-	화화화 프로젝트	2013 화성 공공미술 조각공모전으로 '공터 아트', '삼삼오오 아트 평상' 등 다양한 커뮤니티 아트를 통해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문화 예술사업
노작 홍사용 문학관	(사)홍사용 기념사업회	홍사용문학제	노작홍사용 선생의 고고한 삶과 문학정신을 기념하는 축제이자,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친근한 문화예술 장르인 '문학'을 통해 시민 모두가 함께 체험하고 어우러지는 장

(1) 생활시장 화인

- 사업 개요 : 2015년 동탄예술시장으로 시작, 2019년까지 추진된 생활예술시장
- 운영 주체 : 화성문화재단(생활문화팀)
- 추진 내용
 - 동탄예술시장에서 '생활시장 화인'으로 명칭이 변경됨
 - 동탄선큰광장 일원에서 매년 10회 내외로 진행되다가, 2019년부터 동탄과 향남으로 분산 개최되어 동탄에서 연 2회 개최됨
 - 프로그램은 크게 생활예술마켓(예술작품 판매 및 만들기 체험), 공연프로그램(시민주민센터, 거리예술단체, 청년들이 펼치는 거리공연), 체험&전시 프로그램(일상에서 마주치는 예술 및 시민참여 공공예술 프로젝트, 돛자리 깔고 즐기는 가을밤의 심야 영화관)으로 구분됨

○ 추진 기간 : 2019.06~08 매월 2, 4주 토요일

○ 기존 추진 장소 : 메타폴리스 음악분수대 인근(선큰광장) 및 향남 분수광장

| 표 V-19 | 생활시장 화인 세부 프로그램

생활예술마켓 (예술작품 판매 및 만들기 체험)		
잼잼아트마켓	나이트마켓	
		
공연프로그램 (시민주민센터, 거리예술단체, 청년들이 펼치는 거리공연)		
낭만버스킹	동탄버스킹	청년버스킹
		
체험&전시 프로그램 (일상 예술 및 시민참여 공공예술, 돛자리 깔고 즐기는 가을밤의 심야 영화관)		
편편거리미술	담판스페셜	돛자리영화관
		

○ 연계방식

- ① 추진(개최)장소 확장 : 선큰광장 인근~홍사용문화거리
- ② 마켓운영(부분) : 벽화거리(E구역)
- ③ 휴게 및 전시: 시 병풍거리(D구역)
- ④ 행사 홍보 : 이음길(F구역)

(2) 찾아가는 공연장

- 사업 개요 : 공연단체가 직접 찾아가 지역간 문화소외 격차를 줄이고 도심광장의 거리예술 활성화 도모하는 공연 사업
- 운영 주체 : 화성문화재단(시민문화팀)
- 추진 내용
 - 공연단체 공개모집 및 외부전문가 심사를 통해 개인예술가 및 예술단체 선정, 찾아가는 공연 운영(*음악, 퍼포먼스 등 총 53개 단체)

- 시민 모두를 대상으로 하며, 프로그램은 거리공연인 스낵 콘서트, 스낵 버스킹과 극장 공연인 스낵 시어터로 구분됨
- 스낵 콘서트는 시민신청에 따라 희망장소에서 특정관람객을 대상으로 진행함
- 스낵버스킹은 일구밀도가 높은 주요 도심지 광장 또는 공원 운영함
- 스낵씨어터는 화성시에서 활동하는 연극단체의 우수공연을 소외지역에서 공연하는 프로그램임

○ 추진 기간 : 2019년 01~12월, 총 274회(*46,898명)

○ 기존 추진장소 : 화성 전지역(*광장, 공원 복지시설 등 접근이 용이한 곳)

| 표 V-20 | 찾아가는 공연장 추진 현황

구분	운영기간	횟수	관람인원
총 계		274회	46,898명
스낵콘서트	3월~12월	85회	22,346명
스낵버스킹	4월~11월	183회	23,460명
스낵씨어터	3월~12월	6회	1,092명

| 표 V-21 | 찾아가는 공연장 프로그램

스낵콘서트(*거리공연)	
	
스낵버스킹(*거리공연)	
	
스낵씨어터(*극장공연)	
	

- 연계방식 : 부분 회차 개최
- ① 추진(개최)장소 : 홍사용문화거리
- ② 콘서트 및 버스킹 공연운영 : 공연장 겸 쉼터(A구역)
- ③ 스낵씨어터 운영 : 미디어 월, 이벤트(B구역)
- ④ 행사 홍보 : 이음길(F구역)

(3) 미디어동아리 페스티벌

- 사업 개요 : 시민과 동아리 창작활동을 공유하여, 미디어 중심의 문화적 활력 증진 도모하는 동아리 축제
- 운영 주체 : 화성시문화재단(미디어팀)
- 추진 내용
 - 전시진행, Unpacking the Contents를 주제로 총 961명 참가
 - 전시회 이외에도 상영회, VR체험, 오픈 스튜디오, 동아리 공연, 연사 특강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함
 - 화성시민을 대상으로, 회당 선착순 100명 내외 참여하였으며 참가비는 유료(3,000원)로 진행함
- 추진기간 : 2019.12.7 ~ 2020.1.5.

| 표 V-22 | 미디어동아리 페스티벌 프로그램

디지털 아트 전시	노래동아리 공연
	

- 기존 추진장소 : 화성시미디어센터
- 연계방식 : 화성시미디어센터(실내)+홍사용문화거리(야외) 확장개최
- ① 추진(개최)장소 : 화성시미디어센터 및 홍사용문화거리
- ② 생활예술동아리 공연운영 : 공연장 겸 쉼터((A구역)
- ③ 디지털 아트 전시 : 미디어 월, 이벤트(B구역)
- ④ 행사 홍보 : 이음길(F구역)

(4) 코리요 홍보

- 사업 개요 : 화성시 대표 캐릭터인 ‘꾸러기 케라톱스 코리요’를 문화 예술콘텐츠로 활용한 대외 홍보사업
- 운영 주체 : 화성문화재단(시민문화팀)
- 추진 내용
 - 체험존, 극장, 에어바운스 놀이터, 인형탈, 팬시판매 등의 콘텐츠를 중심으로 코리요 홍보 부스를 운영함.
- 추진기간 : 관내 · 외 행사 연간 10회 이상 운영

| 표 V-23 | 코리요 홍보 사업 추진 현황

코리요 체험존	코리요 극장
	
코리요 인형탈	코리요 팬시판매
	

- 연계방식 : 부분 회차 개최
- ① 추진(개최)장소 : 홍사용문화거리
- ② 코리요 극장 : 미디어월, 이벤트(B구역)
- ③ 코리요 체험존 : 시 병풍거리(D구역)
- ④ 포토존 : 벽화거리(E구역)

(5) 찾아가는 시네마식객

- 사업 개요 : 시민들의 미디어 문화 향유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볼거리, 먹을거리, 즐길 거리가 있는 이색적 프로그램을 접목한 문화 사업
- 운영 주체 : 화성시문화재단(미디어팀)

○ 추진 내용

- 영화 상영을 핵심 콘텐츠로 하며, 사전 접수자에 한해 이색 벤치 및 파라솔 세트를 제공함
- 또한 1시간 동안(18:00 ~ 19:00) 메인 행사장에서 간편 음식을 직접 조리해 제공함으로써 단순한 볼거리를 넘어,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일상 속 특별한 문화 경험을 제공함
- 화성시민을 대상으로, 회당 선착순 100명 내외 참여하였으며 참가비는 유료(3,000원)로 진행함

○ 추진 기간 : 2018년 10~11월(*2019~2020년 미 실시)

○ 기존 추진 장소 : 화성시미디어센터 등 3개소

| 표 V-24 | 찾아가는 시네마 식객 연출 현황

무대 연출	
에어스크린	이색의자 연출 및 파라솔 연출
	
행사장 연출	
레드카펫	포토존 운영
	

○ 연계방식 : 부분 회차 개최 및 야간개최

- ① 추진(개최)장소 : 홍사용문화거리
- ② 스크린 설치 : 공연장 및 쉼터(A구역)
- ③ 야간극장 : 미디어월, 이벤트(B구역)
- ④ 접수공간 및 안내 : 시 병풍거리(D구역)
- ⑤ 물품공간: 벽화거리(E구역)
- ⑥ 행사 홍보 : 이음길(F구역)

(6) 화(華)화(畵)화(和) 프로젝트

- 개요 : 2013 화성 공공미술 조각공모전으로, 시민의 생활공간을 소통가능한 공간으로 만들고자 진행함
- 운영 주체 : 화성시문화재단
- 추진 내용
 - 화(華)화(畵)화(和)는 ‘화성(華)에서 미술(畵)로 화합(和)하다’ 라는 의미를 담은 커뮤니티 아트 프로젝트임
 - 예술활동 및 작품설치를 통해 시민의 생활공간을 보다 더 소통가능한 공간으로 만들어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목적을 지님
 - 공터를 예술적 공간으로 변모시키는 ‘공터 아트’, 지역주민이 함께 만다는 ‘삼삼오오 아트 평상’ 외에도 ‘장릉속 좋아요 영화제’ 등 다양한 커뮤니티 아트가 진행됨
- 추진 기간 : 2013.09.11.~12.19
- 기존 추진장소 : 화성시 동·중부권 소재의 주민공동시설 6개소
- 참여작가 : 김월식 예술감독 총괄 아래, 곽동열, 박영균, 성수희 외 13명

| 표 V-25 | 화(華)화(畵)화(和) 프로젝트 세부 프로그램

프로젝트명	참여 작가
두 개의 현판 데코레이션	장지아
들꽃마을 상기2리	공터아트 (김해심, 고흥규, 김민경)
나가 노을자	최범용
장릉속 좋아요 영화제	곽동렬
화성에서 온 택시	홍원석
신통방통 금곡리	복합문화설치 공동체 ZIP (안현숙, 위성동)
삼삼오오 아트평상	-

삼삼오오 아트평상
마을주민과 전문 작가가 함께 아트평상과 문패 제작 및 설치



- 연계방식 : 주민공동체 및 공공예술프로그램과 연계진행

(7) 노작문학제

- 사업 개요 : 노작홍사용 선생의 고고한 삶과 문학정신을 기념하는 축제이자,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친근한 문화예술 장르인 ‘문학’을 통해 시민 모두가 함께 체험하고 어우러지는 장
- 운영 주체 : 노작홍사용 문학관
- 추진 내용 및 주요 프로그램
 - 행사, 전시, 부스, 기타프로그램(푸드트럭)으로 운영

| 표 V-26 | 2019 홍사용 문학제 프로그램

행사	전시	부스
나도 낭독 배우	한국 근대 문예 서지전 & 표지전	문장처방소
출판학교 수료식		가훈쓰기
작가특강		캐리커처
창작단막극제		팬던트 만들기
반석산 에코트래킹		풍선아트
시상식		노작홍사용 포토존
음유시인 콘서트		과월호 도서 나눔

출처: 노작 홍사용문학관 내부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 낭독극장(나도 낭독 배우) : 대중적인 온라인 플랫폼 ‘유튜브’를 통해 전국의 시민들이 문학과 낭독에 대한 내용을 쉽게 접할 수 있는 프로그램
- 창작단막극제 : 근대 문학과 신극운동을 이끈 노작의 문학사적 업적과 정신을 기리고, 일제의 억압에 의해 중단되었던 노작의 작품 활동이 후속 세대를 통해 다시 이어나가는 계기가 되는 단막연극제
- 반석산 에코 트래킹 : 문학관 뒤편에 위치한 반석산 에코벨트에서 작가들과 함께 자연 정취를 느끼며 문학관 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시민 참여형 복합 문화프로그램
- 추진 기간 : 2019.10.19.~10.26
- 기존 추진장소 : 노작 홍사용문학관 일대
- 연계방식 : 기존 홍사용문학관에서 개최해온 장소를 홍사용 문화거리로 변경하여 개최
 - 공연장 야외공연 및 부스 연계운영
 - 홍사용 문화거리 주제특화사업(2) <백조(白潮) 창간 100주년, 화성시민 100여 편의 시> 결과전시 병행
- ① 추진(개최)장소 : 노작홍사용 문학관, 홍사용문화거리
- ② 시민극단 산유화회 및 창작단막극 야외공연 : 공연장 및 쉼터(A구역)
- ③ 홍사용문학제 작품전시 : 미디어월, 이벤트(B구역)
- ④ 시민작품전시(시) : 시 병풍거리(D구역)
- ⑤ 포토존: 벽화거리(E구역)
- ⑥ 행사 홍보 및 동선유도 : 이음길(F구역)

2) 신규 콘텐츠 I : 거리 공간 활성화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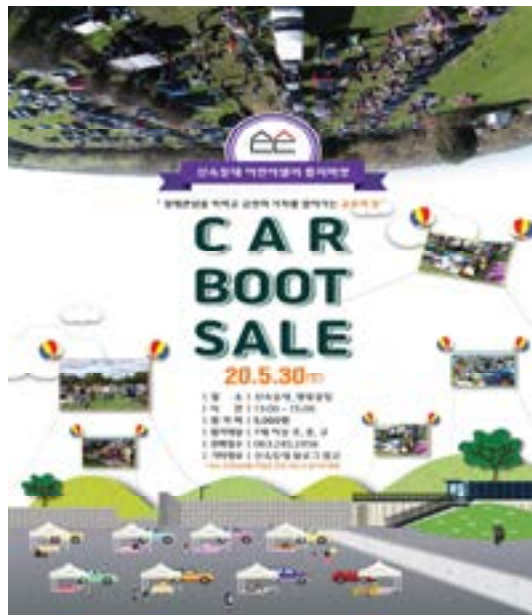
(1) 동탄 어린이 플리마켓 : 어린이가 주체가 되는 주민 참여의 장

- 사업방향 : 어린이 주도의 플리마켓 행사 연간계획 수립 및 운영
 - 홍사용문화거리에 플리마켓 부스를 제공하여 어린이가 주체가 되는 행사를 진행함. 대상지 방문객들의 대다수(81.4%)가 3~5인 가구 이므로,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 방문객에 대한 수요를 생각해 볼 때 어린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의 제안이 필요하다고 봄.
- 운영 주체 : 동탄맘 온라인 카페, YMCA, 동탄 굿마켓 등 민간주체
- 추진방법
 - 공간에 플리마켓 부스를 제공하여 판매대에 물건 준비부터 정리, 손님맞이 및 상품 판매와 계산까지 어린이가 주체적으로 담당하게 하면서, 나에게 쓸모없는 물건이 상대방에게 꼭 필요한 물건일 수 있다는 공유가치를 피부로 느낄 있는 산 교육의 장으로 활용함.

| 그림 V-8 | 어린이가 주체가 되는 주민 참여의 장 프로그램 예시



<어린이 주도 플리마켓 '카붓세일'>¹⁾



<산속등대 어린이셀러 플리마켓 포스터>²⁾

- 단발성 행사가 아닌 지속성을 가지고 행사를 진행하고, 어린이가 포함된 가족단위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대상지에 지속적인 방문을 유도함.

○ 추진기간

- 한겨울(12~2월)과 한여름(7~8월)을 제외한 격달에 1회 개최

1) 뉴스케이프, 복합문화공간 산속등대, 대규모 어린이 플리마켓 '카붓세일'성황리에 마쳐
<http://www.newscap.co.kr/news/view.php?idx=47021>

2) <https://www.sansoklighthouse.co.kr/notice/?mod=document&uid=31>

(2) ‘시민의 이야기가 담긴 책’의 테마 아카이브 구축 및 책거리 조성

- 사업 방향 : 화성 시민이 자신과 지역의 이야기가 담긴 작품을 만들어 아카이브를 구축하고 책거리를 조성하여 교육·작품제작 및 작품 전시 기회를 제공하고자 함
 - 시민들이 콘텐츠 생산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정주 의식과 공동체 의식을 높이고, 동시에 홍사용 문화거리의 활성화가 자생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함
- 운영 주체 : 화성시문화재단, 화성시에서 활동하는 민간 예술단체, 주민협의체
- 추진 방법
 - 화성시민이 자신과 지역의 이야기가 담긴 예술 작품 및 공예품을 거리에 설치 및 전시하여, ‘시민의 이야기가 담긴 책’이라는 테마의 아카이브를 구축함. 또한 이렇게 구축된 아카이브 자체가 다시 시민들을 교류하게 만들면서 다른 이야기를 파생시키는 프로그램으로 진행
 - ‘나와 지역의 이야기’를 표현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예술 장르)의 교육으로 시작하여 작품 만들기, 홍사용 문화거리에 설치하기 등 단계별로 프로그램을 진행
 - 노작 홍사용문화관, 동탄복합문화센터, 미디어센터의 시민참여 예술교육프로그램을 활용함
 - 기존 프로그램은 ‘나와 지역의 이야기’만들기에 맞게 변형이 가능하고, 신규로 개발하거나 예술가 개인 혹은 단체의 공모를 받아 진행하는 것도 가능함
 - 교육 프로그램이라는 형태로 자연스럽게 강사(혹은 작가)와 시민들을 매칭하며, 나아가 수강생들이 자연스럽게 커뮤니티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함
 - 다양한 유형의 작품(글, 회화, 조형, 사진, 영상, 공예품 등)으로 ‘나와 지역의 이야기’를 홍사용 문화거리의 일정한 공간에 설치(전시)하는 것이 1차 목표임. 또한 지속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설치 작품이 포화 상태 등으로 교체 요인이 발생할 경우, 사진과 영상 형태의 기록을 통해 아카이브 작업을 이어가고, 다시 새로운 작품들을 설치하는 등 거리의 이야기를 계속 갱신하는 작업도 필요함
- 추진기간
 - 프로그램은 1년 내내 상시 진행되며, 홍사용 문화거리에 설치하는 작품의 경우 작품마다 설치기간을 지정함

| 그림 V-9 | ‘시민의 이야기가 담긴 책’ 책거리 조성 예시



<용인시, 어린이 그림그리기 대회 수상작으로 만든 벽화 사례>³⁾



<부산시민공원, 공원역사 스토리텔링 공모전 선정작품 전시 사례>⁴⁾

(3) 홍사용 문화거리 창작 축제 공모 사업

- 사업방향 : **홍사용의 창작 정신**을 반영한 시민주도형 창작 축제 공모 및 개최
 - 홍사용 문화거리 활성화와 홍보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화성시 및 화성시문화재단의 교육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 효과 또한 지님
- 운영 주체 : 화성시문화재단
- 추진방법
 - 다양한 분야의 문예활동을 펼친 홍사용의 창작 정신 및 문화 거리에 대해 소개하며, 홍사용 문화거리를 대상으로 한 시민 창작 축제 공모를 진행함. 공모에서 모인 아이디어를 심사하고 선정하여, 선정된 창작 축제를 대상으로 전문가 멘토링을 실시함
 - 화성시 및 화성시문화재단에서 문화기획 과정 수료자를 대상으로도 홍보를 진행하여 시민주도형 창작 축제 공모사업을 통해 축제를 개발함
 - 멘토링 후 최종 완성된 시민 주도형 창작 축제를 실행하고 평가를 진행하여, 긍정적인 평가와 반응을 받은 축제의 경우 지속적인 개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함
- 추진기간
 - 한해에 한번 공모 및 축제 진행. 9월~11월 사이에 개최

| 그림 V-10 | 홍사용 관련 창작 공모축제 참조 프로그램



<2019 포항거리예술축제>⁵⁾



<광주, 아프리카 타악그룹 공연 모습>⁶⁾

(4) 청소년을 위한 ‘몸’ 프로젝트 : 동탄의 민속놀이 ‘연극’의 재탄생

- 사업방향 : 노작 홍사용 선생의 활동과 참여를 기반으로 **‘1940~50년대 명절에 직접 연극공연을 즐겨하던 동탄주민들을 모티브’**로 10대 청소년들을 위한 각종 체험 프로그램 연간계획 수립 및 운영
 - 동탄신도시의 인구구조 중 10~19세의 비율이 20%이상 차지하므로 10대를 위한 프로그램의

3) 풍덕천2동 벚꽃축제에서 어린이 그림 그리기 대회 수상작으로도 벽화임, 용인시 공식 블로그 <https://blog.naver.com/govlrodtnr/221956643144>

4) 국제일보, 부산 시민공원, 야외서 비대면 전시 ‘작은 미술관’ 개막(2020. 10. 21) <https://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93828>

5) 중도일보, 포항거리예술축제, 2020 대한민국공연예술제 국비 공모 선정(2020, 03, 25) <http://m.joongdo.co.kr/view.php?key=20200325010010629>

6) 광주문화재단, ‘야외공연 창작지원사업’ 공모(2020, 03, 26) <http://m.newsway.co.kr/news/view?tp=1&ud=2020032609151039484>

제안. 특히 실외에서 보내는 시간이 현저하게 적은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실태를 반영하여 야외활동을 장려할 수 있는 ‘몸’을 쓰는 프로젝트 기획.

○ 운영주체 : 화성시 인재육성재단, 유엔아이센터 등 청소년 단체와 연계 진행

○ 추진방법

- 타악기를 연주하듯 몸으로 소리를 내어 하나의 음악을 만들어내는 ‘바디 퍼커션 (Body percussion)’ 워크숍을 아티스트와 진행하여 일상 속 예술에 학생들이 함께 참여하도록 진행. 다수의 학생들이 모여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고, 가슴을 두드리고, 입을 치며 몸으로 다양한 소리를 만들어낼 수 있음. 기본 리듬을 바탕으로 응용 리듬을 만들어보기도 하고, 움직이며 박자를 맞추기도 하고, 짝꿍과 같이 소리를 내기도 함.
- 음악을 한다는 것을 어렵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함께 모여 누구나 할 수 있는 예술을 경험하는 기회를 제공함. 여러 소리들이 모여 음악이 되는 것을 경험하며 내 몸의 소리와 움직임에도 집중할 수 있고, 또 함께하는 또래들과 예술가와 함께 호흡을 맞추어 일상 예술을 즐길 수 있음.

○ 추진기간

- 겨울에서 초봄(11~4월)을 제외한 달에 매달 마지막 주 토요일을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진행.

| 그림 V-11 | 청소년 대상 '몸 프로젝트' 프로그램 예시



2018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행사 문화예술교육 워크숍 ‘예술로 피크닉’ 중
“몸으로 만드는 하모니”⁷⁾

(5) 지역의 예술인 및 활동가와 함께 지역의 색깔을 담아내는 공동체 예술프로젝트

○ 사업방향 : 공동체 예술프로젝트를 통한 주민-창작자간 자발적·장기적 활동환경조성

○ 운영주체 : 화성시문화재단, 주민협의체

○ 추진방법

- 전문가가 창작하는 공공예술(Public Art)의 개념이 아닌 공동체 예술(Community Art) 방식의 안내표지판 제작으로 홍사용 문화거리와 다른 구역 간의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주민에게 지역의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예술참여의 기회 제공.
- 일회성으로 그치는 체험에서 나아가 시민참여 결과물이 홍사용 문화거리에서 공공미술

7) 아르떼365, 끝나지 않을 질문 속에서 미래를 그리다: 2018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행사 문화예술교육 워크숍 ‘예술로 피크닉’, <https://arte365.kr/?p=66480>

작품으로 전시될 수 있도록 작가의 사전 기획 및 현장 코디 진행. 동탄 지역의 정체성이자 지역의 특성을 예술로 표현해보는 것을 목표로 함. 거리의 특색을 반영한 디자인과 재료, 방식 등이 결합되어 시민의 호기심과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미술 작업으로 계획.

- 프로그램 종료 이후 홍사용 문화거리 일대에 시민참여 작품을 공공미술 작품으로 전시 진행하며, 작품을 기획·진행한 작가-참여 시민의 이름을 함께 안내 패널에 소개하여 소속감 고취 할 수 있음. 세부내용은 ‘홍사용 문화거리’ 시민참여 프로그램 참가자의 의견을 취합하여 구성함.
- 동탄신도시 거주민들에게 축제 및 행사에서의 일회성 예술참여가 아닌 ‘예술가, 이웃과 함께’ 그리고 ‘거주민 스스로’ 거리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통해 자연스러운 소통과 공동체형성, 나아가 홍사용 문화거리 활성화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음

※ 주제, 재질, 형태, 표현방식 등은 예술가-시민간의 소통을 바탕으로 세부화

○ 추진기간

- 봄과 가을 연중 2회 추진

| 그림 V-12 | 주민이 참여하는 커뮤니티 아트(공동체 예술) 프로그램



<노작이음길 가로등 배너 디자인 예시>

<문화비축기지 구조물 만들기 현장>

(6) 유휴 공간을 활용한 문화 예술교육 지원 사업 기획(A)

- 사업방향 : 홍사용 문화거리 주변 유휴 상가를 활용한 문화예술교육 지원
 - 홍사용 문화거리 유휴 공간 확보를 위한 설명회를 실시해, 문화예술교육 활동 공간을 확보하고 지역 문화 자치역량을 향상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민들과의 소통을 추진하고자함
- 운영 주체 : 화성시문화재단, 동탄 신도시 상인연합회, 화성시에서 활동하는 민간 예술단체

○ 추진방법

- 문화예술교육 활동가 모집 및 선발 후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문화재생 및 거리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기획 및 지원 프로그램 확정.
- 문화예술교육 사업 세부사항은 장르를 불문하여 문화예술교육을 실시하고, 참여자들이 작품발표회를 개최하도록 장려함. 또한 모든 참여자들과의 논의를 통해 공동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공유 공간도 운영 및 기획함.
- 이러한 방식은 문화 거리 주변의 유휴공간이 문화예술을 향유하고자 하는 지역주민, 예술가들을 위한 거점 공간으로 인식될 것으로 기대됨.
- 점조직의 주변 유휴 상가를 활성화할 경우, 점조직의 연결을 통해 전체 상가는 물론 대상지의 활성화 및 공동체 네트워크 구축도 기대해볼 수 있음. 인천 문화예술특화거리 조성사업인 ‘점점점’ 프로젝트의 경우 ‘기획위원회(지역 문화예술 기획 전문가)’ - ‘운영위원회(사업 참여 예술인)’ - ‘지역주민·상인’ - ‘공간(문화예술활동장소)’를 잇는 매개자 역할을 인천시문화재단이 수행함으로써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을 참고하여, 홍사용 문화거리도 화성시문화재단이 기획위원회(문화예술교육 활동가) - 운영위원회(사업 참여 예술인)-지역주민·상인을 잇는 매개자 역할을 수행하도록 함

○ 추진기간

-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경우 1년에 상반기와 하반기 2회로 나누어 진행한 후 분기별로 작품발표회 진행.

| 그림 V-13 | 유휴공간을 활용한 문화예술 교육 지원사업 참조 프로그램



<인천 신포점-거장, 영일상회:예술가마다
창작공간 내주는 점점점 프로젝트>8)



<부산, 비콘그라운드:
유휴공간을 활용한 복합문화공간>9)

(7) 유휴 공간을 활용한 문화 예술교육 지원 사업 기획(B)

○ 사업방향

- 홍사용 문화거리 주변 공공 및 민간시설의 유휴공간을 생활예술동아리의 문화공간으로 지정·운영하여 문화접근성 증진, 해당 시설의 인지도 및 친밀감 향상
- 공방, 카페, 갤러리 등을 생활문화예술 장소로 공유함으로써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

8) 인천 신포동에 ‘예술가x9’ 창작 공간 등지 들어
<http://www.incheon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201423>

9) 틈새공간에 문화 채우는 부산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0070925011>

○ 운영주체 및 개요

- 운영주체 및 지정명칭 : 화성시, 화성시문화재단 [노작문화교실]
- 정의 : 동탄신도시 민·관·산 시설의 유휴공간을 개방하여 전 시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문화공간으로 지정하여 다양한 생활문화·예술모임이 이루어지는 장소
- 대상 : 문화예술활동에 대한 공간 제공이 가능한 장소를 보유한 시설
- ※ 예시 : 작은 도서관, 갤러리, 카페, 공방, 음식점, 꽃집 등
- 주요내용
- 유휴공간이 있는 시설을 발굴하여 노작문화교실지정
- 화성시문화재단 홈페이지를 통한 공간 등록
- 사용자 예약관리 및 공간 사용 지원

○ 추진방법

- 시설의 유휴공간과 사용가능시간을 지정하여 개방
- 화성시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사용예약상황 관리
- 예약자 방문시 문화예술활동을 위한 공간 사용 협조
- 문화예술관련 화성시 홍보물 게시 등

| 표 V-27 | 노작문화교실 활동예시

문화예술 활동예시	1. 팝업북 만들기 수업(5명 이상, 20시간) 2. 생활예술동아리모임 ※ 화성시문화재단 생활예술동아리로 등록된 팀에 한함
--------------	---

○ 지정혜택

- 화성시문화재단의 다양한 생활문화예술 교육과정 운영
-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으로 다수 방문자 발생에 따른 홍보효과
- 지정시설 사업주(코디네이터) 활동비 지급
- 활동비 : 시간당 정액 활동비 지급
- ※ 공간사용내역 집계에 따라 월 1회, 최대 100시간까지 지급
- 활동내용 : 사용예약상황관리, 공간사용 협조
- 지정 노작문화교실 홍보(화성시문화재단 홈페이지 상시 소개)
- 노작문화교실 현판 부여 및 안내를 위한 홍보물 지원

3) 신규콘텐츠Ⅱ : 공동체 의식 형성 지원사업

(1) 동탄-노작 문화자치위원회 구성

- 사업방향 : 거주민 중심의 문화자치위원회를 구성하여 공동체 의식 고취 및 문화 협치, 마을자치를 장려하고자 함
- 운영 주체 : 화성시문화재단(1년차) → 동탄-노작 문화자치위원회(2년차~)
- 추진방법
 - 거주민, 학생, 회사원, 상가주인 등 누구든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그룹의 주민자치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연중 운영함. 화성문화재단과 함께 문화예술 영역의 다양한 장르를 포괄할 뿐만 아니라 문화기획자와 마을활동가, 주민예술가 등 지역사회에서 활동하는 다양한 주체들이 모여 지역문화예술생태계를 고민하며 공동으로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토대가 됨.
 - 매월 정기적인 모임을 진행하고, 1년에 1번은 체육대회 및 엠티(MT)를 진행함.
 - 본 모임은 개방성을 유지한다는 특징을 가짐. 누구나 모임에 초대·참여가 가능하며 기본적인 운영위원회와 공동위원장 선출 등은 자발성과 자율성을 토대로 함. 자발성과 그에 따른 일정한 희생이 감수될 수 있지만, 민주적이고 개방적인 선출 및 운영방식으로 공동체 안에서의 신뢰와 모임의 지속성을 기대할 수 있음.
 - 매월 진행되는 전체 모임은 새로운 구성원과 기존 구성원 모두가 자신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은 후, 각자의 활동과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다양한 입장에 따라 토론하며 지역사회에 대한 이야기들을 교환함.
 - 참여자들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공통의 경험을 축적하고, 지역사회의 공통 현안과 의제를 다루게 되며, 더 나아가 공통의 가치를 발견하고 찾아갈 수 있음. 이러한 위원회의 구성 및 활동은 개별적 활동을 넘어 공유와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의 변화와 발전을 지속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님. 나아가 마을활동과 지역축제, 예술마을 만들기, 마을단위 문화예술교육,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실험을 이어갈 수 있음
- 추진기간
 - 매달 1회 전체회의 진행, 1년에 1번 체육대회 및 엠티(MT) 기획.

| 그림 V-14 | 문화자치위원회 구성 예시



<공유성북원탁회의 관련 사진>¹⁰⁾

(2) 홍사용 온라인 창작 마을(버추얼 빌리지, 사이버마을) 조성

○ 사업 방향 : 홍사용 문화거리 활성화를 위한 시민 문화거버넌스 형성

○ 운영 주체 : 화성시문화재단

○ 추진 방법

- 홍사용 문화거리에 참여할 시민을 모집하고 온라인 시민 네트워크를 구축.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냄으로써 홍사용 문화거리 활성화의 기반을 다지며 공동체 의식 고취함.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SNS 홍보글을 강화하고, 팬데믹 시대에 가상의 시민 문화 공동체 마을의 모델을 제시함.
- 온라인 창작마을 프로그램 운영자 공모 및 선발을 통해 온라인 창작 마을 플랫폼을 계획하고 추진함. 또한 프로그램 참여자와 온라인 마을 주민을 모집함.
- 온라인상에서 계획되고 추진된 창작마을의 콘텐츠를 실제로 홍사용 문화거리에 실현하기 위해 오프라인상의 거리 및 공간을 확보해야함. 콘텐츠는 제약 없이 다양한 분야 및 방식으로 자유롭게 실현할 수 있도록 기획할 필요가 있음.

○ 추진 기간

- 홍사용 온라인 창작마을 플랫폼 구축을 위한 사전준비를 약 6개월간 진행한 후, 온라인에서 상시 운영함. 온라인의 콘텐츠를 오프라인 상으로 현실화시키는 작업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진행.

[그림 V-15 | 홍사용 온라인 창작 마을 구성 예시



<예술세상마을, 온라인 축제 개최(2020.09)>



<광주광역시 주민참여형 온라인 플랫폼 '마을e척척' 시범운영홍보 포스터>

(3) 동탄-노작 문화예술네트워크 구축

○ 사업 방향 : 화성시문화재단이 매개자가 되어 화성시 전역의 전문예술단체와 우수한 생활예술단체를 중심으로 네트워크 구축과 협업방향 공유로 문화생태계 구축

○ 운영 주체 : 화성시문화재단, 전문예술단체, 우수 생활예술단체 및 동호회

○ 추진 방법

-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공동체의 힘으로 동탄신도시의 전문예술과 생활문화예술의

10)영화진흥위원회, 미디어 스코프 웹진, 공유성복원탁회의

https://www.media-center.or.kr/juan/mediaScope/webzineDetail.do?webzineId=WZN_0000000000000349&rownum=0&hosoo=2018.06&type=

- 가교가 될 모임을 의도. 전문적인 활동을 하는 창작자부터 우수한 활동 능력과 아이디어를 가진 화성시민이 동탄 신도시 및 홍사용 문화거리 일대를 무대로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일상의 예술을 향유하는 구성원이 되어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고 이끌도록 함
- 대화뿐만 아니라 재능공유 워크숍을 진행하여, 참가자들이 자신이 가진 문화예술 재능을 매개로 직접 워크숍을 진행하고 주민들과 만나는 시간을 가짐

| 그림 V-16 | 지역 네트워킹 파티 구성안



<돌고도는 공유재才 모임사진>



<돌고도는 공유재才 포스터>

- 예술과 생활문화의 벽을 허물어 상호간 협업 가능한 활동과제를 발굴하고, 매개자인 화성시문화재단은 합의된 과제를 향후 다양한 분야의 사업에 활용하도록 함
- 동탄신도시 및 홍사용 문화거리에서의 문화예술을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교류하는 과정과 실제 공연 및 전시로의 활동 연계를 통해 지역의 문화예술생태계 구축에 기여

○ 추진기간

- 프로젝트를 위한 사전 모임을 매월 진행하고 해당 사안을 정리하여 분기별 최종 협의 도출을 통해 기획 및 실행으로 연결

(4) 동탄신도시 문화지도 제작 추진

- 사업방향 : 동탄신도시의 문화정체성을 찾아 지역민의 자긍심 및 공동체 의식을 고취하고 문화적 자산을 표시하는 ‘문화지도’ 제작을 통해 사업대상지를 홍보하고자 함

- 운영 주체 : 화성시문화재단

○ 추진방법

- 설문지를 통해 시민들과 동탄신도시의 문화자원을 함께 탐색함. 설문조사의 경우 동탄신도시의 생활권별로 구역을 나누어 실시함.
- 동탄신도시 관련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숨겨진 문화적 공간(경관) 및 이야기를 찾고 콘텐츠화하여 문화지도 제작에 활용함.
- 예술가 및 전문가를 통해 문화적 공간 또는 계절별 문화적 경관(사진찍기 좋은 장소 등)을 찾아내어 문화지도 제작에 활용함.
- 모든 진행 이후 동탄신도시 문화지도를 작성하고 온·오프라인으로 배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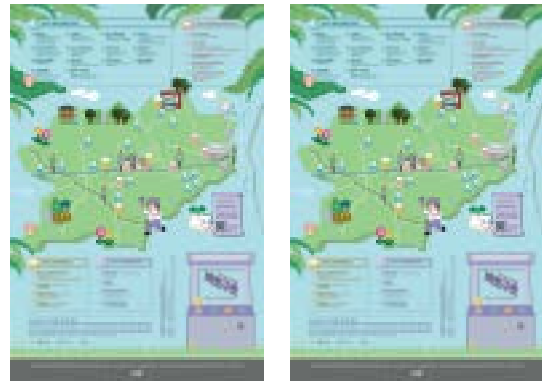
○ 추진기간

- 2021년 3월부터 6월까지 문화지도 제작을 위한 프로젝트 진행, 이후 배포함.

| 그림 V-17 | 문화지도 제작 예시



<신장시장 문화재생사업>¹¹⁾



<좌로구로 우로구로 지도>¹²⁾

| 표 V-28 | 신규 콘텐츠 사업 프로그램

구분	사업명	추진 내용	비고(운영 주체)
공공 프로 그램	동탄 어린이 플리마켓 : 어린이가 주체가 되는 주민 참여의 장	공간에 플리마켓 부스를 제공하여 판매대에 물건 준비부터 정리, 손님맞이 및 상품 판매와 계산까지 어린이가 주체적으로 담당하게 함	동탄맘 온라인 카페, YMCA, 동탄 굿마켓 등 민간주체
	‘화성 시민의 이야기가 담긴 책’의 테마 아카이브 구축 및 책거리 조성	시민이 자신과 지역의 이야기가 담긴 작품을 만들어 아카이브를 구축하고 책거리를 조성함	화성시문화재단, 화성시에서 활동하는 민간 예술단체, 주민협의체
	홍사용 문화거리 창작 축제 공모 사업	홍사용 문화거리를 대상으로 한 시민 창작 축제 공모하고, 선정된 창작 축제를 대상으로 전문가 멘토링을 실시함.	화성시문화재단
교육	청소년을 위한 몸 프로젝트 : ‘동탄’의 민속놀이 연극의 재탄생	10대 청소년을 대상으로, 몸으로 소리를 내어 하나의 음악을 만들어내는 ‘바디 퍼커션(Body percussion)’ 워크숍을 아티스트와 함께 진행함	화성시 인재육성재단, 유엔아이센터 등 청소년 단체와 연계 진행
예술	지역의 예술인 및 활동가와 함께 지역의 색깔을 담아내는 공공예술 프로젝트	예술가와 지역주민의 함께하는 커뮤니티 아트(Community Art) 방식으로, 안내표지판 제작함. 이를 통해 홍사용 문화거리와 다른 구역간의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주민에게 지역의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예술참여의 기회 제공함	화성시문화재단, 주민협의체
	유희 공간을 활용한 문화 예술교육 지원 사업 기획(A)	홍사용 문화거리 주변 유희 상가를 활용한 문화예술교육을 지원함. 이를 통해 문화예술교육 활동 공간을 확보하고 지역 문화 자치역량을 향상시키고자 함.	화성시문화재단, 동탄 신도시 상인연합회, 화성시 민간 예술단체

11) 하남 문화재단(사진자료는 <https://madmap.co.kr/index> 참고)

12) 구로 문화재단(사진자료는 <https://madmap.co.kr/index> 참고)

	유희 공간을 활용한 문화 예술교육 지원 사업 기획(B)	홍사용 문화거리 주변 공공 및 민간시설의 유희공간을 생활예술동아리의 문화공간으로 지정·운영하여 문화접근성 증진, 해당 시설의 인지도 및 친밀감 향상	화성시, 화성시문화재단
지역 사회 참여	동탄-노작 문화자치 위원회	거주민, 학생, 회사원, 상가주인 등 누구든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그룹의 주민자치네트워크를 구성해 운영함으로써 공동체 의식 고취 및 마을 자치를 장려하고자 함	화성시문화재단 ↓ 문화자치위원회
	홍사용 온라인 창작 마을(버추얼 빌리지, 사이버마을) 조성	온라인 창작마을의 프로그램 운영자 공모/선발을 통해 온라인 창작마을 플랫폼을 계획하고, 프로그램 참여자와 온라인 마을 주민도 함께 모집 이후 온라인 창작마을의 콘텐츠를 실제로 홍사용 문화거리에 실현하기 위해 오프라인상의 거리 및 공간을 확보해 시민 문화거버넌스를 형성	화성시문화재단
	동탄-노작 문화예술 네트워크 구축	화성시문화재단이 매개자가 되어 화성시 전역의 전문예술단체와 우수한 생활예술단체를 중심으로 네트워크 구축과 협업방향 공유로 문화생태계 구축	화성시문화재단, 화성시 소재 전문예술단체 및 우수 생활예술 단체
	동탄신도시 문화지도 제작	설문지를 통해 시민들과 동탄신도시의 문화자원을 함께 탐색하고 이를 바탕으로 문화지도를 제작해 온·오프라인으로 배포함	화성시문화재단

4) 신규콘텐츠Ⅲ : 홍사용문화거리 주제 특화사업

(1) 메세나(Mecenat)를 활용한 노작 레지던시(residency) 사업

- 메세나(Mecenat)란, 기업들이 문화예술에 지원함으로써 사회 공헌과 국가 경쟁력에 이바지하는 활동을 뜻함
 - 고대 로마제국의 외교관 가이우스 마에케나스가 시인 호러스 등 당대 예술가들의 창작 활동을 적극적으로 후원해 예술 부국을 이끈 데서 유래함
 - 르네상스 시대 미켈란젤로, 레오나르도 다빈치 등 예술가를 지원한 피렌체의 메디치가(家)가 대표적인 예로 꼽힘
 - 현대에 들어 메세나는 기업의 문화예술 및 스포츠 지원과 공식적인 예술후원 사업을 뜻하는 용어로 쓰이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한국메세나협회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오고 있음
- 지역특성화 매칭펀드는 지역 기업의 기부금과 메세나협회의 매칭펀드 지원금은 1:1 매칭으로, 지역 기업의 기부금을 유치하는 실적에 따라 더 많은 재원을 끌어올 수 있는 방식임
 - 한국 메세나 협회는 예술지원 활동의 수도권 편중 현상을 해소하고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 지역특성화 매칭펀드를 운영하고 있으며 2019년 25건, 8억 6천만 원의 지원이 이루어짐(한국메세나협회, 2019)

| 표 V-29 | 2019 전국 문화재단 지역특성화 매칭펀드 현황

문화재단	기업	사업명
서울문화재단	올림푸스한국	영동한사진관
세종시문화재단	한국중부발전 세종발전본부	여민락 콘서트
	한국지역난방공사 세종지사	
	농협은행 세종영업본부	
	티켓소켓코리아	
	신신제약	
	금성백조주택	
충남문화재단	시티문화재단	문화소외지역 학생 문화예술탐방
		충남 무형문화재 활성화 사업 '문화 영웅'
	애틀미	꿈의 오케스트라 공주
충북문화재단	벽산문화재단	스쿨오브樂 'Next Classic'
광주문화재단	싱크닥터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광주프로젝트
대구문화재단	한국산업단지공단	안심창조밸리 연꽃마을축제
	한국가스공사	
	반야월연꽃마을협동조합	
울산문화재단	경남은행	시민의 축제-무엇이든 예술이 된다.

출처: 한국메세나협회 2019년도 연차보고서를 바탕으로 재구성

- 지역특성화 매칭펀드는 지역 내 기업들의 문화예술 후원과 지역사회 환원을 바탕으로 재원조성을 다각화하여 다양하고 새로운 방식의 문화예술사업을 진행할 수 있음

| 그림 V-18 | 지역별 메세나 활동 사례



[서울문화재단×올림푸스 한국], 영동한 시리즈 2020 ‘용례채집: 관계의 재해석’



[제주 메세나협회×제주도 3개 기업], 찾아가는 공연장 도르라트릭

- 추진배경 : 홍사용 문화거리의 지속적인 활성화를 위해 인근의 ‘라마다 호텔’ 및 ‘신라스테이’와의 협약으로 연중운영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기획함

“홍사용 문화거리 활성화와 관련해 중요한 시설 중 하나는 노작 홍사용문학관이다. 노작 홍사용문학관에서는 자체적으로 문인들을 초청하여 화성 시민들을 대상으로 창작 및 인문 강좌 등 다양한 문예 강좌를 진행하고, 팟캐스트와 유튜브 채널 등의 방송, 시민극단인 산유화 극단의 지원 등의 사업을 펼치고 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은 문학관에 자체적으로 레지던스 시설을 갖추지 못해 작가가 거주하며 진행하는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기획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중략) 북콘서트나 낭독회와 같은 1회성 행사는 물론,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창작과 인문학을 비롯한 강좌, 문학이나 글쓰기 등을 매개로 한 상담 및 커뮤니티 프로그램 등 연속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 작가들과 시민들의 다양한 형태의 교류를 추진할 수 있다. 또한 노작 홍사용문학관을 비롯해 한국문학번역원 등과 협력하여 해외 작가를 초청하여 심포지엄이나 ‘작가와의 대화’와 같은 프로그램을 개최할 수도 있고, 일정 기간 거주하며 화성시를 대표 하는 작품 집필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추진해볼 수도 있을 것이다”

— 김태선, 〈「홍사용 문화거리」 활성화 전략컨설팅 1차 자문의견서〉(2020. 9)

- 사업방향 : 화성시문화재단을 매개자로 노작 홍사용문학관과 화성시 소재 기업과의 협약을 통해 메세나를 추진하고, 홍사용 문화거리와 인접한 시설에서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작가들과 지역민간 소통과 교류를 추진하고자 함

○ 운영 구조

| 표 V-30 | 메세나를 통한 노작 레지던시 사업 운영구조

운 영 자	노작 홍사용문학관(프로그램 기획 및 관리)
매 개 자	화성시문화재단
후 원 자	화성시 소재 기업 및 홍사용 문화거리 인접 숙박시설
예 술 가	문학 및 예술부문 작가

- 후원기업 : 문화예술을 업으로 하지 않는 모든 기업(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공기업)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은 대상에서 제외

| 표 V-31 | 메세나 참여 제외 기업 기준 및 업종

- 예술단체를 제품 영업 및 판촉 행사, 기업 마케팅 홍보 이벤트 등에 상업적으로 이용할 의도가 있는 기업 - 고리대금업, 사금융, 사치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 금융기관의 불량거래자 또는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특별경영안정사업 시청 중소기업은 제외) - 예술단체와 특수관계인 기업(친인척, 사내외 이사, 대표 겸직 등)
--

출처: 서울문화재단, 2020년 서울메세나 지원사업 추진계획

○ 추진 방법

- 화성시문화재단과 노작홍사용 문학관이 사업계획 수립 및 세부운영방안 협의 후, 참여(후원)기업을 모집하여 협약을 진행함
- 작가의 거주를 기반으로 하는 집필공간인 동시에 북 콘서트, 낭독회,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동탄신도시의 이야기를 발굴하고 작가와 지역민의 소통 및 교류를 도모함

(2) 백조(白潮) 창간 100주년, 화성시민 100여 편의 시

- 사업방향 : 노작 홍사용을 중심으로 창간된 한국 근대문학의 출발「백조」의 창간 100주년을 기념하는 시민의 창작물(시) 100여 편을 응모를 통해 심의·전시함

○ 추진배경

- ‘홍사용 문화거리’ 활성화 사업 시민 의견조사에 따르면 ‘노작 홍사용’에 대해 25.2%의 응답자가 ‘잘 모르지만 기회가 된다면 알아볼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여 노작에 대한 관심을 환기할 여건이 존재함
- 2021년도 백조 창간 100주년을 기념하는 문화적 해석 및 활용 방안 모색
- 3·1운동 후 문학을 시작한 청년 작가들의 정신적 상황을 자유롭게 표현한 백조의 도전정신을 기리고 시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노작의 인지도와 지역자긍심 고취

○ 참여대상 : 화성시민(*혹은 백조의 동인 및 노작 홍사용에 관심을 가지는 국민 누구나)

| 그림 V-19 | 노작 홍사용 관련 매체 과거와 현재



1922년 [백조] 표지



2019 노작 문학주간 포스터

○ 운영주체 : 화성시문화재단(독서문화진흥팀)×노작홍사용 문학관

○ 추진 방법

- 지정주제 및 자유주제 선정 후 ‘백조(白潮) 창간 100주년, 100여 편의 시’ 프로젝트 공식 인스타그램 등 SNS, 우편 및 방문접수 등을 통해 화성시민의 창작시 접수
- 홍사용 문화거리 경관조성지인 노작 홍사용문학관~동탄 복합문화센터 이음길 보도 및 만남교 하부공간, 미디어월 등을 활용한 오프라인 전시 및 온라인 플랫폼 전시 병행
- 노작홍사용 문학관이 주최하는 <노작 홍사용문학제>와 연계

5) 홍사용 문화거리 연중 운영계획(안)

- 홍사용문화거리 활성화를 위한 콘텐츠를 ① 연계사업과 ② 거리공간활성화, ③ 공동체의식 형성지원, ④주제특화사업 네 가지 부문으로 제시함
- 연간 사업 운영계획(안)의 내용은 아래와 같음

| 그림 V-20 | 홍사용 문화거리 연간 사업운영계획(안)



- 본 연중운영계획은 홍사용 문화거리 조성지 뿐만 아니라 문화거점 및 인근 유희공간 활용방안, 온라인 활동을 포함하고 있음
- 대상지의 환경적 요인으로 야외 행사 추진이 어려운 동절기(12월-2월)에는 공동체 의식 형성을 위한 문화자치위원회 및 네트워크 구축, 온라인 창작마을 등의 콘텐츠 운영을 대안으로 제안함

3. 연차별 운영계획 및 로드맵

| 그림 V-21 | 공간·사람, 문화적 활동과 예술을 연결하는 문화플랫폼



1) 2021-2024 연차별 운영계획(안)

- 2020년 자문회의 운영 및 활성화전략 수립에 따라 2021년을 시범과제운영을 통한 발전기, 2022-2024년을 정착기, 2025년을 문화거리 명소화 시기로 구분하였으며, 이에 따른 연차별 운영계획은 다음과 같음

| 그림 V-22 | 홍사용 문화거리 연차별 운영계획

2020 전략수립	- 홍사용문화거리 활성화 전략 컨설팅 자문단 구성 및 자문회의, 시민 간담회 개최 - 홍사용문화거리에서 추진가능한 기존 콘텐츠 연계발안 모색 및 부문별 신규 콘텐츠 개발 - 문화예술기반 동탄 신도시 주민주체 형성방안 모색			
2021 연계사업 시행 시범과제 운영 참여주체 발굴 평가 및 환류	- 화성시 문화재단 6개 운영사업 연계계획 - 평가 및 환류 : 개선방안 모색 및 신규 연계사업 발굴 - 동탄-노작 문화자치위원회 및 동탄-노작 문화예술 네트워크 참여자 모집 및 시범운영 - 거리공간 활성화사업 우선 이행과제 선별 및 시범운영(1~2회) - 평가 및 환류 : 개선방안 모색 및 프로그램 개발 - 홍사용문학제 : 홍사용문화거리 확장계획 [백조 창간 100주년, 화성시민 100여년의 시]연계 - 노작 예제나 참여기업 및 작가 모집[화성시문화재단X노작홍사용 문학관], 해칭 시행			
2022-2024 콘텐츠 운영 정례화 문화거리 활성화	연계사업 - 콘텐츠 운영 정례화 - 신규 연계사업 발굴 - 민간주최 사업 연계	거리공간 활성화 - 연령대별 프로그램 - 유류공간활동 지원 [일상공간]의문화이X프테	공동체익식 형성 - 동탄노작 문화자치위원회 [화성시문화재단→시민] - 참여주체 확대 - 동탄문화자치활성화	주제특화사업 - 홍사용 문학제 거리개회 정례화 [노작 레지던시] X [홍사용 문화거리] 연계
2025 문화거리 명소화	- 동탄신도시 문화거점, 문화 아지트들의 아슬길로서의 홍사용 문화거리 명소화 - 시민주도의 다채로운 문화와 예술활동을 바탕으로 문화예술공동체 동탄신도시 형성			

(1) 2021년 운영계획

○ 추진방향

- 화성시문화재단의 6개 연계사업에 대한 문화거리 개최방안을 검토하여 선별된 과제와 함께 시범적으로 운영, 이후 평가와 환류과정을 통해 개선방안 모색
- 문화예술을 바탕으로 동탄 신도시 거주민이 공동체성을 형성할 수 있도록 사업 수행
- 홍사용문학제 및 노작 메세나 등의 사업추진을 통해 문화거리의 주제인 ‘노작 홍사용’을 특화

○ 추진체계(안)

- 화성시문화재단 해당 주무부서 및 연계사업팀, 노작 홍사용문학관 등을 운영주체로 함
- 화성시문화재단에서 총괄관리를 담당하고, 사업별로 필요에 따라 노작 홍사용문학관 및 전문·생활예술단체, 주민단체와 협의

○ 주요과제

- 화성시문화재단 6개 연계사업, 선별된 시범과제의 홍사용 문화거리 개최
- 동탄-노작 문화자치위원회 : 화성시문화재단 및 노작홍사용 문학관 문예프로그램 수강생 및 이용객, 시민을 대상으로 네트워크를 구축하되, 출범 1년간 화성시문화재단이 관리·지원
- 동탄-노작 문화예술네트워크 : 화성시문화재단을 매개자로 화성시에서 활동하는 전문·생활예술단체를 중심으로 네트워크 참여자 모집
- 주제특화사업 : 노작문학제, 노작 메세나 사업 등 홍사용 테마사업 운영

(2) 2022-2024년 운영계획

○ 추진방향

- 연계사업, 거리공간 활성화, 공동체의식 형성, 주제특화사업별 홍사용 문화거리 콘텐츠 확대 및 정례화·상설화
- 동탄-노작 문화자치위원회 및 동탄 노작 문화예술 네트워크, 공모사업을 바탕으로 사업과제를 발굴하여 상향식 사업추진 활성화
- 사업 참여주체의 확대 및 인근 유희공간의 재편성을 통한 문화거리 활성화

○ 추진체계(안)

- 화성시문화재단에서 총괄관리를 담당하되, 사업별 특성에 따라 노작 홍사용문학관 및 동탄-노작 문화예술네트워크, 동탄-노작 문화자치위원회와 협의하여 추진

○ 주요과제

- 홍사용 문화거리와 문화거점-유희공간의 활용과 연계를 통한 공간의 재해석
 - ▶ 동탄복합문화센터, 화성시미디어센터, 노작홍사용 문학관의 문예프로그램·축제 및 행사를 통해 ‘T’자 문화예술 축의 활성화
 - ▶ 문화거리 인근 유희공간을 활용하여 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을 통해 문화 아지트로 전환→ 문화접근성 증진 및 문화예술 활동공간 확보
- 동탄신도시 주민이 중심이 되는 문화자치 활성화 체계 구축
 - ▶ 지역고유 문화자산인 ‘노작 홍사용’과 활동을 재해석한 콘텐츠를 주민이 주도하여 만들어가는 과정을 통해 동탄의 공동체를 형성하고 정주의식 고취

- ▶ 홍사용 온라인 창작마을 및 동탄-노작 문화자치위원회를 바탕으로 온-오프라인 양방향의 문화예술 거버넌스 형성
- 시민-예술가(개인 혹은 단체)-문화재단의 관계형성과 협업을 통한 문화생태계 구축
 - ▶ 동탄-노작 문화예술네트워크 : 화성시문화재단을 매개자로 화성시에서 활동하는 전문·생활예술단체를 중심으로 네트워크 참여자 모집
- 주제특화사업 내·외연 확대를 통한 지역 고유문화 발전
 - ▶ 노작문학제, 노작 메세나 사업 등 홍사용 테마사업의 다양한 장르적 시도를 통해 시민과의 접촉면을 확대하여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문화를 창조

2) 평가 및 환류체계

- 홍사용 문화거리의 콘텐츠 운영과 더불어 다음의 <문화의거리 평가지표>¹³⁾를 바탕으로 연차별 종합평가를 시행하여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함
- 평가지표의 항목은 ① 거리활동을 위한 수용태세, ② 주변 인프라의 활용가능성, ③인접거리와 연계성, ④ 참여주체간의 결합 및 의사체계, ⑤ 지역성 실현정도, ⑥ 활성화의 가능성의 여섯 부문으로 구성함

| 표 V-32 | 문화의 거리 평가지표

거리 활동을 위한 수용태세
- 행사, 및 퍼포먼스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가? - 거리와 연계하여 문화예술활동을 위한 별도의 시설이 갖추어져 있는가? - 대상지 내에 독특한 이벤트, 축제 등이 개최되거나 예정에 있는가? - 홍사용 문화거리는 어떤 측면의 보강이 필요한가?
주변 인프라의 활용가능성
거리 주변의 전문 문화시설, 복합문화시설 및 조경상태, 연계가능한 자원은 무엇인가?
인접거리와 연계성
보행체계 속에서 인접한 다른 거리와 연계시 어떤 장·단점이 예상되는가?
참여주체간의 결합 및 의사체계
- 거주민과 창작자들이 자발적·장기적으로 활동할 환경이 되는가? 혹은 대안이 무엇인가? - 상업주체(상인회)의 의지는 어떠한가? 혹은 대안은 무엇인가? -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의 분업·협업의지는 어떠한가? - 참여주체간의 활동이 조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 혹은 대안은 무엇인가? - 참여주체간의 의사결정체계는 어떻게 이루어지며, 이에 상향식(주민참여식) 의사전달이 가능한 구조인가? 혹은 대안이 무엇인가?

13) 본 평가항목은 한범수·김희영(2007)이 서울시 테마거리 지정에 있어 개발대상지를 선정하는 척도로서 수용태세의 정도, 주변 인프라의 활용가능성, 인접거리와의 연계성, 내부인과 외부인의 결합정도, 지역성의 실현정도, 테마화의 가능성 등을 검토하기 위해 제안한 내용을 홍사용 문화거리 조성에 적용할 수 있도록 수정·보완함.

지역성 실현정도

동탄신도시의 지역성, 지역문화 등이 어느 정도 문화의 거리에서 실현될 수 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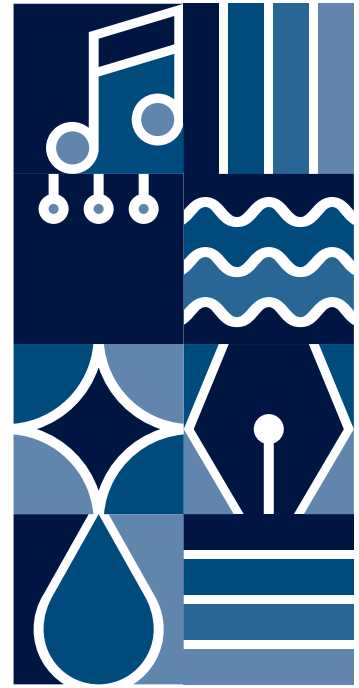
활성화의 가능성

- 로드맵의 단계별 목표는 명확하고 실현가능한가?
- 노작 홍사용의 활동과 작품의 이미지를 반영하여 랜드마크화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가?
- 해당사업을 통해 사업목표(정주의식 고취, 주민의 문화향유 증진)를 달성할 수 있는가?
- 문화의 거리 활성화를 위한 활동은 지속적으로 운영이 가능한가? 그리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가?

3) 홍사용 문화거리 활성화 전략 로드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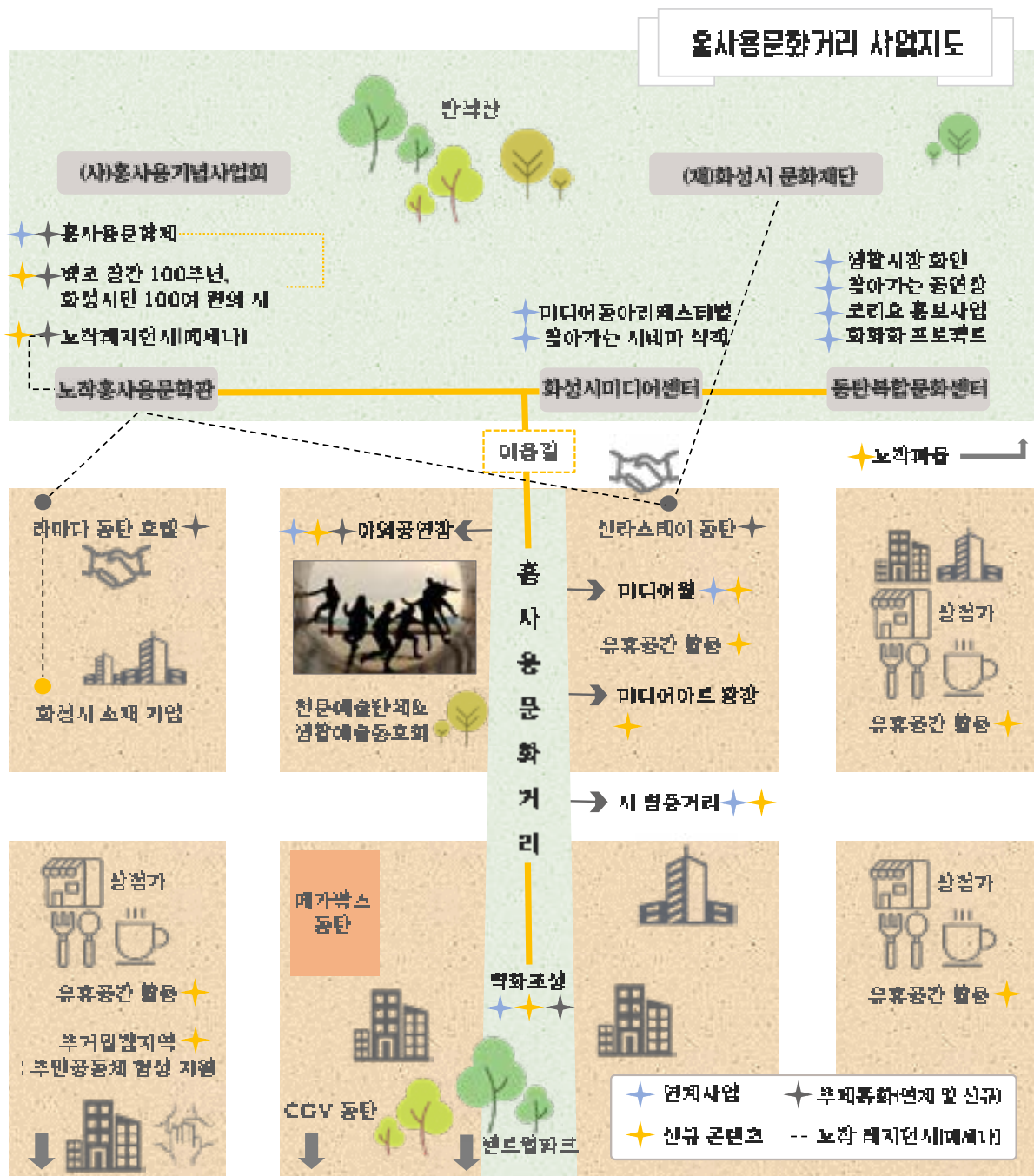
| 그림 V-23 | 홍사용 문화거리 활성화 전략 로드맵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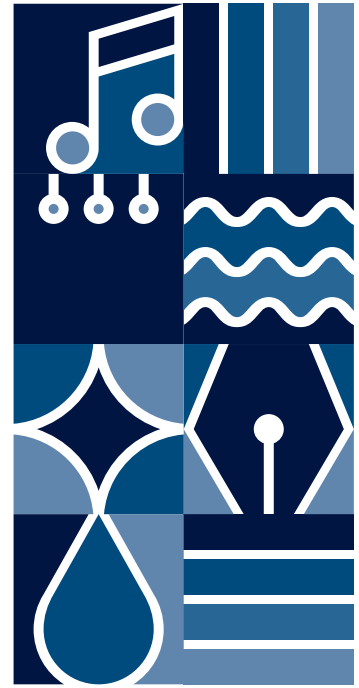
홍사용 문화거리
사업지도 및 연간운영계획





연간 사업 운영계획(안)		1	2	3	4	5	6	7	8	9	10	11	12
연계사업													
움사움문화제													
미디어동여러모로 스티벌													
찾아 가는 시네마 식객													
생활시장 형편													
찾아 가는 공연장													
코리오 홍보사업													
화화화 프로젝트													
[신규] 거리공간활성화													
동탄 어린이 풀리마켓													
화성시민의 이야기가 담긴 책 테마사업													
움사움문화거리 창작 축제 공모													
청소년을 위한 몸 프로젝트													
움사움문화거리 공공예술프로젝트													
유호공간활용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A)													
유호공간활용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B)													
[신규] 공동체이식 형성 지원													
움사움 온라인 창작마을													
동탄-노작 문화자치위원회													
동탄-노작문화예술네트워크 구축													
동탄신도시 문화지도 제작													
[신규] 주제특화사업													
노작 레지던시(메세나)													
백조 창간 100주년													
화성시민 100여편 의 사													





부록

홍사용 문화거리 사업지도 및 연간운영계획

- 참고문헌
- 홍사용 문화거리 구성에 따른 시민설문조사지
- 현지조사 결과 및 시민 간담회 회의록
- 자문위원 의견서

참고문헌

▶ 연구보고서

2018 지역문화컨설팅지원사업(인천서구)
2019 화성시 사회조사 보고서
2025 화성시 장기발전계획(2017)
2040 화성시 장기발전계획(2019)
경기연구원(2017). 새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경기도의 과제
인천연구원(2019). 인천시문화예술특화거리 조성을 위한 정책제언,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0) 한류스타거리 조성방안연구
화성시 동서간 발전전략보고서(2018)
대구경북연구원(2012) 방천시장의 문화 공간 조성을 통한 대구 도심 재생 방안
울산발전연구원(2015) 울산 중구 문화의 거리 지원 평가 및 원도심 활성화 연구
문화체육관광부(2019) 2019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

▶ 단행본 및 논문

김미영, 문정민(2010). 「도시 재생 관점에서 문화의 거리 공간특성 분석: 국내 문화의 거리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실내디자인학회』 Vol.19 No.6
김병석(1999). 「文化・藝術의 거리計劃 및 造成方案에 관한 研究 : 忠武路 映像・映畵의 거리를 中心으로」,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연경, 이무용(2015). 「생활주체의 경험을 통해 본 광주 예술의 거리 장소성 연구」, 『한국지역지리학회』, Vol.21 No.3
김일순, 황경수, 김상미(2014). 「산타페시 조사를 통한 제주 문화예술거리 방향 탐색」, 『濟州島研究』 Vol.42
김제중(2019). 공공공간을 활용한 문화공간화 사례 연구, 『조형미디어학』, 22(2), 140-150.
김제중(2019). 「공공공간을 활용한 문화공간화 사례 연구 -도쿄 우에노지역을 중심으로-」, 『조형미디어학』 Vol.22 No.2, 한국일러스트아트학회
김주영(2003). 『문화의 거리 활성화를 위한 축제의 역할에 관한 연구』, pp. 9-10.
김주영, 장준호(2007). 「시민참여에 의한 문화의 거리조성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地域社會開發研究』 Vol.32 No.3, 한국지역사회발전학회
박숙진(2004). 「한·독 문화관광거리 국제비교연구 : 관광자원.문화행사 및 축제.운영시스템.관광정책을 중심으로」, 경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백승준(2019). 「김광석 길의 도시재생사업요소가 이용자의 만족도 및 행동의도에의 영향 관계 분석. 김광석 다시 그리기 길의 방문객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오민석(2019). 일본 평생학습도시에 담긴 평생교육 실천적 함의,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9(16), 101~121.
오재환(2011). 「부산 대안문화와 대안공간의 역동성」. 『BDI 정책포커스』 No.96

- 윤진현(2014). 「연극인 홍사용 연구」. 『민족문화사연구』 No.55
- 이장춘, 박숙진(2003), 「문화관광거리 비교모형에 관한 연구」, 『觀光政策學研究』, 한국관광정책학회, Vol.9 No.1
- 이진우(2009). 『역사.문화거리 고궁로의 관광상품화 방안』
- 이주영(2017). 「디자인서울거리를 통해 바라본 가로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고찰 : 강남대로, 이태원 디자인서울거리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석규(2020). 「문화상업가로 이용행태 및 만족요인분석 : 김광석 다시그리기 길을 대상으로」,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우택(2009). 「『문우』에서 『백조』까지 -매체와 인적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국제어문』 No.4
- 정철현, 김종업(2011), 「창조도시 구현을 위한 문화거리 활용방안 : 부산시 구도심을 중심으로」, 『한국지방정부학회』 Vol.2011 No.1
- 최연우(2018). 「문화상업가로의 센트리피케이션 과정 및 특성에 관한 연구 : 김광석길 및 방천시장을 사례로」,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범수, 김희영(2007). 문화관광자원으로서의 테마거리의 발굴에 관한 연구, 『여가관광연구』 No.10
- 한호성(2011). 『축제를 통한 지역 문화의 거리 활성화 방안』, p. 39.
- 한현희(2007). 「문화의 거리 활성화 방안 연구 : 경기도 지역을 중심으로」, 경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현갑출(2006). 『문화관광거리의 장소마케팅에 관한 연구』?

<행정자료>

- 건설교통부(2008), 『화성동탄2지구 신도시개발 추진』
- 문화체육부(1993), 『문화의 거리, 활성화 방안과 사례』
- 문화체육관광부(2019), 『2019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
- 수원시(2018), 행궁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 한국문화정책개발원(2000), 『문화벨트 및 문화도시 조성방안 연구』
- 행정안전부(2019), 『주민등록인구현황』
- 화성시문화재단(2019),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 화성시 문화재단(2020), 『문화의거리 활성화(지역문화컨설팅) 계획』

<인터넷자료>

- 공공데이터 포털 <https://www.data.go.kr/index.do>
- 공공미술포털 www.publicart.or.kr/
- 구로 문화재단 <https://madmap.co.kr/index>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노작 홍사용문학관 홈페이지 www.nojak.or.kr
 대구광역시 중구 근대문화여행 홈페이지 <http://www.jung.daegu.kr/new/opentour>
 동탄필하모닉오케스트라 홈페이지 <https://cafe.naver.com/dtmorch>
 문화체육관광부 <https://www.mcst.go.kr/>
 전문예술법인단체 홈페이지 <https://www.gokams.or.kr:442/artsdb/main/main.asp>
 프랑스재단 홈페이지 <https://www.fondationdefrance.org/>
 하이라인 홈페이지 <https://www.thehighline.org>
 하남 문화재단 <https://madmap.co.kr/index>
 한국토지주택공사 www.lh.or.kr
 화성시 홈페이지 <http://www.hscity.go.kr/www/intro/gnrlSttus/ctyhllAr.jsp>
 화성시 문화재단 홈페이지 www.hcf.or.kr
 화성시 생활공간 웹포털 <https://air.hscity.go.kr/hsgisMap/index.do>
 화성예총 홈페이지 www.hsyechong.or.kr
 LH 동탄사업본부 화성동탄1신도시 홈페이지 http://dongtan.lh.or.kr/dongtan_1
 2K540 공식 홈페이지 <https://www.jrtk.jp/2k540/shop>

<기타자료>

용인시 공식 블로그-풍덕천2동 벚꽃축제에서 어린이 그림 그리기 대회 수상작으로도 벽화임,
<https://blog.naver.com/govlrodtnr/221956643144>

국제일보, 부산 시민공원, 야외서 비대면 전시 ‘작은 미술관’ 개막(2020. 10. 21)
<https://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93828>

중도일보, 포항거리예술축제, 2020 대한민국공연예술제 국비 공모 선정(2020, 03, 25)
<http://m.joongdo.co.kr/view.php?key=20200325010010629>
 광주문화재단, ‘야외공연 창작지원사업’ 공모(2020, 03, 26)
<http://m.newsway.co.kr/news/view?tp=1&ud=2020032609151039484>

아르떼365, 끝나지 않을 질문 속에서 미래를 그리다: 2018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행사 문화예술교육 워크숍 ‘예술로 피크닉’, <https://arte365.kr/?p=66480>

인천 신포동에 ‘예술가x9’ 창작 공간 등지 들어
<http://www.incheon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201423>

틈새공간에 문화 채우는 부산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0070925011>

영화진흥위원회, 미디어 스코프 웹진, 공유성북원탁회의

https://www.media-center.or.kr/juan/mediaScope/webzineDetail.do?webzineId=WZN_00000000000000349&rownum=0&hosoo=2018.06&type

http://localtoseoul.or.kr/portfolio_page/2019-돌고도는-공유재才/

인천문화재단, 『2019 문화예술특화거리 <점점점> 참여자 신청안내서』

『한국메세나협회 2019년도 연차보고서』

문체부 보도자료(2018.5.16.) , 「 ‘사람이 있는 문화’ 문화비전 2030 발표」



‘홍사용 문화거리’ 에 대한 설문조사

본 설문은 ‘홍사용 문화거리’ 조성과 관련해 화성시문화재단에서 실시하는 여론조사로, 거리의 특성을 살려 문화적 거리를 조성함으로써 동탄 신도시의 문화적 정체성을 확립하고 신도시 주민들의 정주의식을 높이는 한편 시민들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삼고자 설계되었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잠시 시간을 내어 응답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 통계법 제33조, 34조에 의거하여 응답자 개인정보는 통계자료로만 활용됩니다.

응답자 작성요령

- 본 설문지는 모두 4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뒷면의 ‘홍사용 문화거리’ 대상지(지도)를 확인하신 후 조사원의 안내에 따라 응답해 주세요.
- 본 설문지는 화성시 동탄신도시를 생활권으로 하는 만 15세(2005년 10월 30일 이전 출생) 이상인 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1. 성별	① 여성 ② 남성 (결혼여부 : □ 기혼 □ 미혼)
2. 연령대	① 15~19세 ② 20~24세 ③ 25~29세 ④ 30~34세 ⑤ 35~39세 ⑥ 40대 ⑦ 50대 ⑧ 60대 이상
3. 현재 직업 (1가지만)	① 학생 ② 회사원(직장인·급여생활자) ③ 농업인/어업인 ④ 자영업 ⑤ 프리랜서 ⑥ 문화예술계 종사자 ⑦ 전업주부 ⑧ 은퇴인 ⑨ 기타
4. 가족유형	① 1인 가구 ② 2인 가구 ③ 3~4인 가구 ④ 5인 이상 가구
5. 동탄 신도시 생활권 여부	1) 동탄 신도시에 거주 거주기간 : ① 1년 이내 ② 3년 이내 ③ 5년 이내 ④ 10년 이내 ⑤ 10년 이상 2) 동탄 신도시에 거주하지 않지만, 직장이나 학교, 문화시설 이용 등으로 자주 이용 이용기간 : ① 1년 이내 ② 3년 이내 ③ 5년 이내 ④ 10년 이내 ⑤ 10년 이상 화성시민 여부 : ① 예 ② 아니오

1 다음은 ‘노작 홍사용’ 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각의 항목에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1-1) ‘노작 홍사용’ 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 ① 잘 알고 있다 (1-2번 문항으로 이동) ② 어느 정도 알고 있다 (1-2번 문항으로 이동)
- ③ 잘 모르지만 기회가 된다면 알아볼 의향이 있다 (2-1번 문항으로 이동)
- ④ 잘 모른다 (2-1번 문항으로 이동)

1-2) ‘노작 홍사용’ 에 대해 알고 계신다면 그의 작품에 대해 생각할 때 연상되는 이미지나 키워드는 무엇 입니까?

- ① 시·소설·수필·극단 등 다양한 창작활동 ② 애국심, 항일정신 ③ 서정성, 낭만주의
- ④ 향토성, 민족주의 ⑤ 기타

【 ‘홍사용 문화거리’ 조성 대상지 】



2 다음은 ‘홍사용 문화거리’ 조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각의 항목에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2-1) 귀하께서는 ‘홍사용 문화거리’ 조성 대상지역을 얼마나 자주 방문하십니까?

- ① 매일 ② 주 3~5회 ③ 주 1~2회 ④ 월 1~2회 ⑤ 월 1회 이하

2-2) 귀하께서 ‘홍사용 문화거리’ 조성 대상지역을 방문하시는 주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 ① 상점가 방문(쇼핑) ② 다른 곳으로 이동하기 위한 경유지여서 ③ 산책 및 여가생활
④ 프리마켓·전시 등 행사나 축제,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하기 위해서 ⑤ 기타

2-3) 귀하께서는 ‘홍사용 문화거리’가 조성된다면 시민들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매우 그렇지 않다

2-4) 귀하께서 ‘홍사용 문화거리’ 대상지역을 이용하면서 느낀 가장 큰 불편사항은 무엇입니까?

- ① 특별히 불편함을 느끼지 못함 ② 낮에도 어두운 다리 하부
③ 공간 내 그늘막 및 만남공간 부족(벤치, 쉼터 등) ④ 편의시설 부족(화장실, 주차장 등)
⑤ 보행안내 표지판 부재 ⑥ 기타 ()

2-5) 귀하께서는 ‘홍사용 문화의 거리’ 조성시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개 선택)

- ① ‘노작 홍사용’을 주제로 한 조형물 설치 ② 조명시설, 안내표지판 등 환경 개선

식과 공동체 의식 함양에 어느 정도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낼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그렇다 ② 어느 정도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매우 그렇지 않다

4 ‘홍사용 문화거리’ 조성 또는 이곳에서의 문화예술 활동에 관한 제안이나 바라는 것이 있으면 자유롭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문에 응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홍사용 문화거리 활성화 전략 수립을 위한 지역주민 간담회 1차 회의록 (노작마을①)

주민조직명	노작마을 대표자 간담회
일시 및 장소	2020년 10월 23일 (금) 화성시 동탄 노작마을
참 석 자	화성시문화재단 여병현 차장, 유 희 연구원 노작마을 : 노작마을 발전위원회 회장, 사랑회 회장, 부회장, 총무
회의 내용	○ 홍사용 문화거리 조성사업 공유 및 의견청취 - 홍사용 문화거리에서 노작홍사용문학관-미디어센터-동탄복합문화센터로의 T 축에서 노작마을까지의 연계 방안 탐색 - (주요의견①) ‘노작 홍사용’의 호(號)를 마을의 명칭에 표기하고 있으며, 사업대상지와 인접하므로 추후 사업진행시 ‘홍사용 문화거리’, ‘홍사용 문학관’-‘홍사용 문학제’, 나아가 ‘홍사용 문화거리’와의 연계에 당위성 존재 - (주요의견②) 상호 연계에 있어서 ‘T’자 축에 대한 변경 등 직접적인 사업대상지의 확장이 아닌, 선큰공원 일대의 ‘홍사용 문화거리’와 ‘노작마을’ 각각이 고유의 분위기를 유지하되 홍보 및 일부 행사·콘텐츠를 공유하고 발전시키는 방안 제시 ○ 노작마을 현황 공유 및 장군바위 방문 - 노작마을 내 240여개소의 상가 및 다양한 품목의 공방이 존재하지만 코로나-19 이후 사업유지에 지속적인 타격이 있어 예약을 통한 인원제한 수업 등으로 대체 운영 - (주요의견③) 노작마을은 운영위를 중심으로 마을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현재 상징물 및 주차장 조성 등 활성화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추후 화성시 문화재단 및 공공주체와의 지속적인 소통 및 콘텐츠 발굴이 필요함 - 노작 홍사용의 작품 ‘나는 왕이로소이다’에 등장하는 ‘장군바위’가 노작마을에 위치하고 있으며, 현재는 관리가 부실한 상태로 추후 이에 대한 홍보 및 관리 필요성 제기 ○ 공방운영주체 포함 노작마을 2차 간담회 일정 협의 - 노작마을 운영에 참여하는 일부의 대표자뿐만이 아닌 공방 운영주체들에게 사업 내용을 공유하고 향후 운영방안 및 콘텐츠 논의를 위한 2차 간담회 일정 협의

홍사용 문화거리 활성화 전략 수립을 위한 지역주민 간담회 2차 회의록 [노작마을②]

주민조직명	노작마을 공방 운영주체 및 대표자 간담회
일시 및 장소	2020년 10월 26일 (월) 화성시 동탄 노작마을
참석자	화성시문화재단 여병현 차장 외 2인 노작마을 : 노작마을 발전위원회 회장, 사랑회 회장, 부회장, 총무 및 공방 창작자 일동
회의내용	○ 홍사용 문화거리 조성사업에 따른 노작마을 공방사업자 의견청취 -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대부분 품목의 공방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홍사용 문화거리' 조성 후 인근 공방들과의 프로그램 및 콘텐츠 발굴에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됨 - (주요의견①) 홍사용 문화거리 활성화 방안을 연구함에 있어 공방 등 창작주체만의 협업이 아닌 카페·음식점·의류점 등 다양한 업종의 참여를 고려하여 네트워크를 통한 상생을 기도해야 함 ○ 홍사용 문화거리-노작마을 간 연계사업방안 논의 - (주요의견②) '홍사용 문화거리'와 연계를 희망하는 노작마을의 공방·카페·음식점·기타 업종에 대해 네트워크 참여에 대한 수요조사 선행 후 공동의 활성화방안 모색을 통해 다양한 사업 추진가능 - 네트워크 참여 사업자에 [With 홍사용 문화거리(가칭)]와 같은 명패·스티커를 통해 공동체성을 부여하고, 인근 축제 및 행사 개최 혹은 상시 모두에 대해 바우처나 공동쿠폰·연계할인, 스탬프 방문자 할인 프로모션 등 상생의 방안 모색 가능 * 예시) [With 홍사용 문화거리]회원공방④ 체험 → [With 홍사용 문화거리]회원공방⑥ 체험 할인쿠폰 또는 [With 홍사용 문화거리]회원카페 음료할인쿠폰 지급 ○ 기타 고려사항 - (주요의견③) 다른 지역에 비해 거주민의 연령대가 낮은 동탄신도시의 특성에 맞추어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고려가 요구 - 노작마을은 2019년 동탄국제고, 홍익디자인고, 봉담고 등 인근 고교의 동아리와 함께 '노작마을 살리기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동아리별로 마스코트, 스탬프 투어 등의 콘텐츠와 프로젝트 홍보를 진행하였음 - 이에 향후 사업의 공모 혹은 콘텐츠 개발에 청소년의 참여·홍보방안을 모색하여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받아들이고 다양한 연령층의 유입을 목표해야 함

홍사용 문화거리 활성화 전략 수립을 위한 현장답사 수원 행궁동 벽화거리

사업(거리)명	수원 행궁동 벽화거리(마을)
일시 및 장소	2020년 10월 17일 (토) 수원 행궁동 벽화거리
방 문 목 적	선진지역 현장답사 및 전문가 간담회를 통한 시범사업 구상
방 문 결 과	○ 행궁동 벽화거리 사업담당자 면담 1) 면담개요 - 면담장소 : 대안공간 눈 - 참석자 : 마을기업 행궁숨씨 대표 조각가 이운숙 - 화성시 문화예술과 김진아 주무관, 이예랑 주무관 - 화성시 문화재단 허명범 팀장, 여병현 차장 - 외부 전문가 김래환(조각가), 김태선(작가, 문학평론가) - 위촉연구원 유희 2) 추진결과 - 지역 역사 흔적을 문화예술과 접목 : 역사의 흔적을 보존하며 새로운 것들과 함께 발전 : 마을의 뿌리를 주민들에게 알려 자연스럽게 정주의식을 형성하는 콘텐츠 개발 - 지역주민과 지역 예술가의 소통 강조 : 지역주민 스스로가 예술가가 되어가는 과정이 문화거리의 핵심이며, 주민이 예술과 익숙해지고 생활화될 수 있도록 지역작가들과의 소통창구가 필요함. - 이 때 거점시설의 역할이 매우 중요 : 지역의 학교와 연계한 교육프로그램 추진 - 사람이 모일 수 있는 공간 조성 : 주거밀집지역의 특성을 살려 사람들이 함께 모여 교류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공간 조성 : 화성시의 노작홍사용 문학관에서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거리로 연계되어 진행하는 방안의 모색이 요구됨 : 지역의 젊은 작가들에게 거리의 공간을 활동영역으로 제공하여 창작활동과 예술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함

3) 참고자료



홍사용 문화거리 활성화 전략 수립을 위한 현장답사 인천 문화예술특화거리조성사업 <점점점>

사업(거리)명	인천광역시 문화예술특화거리 조성사업 : 시범사업 <점점점>
일시 및 장소	2020년 11월 07일 (토) 인천광역시 개항장 일대(인천 아트플랫폼~신포사거리 인근)
방 문 목 적	인천 문화예술특화거리 조성사업 프로젝트 현장답사를 통한 콘텐츠 발굴 및 활성화방향 모색
방 문 결 과	○ 인천문화재단 사업담당자 면담 1) 면담개요 - 면담장소 : 옹노(인천광역시 중구 개항로 7-4) - 참석자 : 화성시문화재단 허명범 팀장, 유 희 연구원, 인천문화재단 창작지원부 주현수 2) 면담내용 - 인천문화재단에 따르면 2019년에 시작된 <점점점> 사업은 인천의 문화예술인들에게 작업공간과 프로젝트 소요비용 등 직간접적인 지원을 통하여 인천의 문화예술생태계를 질적으로 성장시키려는 시도임 - <점점점> 사업 진행에 있어 인천광역시와 인천문화재단은 유기적인 관계로 사업내용을 공유하고 사업내역을 점검하여 시범사업의 완성도를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음 - 현재 신포역 일대를 중심으로 1-2기에 걸쳐 선정된 8개의 프로젝트팀이 활동하고 있으며, 점차 <점>을 늘려갈 계획임 - 부평권 역시 인천 문화예술특화거리의 사업대상지로 사업방안을 모색중이며, 2차년도에 걸친 지원사업 종료 이후 각 <점>들의 자생을 위한 장기적인 지원방안을 고려하고 있음 - 문화예술인들의 원활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하여 시민에게 상시적인 개방을 하지 않으나, 거점별 시민대상 프로그램 및 상·하반기 결과발표회 진행을 통해 시민과 예술인의 교류를 유도함 - 코로나-19로 인한 대응으로 언택트 프로그램인 유튜브를 통한 <점점점 라디오(2회)>를 통해 사업에 참가한 예술가의 의견을 시민과 공유할 계획임 - 인천문화재단이 문화예술특화거리 조성에 있어 시범사업으로 <점점점>을 진행하게 된 배경으로 지역문화예술인들의 의견 수렴을 꼽을 수 있으며, 향후 다양한 시도를 통해 인천시의 문화자치역량 강화에 기여하고자 함

3) 참고자료

| 자료 1 | 인천문화재단 <점점점> 사업 담당자 면담



| 자료 2 | 좌측부터 <점점점> 전체 브로셔, <점1>영일상회 인천점, <점7>중구난방 프로그램 결과물

「홍사용 문화의 거리」 활성화 전략컨설팅 전문가 자문단 서면자문요청서 1·2차

- 개 요 : 거리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자문요청서(*서면)
- 작성방법 : 아래 제시된 주요의제 내용 중 택 1하여 붙임 「서면 자문 의 견서」 작성 후 이메일 회신
- 주요의제

거리 활동을 위한 수용태세
- 행사 및 퍼포먼스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가? - 대상지 내에 독특한 이벤트, 축제 등이 개최되거나 예정에 있는가? 혹은 어떠한 이벤트, 축제 등이 필요한가? - 해당 거리는 문화의 거리를 구성하는데 어떤 측면의 보강이 필요한가? <i>ex) 디자인 개선 제안, 지표체계 구축 등</i>
주변 인프라의 활용가능성
- 거리 주변의 전문 상업시설, 복합문화시설 및 조경상태, 연계가능한 자원은 무엇인가? <i>ex) 신라스테이, 노작홍사용 문학관과 어떤 활동을 연계할 수 있을 것인가?</i>
인접거리와 연계성
- 보행체계 속에서 인접한 다른 거리와 연계시 어떤 장·단점이 예상되는가?
참여주체간의 결합 및 의사체계
- 거주민과 창작자들이 자발적·장기적으로 활동할 환경이 되는가? 혹은 대안이 무엇인가? - 상업주체(상인회)의 의지는 어떠한가? 혹은 대안은 무엇인가? -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의 분업·협업의지는 어떠한가? - 참여주체간의 활동이 조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 혹은 대안은 무엇인가? - 참여주체간의 의사결정체계는 어떻게 이루어지며, 이에 상향식(주민참여식) 의사전달이 가능한 구조인가? 혹은 대안이 무엇인가?
지역성 실현정도
- 지역의 지역성, 지역문화 등이 어느 정도 문화의 거리에서 실현될 수 있는가? 혹은 대안이 무엇인가?
활성화의 가능성
- 로드맵의 단계별 목표는 명확하고 실현가능한가? 로드맵에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사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거리 주제의 대표적 이미지를 반영하고 있으며 랜드마크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가? - 해당사업을 통해 사업목표(정주의식 고취, 주민의 문화향유 증진)를 달성할 수 있는가? - 향후 문화의 거리의 지속적인 운영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어떤 방안이 필요한가?

홍사용 문화거리 활성화 전략 수립을 위한 콘텐츠 제안 자문위원 제안사업(안)

자문위원명	김래환 (1차)
의제명	거주민-창작자 자발적·장기적 활동 지원방안
○ 홍사용 문화의 거리 경관조성에 따라 문화예술을 통한 거리 활성화를 위해 서는 신도시 거주민과 창작자-예술가간의 지속적인 활동을 통한 문화적 공동체 형성을 위한 활동방안의 모색이 필요 ○ 화성시에 현재 거주중인 예술가들의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 ○ 실제로 순수 예술가들이 시민들과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는 범위는 체험을 제외하면 매우 제한적임 ○ 예술가와 시민이 공동으로 조형물 혹은 전시작품을 만들어 고가 하부공간 동선을 갤러리화 가능 ○ 예를 들어 전시작품의 건설에 시민들이 원하는 재료와 형태를 제안하면 형성 과정에 있어서 예술가가 조형성을 뒷받침해주어 실제적인 구현을 공동으로 작업할 수 있음 - 동탄의 상징적인 캐릭터인 ‘코리요’, 혹은 노작 홍사용의 문구 등 구현 가능한 작품의 주제범위는 매우 폭넓음 - 시민들은 작품의 주제에 대한 제안을 할 수 있으며, 조형작품의 재질 및 수량, 크기 등에 대해 예술가와 함께 의논할 수 있음 - 예술가는 시민들의 제안을 수용하며 제작 가능성을 구체화하고, 실제 작품의 조형적인 요소를 담보함 ○ 다음으로 경관조성 중 문화의 거리 내에 안내표시판의 설치하여 시민들의 유입을 인도할 수 있으며, 이 표지판 역시 시민들의 참여가 가능함 - 시민들의 참여로 만들어질 수 있는 표지판은 안내의 기능과 동시에 시민의 참여를 통하여 거리에 대한 주인의식-나아가 정주의식 형성에 기여할 수 있음 - 참여자의 연령 역시 예술가와 공동으로 작업 할 경우 성인 뿐만 아니라 자녀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음 - 예술가와 시민의 자연스러운 교류와 공동의 작업을 통해 소통의 기회로 작	

용할 수 있음.

- 또한 한편으로는 창작자의 순수 창작품을 전시와 작가와 시민이 공동으로 만들어낸 새로운 작품의 창작이 양면으로 이루어 질 수 있음.
- ‘포항 스틸 아트 페스티벌’의 경우 철을 주제로 실제 포항제철에서 근무하는 용접공 등 작업자의 결과물이 전시되며, 이는 참여자들을 단순한 노동자에서 창작자로의 경험을 선사

홍사용 문화거리 활성화 전략 수립을 위한 콘텐츠 제안 자문위원 제안사업(안)

자문위원명	김래환 (2차)
사 업 명	공공예술 프로젝트를 통한 주민-창작자간 자발적·장기적 활동환경조성
사 업 유 형	※ 해당부문에 ✓ ✓ 문화예술 ✓ 공동체 형성 ☐ 공모사업 ☐ 홍보사업 ☐ 기 타
[사업목표] : 홍사용 문화거리 공공예술프로젝트를 통한 동탄신도시 거주민의 정주의식 고취 ○ 이주민으로 구성된 젊은 신도시에서의 정주의식은 ‘살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우리 동네’의 개념이며, 동탄 신도시 거주민과 예술인(창작자)간의 공동 프로젝트를 바탕으로 지역의 이야기를 예술로 구현하고, 전시되는 과정을 통해 공동체 개념 형성이 가능함 ○ 전문가가 창작하는 공공예술(Public Art)의 개념이 아닌 공동체 예술(Community Art) 방식의 안내표지판 제작으로 홍사용문화거리와 다른 구역 간의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주민에게 지역의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예술참여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음 [사업내용] ○ 과업은 [홍사용 문화거리 안내표지판 만들기] 사업과 [동탄의 이야기를 담은 홍사용 문화거리 조형물 만들기]의 두 가지로 구성이 가능하며 모든 과정은 시민참가자의 의제설정과 작가의 사전기획이 공통적으로 적용됨 ○ 공공예술 프로젝트의 주제가 되는 지역의 이야기는 ‘노작 홍사용 및 작품’, ‘코리요’ 등의 주제선정과 표현도구 ‘숯-탄요유적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폭을 가짐 ○ 주로 일회성으로 그치는 체험에서 나아가 시민참여 결과물이 홍사용 문화거리에서 공공미술 작품으로 전시될 수 있도록 작가의 사전 기획 및 현장 코디 진행 - 지역과 거리의 특색을 반영한 디자인과 재료, 방식 등이 결합돼 시민의 호기심과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미술작업으로 진행 ○ 시민참여 작품 홍사용문화거리 전시 - 프로그램 종료 이후 홍사용문화거리 일대에 시민참여 작품을 공공미술 작품으로 전시진행 - 작품을 기획·진행한 작가-참여 시민의 이름을 함께 안내 패널에 소개하여 소속감 고취 - 세부내용은 ‘홍사용 문화거리’ 시민참여프로그램 참가자의 의견을 취합하여 구성 ※ 주제, 재질, 형태, 표현방식 등은 예술가-시민간의 소통을 바탕으로 세부화	

[추진방안]

- 사업의 추진방안은 아래와 같으며 참여대상은 동탄신도시 거주민을 우선으로 선발함

작가(예술가)선정, 프로젝트 시민참가자 모집	▷	작가 사전기획 소개, 프로젝트 참가자 교육·세부추진방안 논의	▷	프로젝트 수행, 작품 설치 및 전시
-----------------------------	---	--------------------------------------	---	------------------------

[기대효과]

- 동탄신도시 거주민들에게 축제 및 행사에서의 일회성 예술참여가 아닌 ‘예술가, 이웃과 함께’ 그리고 ‘거주민 스스로’ 거리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통해 자연스러운 소통과 공동체 형성, 나아가 홍사용 문화거리 활성화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음
- 한편, 기능적인 측면에서 안내표지판의 설치는 홍사용문화거리-동탄복합문화센터 및 미디어센터, 노작문학관, 반석산 산책로-노작마을에 이르기까지의 정보를 제공하여 방문객들의 편의를 제고할 수 있음

홍사용 문화거리 활성화 전략 수립을 위한 콘텐츠 제안 자문위원 제안사업(안)

자문위원명	김태선(1차)
의제명	주변 인프라의 활용가능성
○ 신라스테이 및 라마다 호텔 등 홍사용 문화의 거리와 가까운 곳에 있는 시설의 이용에 관한 건(노작홍사용문학관과의 연계) - 홍사용 문화의 거리 활성화와 관련해 중요한 시설 중 하나는 노작홍사용문학관이다. 노작홍사용문학관에서는 자체적으로 문인들을 초청하여 화성 시민들을 대상으로 창작 및 인문 강좌 등 다양한 문예 강좌를 진행하고, 팟캐스트와 유튜브 채널 등의 방송, 시민극단인 산유화 극단의 지원 등의 사업을 펼치고 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은 문학관에 자체적으로 레지던스 시설을 갖추지 못해 작가가 거주하며 진행하는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기획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가령 원주시에 자리한 토지문화관(박경리 작가 설립)의 경우도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임에도 레지던스 시설을 갖추고 있어 다양한 장르의 문인들이 지내며 창작 활동을 하고 문화관 내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지역 문화의 발전과 향유에 기여하고 있다. - 이 지점에서 제안하고 싶은 내용은, 홍사용 문화의 거리와 가까운 곳에 자리한 신라스테이라든가 라마다 호텔 같은 주변 인프라를 활용한 레지던시 프로그램이다. 실제로 서울의 남산 인근에 자리한 호텔 프린스의 경우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협력하여 소설가의 방이라는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매해 선정된 6인의 소설가로 하여금(1인당 2개월 거주) 작품(단편 소설) 한편을 완성할 수 있도록 집필을 위한 공간과 숙식을 지원하고 있으며, 북콘서트 등의 다중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완성된 작품들을 모아 책으로 엮어 출간하기도 한다. - 화성시문화재단에서도 홍사용 문화의 거리 주변에 위치한 호텔 등과 제휴하여 레지던시 공간을 마련할 수 있다면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할 수 있다. 북콘서트나 낭독회와 같은 1회성 행사는 물론,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창작과 인문학을 비롯한 강좌, 문학이나 글쓰기 등을 매개로 한 상담 및 커뮤니티 프로그램 등 연속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 작가들과 시민들의	

다양한 형태의 교류를 추진할 수 있다. (북콘서트나 낭독회 외에도, 여러 작가들을 초청하여 시민들과 함께 산책하며 문학과 삶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등 다양한 형태의 소통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다.) 또한 노작홍사용문학관을 비롯해 한국문학번역원 등과 협력하여 해외 작가를 초청하여 심포지움이나 ‘작가와의 대화’와 같은 프로그램을 개최할 수도 있고, 일정 기간 거주하며 화성시를 대로 하는 작품 집필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추진해볼 수도 있을 것이다.

- 호텔과 같은 숙박 시설 외에도 홍사용 문화의 거리에서 이용 가능한 공간이 있다면, 그와 같은 곳들을 다양한 장르에서 활동하는 작가들의 작업실로 활용케 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동탄복합문화센터의 공간 및 상가 지역의 공실 등). 해당 작업실 등을 거점으로 작가 개인이나 팀을 대상으로 시민과 교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공모하여, 작가와 시민들을 매칭하여 활동하게 하는 것이다. 가령 서울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연희문학창작촌에서는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기도 하지만, 작가와 시민들이 함께 활동하는 프로그램을 공모하여 진행하기도 한다. 한 예로 연희문학창작촌에서는 문학 작품에 등장하는 요리를 참가자들이 작품을 읽고 직접 요리를 만드는 강좌를 진행하기도 하였고, 문학촌과 그 인근을 다니며 사진 촬영을 하고 이를 문학과 접목하여 활동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하였다. 홍사용 문화의 거리에서도 단순히 참여자들이 청취만하는 일방향의 프로그램이 아닌, 문학을 매개로 직접 움직이고 무언가를 만드는 프로그램들을 발굴하거나 공모하여 진행할 수 있다면, 시민의 참여와 만족도 높을 것이고 이를 바탕으로 자생적인 커뮤니티가 나타날 것을 기대할 수도 있다. (책 혹은 공책 만들거나 독서와 관련된 소품을 직접 만드는 체험 프로그램, 홍사용을 비롯한 화성 지역 출신 작가들의 작품을 바탕으로 시민들이 함께 작은 단막극이나 영상물을 만드는 프로그램 등) 축제 기간과 같은 짧은 기간 동안 단속적으로 일어나는 행사도 좋지만, 시민들의 일상에 스며들 수 있도록 연속적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을 늘리는 것이 거리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홍사용 문화거리 활성화 전략 수립을 위한 콘텐츠 제안 자문위원 제안사업(안)

자문위원명	김태선(2차)
사업명	시민 기억의 책거리 만들기(가칭)
사업유형	※ 해당부문에 ✓ ☒ 문화예술 ☒ 공동체 형성 ☐ 공모사업 ☐ 홍보사업 ☐ 기 타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나’와 지역의 이야기를 다양한 장르의 예술 작품을 만들어 거리에 설치 -> ‘화성 시민의 이야기가 담긴 책’이라는 테마의 아카이브를 홍사용 문화거리에 구축 ○ 자신의 이야기가 담긴 작품을 통해 정주 의식 및 공동체 의식 함양 ○ 노작 홍사용 선생이 <청산백운> 등을 비롯하여 여러 작품으로 고향 돌모루(동탄 석우리)의 산천에 관한 이야기를 남긴 것처럼, 시민들로 하여금 직접 자신과 지역의 이야기를 예술 작품으로 남길 수 있는 교육과 기회를 제공 2 사업(행사)개요 ○ 기 간 : . . . ~ . . . 수시 ○ 장 소 : 홍사용 문화거리 및 노작홍사용문학관, 동탄복합문화센터, 미디어센터 등 관계 기관 연계 ○ 참여(수혜)대상 : 화성시민, 참여작가, 관계 기관 등 ○ 사업내용 - 화성시민이 자신과 지역의 이야기가 담긴 예술 작품 및 공예품을 거리에 설치 및 전시하여, ‘시민의 이야기가 담긴 책’이라는 테마의 아카이브를 구축. 이렇게 구축된 아카이브 자체가 다시 시민들을 교류케 하면서 다른 이야기를 파생시키는 프로그램. - ‘나와 지역의 이야기’를 표현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예술 장르)의 교육으로 시작하여 작품 만들기, 홍사용 문화 거리에 설치하기 등 단계별로 프로그램 수행. - 노작홍사용문학관, 동탄복합문화센터, 미디어센터의 시민 참여 예술 교육 프로그램을 활용. 기존 프로그램을 ‘나와 지역의 이야기’ 만들기에 맞게 변형하여도 좋고, 신규로 개발하거나 예술가 개인 혹은 단체의 공모를 받아 진행하여도 좋음. - 교육 프로그램이라는 형태로 자연스럽게 강사(혹은 작가)와 시민들을 매칭, 나아가 수강생들이 자연스럽게 커뮤니티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 -> 오제열 감독이 제안한 ‘홍사용 문화의 마을’이라는 가상의 마을 입주민 및 단위의 토대 만들기.	

- 다양한 유형의 작품(글, 회화, 조형, 사진, 영상, 공예품 등)으로 '나와 지역의 이야기'를 홍사용 문화 거리의 일정한 터에 설치(전시)하는 것이 1차 목표.
- 지속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설치 작품이 포화상태에 이르거나 하는 등 교체 요인이 발생할 경우 사진과 영상의 형태로 기록을 남기는 일을 통해 아카이브 작업을 이어가고, 또 새로운 작품들을 설치하는 등 거리의 이야기를 계속 갱신하는 작업도 필요.

3. 기대효과

- 시민들이 콘텐츠를 생산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정주 의식과 공동체 의식을 함양함과 동시에 자연스럽게 홍사용 문화거리의 활성화가 자생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 '나의 이야기' 만들기라는 개인 작업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이야기를 발굴 및 공유하는 일을 통해 커뮤니티 형성뿐만 아니라 동탄 지역의 새로운 역사 만들기과 아카이브 구축도 함께 이루어질 수 있음. 시민들에게 다양한 문화예술을 능동적으로 향유할 수 있게 함.

4. 관련사진



*사진 출처: 용인시 공식 블로그(<https://blog.naver.com/govlrodtnr/221956643144>)

- 풍덕천2동 벚꽃축제 어린이 그림 그리기 대회 수상작으로 만든 벽화(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 2동 정평천 하천길 다리 하부 공간) : 2015년도 그림부터 차례로 전시되어 있는 공간. 직접 지역 시민이 참여한 작품을 전시하는 것만으로도 이야깃거리를 제공. 실제로 산책을 하면서 벽화 그림이 자신이 그린 그림이라며 동행하던 친구에게 이야기하는 청소년을 목격한 일이 있음.

홍사용 문화거리 활성화 전략 수립을 위한 콘텐츠 제안 자문위원 제안사업(안)

자문위원명	오 제 열(1차)
의 제 명	거리 활동을 위한 수용태세
○ 홍사용 문화의 거리는 직선 형태로 차도보다 낮게 조성되어 있으며 거리 양쪽으로 상가와 오피스텔이 배치되어 있어 소음이 발생하는 공연 형태의 행사보다는 거리를 활용한 전시 및 체험 형태의 행사가 용이하다고 판단된다. ○ 기존의 진행되었던 예술시장과 같은 형태의 체험 및 교류형 예술축제가 홍사용 문화의 거리에서 적합한 축제라고 생각된다. 홍사용 문화의 거리 전체를 사용하는 대규모 행사보다는 홍사용 문화의 거리를 중심으로 공간을 나누어 공간의 기능과 성격에 맞게 소규모 행사 또는 상설 체험을 연간 계획을 세워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예를들어 벽화(그래피티)작업이 진행되는 공간을 중심으로 거리 미술제와 같은 행사를 진행하고 차도 지하에 조성되는 미디어를 중심으로 미디어 아트와 접목하여 년별 퍼포먼스가 이뤄지면 한다. 또한 책을 기반으로 하는 북 콘서트 및 북 아트 체험 등을 운영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된다. ○ 현재 공실로 운영되지 않은 상가를 임대인들과 협의하여 단기 임대 형태로 예술가들에게 창작의 공간과 상설 예술 체험 공간으로 활용 할 수 있게 제공되어 지는 것이 필요하다. ○ 폭이 넓은 거리의 형태이기에 행사 또는 공간 활용에 집중도가 떨어진다고 판단된다. 파티션 형태 또는 미니 부스 형태로 골목길과 같은 작은 길을 만들어서 콘텐츠에 집중 할 수 있게 조성되었으면 한다. 작은 길들이 연결되어 큰길로 만나고 그곳에 모일 수 있는 미니 광장이 형성되었으면 한다. ○ 홍사용 작가의 도전과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예술가들의 창작물을 펼쳐 놓으며 실험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되며 주민들에게는 예술을 체험하고 예술가와 교류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되었으면 한다.	

홍사용 문화거리 활성화 전략 수립을 위한 콘텐츠 제안 자문위원 제안사업(안)

자문위원명	오제열(2차)
사 업 명	홍사용 온라인 창작 마을 조성 (버추얼 빌리지)
사 업 유 형	☐ 문화예술 ☒ 공동체 형성 ☐ 공모사업 ☐ 홍보사업 ☐ 기 타
○ 사업 내용 및 개요 - 명 칭 : 홍사용 온라인 창작 마을 조성 - 목 적 : 홍사용 문화 거리 활성화를 위한 시민 문화 거버넌스 형성 - 내 용 : 홍사용 문화 거리에 참여할 시민 모집 및 온라인 시민 네트워크 구축 - 방 안 : 가. 홍사용 온라인 창작 마을 플랫폼 구축 나. 창작 활동이 가능한 홍사용 문화 거리 및 공간 확보 다. 창작마을 운영 단체 및 시민 모집 라. 창작 마을 프로그램 운영자 공모 및 선발 마. 창작 마을 프로그램 참여자 및 가상 마을 주민 모집 - 기대효과 가. 홍사용 문화 거리 활성화를 위한 시민 문화 거버넌스 형성 나. 홍사용 문화 거리 프로그램 운영자 와 참여자의 매개체 역할 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SNS 홍보 강화 라. 팬데믹 시대에 가상 시민 문화 공동체 마을 모델 제시	

자문위원명	오제열(2차)
사 업 명	유희 공간을 활용한 문화 예술 교육 지원 사업
사 업 유 형	☒ 문화예술 ☐ 공동체 형성 ☐ 공모사업 ☐ 홍보사업 ☐ 기 타
○ 사업 내용 및 개요 - 명 칭 : 유희 공간을 활용한 문화 예술 교육 지원 사업 - 목 적 : 지속적인 문화 예술 교육을 통한 문화 재생 및 거리 활성화 - 내 용 : 홍사용 문화 거리 주변 유희 상가를 활용한 문화 예술 교육 지원 사업 - 방 안 : 가. 홍사용 문화 거리 유희 공간 확보를 위한 설명회 실시 나. 문화 예술 교육 활동 공간 확보 다. 문화 예술 교육 활동가 모집 및 선발 라. 문화 예술 교육 지원 프로그램 확정 마. 문화 예술 교육 대상자 모집 및 교육 실시 - 기대효과 가. 문화 예술 교육을 통한 유희 공간 활성화 나. 지역 문화 예술인 활동 지원 강화 다. 시민에게 문화 예술 교육 기회 제공 라. 문화 예술을 통한 시민 문화 예술 네트워크 구축	

자문위원명	오제열(2차)
사 업 명	홍사용 창작 축제 공모 사업
사 업 유 형	☐ 문화예술 ☐ 공동체 형성 ☒ 공모사업 ☐ 홍보사업 ☐ 기 타
○ 사업 내용 및 개요 - 명 칭 : 홍사용 창작 축제 공모 사업 - 목 적 : 공모를 통한 시민 주도형 창작 축제 개발 - 내 용 : 홍사용 창작 정신을 반영하고 홍사용 거리를 활용한 시민 창작 축제 공모 사업 - 방 안 : 가. 홍사용 문화 거리와 홍사용 창작 정신을 소개 나. 홍사용 문화 거리를 대상으로 한 시민 창작 축제 공모 다. 화성시 및 화성시문화재단 문화 기획 과정 수료자 대상 홍보 진행 라. 시민 창작 축제 심사 및 선정 마. 선정된 창작 축제를 대상으로 전문가 멘토링 실시 바. 시민 주도형 창작 축제 실행 및 평가 - 기대효과 가. 홍사용 문화 거리 활성화를 위한 축제 콘텐츠 발굴 나. 화성시 및 화성시문화재단 교육사업과 연계 효과 다. 창작 축제 공모를 통한 홍사용 문화 거리 홍보 확대	

홍사용 문화거리 활성화 전략 수립을 위한 콘텐츠 제안 자문위원 제안사업(안)

자문위원명	이 현 선
의 제 명	종합의견
1. 거리 활동을 위한 수용태세 - 센트럴파크와 같이 거리 모두가 축제와 다이나믹한 활동이 활발한 양(+)적 공간이 되어야 한다는 필요보다는 조용하고 사색의 활동이 가능한 음(-)적 공간도 함께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거리전체에 관한 '통일된 무드'보다는 다양한 활동을 수용하는 '종합적 무드'라는 관점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2. 주변 인프라의 활용가능성 - 동탄을 방문한 사람에게 보여주는 일상에서의 삶의 질, 일상에서 경험하는 녹색공간의 여유(동탄의 녹색축을 고려하여 말함) 등을 생각해 홍사용 거리는 '도시의 로하스' 정도의 무드를 가지면 좋겠음 - 신라스테이가 후원하는 젊은 문학인의 밤 행사 등을 추진하고, 이어지는 흐름으로 전시공간과 이색적인 카페, 간단한 만들기를 체험할 수 있는 공방 등이 주위 빈 점포를 활용해서 이루어지면 좋겠음 3. 인접거리와 연계성 - 아래로 내려다보인다는 위치를 장점화하고, 위에서 아래로, 또는 아래에서 위로 이동하는 시선의 변화체계를 고려한 시각과 후각 등 감각적 체험이 있어서 새로운 공간으로 이동한다는 '전이공간' 경험이 있으면 좋겠음 4. 참여주체간의 결합 및 의사체계 - 기존의 조직과 우선 타진해보려는 방식보다는 거리를 활용하고자 하는 사람 또는 거리에 와졌으면 하는 사람을 발굴하는 방식(공모나 추천 등)을 통해서 거리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이벤트를 셋팅하고 이를 기존 조직들과 협업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음 5. 지역성 실현정도 - 지역내 또는 인근 지역의 문화관련 동아리, 조직 등 자원들을 활용하는 방안 필요(어울림센터, 문화재단, 교육기관, 종교시설 등 동아리) - 텍스트가 주는 즐거움을 느끼는 거리 - 신도시에 문화는 있는가	

- 남에게 보여주는 문화보다는 문화향유계층을 늘려가는 방식, 함께 성장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방식자체가 지향점인 곳
- ‘어둠속에서 우리는 하나가 된다’는 홍사용 선생님의 이야기

6. 활성화의 가능성

- ‘거리 운영위원회’를 결성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필요함
- 초기에는 공공이 주도하고, 점차 민간에게 위임하는 방식 검토
- 빈점포를 매개로 매력적인 창작인들을 끌어들이는 방식 검토(시민자산화, 공동체 공간지원정책 등 마을만들기, 도시재생, 사회적경제 등의 분야와 협업 필요, 화성시의 관련 시범사업 필요)

홍사용 문화거리 활성화 전략 수립을 위한 콘텐츠 제안 자문위원 제안사업(안)

자문위원명	전 영 옥(1차)
의 제 명	인접거리와 연계성
1. 현황 ○ 동탄 센트럴파크 주변 버스노선, 주차장 등의 현황을 볼 때, 보행자들을 끌어들이기 어려운 조건을 가지고 있음. - 광역노선 및 주요노선 버스는 동탄중앙로 환영교에서 정차하고 있으며, 자동차로 이동하는 방문객들을 위한 주차장은 센트럴파크 4거리(식당가)에 위치하고 있어 보행자들의 동선을 대상지(홍사용 문화의 거리)까지 끌어들이기 어려운 상황임. - 대상지인 노작로에 정차하는 버스들은 마을버스로서 미디어센터, 에코스쿨, 반석산 등을 이용하려는 승객들이 정차하는 장소 - 특히 대상지가 선크가든 형식이어서 계단이나 승강기를 통해 내려와야 하므로 목적성이 없이 우연히 지나가는 사람들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임	
 <홍사용 문화의 거리 주변 대중교통 및 주차장 현황> <메타폴리스(중) 버스정류장>	

구분	버스번호	기점	종점	비고
광역	4108	나루미울.월드반도	서울역	
광역	4403	월드반도	신분당선.강남역	
광역	8501	수원대학교	강남역	
광역	M4108	나루미울.월드반도	서울역버스환승센터	
광역	M4403	월드반도	강남역	
일반	7-1	동탄차고지	광교공원.경기대입구	
일반	9	지곶동대림아파트	동탄역	
일반	62-1	동탄차고지	LG빌리지3차아파트	
일반	98	이목동차고지	한화꿈에그린	
일반	116-1	정지역	갈곶동	
일반	708	화성운수차고지	병점역사거리	
일반	712	LH4단지	병점역사거리	
일반	1001	동탄2차고지	현대기아연구소	
일반	H67	동탄2차고지	항남환승터미널	센트럴파크 경유
일반	64	동탄차고지	안양역	
일반	H65	동탄2차고지	화성시청	화성미디어센터.센트럴파크 경유
마을	H4	병점역	동탄2차고지	센트럴파크 경유
마을	12	병점역	영통역8번출구	
마을	17	병점역	동탄역(동측)	센트럴파크 경유
마을	27-2	병점역	나루고등학교	
마을	81	항남부영10.11단지	동탄역(동측)	
마을	H24	병점역사거리	동탄,2LH4단지	

<대상지(화성미디어센터) 버스정류장>

구분	버스번호	기점	종점	비고
일반	H65	동탄2차고지	화성시청	센트럴파크.메타폴리스 경유
마을	H4	병점역	동탄2차고지	
마을	17-1	병점역	동탄119안전센터	센트럴파크 경유
마을	709	서동탄역	동탄역(동측)	
마을	H5	병점역	동탄2차고지	
마을	H16	노작미울	사랑의 교회	

○ 인접거리와의 연계성은 선큰형태 및 주변 주차시설 등에 따르는 도시구조적인 문제로서 개선이 불가능한 상황이므로 유연한 문화콘텐츠 개발로 이를 극복할 필요성이 있음.

- 목적성을 가지고 대상지(홍사용 문화의 거리)까지 보행자들이 이동할 수 있는 매력성 보강과 이에 대한 홍보필요성이 있음.

2. 개선방향

- 신파극을 근대극으로 끌어올리는 데 큰 역할을 한 홍사용선생과 40~50년대 추석에 직접 연극공연을 즐겨하던 동탄주민들과 연결하여 연극을 킬러 콘텐츠로 함.
 - 연극콘텐츠에 동탄신도시 주민들의 특성인 어린이, 교육열 등을 반영한다면 동탄 주민들의 많은 관심을 끌어들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거인의 침대(아트컴퍼니 행복자), 마로니에 공원 야외무대, 201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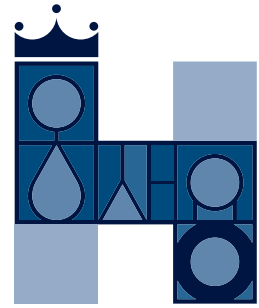
- ‘홍사용 문화의 거리’ 홍보를 겸한 동탄신도시 정체성을 살린 문화지도 배포 및 안내판 설치
 - 동탄신도시의 정체성을 만들어가기 위해 동탄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한 문화지도를 작성하고 이안에 ‘홍사용 문화의 거리’를 포함하여 홍보함.



<신장시장 문화재생사업(하남문화재단)>

홍사용 문화거리 활성화 전략 수립을 위한 콘텐츠 제안 자문위원 제안사업(안)

자문위원명	전영옥(2차)
사업명	동탄신도시 문화지도 제작
사업유형	☐ 문화예술 ☐ 공동체 형성 ☐ 공모사업 ☒ <u>홍보사업</u> ☐ 기타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동탄신도시의 문화적 정체성을 찾아 지역민의 자긍심과 공동체 활성화가 필요한 시점 ○ 동탄신도시의 문화적 자산을 표시하는 문화지도 제작을 통해 ‘홍사용 문화의 거리’홍보를 꾀함. 2 사업개요 ○ 기 간 : 2021. 03. ~ 2021. 06. ○ 장 소 : 동탄신도시 전체 ○ 참여(수혜)대상 : 화성시민, 경기도민, 동탄을 찾는 방문객 ○ 사업내용 - 시민과 함께 하는 동탄신도시 문화자원 찾기(설문지를 통해 동탄신도시의 문화자원 탐색) ✓동탄신도시의 생활권별로 구역을 나누어 설문조사를 실시 - 동탄신도시관련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숨겨진 문화적 공간(경관) 및 이야기 찾기 ✓전문가를 통해 문화적 공간 또는 계절별 문화적 경관(사진찍기 좋은 장소 등)을 찾아냄 - 동탄신도시 문화지도 작성 및 배포 3. 기대효과 ○ 동탄신도시의 문화적 자긍심 고취 ○ ‘홍사용 문화의 거리’를 비롯한 동탄신도시내 명소에 대한 홍보 ○ 문화적 공간 및 자원의 활용을 통해 동탄신도시 시민들의 공동체를 활성화 4. 관련사진  <신장시장 문화재생사업(하남문화재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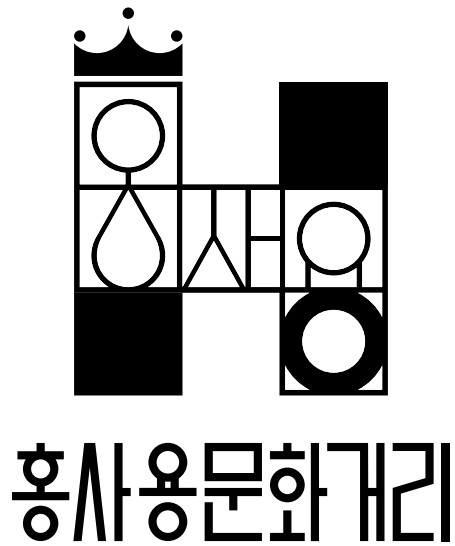
홍사용문화거리

BI

홍사용 문화거리
브랜드마크

Brandmark_Primary 브랜드마크 기본형

브랜드마크는 홍사용 문화거리브랜드를 표현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므로 일관된 이미지를 위해 사용상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며 임의로 작도하여 이미지를 손상시키지는 경우가 없어야 한다. 색상이 전달하는 의미를 알고 브랜드로고 색상을 결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비례 조정된 것이므로 크기와 글자의 굵기, 굵기, 비례, 자간, 간격, 색상변경 등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안된다.



MEAN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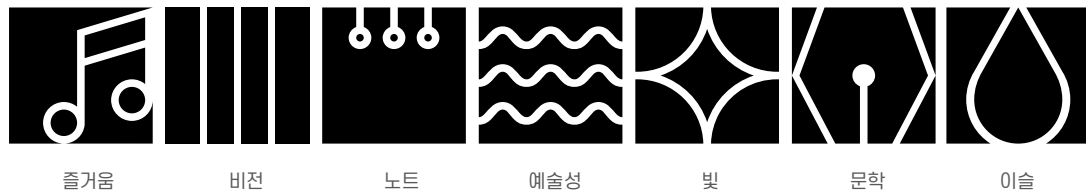
문화거리를 그들에게 각인시킬 수 있는 디자인이다. 노작 홍사용의 대표작 '나는 왕이로 소이다'의 왕관 모양의 심볼을 조합하였다. 노작 홍사용의 이름과 그의 호 '노작' ('노(露) : 이슬 로 / 작(雀): 참새 작') '이슬에 머금은 참새'를 모티브로하여 홍사용의 발자취를 통해 제안하는 '문화예술 플랫폼' 전략이다.

도시적인 느낌의 화이트와 블랙의 조화로 클래식하고 차분하며 고급스럽고 세련된 홍사용 문화거리를 나타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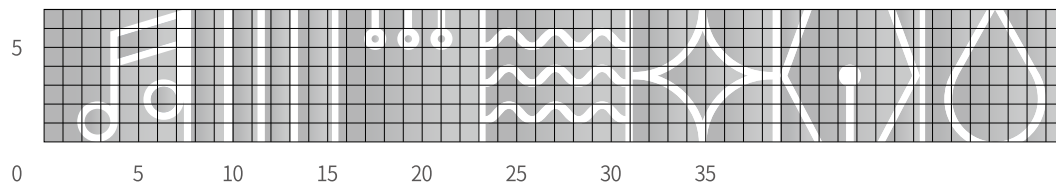
Flexible Symbolmark_Grid 플렉서블 심벌마크 그리드

플렉서블 심벌마크는 이미지를 대내·외에 표출하는 모든 시각 커뮤니케이션의 응용 상징물이다. 심벌마크의 기본 형태를 변형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하며 사용시에는 본 매뉴얼에 수록된 원고용 파일 및 화성시문화재단(www.hcf.or.kr) 홈페이지에 업로드되어있는 데이터를 축소, 확대하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응용형으로 사용 시 상황에 따라 어울리는 플렉서블 심벌마크를 적절하게 위치에 배열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플렉서블 심벌마크-기본형



| 플렉서블 심벌마크-그리드



Mock-up 실물모형



Mock-up 실물모형



2020 지역문화컨설팅 지원사업
동탄신도시‘홍사옹 문화거리’
조성에 따른 문화예술 활성화 전략 컨설팅

참 여 연 구 진

연구총괄책임	화성시문화재단	허명범
연 구 윤 영	화성시문화재단	여병현
연 구 원		유 희
연 구 원		윤서원